

〈제16회 한국고대사학회 하계세미나〉

고조선 연구의 새로운 모색

- 일 시 : 2014. 7. 18 (금) ~ 7. 19 (토)
- 장 소 : 공주대학교 산학연구원 대강당
- 주 최 : 한국고대사학회
- 후 원 : 동북아역사재단 · (주)시공테크 · 공주대학교

“이 발표논문집은 2014년도 동북아역사재단의 지원을 받아 발간되었음.”

하계세미나 1일차 일정

Ⅰ 2014년 7월 18일(금)

| 등록 12:30 ~ 13:00 |

| 개회 13:00 ~ 13:10 | 사회

정재윤(공주대학교)

개회사 임기 환(한국고대사학회 회장, 서울교육대학교)

【제1부】 고조선의 연구와 이해

김영하(성균관대학교)

제1주제 근대 '민족주의 역사학'의 고조선 인식

13:10~14:10

발 표 : 조인성(경희대학교)

토 론 : 주보돈(경북대학교)

제2주제 '만선사'에서의 고대 만주 역사 인식

14:10~15:10

발 표 : 박찬흥(국회도서관)

토 론 : 윤휘탁(한경대학교)

- 휴 식 -

12:30~13:00

【제2부】 고조선과 그 주변

송호정(한국교원대학교)

제3주제 흥산문화론

15:30-16:30

발 표 : 김정열(송실대학교)

토 론 : 이청규(영남대학교)

제4주제 戰國·秦·漢時期 遼東郡과 그 경계

16:30-17:30

발 표 : 송진(성균관대학교)

토 론 : 홍승현(한성대학교)

제5주제 『史記』·『漢書』注文의 古朝鮮 관련 記事

17:30-18:30

발 표 : 윤용구(인천도시공사)

토 론 : 박대재(고려대학교)

하계세미나 2일차 일정

Ⅰ 2014년 7월 19일(토)

【제3부】 고조선 문화의 성격 이희준(경북대학교)

제6주제 **연나라 철기문화의 확산과 「세죽리- 연화보문화」** 09:30-10:30
발 표 : 김상민(국립중앙박물관)
토 론 : 이남규(한신대학교)

제7주제 **기원전 2세기대 서북한 고고자료와 위만조선** 10:30-11:30
발 표 : 오영찬(이화여자대학교)
토 론 : 이후석(송실대학교)

- 점 심 - 11:30-13:00

【제4부】 종합토론 13:00-16:00

좌 장 : 노태돈(서울대학교)

발표자 · 토론자 · 사회자 전원

| 주제 발표 |

1. 근대 '민족주의 역사학'의 고조선 인식

조인성 (경희대학교) / 7

2. 만선사에서서의 고대 만주 역사 인식

박찬흥 (국회도서관) / 25

3. 홍산문화론

김정열 (승실대학교) / 49

4. 戰國·秦·漢時期 遼東郡과 그 경계

송 진 (성균관대학교) / 75

5. 『史記』·『漢書』注文의 古朝鮮 관련 記事

윤용구 (인천도시공사) / 105

6. 연나라 철기문화의 확산과 「세죽리- 연화보문화」

김상민 (국립중앙박물관) / 117

7. 기원전 2세기대 서북한 고고자료와 위만조선

오영찬 (이화여자대학교) / 155

| 토론 문 |

/ 173

근대 민족주의 역사학의 고조선 인식

-신채호의 『조선상고사』를 중심으로-

조 인 성 (경희대학교)

1. 머리말

1900년 전후 단군에 대한 인식이 크게 고양되었다. 이를 배경으로 1909년 나철 등은 단군을 교조로 하는 단군교(대종교)를 중광(개창)하였다. 단군은 이 시기 민족주의 운동의 키워드 중의 하나였고, 이른바 애국계몽기 이래 역사 분야에서도 단군조선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특히 신채호는 1908년 『대한매일신보』에 연재한 「讀史新論」에서 “我 東國을 開創하신 始祖”인 단군의 시대와 “檀君 嫡統의 傳次한 扶餘王朝”의 역사를 본격적으로 다루었다.¹⁾

『삼국유사』 기이 편의 고조선(왕검조선) 조에는 이른바 단군조선과 기자조선의 역사가 실려 있고, 이어 위만조선 조를 두었다. 위만조선 앞의 조선을 고조선이라고 하여 구별하였던 것이다. 현재에는 흔히 이들 3조선을 고조선이라고 통칭한다. ‘기자동래’에 의한 기자조선의 성립에 대해서는 이를 부정하는 견해가 대부분이지만, ‘기자조선설’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는 이러저러한 설이 적지 않은 것이다.²⁾ 그리고 위만조선이 한의 침공을 받아 멸망한 후 한 군현이 설치되었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런데 신채호가 상정하였던 고조선사의 전개는 이와 매우 다르다.

신채호는 대단군조선이 기원전 4세기 경 신조선(진한), 불조선(변한), 말조선(마한)으로 나뉘어졌다고 보았다(전삼한). 신조선은 지금의 하얼빈을 중심으로 하였으며, 부여, 고구려로 계승되었다고 한다. 기자의 후예가 왕 노릇을 하다가 위만이 정권을 탈취하였던 조선은 요동의 불조선이라고 보았다. 그러므로 위만의 조선이 망하고 설치된 한사군은 한반도와 관계없이 요동 지역에 설치되었다고 주장하였다(실제로는 요동군 내 낙랑, 현도군의 僑設). 말조선은 평양을 중심으로 하였는데, 후에 임진강 이남으로 옮겨가 마한이 되었고, 그 자리에는 낙랑국이 자리하였다고 보아 낙랑군을 평안도 일대에 비정하였던 학설에 반대하였다. 신조선과 불조선의 유민이 남하하자 마한이 경상도 일대의 땅을 떼어 주어 진한과 변한이 성립하였다고 하였다(후삼한).

신채호의 고조선사 인식은 정인보³⁾, 안재홍⁴⁾ 등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해

1)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편, 『단재신채호전집』 권 3, 2007, 314쪽 및 316쪽. 이하 신채호의 글은 이 전집의 새활자본에 의거하되, 독립기념관 홈페이지에 실린 자료를 인용함. 이상과 관련하여서는 慎鏞廈, 「申采浩의 愛國啓蒙思想」(下), 『韓國學報』 20, 1980; 『申采浩의 社會思想研究』, 한길사, 1984, 149-150쪽 참고. 인용하는 이를 ‘단군민족주의’라고 하였다.

2) 박준형, 「한국 근현대 기자조선 인식의 변천」, 『고조선사 연구 100년』, 학연문화사, 2009.

3) 李萬烈, 「박은식과 정인보」, 1980; 『韓國近代歷史學의 理解』, 文學과 知性社, 1981 253-254쪽. 한편 『독사신론』은 최남선의 초기 역사인식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고 한다. 丁曠淑, 『稽古筭存』을 통해본 崔南善의 古

방 이후에는 북한 역사학계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였다.⁵⁾ 남한에서는 천관우 등이 이를 계승하였는데,⁶⁾ 학계보다는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문한 탓인지 모르겠지만, 이만열의 선구적 연구⁷⁾를 제외하고는 신채호의 고조선사 인식을 본격적으로 다룬 연구를 찾기 어려운 듯하다.

이 발표에서는 『조선상고사』(원명 『조선사』, 1924년 경 집필? 1931년 『조선일보』 연재)를 중심으로 신채호의 고조선사 인식 가운데 몇 가지 문제들을 재정리해보려고 한다. 일반적으로 신채호의 역사 연구는 그 의의에 비해 실증성이 떨어진다고 평가받고 있거니와, 과연 그의 주장이 어떤 근거에 입각한 것인지를 소개하고, 가능하면 이를 검토하려고 한다. 학설에 입각한 비판보다는 자료 선택, 논리, 해석의 타당성 등에 초점을 두려고 한다.

신채호는 『삼국사기』, 『삼국유사』는 물론 先秦 문헌들과 『사기』, 『한서』, 『삼국지』 등의 중국 측 기록을 널리 이용하였고, 실학자들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하였다. 또 獨得의 언어 풀이를 매우 중시하였다. 고조선사 연구자가 아닌 발표자로서는 그가 이용한 자료를 오해하거나 관련된 중요 자료가 있음에도 빠뜨리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특히 언어 풀이는 전혀 다루지 못함을 밝혀둔다.

2. 壇君朝鮮

신채호에 따르면 광명을 숭배하였던 조선족은 빛을 좇아 파미르 고원 혹은 몽고 등지에서 백두산 부근으로 이동하였다고 한다. 이들은 “수두”라고 하는 神壇을 만들었는데, 수두의 祭主가 단군이었다고 한다. 적이 침입하면 여러 수두들이 연합하여 막았는데, 그들 가운데 공이 큰 수두가 신수두가 되고, 신수두의 단군이 대단군이 되어 건국하였다고 한다.⁸⁾

단군조선의 건국연대에 대해서 “前史에는 壇君의 元年 戊辰을 唐堯 25년이라 하였으나 支那도 周召 共和(기원전 841년) 이후에야 년대를 紀함이어늘, 어찌 唐堯 25년이 何年인지를 알 수 있으랴. 그러므로 단군 원년을 的指하지 않노라”고 하였다.⁹⁾ 대신 『삼국유사』에 인용된 『魏書』에 “乃往二千年前 有壇君王儉 立都阿斯達”이라고 한 구절을 중시 고구려 건국 이전 2천년 전을 단군왕검의 원년이라고 하였다.¹⁰⁾ 그런

代史論』, 『奎章閣』 6, 1982; 李英華, 『崔南善의 歷史學』, 2003, 118-123쪽.

4) 韓永愚, 「1930~1940年代 安在鴻의 新民族主義와 史學」, 『韓國民族主義歷史學』, 一潮閣, 1994, 219-220쪽.

5) 金正배, 「단제의 사학과 북한의 고대사」, 『신채호의 사상과 독립운동』, 1986; 『한국고대사와 고고학』, 신서원, 2000; 조법중, 「북한학계의 연구」, 『고조선 고구려사 연구』, 신서원, 2006 등.

6) 千寬宇, 『古朝鮮史·三韓史研究』, 一潮閣, 1989, 140-141쪽.

7) 李萬烈, 1977, 「丹齋 申采浩의 古代史認識 試考」, 『韓國史研究』 15; 「丹齋의 古代史認識」, 1990, 『丹齋 申采浩의 歷史學研究』, 文學과 知性社(1986,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의 수정).

8) 『조선상고사』, 권 1, 634쪽. 이하 『상고사』라고 약함.

9) 『상고사』, 권 1, 643쪽. 『상고사』 총론에서는 金仁山이 지은 『續綱目』에서 堯 戊辰年의 연대를 찾고(권 1, 619쪽), 「전후삼한고」에서는 邵康節 『經世書』에서 그 연대를 찾지만(권 2, 379쪽), 허망한 일이라고 하였다.

10) 『상고사』, 권 1, 644쪽. 「전후삼한고」, 권 2, 379-380쪽에서도 이와 같이 설정하였다.

데 다음에 언급하게 될 것이지만 신채호에 따르면 고구려의 건국 연대는 『삼국사기』에 전하는 기원전 37년이 아니라 그보다 대략 백 수십년 정도 앞선다고 한다.¹¹⁾ 그렇다면 단군의 건국은 당시로부터 어림잡아 4천년 정도 앞서는 것이 된다. 기원전 2,333년은 아니지만, 결국은 그 즈음 어느 시기에 단군조선이 건국하였던 것으로 보았던 것이다.

신채호는 『삼국유사』 소재 「고기」에 전하는 단군신화를 소개하고, “그러나 「帝釋」이니 「雄」이니 「天符」니 하는 따위가 거의 佛典에서 나온 명사며, 또는 三國史의 初頭의 사회에도 매우 여성을 尊視하였다는데, 이제 남자는 神의 화신이요 여자는 獸의 화신이라 하여 너무 여성을 卑視하였으니, 나는 이것이 순수한 조선 고유의 神話가 아니요 불교 수입 이후에 佛敎徒의 點綴이 적지 않은가 하노라”라고 평하였다.¹²⁾ 아울러 단군이 천년 이상 살았다는 「고기」의 설은 “인도 고전의 3만년, 3천년, 5백년 등 長壽를 가졌다는 佛祖”를 모방하여 만든 설이므로 반박할 가치조차 없다고 하였다.¹³⁾

신채호는 『삼국사기』 등에 전하는 扶餘王 解夫婁와 아들 金蛙-迦葉原 천도와 동부여- 解慕漱의 등장에 대해 소개하고, “或者는 「記錄을 너무 神話的이라 信據할 수 없다」 하나 어느 나라이고 고대의 신화시대가 있어, 후세 史家들이 그 신화 속에서 事實을 採取할 뿐”이라고 하면서 신화와 사실을 구별하였다.¹⁴⁾ 신채호는 신화를 고대사 연구의 자료라고 인식하였지만, 그러나 단군신화에 크게 관심을 기울이지는 않았다.

단군신화와 아울러 “平壤의 舊名이 王儉城이요 新羅의 仙史에도 平壤者 仙人 王儉之宅이라 하고, 魏書에도 乃往二千載前 有壇君王儉 立國阿斯達 國號朝鮮”이라고 한 점을 들어 “조선 고대에 단군왕검을 종교의 敎祖로 尊奉하여 왔음은 事實이며, 王儉을 吏讀字의 讀法으로 해독하면 「님금」이 될 것이니, 대개 「님금」이라 이름한 사람이 당시에 유행하는 수두의 迷信을 이용하여 太白山의 수두에 출현하여 수시로 上帝의 화신이라 稱하여 조선을 건국한 고로, 이를 기념하여 역대 제왕의 칭호를 님금이라 하며, 역대 京城의 명칭도 님금이라 한 것이다”라고 풀이하였다.¹⁵⁾ 단군왕검이 祭政을 아울렀던 것으로 파악하였을 뿐이었다.¹⁶⁾

A. 大壇君王儉이 이미 三神·五帝의 神說로써 우주의 조직을 설명하고 그 神說에 의하여 人世 一般의 제도를 정할 새, 신한과 말한·불한의 3한을 세워 대단군이 신한이 되니, 신한은 곧 大王이요, 말한과 불한은 곧 좌우의 兩副王이니 신한을 夾助하는 자

11) 『상고사』 권 1, 660-661쪽. 1926년 5월 『시대일보』에 연재한 「고구려와 신라의 건국연대에 대하여」, 권 6, 592-595쪽.

12) 『상고사』, 권 1, 635쪽.

13) 『상고사』, 권 1, 643-644쪽.

14) 『상고사』, 권 1, 662-663쪽.

15) 『상고사』, 권 1, 635쪽.

16) “三朝鮮이 分立한 뒤에 大王과 大壇君 並立하여 敎政分立의 旣이 시작”되었다고 보았다. 『상고사』, 권 1, 644쪽.

더라. 3京을 두어 3한이 分駐하며, 3한의 下에 돛가·개가·소가·말가·신가의 5가를 두고, 전국을 동·남·서·북·중 5부로 나누어, 오가가 중앙의 다섯 국무대신이 되는 동시에 5부를 分治하는 다섯 지방장관이 되고, 신가는 5가의 首位가 되며, 戰時에는 5부 인민으로서 중·전·후·좌·우의 5軍을 조직하여 신가가 中軍大元帥가 되고, 기타 4가가 전·후·좌·우의 4元帥가 되어 출전하느니라(『상고사』, 권 1, 636쪽).

신채호는 대단군왕검이 창작하였다는 ‘三神·五帝의 神說’로써 단군조선의 제도를 설명하였다. 이에 따라 3韓(왕이자 다스리는 지역을 가리킴)과 3京, 5加와 5部, 5軍의 조직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 ‘神說’은 전후삼한을 설명하는 중요한 포인트이다. 馬韓이 신한과 불한의 유이민을 받아들여 辰·卞 兩韓을 세웠던 것은 “三神을 依하여 3韓 數를 채운 것”이며,¹⁷⁾ 신·말·불 三朝鮮이 붕괴하였던 것은 그 기초가 되었던 “三神說에 破綻”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¹⁸⁾ 곧 이어 보겠지만, 신채호는 이 ‘신설’의 편린이 중국 측 기록에 전한다고 하였는데, 실상 이는 신채호가 대단군조선의 후계국이라고 한 여러 나라들의 제도로부터 안출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수두’는 삼한의 소도에서, ‘신수두’는 마한의 신소도국에서 나온 것이다(삼한의 蘇塗와 臣蘇塗는 수두와 신수두의 音譯이라고 함). 3경은 고구려와 고려의 3경에서, 5가는 부여의 이른바 4出道, 고구려, 백제의 5부 등에서 나온 발상이었을 것이다.

B. 史記의 封禪書에 「三一神」은 天一·地一·太一이니 三一의 中에 太一이 最貴하며, 五帝는 太一의 佐라 하고, 秦始皇本紀에 天皇·地皇·泰皇의 三皇 中에 泰皇이 最貴라 하며, 楚辭에 東皇太一의 歌名이 있고, 漢書 藝文志에 泰一雜子の 書名이 있으니, 三一神과 三皇은 곧 古記에 記한 三神·三聖 等の 類니, (중략)¹⁹⁾ 龜의 三神·五帝는 곧 王儉이 創作한 神說이니라(『상고사』, 권 1, 636쪽).

‘三一神과 三皇은 곧 古記에 記한 三神·三聖 等の 類’라고 하였는데, 그 「고기」는 우리 측 「고기」일 것이고, ‘삼신’, ‘삼성’이라는 것은 『삼국유사』 소재 「고기」의 환인, 환웅, 단군의 삼성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²⁰⁾ 그렇다면 그 ‘神說’이 어떻게 중국에

17) 『상고사』 권 1, 655쪽.

18) 『상고사』 권 1, 658쪽.

19) 생략한 내용은 다음과 같은데, 근거를 찾지 못하였다. “三一神을 다시 우리 古語로 譯하면 天一은 「말한」이니 上帝를 의미한 것이요, 地一은 「불한」이니 天使를 의미한 것이요, 太一은 「신한」이니 「신」은 최고 최상이란 말이니, 「신한」은 곧 「天上天下 獨一無二」를 의미한 것이니, 말한·불한·신한을 吏讀字로 馬韓·卞韓·辰韓이라 記한 것이며, 五帝는 「돛가·개가·소가·말가·신가」등 5「가」가 곧 五方神을 가리킨 것이니, 次序로 말하면 말한이 불한을 낳고 불한이 신한을 낳았으나, 權位로 말하면 신한이 神界와 人界의 大權을 總持하여 말한과 불한보다 高貴한 고로, 三一의 中에 太一이 最貴라 함이며, 「五帝(곧 5가)는 곧 太一의 佐라」 하였으나, 「신가」가 5가의 首位임은 「신」의 語義로 말미암아 명백하니”라고 하였다.

20) 신채호는 1910년 3월 『대한매일신보』에 게재한 「東國古代仙敎考」에서 “古記에 記하되 桓因이 子 桓雄을 遣하여 徒三千을 率하고, 太白山에 降하니, 是가 桓雄天王이라. 환웅천왕이 인간 길흉화복을 主宰하며, 子 檀君을 生하였다 하였으나, 紀年兒覽에는 曰 환인은 天이요, 환웅은 神이라 하였으니, 환인·환웅·단군은 卽 소위 三神(又曰 三聖)이요, 三神은 卽 仙敎 創立의 祖”라고 하였다(권 6, 701쪽). ‘선교’와 관련하여서는 한영우, 「한말에 있어서의 신채호의 역사인식」, 『단체 신채호와 민족사관』, 형설출판사, 1980; 앞의 책, 65-67쪽과 「1910년대의 신채호의 역사인식」, 『한우근박사정년기념사학논총』, 지식산업사, 1981; 앞의 책, 164-167쪽 및

전해졌고, 전승되었던 것일까. 신채호가 든 근거는 두 가지이다. 「고기」에 “단군왕검이 아들 夫妻를 보내어 夏禹를 塗山에서 만났다”고 하였는데, 그 만남의 내용과 관련하여 『吳越春秋』의 기록이 참고된다는 것이다. 『오월춘추』에는 요 임금으로부터 홍수를 다스리도록 명령을 받았으나 성과를 내지 못해 걱정하던 夏禹에게 “玄夷의 蒼水使者”라는 자가 꿈에 나타나 塗山에 있는 神書를 내어 보라고 하니, 禹가 그것을 얻어 “五行 通水의 理를 알아 홍수를 다스려 성공하고, 이에 州愼의 德을 잊지 못하여 井田을 畫하며 律度量衡의 制를 立하였다”는 내용이 전한다고 하면서,²¹⁾ 이를 다음과 같이 풀이하였다.

C. 玄夷는 朝鮮 당시에 동·남·서·북·중 5부를 藍·赤·白·玄·黃으로 別稱한 바, 북부가 곧 玄部인데 支那人이 玄部를 가리켜 玄夷라 한 것이며, 蒼水는 곧 滄水며, 州愼은 支那 春秋時代의 文字에는 暎 朝鮮을 州愼·肅愼·稷愼, 或 「息愼」으로 譯한 바, 州愼은 곧 朝鮮을 가리킨 것이며, 고기의 부루는 吳越春秋의 蒼水使者니, 이때에 支那에 一大洪水의 災가 있음은 각종의 古史가 同證하는바, 대개 단군왕검이 支那의 水災를 구제하여 주려 하여, 아들 부루로서 滄海使者를 拜하여, 塗山에 가 夏禹를 보고 三神·五帝敎의 일부분 되는 五行 「수·화·금·목·토」說을 전하고, 治水의 방법을 가르친 고로, 禹가 이미 왕이 됨에 부루의 德을 생각하며 三神五帝의 敎義를 믿어 이를 支那 안에 傳布한 것이며, 井田과 律·度量衡도 또한 支那의 창작이 아니요 朝鮮의 것을 모방한 것이니라(『상고사』, 권 1, 637쪽).

나아가 ‘도산의 신서’가 洪範九疇였으며, 이를 신봉하던 箕子가 洪범구주를 배척하던 周 武王을 피해 朝鮮으로 도망하였다고 하였다. “商이 周에게 망하는 동시에 商의 國敎인 수두敎가 壓迫을 받으므로, 故國을 버리고 水두敎의 祖國으로 돌아”왔다는 것이다.²²⁾ 신채호에 따르면 부루와 夏禹의 만남은 중국 고대 문화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던 일대 사건이었던 것이다.²³⁾

근거는 밝혀져 있지 않지만, 「응제시주」에 “禹가 塗山에 제후들을 모았을 때 단군이 그 아들 부루를 보내 조회하도록 하였다”고 전한다. 이는 『신증동국여지승람』(54 평안도 영변대도호부 고적)을 비롯 『미수기언』, 『동사강목』 등에서 찾을 수 있다. 1905년 최경환, 정교가 지은 『대동역사』에서는 자주적 입장에서 “朝會”를 부정하고, 중국과 대등한 입장에서 도산에서 열린 ‘萬國會’에 “往會”한 것이라고 하였으며, 이후에는 이 설이 주류가 되었다.²⁴⁾ 1914년 김교헌이 펴낸 『신단실기』에서는 “(개천) 191년 甲戌에 遣太子扶妻하여 往夏禹氏塗山會하시다(交際之始)”라고 하였다. 1925년 『동아일보』(1월 2일자 7면 學窓散話 五行說)에는 “五行說은 대개 洪範에서 시작하였으

조인성, 「신채호의 낭가사상에 대한 일고찰-「동국고대선교교」를 중심으로-」, 『경대사론』 1, 1985 참고.

21) 『상고사』, 권 1, 637쪽.

22) 『상고사』, 권 1, 638쪽.

23) 부루의 西行과 하우에게 五行治水를 가르친 일 등에 대해서는 『조선상고문화사』, 권 3, 371-373쪽에 보다 자세하다.

24) 한영우, 앞의 논문(1980), 44-50쪽.

니, 箕子が 東方으로부터 와서 이를 武王에게 傳授한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는 箕子の 創說이 아니요 夏禹氏의 墜緒라 하며 夏禹氏는 우리 塗山使者에게 治水方略을 배웠다는 사람이니 五行說은 漢人이 우리 민족에게서 傳習한 증거가 있다 할 것이다”라고 하는 기사가 실렸다. 이 기사의 근거는 알 수 없지만, 부루가 하우에게 治水를 가르쳤다는 신채호의 주장은 이러한 이해를 배경으로 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신채호가 중시한 『오월춘추』는 『수서』 경적지에서 잡사류로 분류되었고, 『신당서』 예문지에서는 소설가류에 포함되었다. 『사고전서』에서는 이를 史類로 분류하였지만, 異體雜記의인 아류의 역사서로 평가하였다. 『오월춘추』는 편년체 역사서의 형식을 갖추고 있기는 하지만, 점술뿐만 아니라 황당한 전설, 설화를 여러 실고 있다. 이 때문에 일반적으로 역사서로서의 사실성과 객관성이 부족하다고 평가되는 반면 일종의 역사소설로서 문학적 면이 높게 평가되어 왔다.²⁵⁾

D-1. 역사를 연구하려면 史的 재료의 수집도 필요하거니와 그 재료에 대한 선택이 더욱 필요한 者라. 古物이 산같이 쌓였더라도 고물에 대한 學識이 없으면 일본의 寬永通寶가 箕子の 유물도 되며, 十萬 冊의 藏書樓 속에서 坐臥하더라도 서적의 眞僞와 그 내용의 가치를 판정할 안목이 없으면 後人 僞造의 天符經 등도 단군왕검의 聖言이 되는 것이다. 歷來의 조선 史家들의 소위 史學은 매양 博學으로써 유일의 조건을 삼으며, 그 소위 박학은 오직 서적뿐이요 그 소위 서적은 중국 서적뿐이었다.(중략) 저자가 時機를 얻으면 중국 서적 중 一切 조선에 관한 기록의 是·非·誤·正을 찾아 보려 하고, 근래 著史者들이 매양 각종의 眞書·僞書·謠言·正言을 모두 조선사의 재료를 삼고, 洋文의 형식으로 篇章을 갈라, 新史學者가 지은 조선사라 함은 좀 부끄러운 일인가 한다(「삼국지동이열전교정」, 권 2, 351-352쪽).

D-2. 아직 地中 발굴이나 고적 탐사나 古物 연구 같은데 지식과 기구가 모두 부족한 우리로서는, 우리의 古史를 연구하려면 오직 古人의 끼친 서적으로 자료 삼을 뿐인 것은 물론이다. 서적이라면 우리의 것 뿐 아니라 隣國의 것도 可하며, 往代의 소위 正史라는 것보다도 或 神話·小說·妖談·雜書에서 직접 혹 간접으로 史的 가치를 더 얻는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는 선택할 줄을 안 然後의 일이라. 어찌 아무 辨別도 없이 조선에 관한 記載만 있으면 山海經이나 竹書紀年이나 抱朴子나 博物志 같은 것을 가치를 묻지 않고 인용하며, 後人의 僞造라고 舉世가 다 말하는 堯典과 禹貢 중의 嶠夷니 島夷니 하는 것을 가져다가 4,5천년 전 조선사의 한 페이지를 채우려함이 또한 可笑한 일이 아니냐(「전후삼한고」, 권 2, 370쪽).

신채호는 특히 중국 기록을 엄정히 취사선택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실제로 다음에 보게 될 바와 같이 『한서』 지리지의 낙랑 관계 자료는 다 위조된 것으로 믿을 수 없다고 나름대로 엄정한 사료 비판을 가했다. 그런데 지금 논의되는 『오월춘추』나 다른 곳에서 자주 인용하였지만, 일반적으로 자료로서의 가치가 조금 낮게 평가되는 『만주

25) 조엽지음, 이명화역주, 『오월춘추』, 일조각, 2009, 7-8쪽.

원류고』 등에 대해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 자신의 주장에 맞는 자료들을 자의적으로 선택하였던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신채호로서는 단군의 아들 부루가 중국에 대한 조회(조공)을 시작하였으며, 기자로부터 조선에 문명이 전수되었다는 인식을 부정하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단군조선은 기원전 10세기로부터 기원전 5~4세기에 전성기를 맞았다고 한다. 신채호는 이 시기 전기에는 조선족이 중국에 건설한 소왕국들이 많았고, 그 중에서도 西僊王은 36국으로부터 조공을 받을 정도였다고 하였다. 또 “弗離支”라고 하는 자가 “弗離支國(『周書』의 弗令支와 『史記』의 離支)”을 만들었는데, 그 범위가 직예, 산서, 산동에 미쳤다고 하였다. 하지만 齊桓公이 燕, 晉 등을 공격하려던 조선을 크게 무찌르니 조선은 이로부터 쇠약해졌다고 한다. 그런데 서연왕을 비롯하여 동이계 종족이 세웠다는 국가들이나 전국시대 燕, 趙, 秦 등과 충돌하였던 그 북방의 여러 종족, 국가들을 모두 단군조선과 관련지을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다. 弗離支의 존재는 확인하지 못했다.²⁶⁾

3. 三朝鮮

신채호는 삼한이 분립하여 신한은 신朝鮮(진한), 말한은 말朝鮮(마한), 불한은 불朝鮮(변한)을 나누어 다스렸다고 하였다. 왕실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신조선은 姓 解氏니 단군왕검의 자손이라 稱한 者며, 불조선은 姓 箕氏니 기자의 자손이라 칭한 자며, 말조선은 姓 韓氏니 그 선대의 연원은 알 수 없으나, 王符 潛夫論에 「韓西亦姓韓 爲衛滿所伐 遷居海中」이라 한바, 韓西는 대개 말조선의 屬이니, 말조선은 姓 韓氏인가 한다.”²⁷⁾

삼조선은 “吏讀文으로 眞·莫·番 3조선”인데, 우리 측 기록이 없어서 중국 기록에서 그 유래를 찾을 수 있다고 하였다.

E. 사기 조선열전에 「眞番朝鮮」은 신·불 兩朝鮮을 對舉함이며, 註에 「番 一作莫」이라 한 바, 番자를 莫자로 代하면 「眞莫朝鮮」이니, 眞·莫朝鮮은 신·말 兩朝鮮을 對舉함이니, 「眞莫番朝鮮」或 「眞番莫朝鮮」이라 써 신·말·불 三朝鮮을 併舉치 않고, 或 莫字를 빼어 眞番朝鮮이라 하거나, 或 番자를 빼어 眞莫朝鮮이라 記함은 何故이뇨. 이는 支那人이 外國의 人名·地名 等 名詞를 쓸 때에 每양 文勢의 平順을 爲하여 縮字를 쓰는 慣例로 쓴 것이니라. 穆天子傳의 ◎(奭+鳥 늦배 깐 닭 순)韓은 신한을 가리킨 것이요, 管子의 發朝鮮과 大戴禮의 發息慎은 불朝鮮을 가리킨 것이요, 오직 말朝鮮은 支那와 좀 隔遠하므로 史記 以外에는 他書에 보인 것이 없느니라(『상고사』 권 1, 645쪽).

26) 誤植 때문인지 교정을 볼 수 없는 상황에 발생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불령지’의 ‘弗’은 ‘制’인 듯한데, 가령 제 환공이 “遂北伐山戎 制令支 斬孤竹而南歸”하였다고 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이것은 깨뜨렸다는 동사로 풀이해야 할 것이다.

27) 『상고사』, 권 1, 648쪽.

『사기』 조선전에서 “王滿者 故燕人也 自始全燕時 嘗略屬眞番朝鮮”이라 하고 ‘진번’의 ‘번’에 대해서 “徐廣曰 一作莫 遼東有番汗縣 番音普寒反 (하락)”이라고 하였던 것은 진번은 혹은 진막이라고도 한다(불린다)는 의미로 풀이하는 것이 옳을 듯하다. 『사기』 화식열전에 “東綰穢貊朝鮮眞番之利”라고 하였는데, 이 경우에는 진조선, 번조선이라고 해석하기가 어렵다.²⁸⁾ 신채호는 ‘발조선’과 ‘발식신’을 같은 것으로 보고, ‘발’을 ‘불’과 통하는 것으로 보았다. 후대에 발조선, 발식신이 보이지 않고, 조선, 속신이라고 나오므로, 이는 발과 조선, 발과 식신으로 풀이할 수도 있을 것이다. 사료적 가치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逸周書』에서는 “직신(=속신)은 사슴을 바쳤고(중략) 發人은 사슴을 바쳤는데, 發人 또한 東夷인데, 매우 빠르다”고 하여 양자를 구별하였다.

신채호는 『고려사』 金謂碑傳 소재 「神誌秘詞」에 나오는 지명에 대한 언어 풀이를 통해 수두시대 삼경의 위치를 비정하였다. 즉 今 『상고사』, 『삼국유사』는(扶蘇岬 或은 非西岬 或 阿斯達. 扶蘇·非西·阿斯는 으스로 읽음), 今 海城·蓋平 等地(五德地 或五備旨 或 安市忽 或 安市城. 五德·五備·安地·安市는 아리로 읽음), 今 平壤(百牙岡 或 樂浪 或 平原 或 平穰. 百牙岡·樂浪·平原·平穰은 퍼라로 읽음)이라고 하였다.²⁹⁾ 삼조선의 중심지도 대략 이와 같은 것으로 보았는데, 『만주원류고』와 『삼국유사』로부터 근거를 더하였다.

F. 滿洲源流考에 漢書 地理志 遼東의 番汗縣 今 蓋平 等地가 卞韓의 故都라 한바, 番汗과 卞韓이 同音인즉 蓋平 東北의 「알티」가 불한의 故都일 것이며, 삼국유사에 馬韓은 平壤의 馬邑山으로 名한 것이라 한바, 마한으로 因하여 마읍산이 名을 얻은 것이요 마읍산으로 因하여 마한이 名을 얻은 것은 아니나, 마한은 곧 평양에 都하였다가 後來에 南遷함이 事實인즉 평양 - 곧「퍼라」가 말한의 故都일 것이며, 신한은 비록 可考할 곳이 없으나, 라리티와 퍼라의 兩京이 불·말 兩한의 分점한 바가 되었은즉, 신한이 哈爾濱 즉 으스라에 都하였을 것이 無疑하니라(『상고사』, 권 1, 646쪽).

『만주원류고』 권 2 三韓 조에는 “요동에 潘汗縣이 있는데 혹 卞韓의 음이 변화한 것인지 알 수 없다”라고 되어 있다. 『삼국사기』 지리지 보성군 조에 따르면 전남 보성군의 영현으로 馬邑縣이 있는데, 그렇다고 그곳을 마한의 중심지라고 할 수는 없다. 마한과 마읍산을 연결시키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³⁰⁾

신채호는 삼조선이 분립한 시기와 관련하여 魏略에「箕子之後朝鮮侯 見周衰 燕自尊爲王 欲東略地 朝鮮侯亦自稱爲王 欲興兵逆擊燕 以尊周室 大夫禮 諫之乃止 使禮西說燕 以止之不攻」이라고 한 점을 주목하였다. “3조선이 분립하기 이전에는 신한이 全朝鮮 통치의 大王이 되고 불·말 兩한이 그 副王”, 혹은 “左輔·右輔”에 해당하였고, 그것을 漢字로 쓰면 朝鮮侯가 될 것이라고 보았다. 그런데 이제 “朝鮮侯 箕氏가 신한 朝

28) 千寬宇, 『古朝鮮史·三韓史研究』, 一潮閣, 1989, 141쪽의 주 3).

29) 『상고사』, 권 1, 641쪽.

30) 李基白, 「古朝鮮의 國家 형성」, 『한국사시민강좌』 2, 1988 16-17쪽의 주 10).

鮮王 解氏를 叛하여 스스로「신한」 곧 왕이라 자칭하였다고 풀이하고, 연이 왕을 칭하였던 기원전 323년 무렵 삼조선이 분립하였다고 보았다. 그런데 위에서 연이 왕을 칭한 것이 종주국인 周에 대한 것이었다고 보이고, 조선후의 칭왕도 주에 대한 것이었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G. 史記 朝鮮傳에는 衛滿의 據한 불朝鮮만을「朝鮮」이라 쓰는 代에, 신朝鮮은 東胡라 稱하여 匈奴傳에 넣었으니, 이제 史記 匈奴傳에서 신朝鮮의 遺事를, 朝鮮傳에서 불朝鮮의 遺事를 撮고, 魏略이나 三國志의 東夷列傳의 記錄을 校正하여 이를 補充하고, 말朝鮮은 支那에 隔遠하여 支那史의 筆頭에 오른 적은 적으나 馬韓·百濟의 先代는 곧 말朝鮮의 末葉의 王朝이니, 이로써 三朝鮮의 派別된 歷史의 大概를 알 것이다(『상고사』, 권 1, 646쪽).

이에 따르면 『사기』 조선전의 역사는 불조선의 역사요, 신조선의 역사는 『사기』 흉노전에 나오는 동호의 역사라고 한다. 신조선이 조선이었다면 그것이 어떻게 동호라고 칭해지고, 그 역사가 흉노전에 실릴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H. 三朝鮮이 分立한 後 末幾에 신朝鮮 王 某甲이 英武하여 마침내 말·불 兩朝鮮을 다시 聯合하여, 今 東蒙古 等地를 쳐 鮮卑를 征服하고 燕을 쳐 右北平 - 今 永平府와 漁陽 - 今 北京 附近과 上谷 - 今 山西·大同府 等地를 다 차지하여 弗離支의 故地를 恢復하니, 燕王이 大恐하여 歲幣를 신朝鮮에 바치고 稱臣하며 太子를 보내어 留質하더니, 某甲이 崩하고 某乙이 王이 되어서는, 燕 太子가 돌아가 燕王이 되어 將軍 秦開를 王子로 속여 遣質하거늘, 某乙이 그 속임을 깨닫지 못하고 秦開의 敏慧함을 사랑하여 左右에 두더니, 秦開가 모든 軍國 秘密을 探知하고 逃歸하여 燕兵으로서 신朝鮮을 襲하여 신·말·불 三國의 守兵을 突破하고 西北邊境 - 곧 前者에 신朝鮮 王 某甲이 占領한 上谷·漁陽·右北平 等地를 奪取하고, 進하여 불朝鮮의 邊境을 襲하여 遼西 - 今 盧龍縣과 遼東 - 今 遼陽 附近을 陷落하여 上谷·漁陽·右北平·遼西·遼東 等 五郡을 두고 二千餘里 長城을 쌓아 朝鮮을 막으니, 史記 朝鮮列傳의 「全燕時 嘗侵掠眞番朝鮮」(“全燕時 嘗略屬眞番朝鮮”)과 匈奴列傳의 「燕有賢將秦開 爲質於胡 胡甚信之 歸而襲破東胡 東胡却千餘里 … 燕亦築長城 自造陽 至襄平 置上谷 漁陽 右北平 遼西 遼東郡」과 魏略의 「燕有賢將秦開 爲質於胡 胡甚信之 歸而襲破東胡 東胡却千餘里 … 燕亦築長城 自造陽 至襄平 置上谷 漁陽 右北平 遼西 遼東郡」과 魏略의 「燕乃遣將秦開 攻其兩方 取地二千餘里 至滿潘汗」이 모두 이 일을 가리킨 것이다.

신조선과 연과의 관계는 두 단계로 설명되어 있다. 우선 신조선이 불조선, 말조선과 연합하여 선비를 정복하고, 연을 쳐 右北平, 漁陽, 上谷 등을 차지하니, 연이 세폐를 받치고, 왕자를 인질로 하였다는 것이다. 현재 이를 뒷받침할 만한 기록은 확인하지 못했다. 다음으로는 장군 秦開를 인질로 신조선으로 보냈는데, 비밀을 탐지하여

돌아간 그가 신조선을 쳐서 영토를 회복하고(흉노열전) 나아가 불조선을 쳐서 요서, 요동을 함락하고(위략), 5군을 두고 장성을 쌓아 방비하였다는 것이다(흉노열전). 秦開를 매개로 신조선과 불조선에 대한 연의 공격을 염두에 두고 이런 주장이 안출되었으리라고 본다.³¹⁾ 『위략』에는 연이 공격한 이유로 “후에 (조선왕의) 자손들이 점점 驕虐”해졌음을 들었으므로, 공격 대상이었던 조선은 조선후-조선왕의 조선이 된다. 신채호는 『위략』에 “연이 장군 진개로 하여금 그 兩方을 공격하도록 하였다”고 하였는데, 이는 “서방”의 착오인 듯하다. 그렇다면 이 착오가 그의 풀이에 어떤 작용을 했는지도 모르겠다.

신채호는 燕만이 아니라 趙, 秦이 북방의 조선을 막기 위하여 長城을 쌓았는데, 조의 장성은 조선과 “조선의 속민인 澹林·樓煩 등”을 막기 위한 것이었고, 진 장성은 “원래 朝鮮種”이었던 義渠를 滅하고 匈奴를 막기 위하여서라고 하였다. 진이 통일을 이룬 다음에는 “동북의 조선과 서북의 흉노를 慮하여 故 燕·趙·秦의 장성을 聯絡하여” 이른바 만리장성을 건축하였다고 하였다.³²⁾ 澹林·樓煩이 조선의 속민이었는지, 義渠가 원래 ‘조선종’이었는지는 불분명한 듯하다.

신조선은 진말 한초의 혼란기에 다시 “서방으로 출병하여 上谷·漁陽 等地를 회복하고 今 東蒙古 일대의 鮮卑를 강복하여 國威가 다시 떨치더니”, “匈奴 冒頓(목돌)의 亂을 만나 국세가 드디어 쇠약하고 말았다”고 한다. 신조선에서 흉노에게 땅을 할양할 것을 요구하자, 冒頓이 “全匈奴의 기병을 總發하여, 신朝鮮의 서방 - 今 동몽고 등지를 습격하여 居民을 유린하고 다수 鮮卑를 학살한지라. 신朝鮮은 퇴각하여 장성 이외 數千里地를 버리며 선비의 餘衆들은 鮮卑山 - 今 內外 興安嶺 부근으로 도주하니, 이로부터 신朝鮮이 미약하여 오랫동안 隣族과 겨루지 못하더라”고 하였다.³³⁾

『사기』 흉노전에 따르면 “동호는 처음에 冒頓을 업신여겨 (흉노에 대한) 대비를 거의 하지 않았다. 冒頓이 군사를 이끌고 와서 공격해 (동호를) 대파하고 왕을 죽였으며, 백성들을 사로잡고 畜産을 빼앗았다”고 하였다. 『사기』 盧縮傳에 따르면 흉노는 망명한 그를 “東胡盧王”으로 삼았는데, 蠻夷의 침탈을 당하자 늘 돌아갈 생각을 했는데, 한 해 남짓 지내다가 胡에서 죽었다고 하고, 孝景帝 6년(기원전 151년)에는 노관의 손자 “東胡王” 他之가 항복했다고 한다. 흉노전의 동호가 신조선이라면 국왕의 피살, 포로, 동호왕의 지배 등에 대해서도 설명이 따라야 할 듯하다. 또 동호노왕을 침탈하였다는 “만이”의 정체도 궁금하다. 흉노에게 쫓긴 동호의 일부는 오환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도 설명이 필요할 것이다.

한편 신채호는 연이 신·불 양조선을 친 후 설치한 군을 볼 때 연과 불조선의 경계였던 滿潘汗은 요동에서 구해야 하다는 입장에서 『한서』 지리지에 요동군현으로 汶番汗의 兩縣을 주목하였다. 즉 滿潘汗은 汶番汗이며 汶縣은 비록 연혁을 잘 알지 못하

31) “史記의 千餘리는 신朝鮮의 所失한 土地만 單指한 것이요, 魏略의 二千餘리는 신·불 兩朝鮮의 所失한 土地를 並指한 것이니, 漁陽·上谷 一帶는 신朝鮮의 所失한 土地요 遼東·遼西·右北平 一帶는 불朝鮮의 所失한 土地니라”(『상고사』, 권 1, 652쪽).

32) 이상 『상고사』, 권 1, 650쪽.

33) 이상 『상고사』, 권 1, 651쪽.

나 番汗은 今 蓋平 等地인즉, 汶縣도 蓋平縣 부근일 것이고, 滿潘汗은 今 海城, 蓋平의 부근일 것으로 추정하였던 것이다.³⁴⁾ 이후 불조선과 秦은 “今 葦葦瀾(한우락. 한우락?) 이남의 沿岸 數百里地를 양국의 中立空地로 정하여 양국 인민의 入居를 禁하니, 史記의 소위 故秦空地는 이것을 가리킨 것”이라고 하였다.³⁵⁾ 그리고 신채호는 패수의 대동강설 혹은 압록강설을 부정하고, 한우락이 곧 패수(혹은 추수渚水)일 것이라고 하였다.³⁶⁾ 패수의 위치비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으므로 논의를 유보한다.

말조선은 신·불 兩朝鮮이 중국의 침략을 받는 등 시세가 급박하게 돌아가자 왕이 이를 싫어하여 남방으로 나라를 옮기고, 옛 왕호를 따 나라 이름은 말한 곧 馬韓이라고 하고, 왕호 신한은 辰王이라고 고쳤다고 한다. 마한은 月支國을 중심으로 임진강 이남 70여국을 다스렸는데, 신·불 양조선의 유민들이 유입되자 낙동강 右 편 땅을 할양하여 진한과 변한이 서게 되었다고 하였다. 말조선의 고도인 평양에는 崔氏가 崛起하여 그 부근 二十五國을 統屬하여 樂浪國이라는 대국을 건설하였다고 한다.³⁷⁾

4. 漢郡縣

신채호는 신라에 의해 고구려를 비롯한 여러 나라들의 건국연대가 삭감되었다고 보았다. 이미 조선 후기 실학자들 중에서도 현도군에 고구려현이 속해 있었다는 점에 착목하여 현도군 설치 이전에 존재하였던 ‘전고구려’와 주몽이 건국한 ‘후고구려’를 상정한 예가 있었거니와, 신채호는 이와는 좀 달리 주몽의 건국이 기원전 37년보다 백년에서 120년 정도 앞서의 일이었던 것을 보았다. 이에 따라 고구려의 초기 기년 역시 상향조정될 수밖에 없으며, 한무제에 맞섰던 고구려왕은 대무신왕이었다고 보았다.³⁸⁾

창해군은 서기전 128년에 濊君 南閭가 위만조선의 우거왕을 배반하고 한에 투항하자, 그 지역에 설치되었으나, 군을 설치하고 유지하는 데 경비가 많이 들자 서기전 126년에 이를 폐지하였다고 알려져 있다. 이와 달리 신채호는 예는 동부여라는 자신의 설³⁹⁾을 바탕으로 남여는 동부여의 왕이며, 동부여는 이미 대무신왕에 의해 고구려의 속국이 되었다고 보았다. 그리고 元光 원년 嚴安의 상서에 “略濊州 建置城邑”이라고 한 것(『한서』 主父偃 열전)을 들어 창해군을 두려는 시도가 이미 기원전 134년부터 시작되었고, 그로부터 9년 동안 한과 고구려가 동부여를 두고 전쟁을 벌였으며, 한이 여러 차례 패배하자 “창해군 혁파의 體面語로써” 기원전 126년 전쟁을 끝낸 것

34) 『상고사』, 권 1, 652쪽

35) 『상고사』, 권 1, 652쪽.

36) 『상고사』, 권 1, 653쪽. 『요사』 지리지에 패수는 泥河 또는 葦葦瀾이라고도 하는데, 강에 한우초가 많기 때 문이다. (중략) 遼陽縣은 본래 발해의 金德縣이다. 한나라 때 溟水縣이었는데, 고구려가 句麗縣으로 고쳤다. 『만주원류고』에 인용된 『명통지』에 니하는 일명 패수로서 한우락이라고 한다. 아마도 이것들이 참고 자료였을 법하다.

37) 『상고사』 권 1, 654-656쪽.

38) 『상고사』, 권 1, 660-661쪽. 이만열, 「단재의 고대사인식」, 280-284쪽.

39) 「삼국지동이열전교정」, 권 2, 349-350쪽.

이라고 하였다.⁴⁰⁾ 창해군 설치와 관련한 고구려의 개입 사실을 전하는 자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후 사정에 대한 나름대로의 추리를 바탕으로 창해군 설치를 둘러싼 “고구려의 9년 전쟁”을 상정하였던 것이다.

한편 위만조선은 진번, 임둔을 복속시키고, 다른 나라들이 한과 통교하는 것을 막았다. 뿐만 아니라 흉노와 연결될 경우 한에 위협이 될 수도 있었다. 이에 한이 위만조선을 침공하여 멸망시켰다는 것이 우리의 대략적인 이해이다. 『조선상고문화사』에서 신채호는 위만이 흉노로 달아난 한의 노관과 同黨이라고 보고, 위만조선과 흉노의 연맹을 상정한 후, 이에 대해 한과 고구려를 포함한 여러 나라들이 연합하여 위만조선을 공격하였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반면 『조선상고사』에서는 위만조선과 흉노의 연맹설이나 한, 조선 연맹설은 언급이 없고, 한이 동부여(창해군이 될 뻔 했던)를 구하고, 고구려를 치기 위하여 위만조선에 길을 빌려 달라고 요구하였는데, 이를 거절한 것이 침공의 원인이었던 것으로 설명하였다.⁴¹⁾

한은 위만조선을 무너뜨린 후 그 옛 땅을 중심으로 낙랑, 진번, 임둔(기원전 108년), 현도(기원전 107년)의 이른바 한사군을 설치하였다. 이 가운데 진번군과 임둔군은 기원전 82년 폐지되었고, 기원전 75년에는 현도군치가 요동으로 옮겨졌다. 다만 평양을 중심으로 한 낙랑군은 313년까지 존속하다가 고구려에 병합되었다. 이상이 우리가 알고 있는 한사군에 대한 개요이거니와, 신채호의 주장은 이와 매우 다르다.

I. 四郡은 원래 土上에 그은 者가 아니요, 紙上에 그린 일종 假定이니, 말하자면 고구려를 滅하거든 眞番郡을 만들리라, 北東夫餘 - 北沃沮를 멸하거든 玄菟郡을 만들리라, 南東夫餘 - 南沃沮를 멸하거든 臨屯郡을 만들리라, 樂浪國을 滅하거든 樂浪郡을 만들리라, 하는 가정 뿐이요 실현한 者가 아니다(『상고사』, 권 1, 682쪽).

신채호는 한 무제가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각 지역을 침략하려다가 기원전 108년부터 기원전 82년 경까지 이에 맞서는 고구려와 전쟁을 벌였고, 여기에서 패퇴하자 “四郡 實設의 희망이 永絶된 고로, 진번·임둔 兩郡은 그 명칭을 폐지하고, 현도·낙랑 兩郡은 (무제가 위만조선을 멸하고 그 지역에 둔)⁴²⁾ 遼東郡內에 僑設”하였다는 것이다.⁴³⁾ 구체적으로는 “今 奉天省城에 현도군을 僑設함이며, 낙랑군도 또한 동시에 교설하였을 것인바, 그 위치는 확언할 수 없으나 대개 今 海城 等地”로 추정하였다. 그리고 한은 두 군으로 하여금 양국(남동부여, 북동부여의 잘못?과 낙랑국)에 대한 교섭을 말도록 하고, 고구려 공격 시 양국을 이용하였으리라고 보았다.⁴⁴⁾ 요컨대 두 개의 군만이 요동군 내에 임시로 설치되었을 뿐이라는 것이다.

신채호는 위만 조선 멸망 후 진번, 임둔의 폐지에 이르기까지 있었다는 한과 고구

40) 『상고사』, 권 1, 675-678쪽.

41) 『상고사』, 권 1, 678쪽. 『조선상고문화사』와 『상고사』의 차이에 대해서는 이만열, 앞의 논문, 285-287쪽.

42) 『상고사』, 권 1, 680쪽.

43) 『상고사』, 권 1, 682쪽.

44) 『상고사』, 권 1, 682쪽.

려의 전쟁에 대한 어떤 증거도 제시하지 않았다. 다만 “고구려는 前者의 大朱留王의 戰勝한 기세로 因하여 漢과 決戰함에 出”하였으리라고 하였다. 앞에서 보았듯이 신채호는 창해군의 설치를 둘러싸고 고구려의 대무신왕이 한 무제와 9년 동안 전쟁하였다는 설을 주장하였거니와, 이를 그 배경으로 제시하였을 뿐인 것이다.

신채호는 “樂浪國은 南樂浪이라 쓰며, 漢 遼東의 樂浪郡은 北樂浪”이라고 구별하였다. 그리고 『삼국사기』 고구려본기에 나오는 낙랑왕과 신라본기에 보인 낙랑국은 남낙랑을 가리킨 것인데, 종래 이를 낙랑군으로 오인하는 예가 많았다고 비판하였다.⁴⁵⁾ 그런데 남낙랑을 낙랑군이 아닌 낙랑국이라고 할 때 일본인 학자들이 평양 일대에서 발굴한 중국계 내지는 낙랑 유적, 유물의 해석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없었다. “漢城 一 友人이 보낸 總督府 발행에 系한 朝鮮古蹟圖本도, 그 조사한 동기의 如何나 註解의 牽強한 幾部分을 除하면, 또한 우리 古史研究에 補助될 것이 많다”고 하였거니와,⁴⁶⁾ 신채호도 이 점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 그는 “近日 日人이 낙랑 고분에서 或 漢代 연호를 새긴 器皿을 발견하고, 今 大동강 南岸을 衛氏 故都 - 곧 後來 樂浪郡治라 주장”하지만 그것들은 남낙랑이 한으로부터 수입한 것이거나 고구려가 한과의 전쟁에서 노획한 것으로도 볼 수 있으므로 대동강 연안을 낙랑군치라고 단언할 수 없다고 하였다.⁴⁷⁾

J. 朝鮮古蹟圖本에 多數히 낙랑과 帶方의 墳들을 기재하였으나, 그러나 낙랑군 第八大同, 江面의 고분을 漢墳이라 함은 銅鏡이나 金口 등에 박힌 「王」字를 帝王의 「王」으로 풀지 않고 漢人 王氏의 「王」으로 풀며 第六, 第五 江東의 古陵은 전설에 皇帝塚이라 하고 『輿地勝覽』에는 이를 東川王陵이라 하였거늘, 이제 漢 王陵이란 全無의 別名을 주며 黏蟬碑는 그 初頭의 缺面에 問標를 질러 漢 光和 元年이라 하니, 우리 같은 고고학의 문외한이 어찌 그 시비를 輕論하리오마는, 그러나 그 圖說의 大概를 보건대 어떤 말은 학자의 見地에서 나왔다는 이보다 정치상 他種의 작용이 적지 않은 듯하다. 帶方太守 漁陽 張撫夷의 墓는 그 碑文의 「漁陽」 2字를 據하여 중국 北京人의 出仕한 者의 묘라 하였으나 백제 중엽부터 백제인이 중국을 모방하여 지은 지명이 많으니, 廣陽·城陽 등이 是니 漁陽도 이와 같아 백제 內地의 지명이 아닌지 모르며, 蓋鹵王 때 帶方太守 司馬張茂란 者가 있으니, 張氏는 백제의 世家로 대방태수의 職을 세습하던 姓氏인지도 모르니, 遽然히 北京人이라 斷言함은 너무 急躁한 일인가 한다(『평양패수고』, 권 2, 369쪽).

신채호는, 비록 ‘고고학의 문외한’이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조선고적도보』에 나오는 낙랑, 대방고분의 성격에 재고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과연 왕씨 성을 가진 자들이 모두 중국계라고 볼 수 없으며, 묘제도 역시 그러하다고 하므로, 신채호의 문제 제기는 일면 타당성을 갖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또 ‘정치상’의 어떤 고려를 의심한 것

45) 『상고사』, 권 1, 682-683쪽.

46) 『상고사』 <총론>, 권 1, 614쪽.

47) 『상고사』, 권 1, 683쪽.

도 역시 그러하다. 한편 신채호는 「점제현신사비」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시하였다.

K. 日本 學者 關野貞一의 노력에 의하여 成就한 朝鮮古蹟圖本の 그 圖說에, 龍岡에서 발굴한 黏蟬碑文을 記載하고 「역래학자의 爭訟되던 列水는 곧 대동강됨이 可하다」하였으나, 이는 곧 漢書 地理志의「列水西至黏蟬入海」와 黏蟬碑文이「龍岡」에서 발견됨에 의하여 한 말이다. 그러나 만일 한서 지리지의 낙랑군 부분이 僞證임을 알았으면 이런 착오가 없었을 것이다(「평양패수고」, 권 2, 361쪽).

신채호는 關野貞이 용강에서 발견된 「점제현신사비」의 내용과 한서 지리지의 기사를 종합하여 열수=대동강설을 말하였으나 이는 착오라고 하였다. 신채호는 『한서』 지리지의 조선 관련 부분이 『한서』의 주석을 담당하였던 顏師古에 의해 위조되었다고 보았다.

L-1. 傳說에 據하면 唐人이 朝鮮의 강성과 文明을 시기하여 唐 太宗이 一切 中國史에 보인 조선에 관한 기사를 改竄하고, 李勣과 蘇定方이 고구려와 백제를 멸하고는 그 서적을 몰수 燒火하였다 하니, 이 말이 비록 어느 기록에 보이지 않았으나 대개 可信할 만한 말인가 한다. 그러면 당 태종이 손댄 서적이 무엇 무엇인지는 알 수 없으나 대개 漢書와 晉書가 가장 甚할지니, 顏師古가 당 태종의 寵臣으로 瀛洲의 學士列에 참여하여 깊은 帷幄에서 태종 東侵의 謀議를 協助하는 동시에 한서 校正의 任을 帶하였은즉, 그 교정의 際에 漢 武帝 四郡의 범위를 확장하며 위치를 이동하여, 조선의 故疆을 거의 중국의 소유로 僞證하여 이로써 君臣 上下의 積개심을 고무하는 자료로 만들려 하였다. 그리하여 진번·임둔의 위치를 註할 때 茂陵書란 書名과 記事를 僞造하며, 地理志를 校閱할 때 낙랑군의 부분을 위조하며, 遼東郡 險瀆註에 臣瓚의 말을 위조 添入하고 거기다가 「瓚說是也」의 例語를 插記하니, 이에 조선의 地理가 아주 문란하였다(「평양패수고」, 권 2, 360-361).

L-2. 或 三國志에 본래 樂浪傳이 있고 낙랑전 가운데는 낙랑 屬國 20여개가 記載되었던 것을 당 태종 안사고 등이 낙랑전을 塗抹하고, 그 20여국을 가져다가 한서 지리지에 添入하여 낙랑군 25현을 만들며, 지리지 가운데 낙랑군의 속현인 番汗·險瀆 등을 遼東郡에 移入할 때, 그 흔적을 숨기기 위하여 番汗의 溟水를 沛水로 改하고, 險瀆의 註 「朝鮮王滿都」를 反駁하고 各史의 東夷列傳 혹 기타에 보인 낙랑의 記事를 或削或改하여, 중국 古疆의 범위를 넓혀 東侵將士의 積개심을 고무하려 함이었던가. 여하간 지리지의 현도의 3縣과 낙랑 25縣은 거의 조선의 列國이요, 당시 요동 낙랑군의 본현이 아니라 할 것이다(「평양패수고」, 권 2, 368쪽).

신채호에 따르면 태종과 안사고가 고구려 정벌을 앞두고 그 명분을 만들기 위해 『한서』의 관련 지리 부분을 크게 위조하였다는 것이다(L-1). 『삼국지』에 본래 낙랑전이 있었을 터인데, 안사고가 이를 없애 버리고, 여러 가지 조작을 가했을 것으로 상

상하기도 하였다(L-2). 그러므로 신채호의 입장에서 『한서』 지리지에 입각한 關野貞의 고증은 맞을 수가 없는 것이었다. 그런데, 고구려 정벌을 앞두고 고구려 영역에 대한 당의 연고를 주장하는 움직임이 있었다고 해서, 확인할 수 없는 ‘전설’에 의거해서 역사서의 위조를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더욱이 지금껏 알려진 유적, 유물을 보건대 평양 일대 낙랑군의 존재를 부정하기는 어려울 듯하며, 근래 소개된 평양 정백동 364호 나무곽무덤 출토 「樂浪郡初元四年縣別戶口簿」는 기원전 45년 낙랑군과 25개현의 실재를 뒷받침한다고 생각되는 것이다.⁴⁸⁾

5. 맺음말

이상 신채호의 『조선상고사』에 나타난 고조선사 인식과 그 논거를 살펴보았거니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소감을 정리하는 것으로 발표를 끝내려고 한다.

1) ‘전후삼한설’은 조선사의 계통을 단군조선으로부터 일원화하여 파악하려는 시도였다고 보인다. “3朝鮮의 분립은 朝鮮古史上에 유일한 大事니, 이를 구별치 못하면 곧 그 이전에 대단군왕검의 건국의 결론을 찾지 못할 것이며, 그 이후에 동북부여·고구려·신라·백제 등의 文化的 발전의 서론을 얻지 못할 것”(『상고사』, 권 1, 647쪽).

2) 단군 ‘神說’의 중국 전파설은 중국에 대한 조선의 자주성을 드러내려는 것이었다. 중국과의 투쟁을 강조하고, 지리(영토, 위만조선, 한 이군 포함)를 중시하였던 것도 역시 그러하다. 1900년대 독립자주의 일차적 대상이 중국이었던 것과 맥이 닿는다고 본다.

3) 위만조선 재요동설, 二郡 요동군 내 僑設說은 일면 조선사의 시작을 위만조선-한사군으로부터 잡는 일본 학자들의 견해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다고 보여진다. 그런데 신문 연재라는 현실적인 제약 때문인지 또 다른 어떤 사정 때문인지 모르겠으나 이 점은 상대적으로 잘 드러나지 있지 않은 듯하다.

4) 자료의 자의적인 선택과 해석으로 인해 고증적인 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점도 있었다. 망명과 독립운동 등 신채호의 연구 환경이 대단히 열악하였음을 고려할 때 이는 충분히 양해될 수 있다고 본다. 그렇더라도 이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5) 신채호의 고조선사 인식은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부 위서에부루의 오행치수, 삼신오제설, 삼한관경(전후삼한) 등이 등장하고 있는데, 신채호의 설에 기초하여 그 밖의 여러 가지 설(自說 포함)들을 섞어 놓은 것으로 보인다. “近日에 와서 天符經·三一神誌 등이 처음 出現하였으나 누구의 辯駁이 없이 古書로 信認할 이가 없게 된 것이다”(『상고사』 총론, 권 1, 619쪽).

48) 권오중 외, 『낙랑군 호구부 연구』, 동북아역사재단, 2010.

‘만선사’에서의 고대 만주 역사 인식

박 찬 흥(국회도서관)

머리말

‘만선사’는 만주의 역사인 ‘만주사’와 ‘조선반도’의 역사인 ‘조선사’를 아울러서 부르는 명칭이었다. 러일전쟁이 끝나가던 1905년 白鳥庫吉에 의해 처음 주창된 ‘만선사’는 일제의 만주 침략을 앞두고 새롭게 고안되었다¹⁾. 러일전쟁의 승리로 대한제국에 대한 일본의 독점적 지배가 확립됨과 동시에 만주에서의 여러 이권이 일본의 손에 들어오게 되자, 한국과 만주를 포함한 지역의 경영이 현실적 과제로 떠오르게 되었고, 이러한 ‘滿韓經營’을 역사학적 측면에서 실행한 것이 바로 ‘만선사’였다²⁾.

‘만선사’는 ‘만주사’와 ‘조선사’를 결합시킨 용어로 하나의 역사 단위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만선사’ 내부에서 ‘만주사’와 ‘조선사’가 각각 별개로 인식되었다. 물론 대륙 만주의 역사인 ‘만주사’가 반도의 역사인 ‘조선사’보다 우월한 위치에 있다고 인식되었다. 따라서 ‘만선사’는 만주와 ‘조선반도’의 역사를 하나의 통일된 체제로 체계화된 것이 아니라 한국과 만주 각각의 역사를 굽어모았거나 ‘만선관계사’에 불과한 것이었다³⁾.

실제로 1905년 이후 『만주사』, 『만주통사』와 같은 ‘만주사’ 개설서, 『조선사』, 『조선사강좌』 등과 같은 ‘조선사’ 개설서는 여러 종류가 서술·간행되었지만, 만주와 조선의 역사를 통합하여 하나의 체계로 서술한 『만선사』라는 이름의 개설서는 단 한권도 발간된 적이 없다. 만주와 ‘조선’은 늘 별개로 존재했고, 이것은 당시 일제의 의도에 따라 ‘조선총독부’와 ‘만주국’이 개별적으로 존재했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의 제국주의 침략에 부응하여 등장했던 ‘만선사’는 1945년 일제의 패망, ‘만주국’의 소멸과 함께 그 효용성을 다하고 사라졌다.

‘만선사’에 대한 사학사적인 검토는 1960년대 식민사학에 대한 비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旗田巍⁴⁾와 이용범⁵⁾ 등에 의해 이루어졌다가, 200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연구

- 1) 旗田巍, 1968, 『日本人の朝鮮觀』, 勁草書房 : 旗田巍 著李基東 譯, 1983, 『日本人의 韓國觀』, 一潮閣, 130쪽. ; 박찬흥, 2005, 「滿鮮史觀에서의 고구려사 인식 연구」 『북방사논총』 8, 185~186쪽. 물론 ‘만주사’라는 용어는 러일전쟁 이전인 1900년에 이미 사용되었다(那珂通世, 1900, 「臺灣朝鮮滿洲史研究の枝折」 『史學雜誌』 11-1). 이 글에서는 ‘臺灣部’, ‘朝鮮部’, ‘滿洲部’로 나누어 관련된 漢籍史學 저서들을 나열하고 있는데, 부여와 발해는 ‘만주부’에 넣어서 서술하였고, 고구려는 ‘조선부’에 서술하였다(박찬흥, 2009, 「白鳥庫吉와 ‘滿鮮史學’의 성립」 『동북아역사논총』 26, 75쪽).
- 2) 旗田巍 著李基東 譯, 1983, 앞의 책, 146쪽.
- 3) 旗田巍 著李基東 譯, 1983, 앞의 책, 146쪽. ; 사쿠라자와 아이, 2009, 「이나바 이와키치의 ‘만선불가분론」 『일제시기 만주사조선사 인식』, 동북아역사재단, 18~25쪽.
- 4) 旗田巍 著李基東 譯, 1983, 앞의 책.

되었다. 일본 역사학계에서는 근대 사학사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검토되었고, 비슷한 시기에 한국학계에서도 ‘만선사’ 연구가 시작되었다. 한국근대사학사에 대한 관심과 아울러, 2002년 중국의 동북공정이 국가적으로 크게 문제로 떠오르면서 그와 유사한 ‘만선사’가 관심의 대상으로 주목을 받은 것이다. 그 뒤 ‘만선사’ 관련 개별 연구자의 역사 인식을 분석하거나 『滿洲歷史地理』의 일부를 번역하여 기초자료로 제공하는 등 연구가 세분화되었다.

하지만, 당시 ‘만선사’ 안에서 ‘조선사’보다 우위에 있다고 평가되었던 ‘만주사’ 연구 자체에 대한 분석은 별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 같다. 특히 ‘만선사’ 연구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고대 만주 역사’ 연구만을 대상으로 한 분석은 거의 없다. 개별 연구자의 연구 성과를 고찰하거나, 한국고대사와 관련된 고조선, 고구려, 발해에 대한 인식을 검토하기는 했지만, ‘고대 만주 역사’의 체계와 인식 전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지는 못한 것 같다.

일본에서의 ‘만주사’ 연구는 러일전쟁 이후, 만주사변(1931) 이후, 1945년 종전이후 등 크게 3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고 한다⁶⁾. 1905~1945년 사이의 ‘만주사’ 연구는 만주사변과 만주국 건국(1932) 이전과 이후로 구분할 수 있다. 1932년 이후 시기가 이전과 달라진 가장 큰 특징은 일본과 만주 사이의 교통이 편리해짐으로써 만주 각지에 대한 답사를 통한 조사.연구가 매우 활발해졌다는 것이다⁷⁾. 실제로 이 시기에 ‘만주사’ 관련 개설서와 개별 연구 성과가 가장 활발하게 발간.제출되었다.

본 발표문에서는, 1932년을 기준으로 두 시기로 구분하여, 개설서를 중심으로 ‘만주사’에서 고대 만주 지역의 역사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가를 검토하려고 한다. 먼저 ‘만주사’의 무대인 ‘만주’의 공간적 범주가 어떻게 설정.인식되었는지를 알아보고, 개설 ‘만주사’에서 만주역사의 시기구분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조사.정리하려고 한다. 이어 1905년 이후와 1932년 이후 두 시기에 진행된 ‘만주사’ 연구에서 고대 만주 역사를 어떻게 인식했는지 고찰한 뒤, 마지막으로 ‘만주사’와 중국의 동북공정 및 요동사를 간단하게 시론적으로 비교해보고자 한다.

1. ‘만주사’의 공간적 범주와 시기구분

(1) ‘만주사’의 공간적 범주

만주라는 명칭은 청 태조 누르하치가 후금을 세우고(1616) 자신을 ‘만주 칸(汗)’이라 하고 청 태종이 女真人을 滿洲人으로 개칭하여(1635) 부족 명칭으로 쓰이다가 점차 그들이 거주지 명칭으로 사용되었다. 지명으로서의 만주는 처음에는 遼西.遼東 지방을 지칭했지만 곧 만주 전역을 가리키는 명칭으로 자리잡았고, 清末.民國初에는 奉

5) 李龍範, 1969, 「韓國史의 他律性論批判」 『月刊 亞細亞』 1969년 3월호.
6) 外山軍治, 1967, 「日本における滿州史研究」 『歴史教育』 15-9-10, 75쪽.
7) 外山軍治, 같은 논문, 77~79쪽.

天省.吉林省.黑龍江省의 東三省으로 불렸으며, 청나라 이전에는 ‘요동’이라는 명칭으로 불렸던 지역이다⁸⁾.

만주의 범위에는 東三省에다 현 내몽골자치구의 동부지역과 承德 부근 河北省 북쪽 지역(옛 熱河에 속한 곳)을 넣기도 하는데, 이 범위는 만주국의 영토와 대체로 일치한다⁹⁾.

‘만주사’에서 만주는, 처음에는 청말의 奉天省.吉林省.黑龍江省의 東三省으로서, 遼河와 黑龍江의 두 강 유역의 일부분을 구성하는 땅으로 長城의 北, 大小 興安嶺의 동쪽에서 바다에 이르는 곳으로 인식되었다¹⁰⁾.(【그림 1】)

그런데 만주가 일정한 지역적 범주를 가리키는 용어로 널리 쓰인다고 하더라도, ‘한국사’·‘중국사’·‘일본사’와 동등한 위상을 가진 용어로서 ‘만주사’가 가능한 것인가는 별개의 문제이다. 이렇게 ‘만주사’를 설정한 데에는 만주로 진출하려는 일제의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

那珂通世는 支那帝國[大清國]의 영토를 ‘支那本土’와 만주.몽고.伊犁(新疆과 回疆). 靑海.西藏로 구분했는데¹¹⁾, 아직 만주는 ‘支那史’의 범주 안에 포함되어 있었다. 그 뒤 러일전쟁이 끝난 뒤 체결한 포스머스 조약(1905)으로 남만주에서의 권익을 확보하고, 제3차 러일협상(1913)으로 ‘동부 내몽고’를 확보한 뒤에는 ‘滿蒙’이라는 용어가 ‘지나’와 분리된 용어로 사용되었다.¹²⁾ ‘支那本部’는 북부, 중부, 남부의 3지방으로 나뉘고, 만주는 支那의 동북부에 위치한다.¹³⁾고 하여 支那와 滿洲가 구분되었다.

청일전쟁.러일전쟁 이후 일본에게 있어 ‘만몽’은 지리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우선 ‘만몽’을 청나라로부터 떼어내는 것은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갖는 것이다¹⁴⁾. 일제의 만주.만몽에 대한 침략을 배경으로 하여, ‘支那史’를 ‘支那本部’ 지역만의 역사로 국한시키면서 ‘支那本部’와 지리적으로 구별되는 ‘만주’·‘만몽’ 지역의 역사를 가리키는 ‘만주사’·‘만몽사’가 등장한 것이다.

8) 윤희탁, 2005, 「만주는 동아시아에서 어떤 곳일까」 『만주 -그 땅·사람 그리고 역사』, 동북아역사재단, 14~15쪽.

9) 윤영인, 2005, 「만주라는 이름에 대하여」 『만주 -그 땅·사람 그리고 역사』, 동북아역사재단, 27~28쪽. 여기에 다시 소위 외만주 혹은 러시아령 만주를 더하기도 하고, 다시 사할린과 그 인근 섬까지 만주의 일부로 표시한 고지도가 있다고 한다(윤영인, 같은 책, 28~29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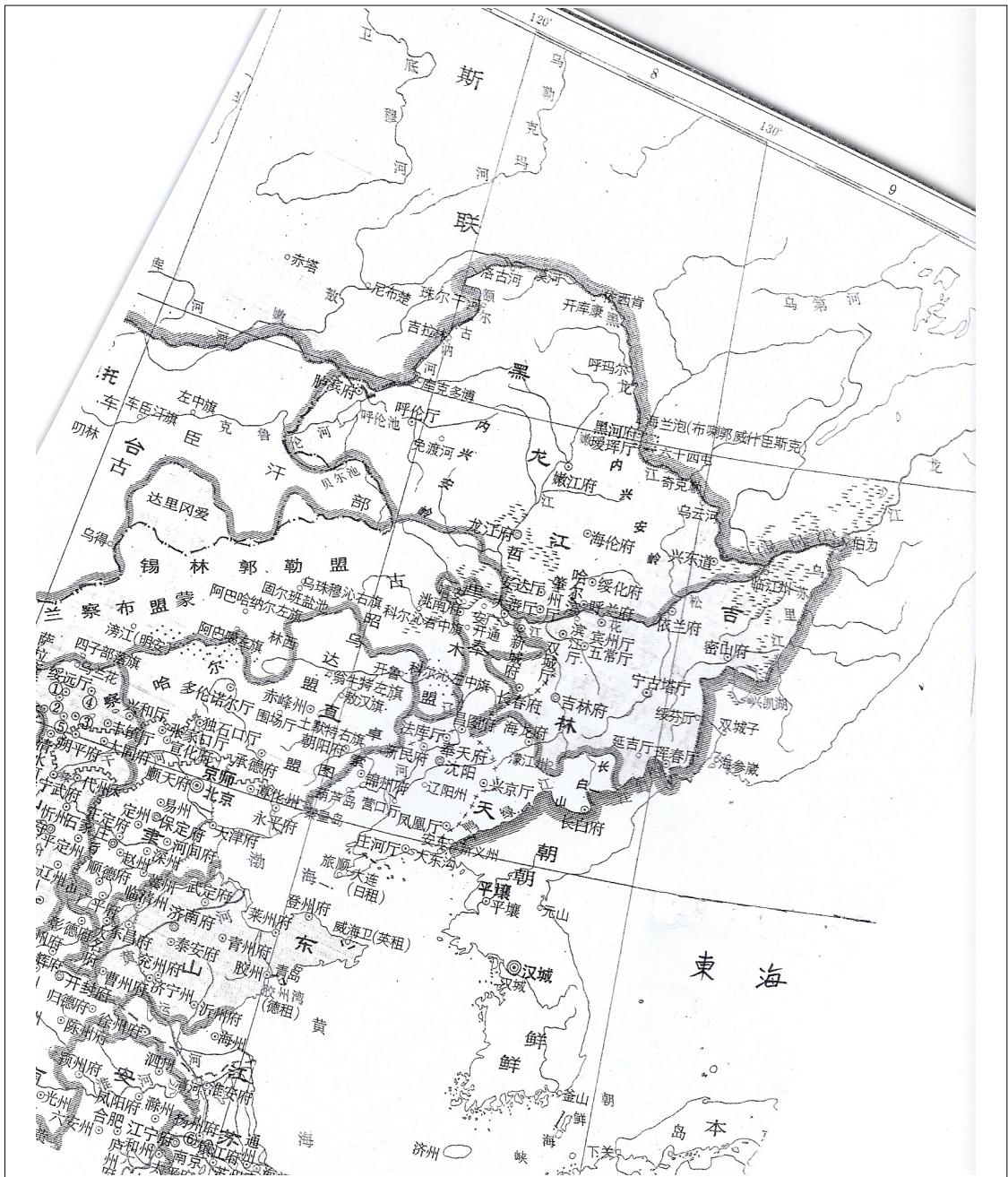
10) 白鳥庫吉, 1905, 「滿洲의過去及び將來」 『世界』 8 ; 1970, 『白鳥庫吉全集』 8(アジア史論 上), 岩波書店, 17쪽. ; 福昌公司調査部, 1918, 『滿蒙通覽』, 大阪屋號書店, 238쪽. 만주의 영역이 東三省에다 러시아 연해주, 그리고 ‘北部朝鮮’까지 포함한다고 보기도 한다(藤田元春, 1936, 『滿洲歷史地理』, 東京 : 富山房, 1쪽).

11) 那珂通世, 1888, 『支那通史』, 大日本圖書株式會社 : 那珂通世 著和田清 譯, 1937, 『支那通史』, 岩波書店, 21~26쪽. 梁啓超도 중국의 영토를 ‘중국本部’와 新疆[또는 回部], 靑海, 西藏, 몽고, 만주의 屬部로 구분하고 있는데(梁啓超, 1905, ‘地勢’·‘中國地理大勢論」 「中國史敍論」 『飲水室文集』 下, 廣智書局), 양계초의 공간에 대한 인식은 모두 일본인이 쓴 ‘지나사’, ‘동양사’ 저작에서 온 것이라고 한다(고성애, 2011, 「중국에는 역사가 없는가? -지나사, 동양사에서 중국사에 이르기까지-」 『개념과 소통』 8, 127쪽).

12) 何爲民, 2007, 「近代日本の「支那」·「滿蒙」呼稱」 『現代社會文化研究』 39, 9쪽. 이때의 만몽은 만주와 몽고 전체가 아니라 일본이 확보한 ‘남만주’와 ‘동부 내몽고’를 의미하였다고 한다(中見立夫, 1993, 「地域概念の政治性」 『アジアから考える [1]-交錯するアジア』, 東京大學出版會 : 나카미 다츠오(中見立夫)·번역 김준영, 「地域概念의 政治性」 『만주연구』 9, 192~195쪽).

13) 寶文館 編, 1913, 『内外總合地誌』, 寶文館, 94-108쪽(何爲民, 2007, 앞의 논문에서 재인용).

14) 何爲民, 2007, 「近代日本の「支那」·「滿蒙」呼稱」 『現代社會文化研究』 39, 12쪽.



【그림 1】 1908년 청나라 東三省[奉天省, 吉林省, 黑龍江省]

(譚其驤 編, 1996, 「清時期全圖(二)」 『簡明中國歷史地圖集』, 中國地圖出版社)

1932년 만주국이 건국되어 ‘만주사’가 ‘滿洲國史’ 또는 ‘滿洲國 歷史’와 같은 의미가 되면서 만주국 영토가 ‘만주사’의 영역이 되었다.【그림 2】 그 결과 만주는 東三省을 넘어 熱河省과 몽고 방면 내륙 일부까지 포함하게 되었다.



【그림 2】「滿洲國地圖」(尹輝鐸, 1996, 『日帝下「滿洲國」研究』, 一潮閣)

그런데, ‘만주사’를 서술할 때에는 한반도 북부지방까지 포함하여 고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만주민족인 예맥족, 여진족 등이 한반도 북부에서 활동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만주를 고찰할 때 지금의 한반도 북부는 반드시 동시에 고려해야하며, 北鮮은 滿洲遼東의 연장이라고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¹⁵⁾. 이러한 해석은, ‘만주사’가 ‘만주지역의 역사’가 아니라 만주지역에서 기원한 ‘만주민족의 역사’로 변질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5) 矢野仁一, 1935, 「滿洲史」, 『世界歷史大系-朝鮮滿洲史-』, 平凡社, 220쪽. 한사군에 대해 서술하면서, ‘엄밀한 의미에서 지리적으로 지금의 만주에 직접관계 있는 것은 물론 현도군뿐이지만, 현도군 안에서 고구려라는 국가가 출현한 일은 만주족 발전사상 자못 주목할 가치가 있는 일이다’고 하여 지리적인 위치상 한사군 가운데 만주사와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것은 현도군뿐이라고 지적하였다(矢野仁一, 1935, 「滿洲史」, 『世界歷史大系-朝鮮滿洲史-』, 平凡社, 225쪽).

(2) '만주사'의 시기구분

'만주사' 개설서의 '만주사' 시기구분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만주사'는 만주 지역의 역사이므로, 만주에서 일어나 만주를 영토로 가지고 있었던 역대 왕조나 만주 외부에서 들어와 만주지역을 장악했던 역대 왕조들을 시기순으로 나열하여 서술하고 있다. 즉 고구려-발해-요(거란)-금(여진)-원(몽고)-明代의 만주-청의 순서로 '만주사'의 왕조 계통을 정리하였고, 고구려가 만주를 장악하기 이전에는 숙신·예맥 등의 '만주민족'과 漢 등 중국 왕조의 만주 진출을 주요 내용으로 서술하고 있다.

1905년 '만주사'가 주창된 이래 만주 역사와 관련된 최초의 단행본은 『滿洲歷史地理』¹⁶⁾(1913)이다. 이 책에서는 漢代부터 淸初까지 왕조별로 만주의 지리와 교통로·강역을 서술하고 있는데, 제대로 된 시기구분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아직 '만주사' 전체의 체계가 갖추어지지 않은 초기의 상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그리고 한사군의 설치·위치·강역·변화과정을 서술한 「漢代의 朝鮮」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이 목차 상 특이한 점이다.

'만주사' 전체를 하나의 체계로 일괄해서 개설한 통사가 등장한 것은 대체로 만주국이 성립한 1932년 이후였다. 만주국 건국의 정당성을 강화하기 위해 일관된 체계의 만주 역사를 정리하고 교육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만주사' 개설서를 발간하는 일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들 개설서의 시기구분을 보면, 고구려·발해·遼[거란]·金·元 등 왕조의 시대순서로 정리하거나¹⁷⁾, 왕조 순서와 근대 역사학의 시대구분을 결합하여 上世·中世·近世·最近世¹⁸⁾ 또는 上代·中古·近世¹⁹⁾로 구분하였다. 또 '만주민족'의 변화 과정을 기준으로 (만주)민족의 原始·성장·발전 등으로 단계를 지어서 서술하거나²⁰⁾, 上古史·中古史·近古史로 구분한 뒤에 만주민족의 변화과정으로 세분하기도 했고²¹⁾, 원·명 시기에도 표제어를 여진족 중심으로 정하여 '만주민족'을 강조한 시기구분도 있다²²⁾. 이렇게 특별히 만주민족을 강조한 시기구분은 당시의 시대적 요구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이들 시기구분에서는, 만주 영역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발해 이후에는 대체로 왕조별 구분을 기본으로 하고 몇 왕조를 묶어서 상위 단위로 다시 구분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고구려의 경우, 발전 과정에 따라 영토의 범위가 달랐기 때문에 개설서 별로 약간씩 다른 표제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대부분 최초의 만주민족 국가로서 전면에 드러내고 있다. 분량 상으로도 고구려와 발해 관련 부분은 다른 왕조 시기에 비해서 거의 동등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고구려 이전에는 눈에 띄는 국가가 없기 때문에 각 개설서마다 체제와 구성이 약간씩 다르지만, 통구스계의 숙신족과 예맥족 등 '만주민족'과 부여에 대해 서술하고 있고, 漢四郡 등 중국의 만주 지역 진출에 대한 내용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본 발표문에서 주된 고찰의 대상이 되는 시기는 발해까지이다.

16) 白鳥庫吉 監修 箭內瓦稻葉岩吉松井等 撰, 1913, 『滿洲歷史地理』 제1·2권, 東京: 南滿洲鐵道株式會社

17) 及川儀右衛門, 1935, 『滿洲通史』, 東京: 博文館; 豊田要三, 1943, 『滿洲史』, 新京: 滿洲事情案內所

18) 大原利武, 1933, 『概說 滿洲史』, 京城: 近澤書店

19) 支那地理歷史大系刊行會 編, 1943, 『支那周邊史』 上·下卷, 東京: 白揚社

20) 稻葉岩吉, 1940, 『滿洲國史通論』, 東京: 日本評論社

21) 南滿洲教育會 編, 1934, 『滿洲新史』, 大連: 滿洲文化協會

22) 稻葉岩吉·矢田仁一, 1935, 『世界歷史大系』 11(朝鮮·滿洲史), 東京: 平凡社

【표 1】 '만주사'의 시기구분

『滿洲歷史地理』 (1913, 南滿洲鐵道株式會社)		『概說 滿洲史』 (1933, 大原利武)	『滿洲新史』 (1934, 南滿洲教育會)	『滿洲通史』 (1935, 及川儀右衛門)	
		총설 上古의 狀況	총설		
제 1 권	漢代의 朝鮮	上世 전기 : 朝鮮時代(原史時代)	上古史 -만주의 原住民族 -上代의 문화 -滿洲族의 建國時代	上代의 만주	
	漢代의 滿洲	上世 중기 : 遼東郡 및 高句麗時代 (피정복 및 독립시대)		高句麗國	
	三國時代의 滿洲				
	晉代의 滿洲	上世 후기 : 純高句麗時代 (독립시대)			
	南北朝時代의 滿洲				
	隋唐 二朝 高句麗遠征의 地理				
	渤海國의 疆域	中世 전기: 屬唐 및 渤海時代 (피정복 및 독립시대)		만주족의 부흥시대	渤海國
제 2 권	滿洲에서의 遼의 疆域	中世 중기 : 遼시대(小활약시대)	中古史	滿蒙민족의 부흥발전시대	遼代의 만주
	許亢宗의 行程錄에 보이는 遼金時代의 滿洲交通路			만주민족의 제1회 支那침입시대	金代의 만주
	滿洲에서의 金の 疆域	中世 후기 : 金시대(大활약시대)	近古史	몽고족의 발흥발전시대	元代의 만주
	東眞國의 疆域			만주족의 제2회 支那침입시대	明代의 만주
	滿洲에서의 元의 疆域	近世 전기 : 元시대(피정복시대)	清代의 만주		
	元明時代의 滿洲交通路			近世 중기 : 明시대(雌伏시대)	
	明代 遼東의 邊牆	近世 후기 : 淸시대(대활약시대)			
	建州女直의 原地 및 遷住地		最近世 전기(淸시대)		
	淸初의 疆域	最近世 후기 (民國시대)		現代史	만주를 둘러싼 列國의 국제관계

『世界歴史大系』11 (朝鮮・滿洲史) (1935, 矢野仁一)	『滿洲國史通論』 (1940, 稻葉岩吉)	『概觀滿洲史』 (1942, 伊藤義一)	『支那周邊史』 (1943)	『滿洲史』 (1943, 豊田要三)					
고대의 만주	民族의 肅愼 夫餘族의 神話 破走되는 東胡 古朝鮮	過去의 滿洲	上代	고대의 만주					
滿洲民族興起時代	原始 匈奴 匈奴의 左腕的 세력 漢四郡問題 樂浪郡 개설과 日本 夫餘의 정치와 法俗			古代의 만주	濊貊族의 활동과 만주의 형세	前漢시대의 滿鮮			
鮮卑族의 활약과 高句麗의 盛衰	民族의 烏丸과 鮮卑 高句麗의 國家 創成 초기의 고구려국 濊·沃沮·挹婁 等 高句麗의 通吳			高句麗國	肅愼系 種族의 활동과 고구려국	만주 諸部族의 興起			
	成長 漢魏 外交와 印綬 麗魏關係와 日本 鮮卑 慕容氏 遼西에서 일어나다					고구려시대			
	民族의 고구려 크게 일어나다 麗隋戰爭과 日本								
	民族의 發展(上) 渤海國 創建						渤海國	발해국의 흥망	발해시대
	契丹時代						民族의 發展(中)	遼代의 滿洲	契丹
金時代	民族의 發展(下)			金國	女眞		金시대		
女眞族 衰亡 후의 만주	民族의 新生			元代의 滿洲	元代의 만주	元시대			
建州·海西 兩女直 중심의 만주시대				明代의 滿洲	明代의 만주	明代의 만주			
清朝의 흥기				淸의 興起	清代의 만주	清代의 만주			
清代의 만주	淸代의 滿洲			近世					
	民族發展의 復現				滿洲帝國의 建設	現代의 만주	중화민국시대 와 만주국		

2. 러일전쟁(1904~1905) 이후 고대 만주 역사 인식

(1) 白鳥庫吉의 고대 만주 역사 인식

‘만주사’·‘만선사’ 연구가 주창되고 시작된 데에는 러일전쟁 이후 대한제국을 ‘보호국’화한 뒤 만주로 진출하려는 일제의 침략정책이 배경으로 자리하고 있다. 따라서 당연히 ‘만주사’·‘만선사’의 주요 연구 주제와 내용, 그리고 만주 역사에 대한 인식에는 이러한 필요성에 부응하는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 白鳥庫吉와 그의 ‘만주사’ 인식이 그 점을 잘 보여주는데, 白鳥庫吉에 따르면 조선과 만주는 일본 國運의 消長에 관계가 있기 때문에 ‘滿韓經營’의 실제적인 필요성을 위해 滿韓지방에 관한 학술상 근본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였다²³⁾.

白鳥庫吉는 지리와 역사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전제하면서, 아시아의 역사를 지리적 특징에 따라 남북으로 구분하여 사막과 광야가 펼쳐져 있는 북부는 척박한 반면, 남부는 漢民族의 문화나 인도·아리안 문화와 같은 文化를 낳는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이를 亞細亞의 二元的 現象(Dualism)이라고 불렀다²⁴⁾. 그리고 古(代)에는 漢民族으로 대표되는 남의 세력과 北狄이라 통칭되는 북의 세력의 쟁패가 아시아 역사의 대강이라고 보았다²⁵⁾.

남북 대항의 동쪽 끝에 위치한 것이 만주·조선·일본이라고 보았다. 그 가운데 만주 민족은 퉁구스 종족이 흑룡강 방면에서 남하하여 지금의 만주에 들어와 遼河 유역에서 동쪽으로는 백두산, 서쪽으로는 遼西 및 청말의 直隸省[奉天省 동쪽에 위치] 북부까지 널리 거주했는데, 중국 서적에 獫狁이나 肅慎 등으로 기록된 민족이 이들이라고 하였다.

만주의 퉁구스 민족으로 제일 먼저 국가로 등장한 것은 고구려인데²⁶⁾, ‘조선’의 조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만주의 퉁구스로서 扶餘民族이었고, 그 인민 중에 ‘조선인’도 있었지만 국왕은 퉁구스로 만주인이었다. 고구려 다음에 일어난 국가가 발해인데, 같은 퉁구스였지만 獫 계통인 고구려와는 달리 발해는 숙신·물길 계통의 말갈이었다. 발해는 남쪽으로 신라, 서남쪽으로 唐, 북쪽으로 흑수말갈의 세 방향의 세력에게 끼어 고립된 지위에 서 있는 운명이었는데, 건국 초부터 일본에 조공하여 멸망할 때까지 일본과 빠짐없이 통교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발해는 당 文化를 배우고 당

23) 白鳥庫吉, 1913, 「序」 『滿洲歷史地理』 제1권, 東京 : 南滿洲鐵道株式會社

24) 白鳥庫吉, 1904, 「我が國の強盛となりし史的原因に就て」 『世界』 1 : 1971, 『白鳥庫吉全集』 9(アジア史論下), 岩波書店, 162쪽 ; 白鳥庫吉, 1905, 「滿洲の過去及び將來」 『世界』 8 : 1970, 『白鳥庫吉全集』 8(アジア史論上), 岩波書店, 18~19쪽.

25) 白鳥庫吉, 1926, 「東洋史に於ける南北の對立」 『東洋史講座』 16 : 1970, 『白鳥庫吉全集』 8(アジア史論上), 岩波書店, 69~84쪽.

26) 白鳥庫吉는 처음에는 고구려를 ‘조선사’의 일부로 인식했지만 1905년 무렵부터 ‘만주사’의 일부로 이해했다. 고구려는 ‘조선반도의 舊國’으로서, 기원 전후에 한나라 四郡 가운데 일어나 발전했다고 하면서 고구려의 역사를 ‘조선사’ 안에서 서술하고 있다(白鳥庫吉, 1896, 「高句麗の名稱に就きての考」 『國學院雜誌』 2-10 : 1970, 『白鳥庫吉全集』 제3권(朝鮮史研究), 岩波書店, 99쪽. 및 白鳥庫吉, 1894, 「朝鮮史 一」(미발표원고) : 1971, 『白鳥庫吉全集』 제3권(朝鮮史研究), 岩波書店, 540~573쪽·585~598쪽).

의 제도문물을 모방하였기 때문에, 점차 文弱에 빠져 북방의 강한 성질을 잃어버렸고, 이로 인해 거란에게 멸망당했다고 이해하였다²⁷⁾. 만주민족으로 예맥계의 부여민족이 세운 고구려와 숙신계인 말갈족이 세운 발해가 있다는 것이다.

白鳥庫吉가 남북이원론과 함께 지리적 관점에서 만주의 역사를 해석하는데 활용하는 또 하나의 개념이 '間空地'[neutral zone, 중립지대]이다. 이 개념 또한 당시 일제의 한반도·만주 진출을 전제로 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白鳥庫吉에 따르면, 만주는 만주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있는 중국과, 북쪽과 남쪽에서 각각 철도를 가지고 있는 러시아·일본 사이에서 '間空地'상태에 있다.

당시의 만주와 같이 3세력이 충돌하는 '間空地'가 한반도와 만주 역사에 여러 차례 등장하였다. 漢 高祖 시대에 漢 세력은 압록강 하류까지 거주하였고, '支那人' 箕子가 세운 朝鮮이 압록강 남쪽 한반도 평안도·황해도·경기도 지역에 자리했으며, 遼西·遼東의 塞外에서 압록강·두만강 남쪽 함경도·강원도까지 穢·貊이 거주했는데, 압록강 하류의 평안북도 龍川·義州 지역 -『史記』 등에서 '秦의 故 空地'라고 기록된 곳-이 箕氏 朝鮮, 穢·貊, 前漢 세력이 충돌하는 '間空地'였다.

또 漢 武帝에서 後漢까지는 한반도 서북부에 군현을 설치한 漢 세력과, 강원도 남단까지 세력을 미친 穢·貊, 한반도 남부의 三韓의 3세력 사이에는 서울 부근의 한강유역이 '間空地'이자 분쟁지였고, 발해 건국 이후에는 압록강 이남에서 대동강에 이르는 지역이 발해, 당, 신라 사이의 '間空地'였다. 이들 '間空地'는 진시황이 그랬던 것처럼 세 세력 가운데 하나가 다른 두 세력을 배척할 정도의 힘을 가졌을 때는 이곳을 잘 영유할 수 있겠지만, 세 세력의 차등이 없어진다면 자연스럽게 무소속의 분쟁지로 남는다고 이해했다²⁸⁾.

이러한 서술은 만주 지역을 과거로부터 여러 세력이 만나게 되는 교차점이라 분쟁지로 인식하여 러일전쟁 이후의 만주 상황과 대비시키려 한 것이고, 진시황이 그랬던 것처럼 일본이 여타 세력을 위압하고 이 지역을 장악하려는 현실적인 바람을 학술적으로 보조하려는 의도였다²⁹⁾. 즉 남북이원론의 관점에서, 당시 허약한 중국을 대신한 남쪽의 영국과 북쪽의 러시아가 남북에서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원적 형세를 이용하여 자유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은 만주를 차지하는 민족인데, 여기에 좋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일본이므로 만주를 합병하여 東亞의 天地에 패권을 떨쳐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³⁰⁾.

27) 이상 白鳥庫吉, 1909, 「滿洲民族の過去」 『東洋時報』 132 : 1971, 『白鳥庫吉全集』 9(アジア史論 下), 岩波書店, 325~328쪽. 만주민족으로 세 번째 일어난 국가는 여진족의 金이고, 네 번째 국가는 淸이라고 보았다(白鳥庫吉, 같은 책, 328~329쪽).

28) 白鳥庫吉, 1912, 「漢の朝鮮四郡疆域考」 『東洋時報』 2-2 : 白鳥庫吉·箭內互, 1913, 「漢代の朝鮮」 『滿洲歴史地理』 제1권, 南滿洲鐵道株式會社, 33~35쪽·43~45쪽. ; 白鳥庫吉, 1912, 「滿洲問題と支那の將來」 『中央公論』 27-6 : 1971, 『白鳥庫吉全集』 10(雜纂 他), 岩波書店, 148~154쪽.

29) 이준성, 2014, 「白鳥庫吉의 한사군연구와 「만선사」」 『식민주의 사학의 실상과 허상』(한국역사연구회·연세대학교 역사문화학과 BK21+ 사업팀 공동주최 학술회의 발표문), 한국역사연구회, 58쪽.

30) 白鳥庫吉, 1905, 「滿洲の過去及び將來」 『世界』 8 : 1970, 『白鳥庫吉全集』 8(アジア史論 上), 岩波書店, 21~23쪽.

(2) 『滿洲歷史地理』와 고구려·발해 인식

白鳥庫吉이 만철총재 後藤新平의 후원으로 만철 조사부 아래에 ‘滿鮮歷史地理調查部’를 설치한 뒤, ‘만주사’와 관련하여 나온 첫 성과물이 『滿洲歷史地理』 제1권이다. 【표 1】의 목차에서 알 수 있듯이, 「漢代的 朝鮮」, 「漢代的 滿洲」부터 「渤海國의 강역」에 이르기까지 시기별로 만주의 역사지리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첫 시작이 「漢代的 朝鮮」이다. 여기서의 조선은 고조선인데, ‘기자조선’과 위만조선을 가리킨다. 일본인들은 단군신화가 몽고의 침입을 당한 고려후기에 승려인 일연에 의해 창작된 것으로 보았다³¹⁾. ‘기자조선’에 대해서는 ‘기자동래설’을 인정하여 기자가 조선에 제후로 봉해져서 조선을 다스렸다고 이해하는 견해³²⁾도 있지만, ‘기자전설’을 중국인들이 한반도 서북부 지역으로 이주해온 역사적 사실을 반영하는 전설로 이해하면서 이를 부정하는 견해가 대부분이다³³⁾. 반면, 위만은 연나라에서 망명해왔다는 『삼국사기』의 기록을 그대로 따라 중국인으로 인정하고 있다.

만주의 역사지리를 서술할 때, 먼저 한반도 서북부와 남만주에 영토를 가지고 있었던 ‘기자조선’과 위만조선부터 서술해야 하지만 관련된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 漢이 위만조선을 멸망시킨 후 설치한 漢四郡의 위치와 강역, 이동에 대해 서술한 것이다.

두 번째 「漢代的 滿洲」에서는 遼東郡, 遼西郡, 右北平郡 등 위만조선의 강역과 관련 없는 만주 지역 郡縣을 서술하여 「漢代的 朝鮮」과 구분하고 있다. 같은 漢의 郡縣이었으면서도 遼東郡, 遼西郡과 樂浪郡, 玄菟郡을 구별했던 것은, ‘기자조선’은 漢族이 한반도로 건너가 세운 colony[식민지]였고 위만조선은 ‘기자조선’을 이은 新colony였다고 이해하거나³⁴⁾, 고조선 즉 ‘기자조선’과 위만조선이 만리장성이라는 국경 바깥에 최초로 세워진 漢族의 독립국이었다고 이해했기³⁵⁾ 때문인 듯하다.

「漢代的 滿洲」부터 「남북조시대의 만주」까지는 각 왕조의 「지리지」를 활용하여 왕조별로 만주지역에 설치한 중국 郡縣의 위치와 강역을 꼼꼼하게 고증·정리하였으며, 중국 군현 바깥의 만주 지역에 대해서는 「兩漢 영토 이외의 만주」, 「魏 영토 이외의 만주」, 「西晉 영토 이외의 만주」, 「北朝 諸國 영토 이외의 만주」라는 항목을 만들어 烏桓, 鮮卑, 夫餘, 挹婁, 高句麗, 濊貊, 勿吉 등의 위치와 강역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그 중 고구려에 대해서는 「北朝 諸國 영토 이외의 만주」에서 前燕~北齊北周까지

31) 불교 용어인 桓因 즉 桓因帝釋陀羅나 도교 용어인 風伯雨師雲師 등을 근거로 볼 때 불교나 도교가 수용된 이후에 만들어진 신화라고 이해하거나(那珂通世, 1894, 「朝鮮古史考三」, 『史學雜誌』 5-4 ; 白鳥庫吉, 1894, 「檀君考」, 『學習院輔仁會雜誌』 28 및 1894, 朝鮮의 古伝説考, 『史學雜誌』 5-12 ; 1970, 『白鳥庫吉全集』 제3권(朝鮮史), 1~14쪽 및 15~24쪽.), 세계 다른 국가의 건국신화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천지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없고, 『삼국유사』 「왕력」과 『삼국사기』에 주몽이 단군의 아들이라거나, 단군의 아들인 부루의 아들로 기록되어 있는 것에 주목하여 단군신화가 우리 민족과 관련이 있다고 하여도 백제신라와는 무관하고 고구려와만 관련이 있다고 보았다(今西龍, 1929, 「檀君考」, 『靑邱說叢』 1 : 1937, 『朝鮮古史의 研究』, 近澤書店).

32) 林泰輔, 1912, 『朝鮮通史』, 富山房

33) 今西龍, 1922, 「箕子朝鮮伝説考」 上·下, 『支那學』 2-10~11 ; 白鳥庫吉, 1913, 「漢代の朝鮮」, 『滿洲歷史地理』 제1권, 南滿洲鐵道株式會社, 47~48쪽. ; 小田省吾, 1926, 「朝鮮上世史」, 『朝鮮史講座 一般史』, 朝鮮史學會, 33~37쪽.

34) 稻葉岩吉, 1935, 『增訂滿洲發達史世』, 日本平論社, 13~15쪽.

35) 藤田元春, 1936, 『滿洲歷史地理』, 富山房, 11~12쪽.

각 대외 전쟁의 전개과정에 맞추어 영토의 변화 과정을 자세하게 서술하고 있다. 역사지리라는 책명에 어울리는 내용이다.

「隋唐二朝高句麗遠征の地理」은 수와 당이 고구려를 공격했을 때, 전투가 벌어졌던 주요 城의 위치와 특징, 공격로, 공격 전술 등을 매우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전투가 일어났던 요하.요동 지역의 군사지리적 특징을 잘 알 수가 있는데, 마치 향후 요동지역에서 일본군이 전투를 벌이는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역사지리적인 정보가 담겨져 있는 듯하다. ‘滿韓經營’을 위해 학문이 기여할 수 있는 좋은 본보기라고 여겼을 수도 있다.

고구려의 전쟁에 대한 이러한 역사지리 고증과 관련하여 주목할 수 있는 것이 고구려가 요동 및 압록강 하류 지역을 지배함으로써 強國이 될 수 있었다고 강조한 인식이다. 초기 ‘만주사’ 연구자들은 당시 만주로 진출하려고 했던 일제에게 있어 요동과 압록강 하류 지역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에 대해 고구려의 역사에서 배워야한다고 주장했다.

즉, 한반도 세력으로 北進했던 것은 천년 동안 오직 고구려왕국뿐인데, 고구려는 요동반도를 確守하여 한반도의 존립을 온전하게 할 수 있었고 반도의 세력에 힘입어 만주를 통괄함으로써 비로소 滿韓一統의 經營을 보았으므로, 일본도 고구려를 본받아 요동반도를 確守해야 한반도를 지킬 수 있다고 하거나³⁶⁾, 일본이 한반도를 완전하게 경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요동반도에 세력을 扶植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大連.旅順을 租借하고 대련에서 장춘에 이르는 東清鐵道를 얻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³⁷⁾.

요동지역과 함께 강조된 지역이 압록강 하류 九連城이다. 『滿洲歷史地理』 「三國時代の滿洲」에서는, 漢初 이래로 西安平이라고 불렸던 九連城은 古來로부터 남만주와 한반도를 연결하는 요충지로서, 이 땅이 일단 적의 수중에 떨어지면 한반도에 있는 ‘支那’의 郡縣은 모두 고립되었다고 인식하였다. 또 242년 서안평이 고구려의 위협을 받게 되자, 한반도에서의 영토를 보전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魏가 244~245년에 冊丘儉을 보내 고구려를 공격한 것이라고 하였다³⁸⁾.

그런데, 魏나라가 쇠퇴하면서 만주의 開原이 고구려의 수중으로 들어왔고, 西晉 말기에는 西安平이라고 불리던 압록강 하류의 九連城도 취했다. 중국이 만주와 한반도의 교통로 상의 요충지 이 九連城을 잃어버린 것은 중국이 한반도에서 영토를 완전히 잃어버렸다는 것을 뜻한다³⁹⁾고 의미를 부여하였다.

한편, 『滿洲歷史地理』 제1권의 「渤海國의 疆域」은 말 그대로 발해의 南.西.北界를 고증한 것인데, 『滿洲歷史地理』 제2권의 遼의 영역, 金の 영역 등과 같은 방식이다.

발해사와 관련해서 이 시기에 한 가지 주목할 성과는 鳥山喜一의 『渤海史考』(1915)⁴⁰⁾이다. 당시 ‘만주사’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됨으로 인해, 白鳥庫吉 또는 滿鮮歷史

36) 稻葉君山, 1907, 「韓半島の保障と遼東半島」(下) 『東洋時報』 106, 57쪽. ; 稻葉君山, 1907, 「韓半島の保障と遼東半島」(上) 『東洋時報』 105, 51쪽.

37) 白鳥庫吉, 1907, 「歷史上に於ける滿州の地位」 『斯民』 2-1(井上直樹, 2013, 『帝國日本と<滿鮮史>』, 塙書房, 77~78쪽에서 재인용)

38) 箭內互, 1913, 「漢代の朝鮮」 『滿洲歷史地理』 제1권, 南滿洲鐵道株式會社, 222~223쪽.

39) 箭內互, 1914, 「歷史上より見たる朝鮮と滿洲」, 『朝鮮及滿洲之研究』 1, 12쪽.

地理調査部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연구자들을 자극하였고 학문적 생애를 발해사 연구에 헌신한 鳥山喜一도 그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⁴¹⁾.

鳥山喜一은 『渤海史考』에서 발해의 건국과 멸망, 문화, 일본과의 관계, 강역 등을 서술하여 발해에 대한 기본적인 사료와 내용 등을 거의 모두 포괄하여 설명하고 있다. 발해는 말갈민족의 국가로 보았다. 문화적으로는 속말말갈이 말갈 중에서도 지리적으로 ‘支那本部’와 가까워 그 문화의 영향을 받았던 데다가, 대조영 등 지배층이 고구려 문화의 영향을 받았고, 이어 당 문화를 수용하여 발해 문화를 이루었다고 인식했다. 하지만, 이러한 문화는 상층의 문화였고, 발해의上下는 모든 면에서 심하게 동떨어져 있었고 무지한 하류사회가 문명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으며, 국가 조직이 脆弱해 질 때는 스스로 붕괴될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

白鳥庫吉는 만주와 일본의 交通이 있었던 것은 발해국이었다고 하였는데⁴²⁾, 鳥山喜一은 이러한 발해와 일본과의 관계를 좀 더 자세히 분석하였다. 즉, 발해가 당·신라와의 대립 관계로 인해 일본에 군사적인 원조를 요청하기 위해 主從的 관계를 맺어 일본을 宗主國으로 대우하여 조공을 했다가, 이후에는 ‘商旅主義’ 즉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교류했다고 하였다. 또한 발해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는 것이 疆域 그 중에서도 중심적인 도시인 五京의 고증이라고 하면서 이에 대한 상세한 분석을 하였다.

결론에서, 鳥山喜一은, 발해가 스스로 빛을 밝히는 능력이 없는 달과 같다고 하였다. 즉 발해 문화는 빛나는 당 문화의 빛을 받아 그것을 반사하는 달빛[月光] 같은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발해문화의 독자성이나 주체성 등을 인정하지 않는 해석인데, 발해가 ‘만주사’의 일부분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만주민족’의 역사가 독자성·주체성이 없다고 해석할 여지도 있는 평가라고 할 수 있다.

3. 만주국 건국(1932) 이후 고대 만주 역사 인식

(1) 만주국 건국 이후 ‘만주사’ 연구자의 과제

1931년 만주사변과 1932년의 만주국 건국 이후 일본의 ‘만주사’ 연구자들은 두 가지 과제를 안게 되었다. 하나는 중국학자들의 ‘만주사’ 비판에 대한 반박이고, 또 하나는 새로 건국한 만주국의 역사체계를 확립하는 것이었다.

1930년대 이후 중국학자들 사이에서 ‘만주사’에 대한 비판이 크게 일어났고, ‘만주사’를 긍정하는 일본학자들은 이러한 주장을 반박해야할 필요가 있었다. 당시 ‘만주사’를 비판하면서 ‘역사상 중국 동북지방은 중국의 완전한 일부였다.’는 중국측 입장

40) 鳥山喜一, 1915, 『渤海史考』: 鳥山喜一 著 船木勝馬 校訂・解題, 1977, 『渤海史考』, 東京: 原書房

41) 外山軍治, 1967, 「日本における滿州史研究」 『歴史教育』 15-9-10, 76쪽.

42) 白鳥庫吉, 1910, 「古代日滿の交通」 『大阪毎日新聞』 1910년 2월 11일자: 1971, 『白鳥庫吉全集』 9(アジア史論 下), 岩波書店, 417쪽.

을 정리한 것이 傅斯年의 『東北史綱』(1932)과 이것을 요약·번역한 李濟의 『Manchuria in History』(역사상의 만주)(1932)였다⁴³⁾.

이러한 중국측 주장을 반박하는 ‘임무’를 수행한 사람이 矢野仁一였다. 그는 『滿洲國歷史』(1933)를 저술하여, 먼저 「만주를 支那의 일부라고 하는 국제연맹의 관점과 외무성의 의견서」에서 리튼 보고서, 국제 연맹의 권고안, 일본 외무성의 의견서 내용을 소개했다⁴⁴⁾. 이어 「만주는 支那의 완전한 일부라고 하는 支那학자의 주장을 논박한다」에서 선사시대부터 청말까지 각 시기별로 중국측 주장을 정리·소개하고 이것을 일일이 반박했다⁴⁵⁾.

이어 반박한 내용을 다시 『滿洲國史梗概』에서 요약하였다. ‘전국시대 燕부터 魏·晉 시대에 걸쳐 支那 세력은 渾河 상류와 大凌河 상·중류까지 미치기도 했지만, 봉천성·길림성·흑룡강성을 포함한 광대한 지역에 비교하면 겨우 일부분에 지나지 않았고, 이들 지역에는 읍루, 부여, 고구려, 오환·선비 등이 점거하고 있었다’, ‘東晉부터 隋唐 시대까지 만주에서 만주종족인 고구려와, 五胡 諸國 가운데 前燕·前秦·後燕·北燕 및 北朝 拓跋魏·北齊·北周가 서로 대립하고 있었다’, ‘唐나라 때 수십년 간 요하유역 영토가 당의 안동도호부 관할 아래에 들어갔지만, 실제 군현을 다스린 것은 고구려 출신들이었고 안동도호부도 곧 移置되었으며, 발해가 건국되어 숙신, 예맥, 옥저, 고구려, 부여, 읍루 등 역사에 나타난 만주종족의 故土를 모두 領內에 포함하였다’고 하여 만주에는 支那人의 세력이 미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⁴⁶⁾.

두 번째 과제는, ‘만주사’가 ‘지나사’의 일부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면서, ‘王道國家의 건설이라는 새로운 국가이념으로 건국된’ 滿洲國의 國史로서 ‘滿洲國史’ 또는 ‘滿洲史’의 체계를 세워 서술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만주국 건국 이후 다양한 개설서의 발간을 통해 시도되었다.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여 만주 3천년의 역사를 그 기본적인 입장에서 기술·편찬하며, 古來 滿蒙의 땅은 支那本部와 대립한 특수지역으로 本部와는 전혀 별개의 존재였음을 밝히고 滿蒙民族의 독자적 발전사로서 기술한다.’(거나⁴⁷⁾), ‘만주국에서 일본인의 사명을 이해시키는 것이 중대한 과제이므로 이를 위해

43) 傅斯年의 『東北史綱』은, 중국 동북지역은 중국의 영토이므로 일본의 침략은 부당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이 책을 저술하였다(강성봉, 2009, 「1930~1940년대 중국 지식인의 ‘동북지역사’ 인식」 『일제시기 만주사·조선사 인식』, 동북아역사재단, 95쪽). 중국은 만주사변 직후 국제 연맹에 일본을 제소했는데, 국제 연맹에서는 영국인 리튼(Lytton, 1876~1947)을 단장으로 한 조사단을 파견했다. 李濟는 『Manchuria in History』를 조사단에 제출하여 만주가 역사상 중국의 영토라고 주장했는데, 리튼을 이것을 근거로 ‘만주는 완전한 중국의 일부’라는 내용을 포함한 보고서를 작성했다. 리튼 보고서를 근거로 국제 연맹에서는 만주에 대한 중국의 주권을 인정하고 일본에게 만주사변 전의 상황으로 복귀할 것을 권고하는 대일 권고안을 채택했고(1933년 2월), 이에 반발한 일본은 3월 국제 연맹 탈퇴를 통고했다. 李濟가 제출한 『Manchuria in History』는 傅斯年의 『東北史綱』을 요약하여 영문으로 번역한 것이다.

44) 矢野仁一, 1933, 『滿洲國歷史』, 目黒書店, 1~24쪽.

45) 고대에 관련된 항목을 보면, ‘선사시대 발해의 동북연안 일대 즉 남만주 및 서북조선은 그 서남연안 황해유역의 北支那와 동일한 지역이었다는 설’, ‘고대 만주에서 만주인이 거주했던 문헌적 증거’, ‘만주는 支那人의 原住地였다는 설’, ‘고대 만주인과 고대 支那人이 동일인종이라는 설’, ‘遼河 谿谷地·요동반도는 옛날부터 支那의 郡縣으로 계속되었다는 설’, ‘요동·조선지방은 옛날부터 支那의 일부이고 하북성·산둥성과 똑같이 支那의 內地였다는 설’, ‘선비·고구려·거란·여진 등의 만주종족·몽고종족이 요하 계곡지를 지배했던 五胡南北朝 및 遼·金·元 시대에도 요동반도는 의연하게 支那人의 식민지로 존속되었다는 설’ 등이다(矢野仁一, 1933, 『滿洲國歷史』, 目黒書店, 25~69쪽).

46) 矢野仁一, 1933, 『滿洲國歷史』, 目黒書店, 104~125쪽.

만주를 이해시킬 수 있는 책을 쓴다'거나⁴⁸⁾, 만주국 건국 10주년을 맞이하여 만주국 건국이 대동아공영권 건설의 도화선으로 世界史上 획기적 전환을 가져다준 최초의 외침이었다는데 만주사의 특색이 있다'고 하면서⁴⁹⁾ '만주사' 개설서가 간행되었다.

이들 개설서에는 대부분 당시까지의 '만주사' 관련 주요 연구 성과가 반영되어 있어 내용상 큰 차이는 발견되지 않지만 부분적으로 강조하는 점이 다르고, 1905년 직후의 '만주사' 인식과 비교할 때 변화된 부분도 보인다.

(2) 만주의 민족과 고조선.부여에 대한 인식

먼저 白鳥庫吉 등에 의해 초기 만주민족의 종류, 거주지, 혈통 등에 대한 정리가 이루어졌다. 만주국은 森林, 沃土, 사막의 3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서쪽 사막지역으로는 몽고족이, 남쪽 沃土로는 漢民族이 들어왔다. 북부와 동북부 즉 길림성에서 연해주 지역에 이르는 삼림지대에 거주하는 민족은 순수 퉁구스족으로 周末의 肅慎, 漢魏 때의 挹婁였다. 蒙古種에 少量의 퉁구스 혈통이 섞인 東胡民族은 몽고에서 熱河로 들어왔는데, 이들이 前漢末의 烏桓, 後漢 때의 鮮卑였다.

貊은 춘추전국시대 熱河省 邊에 살았던 퉁구스의 一種이었는데, 서쪽에서 東胡, 남쪽에서 漢民族의 압박에 밀려 東으로 옮겨가 漢魏 때에 스스로를 濊라 칭하자 漢人이 貊의 일종으로 보아 濊貊이라고 불렀다. 예맥은 송화강 유역에 있는 민족을 부여, 압록강 유역에는 고구려, 함경도에는 옥저, 강원도에는 예맥이라고 불렀는데, 부여와 고구려의 언어에 다량의 퉁구스어에 소량의 몽고어가 섞여 있는 것을 볼 때 예맥은 퉁구스種을 골자로 蒙古種이 가미된 잡종이다⁵⁰⁾.

고조선은 이전처럼 '기자조선'과 위만조선만을 가리킨다고 보았다. 하지만, 몇 가지 첨가된 해석이 보인다. 기자전설은 믿기 어렵지만, 支那문화가 이 무렵 처음으로 만주방면으로 전해져 만주 및 조선방면 개발의 실마리가 나타났다는 것은 滿洲史上 획기적인 사건⁵¹⁾이라고 인식했다. 또 殷의 왕족 箕子가 건국했다고 하는 古朝鮮이 한반도 북부에서 南滿 일부를 영토로 하고 있었다거나⁵²⁾, 연나라와 싸운 朝鮮侯의 강역은 적어도 요동에서 한반도 일부에 걸쳐 있는데 원래 漢人種이 東走하여 세운 국가로 식민지라고 할 수 있고, 燕將 秦開가 朝鮮侯와 싸워 서방 2천여 리를 빼앗은 것은 본국인 燕이 승리하고 식민지 朝鮮侯가 패배한 것이라고 보았다⁵³⁾. 마찬가지로 위만조선과 漢나라 사이의 교섭과 전쟁은 colony와 식민 母國 사이의 교섭.전쟁이라고 인식하

47) 南滿洲教育會 編纂, 1934, 「凡例」 『滿洲新史』, 大連: 滿洲文化協會

48) 伊藤義一, 1942, 「自序」 『概觀 滿洲史』, 東京: 子文書房

49) 豊田要三, 1943, 「序」 『滿洲史』, 新京: 滿洲事情案内所

50) 白鳥庫吉, 1933, 「穢貊は果して何民族と見做すべきか(講演要旨)」 『史學雜誌』 44-7; 白鳥庫吉, 「穢貊民族の由來を述べて, 夫餘高句麗及び百濟の起源に及ぶ(講演要旨)」 『史學雜誌』 45-12; 白鳥庫吉, 1935, 「滿洲國の地域に興亡の民族に就いて(講演要旨)」 『東方學報』, 東京』 5冊; 三上次男, 1939, 「滿洲民族」 『アジア問題講座』 8[民族-歴史篇(2)], 154~155쪽; 伊藤義一, 1942, 『概觀滿洲史』, 子文書房, 3~4쪽.

51) 矢野仁一, 1935, 「滿洲史」, 『世界歴史大系-朝鮮-滿洲史-』, 平凡社, 213쪽.

52) 伊藤義一, 1942, 『概觀滿洲史』, 子文書房, 12쪽.

53) 矢野仁一, 1935, 「滿洲史」, 『世界歴史大系-朝鮮-滿洲史-』, 平凡社, 214쪽.

였다⁵⁴). 따라서, ‘기자조선’과 위만조선으로 구성된 고조선의 역사는, ‘조선반도’의 평양을 중심으로 한 국가라는 점에서는 ‘조선사’이고, 그 영역이 만주까지 이어져 있다는 점에서 ‘만주사’이며, 또한 중국인들이 이주 혹은 통치하였기 때문에 중국사라고 해석할 수 있다⁵⁵).

부여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고구려의 그늘에 가려 국가로서 서술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지만, 이 시기에 와서는 적극적인 평가가 이루어졌다. 즉 만주 중앙에 新國家를 건설한 부족으로 만주민족으로서의 처음으로 통일된 부족국가를 출현시켰다고 보거나⁵⁶, 기원전 3세기~기원후 3세기에 부여는 중부 만주의 농업국으로 이해하기도 하고⁵⁷, 농업왕국 부여의 문화는 당시 만주족 가운데 가장 선진적이어서, 동쪽으로 原始民인 읍루를 복속시켰으나 남방 漢의 屬國 형태를 취했다⁵⁸)고 보아 고구려보다 시기적으로 앞서는 최초의 만주족 국가로 인식하였다.

이 시기 ‘만주사’ 서술에서 주목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일본과의 교류와 유사성 등을 강조한다는 점이다. 신석기 시대 만주에 살고 있던 통구스 민족은 바다를 건너 일본에도 이주하여, 有史 이전 일본인의 일부를 구성하였고⁵⁹, 부여가 支那의 玉璽를 중히 여겨 보물로 간직했다는 것은 일본과 유사한 점이며⁶⁰, 고대 만주 諸國과 일본 上代 풍속이 유사한 점이 많은데, 부여인이 흰옷을 좋아하고, 殉死를 중히 여기고, 圓城을 만드는 등 민족·풍습의 유사점으로부터 보면 일본은 만주민족에 대해 커다란 친밀감을 느낀다고 서술하였다⁶¹). 하지만, 이러한 해석은 만주국과 일본의 역사적 교류와 친밀함이 오래되었다는 것을 강조하려는 데서 나온 무리한 서술이다.

(3) 고구려에 대한 인식

고구려는 만선사의 출발점이었다. 예맥계의 고구려는 만주 민족의 하나인 扶餘族에서 갈라져 내려온 別派나⁶², 부여민족의 일파⁶³)로 이해하였다. 한사군 설치에 자극을 받고 開化하여 남만주에 있었던 玄菟郡 高句麗縣 지역에서 고구려라는 국가가 등장했다고 보면서, 고구려 국가의 등장은 만주족·만주인이 세운 국가로서 처음으로 건설된 ‘獨立國’이었다고⁶⁴) 평가했다.

고구려가 초기부터 멸망당할 때까지 중국 역대 왕조들과 끊임없는 전쟁을 벌여 승리하면서 성장·발전하였던 점은, 만주로 진출하면서 중국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었던

54) 稻葉岩吉, 1935, 『增訂滿洲發達史』, 日本平論社, 13~15쪽.

55) 박찬홍, 2007, 「滿鮮史觀에서의 한국고대사 인식 연구」 『韓國史學報』 29, 26쪽.

56) 矢野仁一, 1935, 「滿洲史」, 『世界歷史大系-朝鮮·滿洲史-』, 平凡社, 229~230쪽.

57) 南滿洲教育會 編纂, 1934, 『滿洲新史』, 大連: 滿洲文化協會, 5쪽.

58) 伊藤義一, 1942, 『概觀滿洲史』, 子文書房, 12~16쪽.

59) 伊藤義一, 1942, 『概觀滿洲史』, 子文書房, 9쪽.

60) 矢野仁一, 1935, 「滿洲史」, 『世界歷史大系-朝鮮·滿洲史-』, 平凡社, 229~230쪽.

61) 南滿洲教育會 編纂, 1934, 『滿洲新史』, 大連: 滿洲文化協會, 11쪽.

62) 峯旗良充, 1932, 『滿洲民族變遷史』, 滿洲文化協會, 25~29쪽.

63) 稻葉岩吉, 1935, 앞의 책, 9쪽.

64) 稻葉岩吉, 1935, 「朝鮮史」, 『世界歷史大系-朝鮮·滿洲史-』 東京, 平凡社, 252쪽.; 藤田元春, 1936, 『滿洲歷史地理』, 富田山房, 6쪽.

일제의 입장에서는 매력적인 대상으로 인식되었던 것 같다. ‘현재’에 중국과 전쟁을 벌이고 있는 일제의 현실이 과거에 중국세력과 전쟁을 벌였던 고구려의 역사에 그대로 덧씌워진 것이다⁶⁵⁾. 그 결과 중국과 우호적이었던 부여보다는 대립·항쟁하면서 성장한 고구려를 강조했다.

광개토왕·장수왕 대에 이르러 중국세력을 억누르고, 백제를 압박하여 만주의 동쪽 및 북쪽으로 영역을 확장함으로써, 만주족의 국가로서 제1기의 전성을 드러냈다⁶⁶⁾고 보았고, 隋 煬帝와 唐 太宗의 공격에도 굴복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 싸움으로써 그 나라들을 위기에 빠뜨렸고 만주족의 국가로서 만장의 기개를 토해냈다⁶⁷⁾고 인식하였다.

문화적인 면에서 고구려문화의 독자성을 강조하여 중국 문화와는 다른 ‘만주사’의 일면을 강조하였다. 고구려 벽화고분의 모줄임천장이나 벽화 내용, 瓦墻의 문양 등이 남만주·낙랑 등에 보이는 중국적인 것이 아니라 고구려에만 독특한 蓮花紋이라고 이해했다. 초기 고구려의 문화는 많은 점에서 중국을 영향을 받았으나, 여기에 북방 및 서방문화를 흡수하고 여기에 독특한 양식을 가미하여 특유의 고구려 문화를 형성하였다고 평가했다. 고구려 문화야말로 만주에서 중국문화로부터 탈피하여 독자적인 특색을 가지게 된 최초의 문화로 이해했다⁶⁸⁾.

고구려의 위대성은 만주와 조선의 국경을 아울러 나라를 세운 것이며, 그것이 고구려가 강건한 이유이고 신라처럼 한반도에만 머무르게 되면 나약해진다고 인식했다⁶⁹⁾. 또 고구려는 배워야 할 것이 많은 대상이었고 ‘滿鮮一如’를 실현한 존재였다고 높이 평가되면서, 조선을 ‘병합’한 일제의 만주진출은 이러한 고구려의 발자취를 뒤이어 새로운 발전을 하는 것이라고까지 이해하였다⁷⁰⁾.

‘만선사’의 입장에서 보면, 고구려의 멸망은 큰 변화를 가져다주었는데, 백제와 고구려의 멸망으로 한반도는 신라에 의해 통일되었고 만주에서는 머지않아 발해가 흥기하여, 滿鮮의 형세는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었다⁷¹⁾는 것이다. 부여계인 고구려는 韓種이 아니면서도 東方 諸民族의 영수였고, 한반도의 평화발달은 이 고구려 민족이 보장해준 것에 힘입었으나, 신라가 ‘外勢’인 唐나라의 힘을 빌어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대동강 유역은 당나라의 안동도호부에 속하게 됨으로써, 신라에 의해 ‘滿鮮은 종래 一家였다’고 하는 사고는 파탄을 맞이하고 말았다⁷²⁾고 평가하였다.

한편, 고구려와 일본의 관계를 주목하여, 고구려가 618년 수나라 양제의 공격을 격퇴한 뒤 많은 전리품을 일본에 ‘貢獻’했는데, 이것은 ‘日滿관계의 역사와 일본의 東亞 대륙에서의 지위는 이 무렵부터 한층 명백해 졌다⁷³⁾고 하여, 일본에 조공하는 고구려

65) 박찬홍, 2005, 「滿鮮史觀에서의 고구려사 인식 연구」, 『북방사논총』 8.

66) 矢野仁一, 1935, 「滿洲史」, 『世界歴史大系-朝鮮-滿洲史-』, 平凡社, 252쪽.

67) 矢野仁一, 1935, 「滿洲史」, 『世界歴史大系-朝鮮-滿洲史-』, 平凡社, 243~244쪽.

68) 關野貞, 1932, 『朝鮮美術史』, 朝鮮史學會

69) 稻葉岩吉, 1935, 「滿洲國創成の歴史的認識」, 『増訂滿洲發達史』, 日本評論社

70) 井上直樹, 2004, 「近代日本における高句麗史研究：「滿鮮史」・「滿洲史」と関連させて」 『高句麗研究』 18

71) 矢野仁一, 1935, 「滿洲史」, 『世界歴史大系-朝鮮-滿洲史-』, 平凡社, 252쪽.

72) 稻葉岩吉, 1935, 「朝鮮史」, 『世界歴史大系-朝鮮-滿洲史-』, 平凡社, 70~71쪽.

73) 稻葉岩吉, 1940, 『滿洲國史通論』, 東京：日本評論社, 133쪽.

를 통해 만주와 일본의 관계를 강조하려는 무리한 해석도 있다.

(4) 발해에 대한 인식

고구려 멸망 뒤 말갈족 가운데 大祚榮이 震國을 건국했고, 이것이 만주족의 두 번째 통일국가 발해국의 성립이라고 했다⁷⁴). 발해는 만주족이 세운 정돈된 국가로서는 최초의 大國이며⁷⁵), 실로 최초의 통구스적 색채가 농후한 중앙집권국가라고 보기도 했다⁷⁶). 예맥족인 고구려가 망하고 말갈족인 발해가 건국되었지만, 모두 만주민족의 국가라고 인식하였다⁷⁷). 따라서 震國은 속말말갈과 고구려 餘衆의 합작인데, 高句麗의 멸망으로 그 도성과 왕을 잃어버렸지만 丸都.國內 등 백두산 오지의 도성은 아직 보유하고 있으니, 高句麗國은 망했으나 그 민족은 망하지 않았고 문화는 잃어버리지 않았다⁷⁸)고 주장하였다.

발해사 가운데 발해 문화와 일본과의 교류에 대한 부분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고, 따라서 개설서에서 발해사 관련 서술이 대폭 증가하였다. 이것은 발해 유적에 대한 본격적인 발굴과 연구 때문이었다. 1932년 이후 上京龍泉府의 궁전터와 西古城, 八連城 등 발해 유적에 대한 본격적인 발굴이 이루어졌는데⁷⁹), 발해의 문화는 당 문화의 영향을 받았고 고구려문화를 계승했는데, 都城制, 豊麗한 唐草문양, 南大廟의 石燈籠 등에서 당 문화의 영향을 볼 수 있고, 와당 문양에서 고구려 문화의 영향이 강하게 나타난다고 하였다⁸⁰).

당시 발해사 연구자의 관심 주제는 일본 문화와의 교류와 당나라 문화의 편린을 찾는 것이었고, 또한 어떻게 말갈족이 일으킨 나라의 문화가 당시의 문화국인 당나라 문화를 수용하였을까 하는 점이였다⁸¹). 이것은 말갈족이 일으킨 나라 곧 발해는 미개.야만 국가로서 당나라.고구려 두 문화에 종속된 문화적 식민지에 지나지 않았으며, 그 後身이 '지금'의 '만주국'이라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했다⁸²). 미개.야만한 발해의 후신인 만주국은 문명국인 일본에 복속될 수밖에 없으며⁸³), 일제가 만주국을 영도하여 이곳에 王道樂土를 건설하는 것이 정당화되었다⁸⁴). 즉, 문명화된 고구려인들이 야만상태였던 말갈족을 개화시켰듯이 문명화된 일본인들이 야만상태였던 만주족을 개화시켜야 한다는 논리를 끌어내기 위해서였다는 것이다.

반면에, 年譜당서에 발해에 문자가 있다는 기록을 중시하여, 발해는 이미 독자적인

74) 矢野仁一, 1935, 『滿洲史』, 『世界歴史大系-朝鮮·滿洲史-』, 平凡社, 237~258쪽.

75) 南滿洲教育會 編纂, 1934, 『滿洲新史』, 大連: 滿洲文化協會, 13쪽.

76) 三上次男, 1939, 『滿洲民族』 『アジア問題講座』 8[民族·歴史篇(2)], 156쪽.

77) 이 경우 고구려 멸망 이후 예맥계 만주민족은 어떻게 되었는지가 궁금하지만, 이에 대한 의문과 논의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예맥족은 고구려 멸망 이후 끊어지고, 말갈족만 이어져 내려왔다고 보았다.

78) 稻葉岩吉, 1940, 『滿洲國史通論』, 東京: 日本評論社, 145쪽.

79) 한규철, 2004, 「연대별로 본 일본의 발해사 연구」, 『文化傳統論集』 특별호 2, 경성대, 67~70쪽.

80) 原田淑人, 1935, 『滿蒙の文化』, 『岩波講座 東洋思潮』 11, 岩波書店, 29~35쪽.

81) 駒井和愛, 1933, 『渤海國都城址の發掘』, 『歴史學研究』 1-6, 32쪽.

82) 西川宏, 1986, 「渤海考古學の成果と民族問題」, 『山陰考古學の諸問題』, 578~579쪽.

83) 宋基豪, 1988, 「渤海史 研究 動向」, 『韓國上古史學報』 1

84) 金중복, 2006, 「渤海史 認識의 推移」, 『史林』 26, 29쪽.

문자를 창조했으니 滿洲 古代의 문자 창조는 발해를 선구자라고 해야 하며 이것은 고구려 문화가 발해에 이식된 것과 관계가 있다거나⁸⁵⁾, 한자와 별도로 발해문자가 있었다면 일본의 假名字, 거란문자, 여진문자 등보다 빠른 것이다⁸⁶⁾고 인식하기도 하였다. 결국 漢人세력을 섞지 않고 고구려인과 말갈인이 만든 小中華라는 말로 발해왕국의 특징을 말할 수 있는데 1933년 5월 『海東盛國』을 이루었다고 한 것이 그런 의미라고 해석하였다⁸⁷⁾

발해와 일본의 우호관계, 특히 일본 우위의 관계가 더욱 중시되었다. 발해인의 대외태도는 후대의 金.淸 등이 극히 호전적.침략적이었던 것과 비교해서 매우 평화적이어서 당에 대해서 恭順하였고 일본에 대해서도 시종일관 온화하고 친밀한 태도를 지속했다고 보면서, 발해와 일본 사이의 항로는 천 삼백년 뒤 만주국의 흥기로 인해 재현되었다⁸⁸⁾고 강조하였다. 즉 ‘지금’ 일본과 만주의 國交는 1,200년 전의 國交가 부흥한 것이므로, 일본과 만주 두 나라 사이에 親仁한 고대의 國交를 알게 하여 이것을 두 나라 국민의 교화에 응용하고자 일본과 만주의 고대 國交에 대한 저서를 저술한다고 하였다⁸⁹⁾.

한편, 東京城에 대한 東亞考古學會의 발굴[1933년 4월, 1934년 5월]은 새롭게 건국된 만주국과 일본의 우호.일체화를 옛 발해시대로 소급하여 역사적으로 확인하려는 선전의 역할을 맡고 있었다⁹⁰⁾. 이때 출토된 일본 화폐 和銅開珍 하나를 만주국과 일본의 교류가 오래 전부터 있었다는 사실을 웅변해주는 증거물로 해석하였다.⁹¹⁾ 이렇게 발해 국가나 문화의 독자성이나 이 지역의 고유성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히려 발해에 대한 타율적이고 비주체적인 견해가 주류를 차지하고 있었다⁹²⁾.

4. ‘만선사’와 동북공정.요동사

(1) ‘만선사’와 동북공정

‘만선사’와 ‘동북공정’에서 만주 역사를 바라보는 인식은 유사한 점이 많다. 먼저, 100여 년의 시차가 있지만, 둘 다 국가의 주도과 지원 아래 국가적 이익에 복무하는 역사 연구로서, ‘조선’과 만주를 침략.지배했던 일본과 동북지방을 영토 안에 포함하고 있는 중국의 국가 정책을 충실히 따르는 역사 인식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만주=

85) 稻葉岩吉, 1940, 『滿洲國史通論』, 東京: 日本評論社, 151쪽.

86) 矢野仁一, 1933, 『滿洲國歷史』, 目黒書店, 122쪽.

87) 矢野仁一, 1935, 『滿洲史』, 『世界歴史大系-朝鮮-滿洲史-』, 平凡社, 277-297쪽.

88) 南滿洲教育會 編纂, 1934, 『滿洲新史』, 大連: 滿洲文化協會, 17 쪽.

89) 沼田頼輔, 1933, 『緒言』 『日滿の古代國交』, 明治書院

90) 김중복, 같은 논문, 29쪽.

91) 伊藤義一, 1942, 『概觀滿洲史』, 子文書房, 44쪽. ; 駒井和愛, 1977, 『中國都城-渤海研究』, 雄山閣, 154~155쪽.

92) 李成市, 1988, 「渤海史研究における國家と農民-南北國時代」論の検討を中心に-, 『朝鮮史研究會論文集』 25 : 박경희 옮김, 2001, 「발해사 연구에서의 국가와 민족」, 『만들어진 고대』, 삼인, 85~86쪽.

동북이라는 영토를 중심으로 역사를 이해하여 만주=동북에서 존재했던 종족과 국가를 모두 ‘만주사’=‘동북지역사’로 인식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한민족의 건국신화로서 ‘단군신화’를 인정하지 않고, 고조선을 기자조선과 위만조선으로만 인식하고 있으며, 기자와 위만을 중국인으로 인정하여 기자조선과 위만조선을 중국의 국가로 이해하고 있다. 그리고 기자조선.위만조선이 자리했던 한반도 서북지역을 중국사의 영역에도 포함시키고 있다. 또한 부여, 고구려, 발해 등 한국고대사의 국가를 한국사에서 배제하여 ‘만주사’에 포함시킨 것은 이들 국가를 중국 동북지방에 존재했던 지방정권으로 이해하고 있는 인식과 유사하다. 아울러 발해를 말갈족의 국가로 인식하는 것도 같다.

반면, 둘 사이의 차이점도 있다. 먼저, 일본인은 ‘만주사’가 ‘支那史’와 별개의 역사라고 보고 있지만, 동북공정에서는 동북지역사가 중국사의 범주 안에 포함된다고 이해하고 있다. 물론 이것은 당대 해당 국가의 현실적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이다. 동북공정에서는 고구려가 중국의 지방정권으로 인식되지만, 일제에게 있어 만주와 한반도에 걸쳐 영토를 가지고 있으면서 중국 역대 왕조와 끊임없는 전쟁을 통해 성장.발전했던 고구려는 본받고자 했던 만주민족의 국가였다. 또한 동북공정에서는 수.당과 고구려의 전쟁이 중앙정권과 지방정권의 중국 통일전쟁으로 평가되지만, ‘만선사’·‘만주사’에서는 만주민족과 한족과의 대외투쟁이고 고구려의 승리는 만주민족의 승리로 인식되었다.

(2) ‘만선사’와 요동사

『요동사』⁹³⁾에서는, 만주 또는 ‘동북지방’ 즉 청나라 이전에 요동이라고 불린 이 지역에 예맥계의 조선.부여.고구려 등과, 숙신계의 말갈.여진.만주, 동호계의 선비.거란.몽골 등 여러 세력이 번갈아 요동의 중심이 되어 고조선, 부여, 고구려, 발해, 요, 금, 원, 청 등 여러 국가를 세웠다고 주장한다.

‘만주사’와 요동사는 중국사에서 만주=요동을 분리해내 하나의 독자적인 역사공동체를 설정했다는 점에서 논리가 매우 유사하다. 요동지역에 있었던 종족과 정치체를 중심으로 시기별로 구별하여 인식하는 점도 같다. 물론, ‘만주사’가 ‘조선사’와 묶이면서 ‘만선사’라는 더 큰 범주 속에 포괄되는 것과는 달리 요동사는 중국사 뿐만 아니라 한국사와도 구별된다는 차이점도 있다.

‘만주사’·‘만선사’와 요동사가 동일한 논리는 아니지만, 만주=요동을 ‘支那’ 또는 중국에서 분리하여 하나의 역사지리적 공간을 설정하여 역사적 흐름을 보여준다고 본다면, 요동사도 또 만주를 중국에서 분리한 일본의 만주사와 똑같은 문제를 내포할 것이다⁹⁴⁾.

한편, 어떤 동일한 지역에 존재했던 종족과 국가라도 서로의 역사적 계승 여부와

93) 김한규, 2004, 『요동사』, 문학과지성사 ; 金翰奎, 2008, 『나의 책을 말한다』 『요동사』 『韓國史市民講座』 42

94) 井上直樹, 2013, 『帝國日本と<滿鮮史> : 大陸政策と朝鮮・滿州認識』, 塙書房, 198쪽.

관계없이 하나의 역사공동체로 설명할 수 있는가, 즉 예맥계 국가와 동호계 국가, 속신계 국가가 명멸한 만주=동북지방에서 시간과 공간의 차이에 대한 고민 없이 그 역사를 하나의 역사공동체로 보기 어렵다는 등의 ‘요동사’에 대한 비판⁹⁵⁾은 그대로 ‘만주사’에 적용될 수 있다.

맺음말

95) 송호정, 2004, 「새로운 역사공도에, ‘요동’의 실체를 찾아서-김한규, 『요동사』(문학과지성사, 2004)」 『문학과 사회』 17-2, 863 ~ 866쪽.

홍산문화론

- 홍산문화의 성격과 중국 초기 문명론을 중심으로 -

김 정 열(송실대학교)

1. 서론

신석기시대 이래 요하 일대에는 독특한 문화가 전개된 곳이었다. 특히 기원전 4000년경을 전후하여 이 지역에서 발달한 紅山文化는 중국은 물론 우리 학계에까지도 커다란 관심을 가지는 주제이다. 그것은 이 문화의 거대한 유적과 독특한 유물 등이 세인의 주목을 끌기에 충분했을 뿐만 아니라, 이 문화를 둘러싸고 진행된 문화 현상의 해석이 매우 논쟁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1980년대 이래 중국학계의 일부 연구자는 홍산문화의 사회가 문명의 출현을 알리는 여러 가지 지표를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국 최초의 문명을 홍산문화에서 찾으려고 시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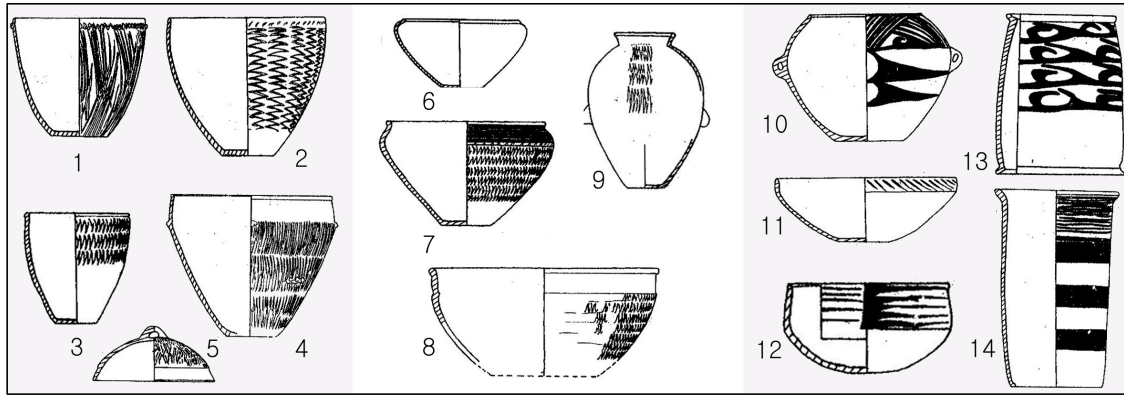
이와 같은 주장은 통일다민족국가론을 기치로 중국의 변경지대까지 중국문명의 틀 속으로 포괄하려고 하는 중국정부의 시책과 중국문명의 기원을 기원전 3000년기까지 끌어올리고자 하는 중국인의 염원과 맞물리면서 지금에 와서는 중국학계의 주류를 점하는 견해로 정착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산문화의 유적과 유물에 나타나는 일련의 현상이 과학적으로 정의된 문명의 그것에 부합되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의 여지가 있다. 게다가 홍산문화의 문화적 성격이 과연 중국문명의 일부로 이해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한 학계의 회의적인 시각도 여전히 존재한다. 그런 의미에서 홍산문화는 아직도 충분히 검토되어야 할 연구 대상이라고 단언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우리 학계에서도 민족사의 원류를 만주 지역에서 찾으려는 모색과 함께 이 문제에 대한 각별한 관심이 부여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산문화를 둘러싼 몇몇 논쟁적 이슈에 대한 관심에 비하면 그 논의의 기초가 되어야 할 고고학적 조사나 연구 성과에 대한 충분한 이해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이 글은 현재까지 진행된 홍산문화의 조사 성과를 검토하고, 특히 우하량 유적을 중심으로 전개된 문화의 성격에 대한 중국학계의 견해를 소개하며, 나아가 그 견해에 내재되어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통해 홍산문화가 가진 문명사적 의의를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그에 대한 우리 학계의 연구에 약간의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

2. 홍산문화의 유존

1) 유물

홍산문화는 현재의 중국 동북 지역, 특히 요서 지역을 중심으로 번영한 신석기문화의 한 유형이다. 1935년 내몽골 赤峰市의 紅山後 유적 발굴을 통해 채도와 세석기가 공반되는 이 문화의 독특



[도면 1] 홍산문화의 토기

1~3. 사질 통형관 4. 사질 절결관 5. 사질 기개 6~8. 니질 분 9. 니질 관 10. 채도 용 11. 채도 발 12. 채도 분 13~14. 채도 무저(無底) 통형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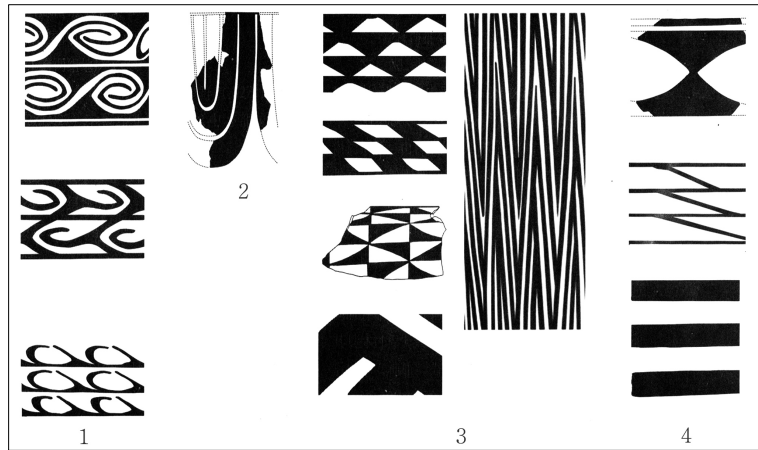
한 양상이 확인되었으며, 거기에서 홍산문화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다. 처음에는 赤峰第1期文化라 불렸지만(濱田耕作·水野清一 1938), 1954년 홍산문화라는 이름이 사용되기 시작한 다음부터 이 명칭으로 고정되었다.(尹達 1955) 홍산문화의 유존에서 볼 수 있는 가장 커다란 특징은 이른바 ‘之字形’ 문양을 가로 혹은 세로 방향으로 압인한 筒形罐, 다양한 문양의 彩陶, 독특한 형태의 掘土具와 玉器 그리고 石棺墓 등을 꼽을 수 있다.

홍산문화의 토기는 크게 沙質陶와 泥質陶 등 두 가지 계열로 구분할 수 있다.[도면 1] 사질도의 대부분을 점하는 것은 罐으로서, 표면은 대개 회갈색 혹은 황갈색을 띤다. 관에는 주둥이가 큰 筒形罐, 어깨가 꺾인 深腹罐 그리고 사선형 아가리의 斜口器 등 여러 종류가 있다. 이들은 모두 주둥이가 크고 복부가 깊으며 바닥이 작은 특징을 공유하고 있다. 주로 지자문과 평행선문을 압인하였다는 것도 공통점이다. 사질도에는 그 밖에도 반월형 띠 모양의 파수를 붙인 器蓋도 있다. 니질도는 회색 혹은 홍색을 띠며, 주요 기형에는 鉢, 盆 등의 사발 종류와 瓮, 罐 등의 항아리 종류가 있다. 대부분 문양이 없지만, 표면에 陶衣를 입힌 것과 연마하여 광택을 낸 것 그리고 지자형의 篋點文을 압인한 것도 간혹 보인다. 니질도 가운데는 彩陶도 일정한 비율을 차지한다. 채색에는 흑색을 많이 사용되었지만, 홍색을 사용한 것도 있다.(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 2010: 344) 채도의 도안은 勾連花卉文, 垂鱗文과 격자형의 幾何紋 등으로 대별된다.[도면 2]

홍산문화의 석기는 그 수량이 방대하고 종류도 다양하므로, 홍산문화의 한 주요한 특징으로 간주된다. 마제석기, 타제석기, 세석기가 모두 발달하였는데, 타제석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비교적 높고, 마제석기가 그 다음이며, 세석기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석기 가운데는 대형 석기가 많이 보인다. 그 종류에는 단면 타원형의 몸통이 좁고 긴 石斧, 신발바닥 형태 혹은 삼 모양의 타제 혹은 마제 石耜, 장방형, 반월형 혹은 계엽형 등 다양한 형태의 石刀, 조사암 혹은 세사암으로 제작한 장방형 石磨盤, 횡단면 반월형의 石磨棒 등이 있다. 세석기 중에는 삼각형 석촉, 긁개(刮削器), 세장형 석편 등이 특징적이다.[도면 3]

옥기는 홍산문화의 내용을 구성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부분이다. 홍산문화의 옥기 역시 다양한 종류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형의 소재를 기준으로 하면 대체로 4종류로 구별할 수 있다. 첫째는 장식류 소재로 環, 珠, 曲面牌飾, 菱形飾 등이 이에 속하며, 둘째는 공구류 소재로 鉞이나 棒形飾이

이 유형으로 분류된다. 셋째는 동물형 소재로 猪龍飾, 雙猪首形器, 獸面形器, 龜形器, 鳥形器 등이 포함되며, 넷째는 특수 소재로 勾雲形器, 箍形器, 璧, 雙(三)聯璧 등이 이에 해당한다. 牛河梁 유적을 예로 들면, 이들 4종류의 옥기 가운데 특수 소재가 약 45% 가량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劉國祥 2000: 78-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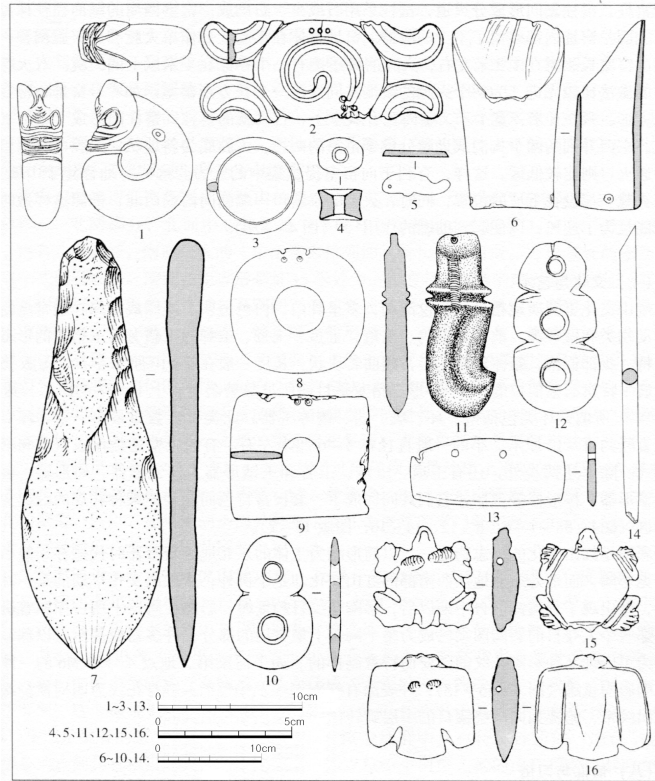


[도면 2] 홍산문화 채도 문양

1. 구련화훼문 2.수린문 3. 기하문 4.기타

위의 옥기 가운데 홍산문화 특유의 것으로 거론되는 것으로는 猪龍飾, 箍形器, 勾雲形器 등이 있다. 猪龍飾은 모두 환조로 제작되어 다른 동물형 소재 옥기가 대부분 平彫 혹은 淺浮彫로 제작된 것과 차이가 있다. 형태는 고리 모양[環形]이며, 동물의 머리 부분이 강조된 반면 다른 부분은 간략하게 처리되었다. 소재가 되는 동물은 처음에는 돼지라 했으나, 후에 곰을 형상한 것이라는 견해도 제기되었다.(郭大順 2006) 箍形器는 대체로 길이 10~15cm 가량의 커다란 柱狀 옥괴 중앙을 천공하여 원통형으로 만든 것이다. 대개 한쪽 끝은 편평하고 다른 한쪽 끝은 사선 형태이다. 편평한 한쪽 끝에는 항상 대칭되는 두 개의 구멍, 혹은 홈이 있다. 원래 束髮 도구로 추정되었으나, 근래에는 安徽 凌家灘 유적 07M23호 무덤에서 출토된, 圭狀의 玉簪이 꽂혀 있는 유사한 형태의 옥기(安徽省文物考古研究所 2008: 13-17)에 근거하여 점복용 도구로 추정한다.(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 2012: 中 474) 구운형기는 일종의 佩飾으로 추정된다. 板狀으로 성형되었으며 이른바 ‘勾雲形’의 몸통을 기본 단위로 한다. 패식의 중심을 구성하는 ‘구운’은 그 형태가 짐승 같기도 하고 새 같기도 하지만 무엇을 형상한 것인지는 알기 어렵다. 한편, 옥벽은 중국에서 널리 확인되는 옥기이지만, 다른 유형의 문화에서 확인되는 正圓形의 그것과는 달리 方圓形의 평면으로 조형되었다. 옥벽의 중심 구멍과 바깥 테두리의 단면이 모두 얇아서 마치 칼날 같다. 옥벽 가운데는 2개 혹은 3개의 옥벽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특이한 형태의 것도 있다.[도면3]

홍산문화인의 옥 가공 기술은 옥료의 절단, 穿孔, 조각, 연마, 장식 등의 가공 등의 여러 공정에서 상당한 수준에 도달하였다고 판단된다. 예컨대 그들은 길이가 30cm에 달하는 옥료를 두께 2mm에 불과한 玉片으로 절단해낼 수 있었으며, 길이 18.6cm, 두께 10.7cm의 柱狀 옥료를 두께 0.3-0.7mm의 파이프 모양으로 천공하는 기술도 보유하고 있었다.(郭大順 2005: 159-162;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 2010: 3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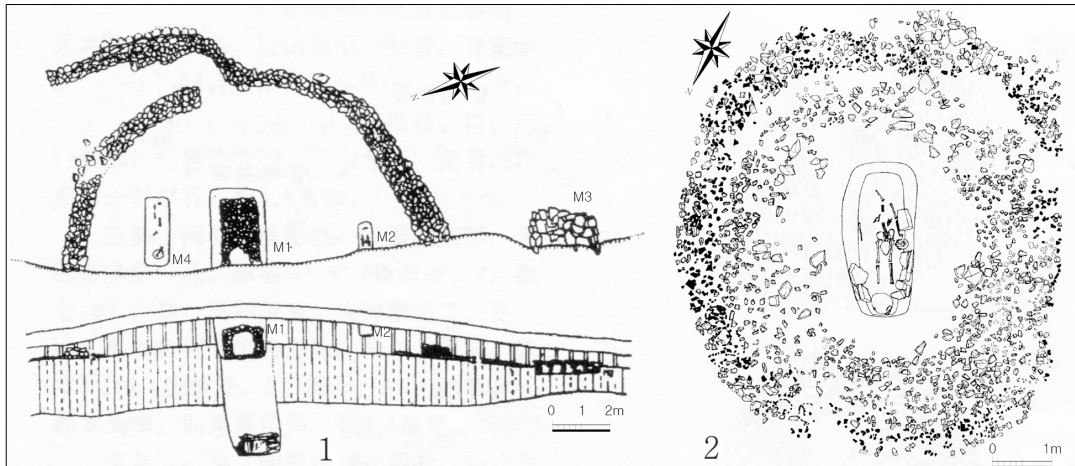


[도면 3] 홍산문화의 옥·석기

2) 유적

홍산문화의 묘지는 阜新 胡頭溝(方殿春·劉葆華 1984), 赤峰 南臺子(內蒙古文物考古研究所 1994), 林西 白音長汗(內蒙古文物考古研究所 2004), 凌源 牛河梁(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 2012) 등의 유적에서 확인되었다. 호두구 유적은 상대고도 25m 가량의 토구 위에 조영되었다. 현존하는 홍산문화 유적은 석관묘 2기와 직경 약 13m의 돌담장[石圍圈]이다. 돌담장의 중앙에는 15점의 옥기가 수습된 석관묘 M1이 위치한다. 그것을 중심으로 반경 약 6.5m의 거리를 두고 니질 홍도편이 한 바퀴 산포되어 있고, 그 위쪽에 석괴를 쌓아 담장을 구축하였다. 돌담장의 동쪽에는 출입구로 생각되는 缺口가 한 곳 있으며, 남쪽 외측에서는 역시 옥기가 출토된 5인 합장 석관묘 1기(M3)도 발견되었다.[도면 4:1]

백음장한 유적의 묘지 역시 유사한 구조를 보인다. 이 유적 역시 구릉 사면에서 확인되었으며 모두 7기의 적석총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릉 꼭대기에서는 돌담장이 한 곳 확인되었으며 그 중심부에서 무덤 1기(M5)가 조사되었다. M5는 장방형의 석곽묘이다. 도굴되어 부장품의 양상을 알 수는 없지만 이를 제외한 다른 무덤의 묘실이 모두 수혈토광 구조인 것을 감안하면, M5는 다른 무덤과 차이가 있다. 남대자 유적에서 조사된 무덤은 총 13기이다. 모두 장방형의 수혈토광묘이며 지상에 봉토를 가지고 있다. 다만 이들 가운데 옥결 2점이 부장된 M7은 다른 무덤과는 달리 지상에 積石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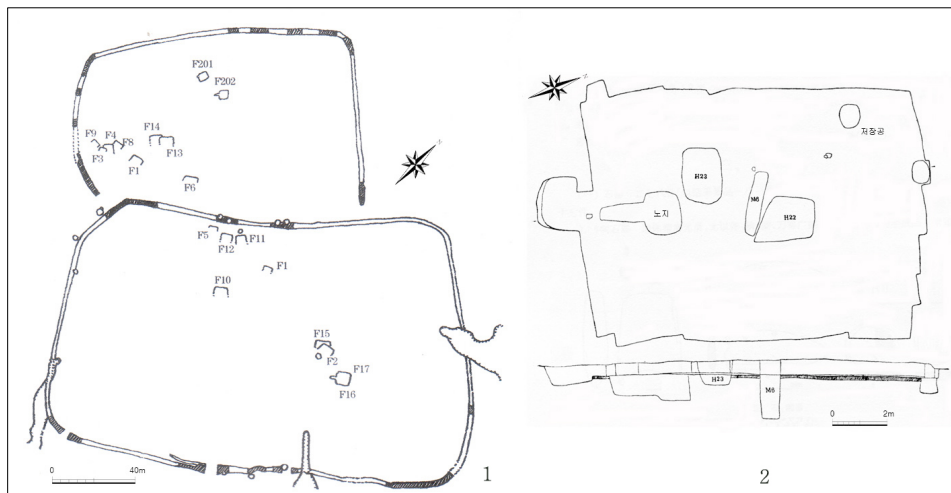
[도면 4] 홍산문화 묘지와 무덤
1. 胡頭溝 유적 2. 우하량 제2지점 4호 적석총 M5

홍산문화의 무덤은 수혈토광묘와 석관묘 등 2종류로 구별된다. 전자는 지하에 장방형의 수혈을 개착하여 묘실로 한 비교적 간단한 것이며, 후자는 수혈의 벽면에 석판 혹은 석괴를 세로로 세우거나 가로로 쌓아 묘실을 구축한 것이다. 후자의 경우에는 석판을 사용하여 묘실을 덮고 그 위에 다시 돌무지를 쌓아올렸다. 시체를 매장하는 방식에는 일차장과 이차장이 모두 채용되었다. 일차장인 경우 보통 單人葬에 장식은 양와신전장[仰身直肢]이 많고, 이차장인 경우 여러 명분의 인골이 함께 매장된 경우가 많다. 전기의 무덤에는 토기가 주로 부장되었으나 후기에 이르면 부장품의 절대부분이 옥기로 제한된다.

홍산문화에서 채용된 수혈토광묘와 석관묘는 등 서로 다른 2종의 묘실 구조는 시대의 변화와 관련되어 있다는 견해가 있다.(張星德 2005: 107-108) 그러나 이와 같은 결론을 내리기에는 아직 자료가 부족해 보인다. 호두구와 백음장한 유적의 사례를 살펴보면 오히려 그것은 주로 사자의 신분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 유적에서 발견된 7기의 무덤 가운데 1기만이 석관묘인데, 이 1기는 주위에는 돌담장이 둘러쳐져 다른 무덤과 격리되어 있다. 호두구의 경우, 유적에서 다수의 무덤이 확인되지 않았지만 돌담장으로 둘러싸인 무덤 1기는 석관의 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상당량의 옥기가 부장되었다. 이처럼 석관묘를 중심으로 그 주변의 일정한 공간을 외부와 격리하는 묘제는 홍산문화의 특정 계층에게 널리 채용된 것으로 생각된다. 우하량에서 확인된 무덤의 다수도 이와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 예컨대 우하량 제2지점 4호총 M5는 중앙에 배치된 석관묘를 중심으로 직경 6~7m 범위에 통형기를 일주시켜 주변과 격리된 공간을 확보하였다.[도면 4:2]

취락 유적 역시 조사례가 매우 부족하여, 敖漢旗 興隆窪(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內蒙古工作隊 1985)와 西臺(楊虎 1989; 楊虎、林秀貞 2010), 그리고 巴林左旗 二道梁(內蒙古文物考古研究所 1994) 등 유적을 꼽을 수 있을 뿐이다. 이들 취락은 대부분 상대적으로 30~40미터 가량의 구릉 위에 위치하며, 특히 구릉의 남쪽 경사면과 동쪽 경사면을 선호한 것으로 보인다. 취락 유적 중 유적 전체에 걸친 전면 발굴조사는 일찍이 서대 유적에서 시행된 바 있지만, 조사 결과가 정식으로 보고되지 않았다. 최근 赤峰 인근에서 발견된 魏家窩鋪에서도 전면 발굴조사가 진행되었으며 이에 대해서는 유적의 개황에 대한 소개가 있다.(段天璠 등 2011)

서대 유적[도면 5:1]은 구릉 사면에 입지하며, 2기의 환호가 전체 취락을 서북과 동남 등 두 부분으로 분할하고 있다. 동남부의 환호는 불규칙한 장방형으로 전체 길이는 약 600m이며, 서북부의 환호 역시 장방형에 가까우나 규모는 전자보다 다소 작다. 서북부 환호의 동남쪽은 동남부 환호 서북쪽의 일부와 중첩되어 있으므로 서대 취락의 전체 형태는凸자형을 보인다.[도면 5:1] 환호의 폭은 2m 가량이며, 가장 깊은 곳의 깊이는 2.25m이다. 환호 내에서는 모두 17기의 주거지가 조사되었다. 위가와포 유적의 규모는 이보다 좀 커서 주거지 36기가 확인되었다. 유적에서는 주거지 이외에 재구덩이와 도랑[灰溝]도 조사되었다. 도랑은 모두 2기인데, 그 일부만 확인되었다. 남북향으로 유적의 동쪽 외곽에 일정한 거리를 두고 나란히 배치되어 있다. 역시 취락을 에워싼 환호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2기의 도랑이 병렬된 상태로 발견된 것은 취락 범위의 확장과 함께 환호도 안쪽(G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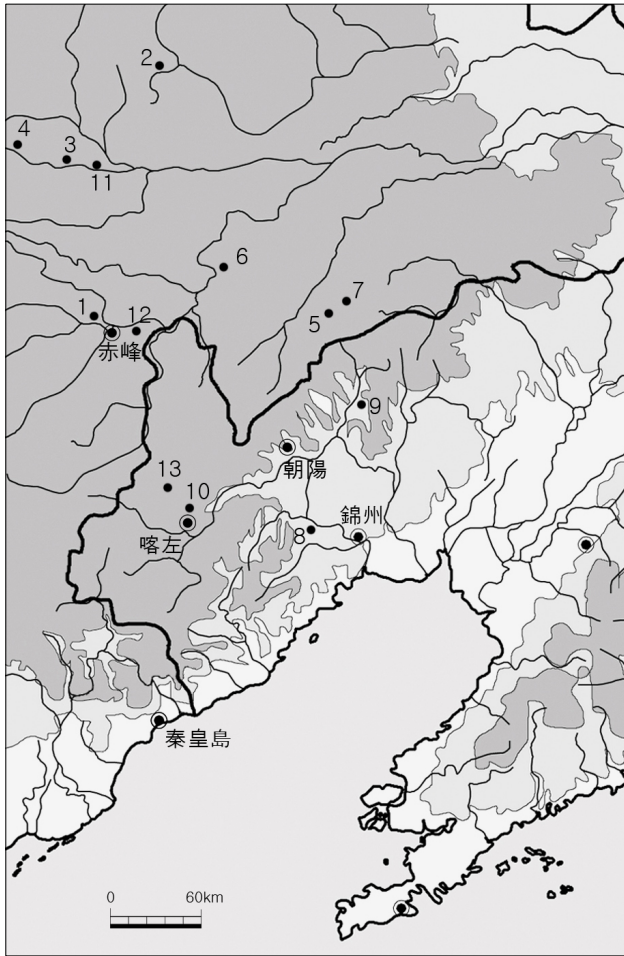
[도면 5] 홍산문화 취락과 주거지
1. 西臺 유적 2. 西水泉 유적 F17

에서 바깥쪽(G1)으로 확장되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이 가운데 G1은 폭 1.5-2m, 깊이 0.65-1.1m로 그 규모는 서대 유적의 것과 대체로 비슷하다.

취락 내의 주거지는 대체로 몇 개의 줄을 이루어 나란히 배치되어 있다. 홍산문화의 취락에서 확인되는 주거지의 수량은 위의 두 사례를 포함하여 대체로 수십 기를 상회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된다. 홍산문화 주거지는 대부분 방형 혹은 장방형의 수혈식 주거지이다.赤峰 西水泉 유적의 경우, 주거지는 구릉의 경사면을 따라 나란히 배치되었으며, 대부분은 출입구와 가까운 곳에 표주박형의 화덕을 설치했다. 출입구는 경사형이며 주거지의 남쪽에 개설되었다. 이 유적에서 확인된 일반적인 주거지의 규모는 각 변이 4미터 전후로 전체 면적이 20㎡에 미치지 못하지만, 가장 큰 규모의 17호 주거지는 각 변의 길이가 10미터 가량으로 면적이 일반적인 경우보다 훨씬 크다.[도면 5:2]

3) 시기구분과 분포지역

홍산문화의 존속시간은 매우 길지만, 그 유적은 시라무렌河 유역과 努魯兒虎山 일대에서 주로 확인되므로, 이 일대가 홍산문화의 중심지일 것이라 판단된다.(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 2010) 홍



[도면 6] 홍산문화 유적 분포도

1. 西水泉 2. 二道梁 3. 白音長汗 4. 南臺子 5. 西臺 6. 四棱山 7. 興隆窪 8. 沙鍋屯 9. 胡頭溝 10. 東山嘴 11. 那斯臺 12. 紅山後 13. 牛河梁

고 있지만 같은 2분기설, 3분기설이라 하더라도 그 세부적인 내용을 천차만별이다.

복수의 시기구분안 가운데 가장 보수적이며 안정적인 견해는 趙賓福이 제안한 2분기설이다. 그에 따르면 홍산문화는 전기[西水泉期]와 후기[東山嘴期] 양기로 대별될 수 있으며, 전자에 속하는 유적으로는 赤峰 西水泉, 紅山後, 蜘蛛山, 敖漢旗 三道灣子, 四棱山 유적 등이 있으며, 후자에 속하는 유적으로는 東山嘴, 牛河梁, 城子山, 胡頭溝 유적 등이 있다. 다만, 최근 발간된 우하량 유적 발굴보고는 조빈복의 후기에 해당하는 우하량 유적의 적석총을 다시 '하층적석총'과 '상층적석총'으로 구분하고 있으므로(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 2012: 中467-471), 조빈복이 말하는 후기는 다시 전엽과 후엽으로 세분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려 있다.

다양한 시기구분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산문화 존속기의 절대연대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동일하다. 3분기설을 제안한 張星德은, 중원 지역 신석기문화 토기 기형과 채도 문양을 바탕으로, 전기는 後崗1期文化(전4500~전3500)와, 중기는 廟底溝文化(전3900~전3600)와, 후기는 半坡4期文化(전3600~전2900)와 평행한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2분기설을 주장한 趙賓福은 전기는 전4500~3500

산문화의 분포면은 대개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하되 그 북쪽 경계는 시라무렌 하를 넘어 내몽골 초원까지 들어가고, 동쪽 경계는 醫巫閭山을 넘어 下遼河 서안까지 도달하며, 남쪽 경계의 동쪽 끝은 발해 연안까지, 그리고 서쪽 끝은 燕山山脈을 넘어 華北平原 북부까지 이어진다고 알려져 있다.(張星德 2005: 14-25) 다만 지금까지 실제 발굴 조사된 바 있는 유적은 그보다 좁은 지역에 제한되어 있다.[도면 6]

대체로 홍산문화 유적의 퇴적은 두껍지 않아 문화층을 식별할 수 있는 사례가 드물다. 게다가 출토 유물의 절대량도 적을 뿐더러 다양한 성격의 유물이 공반되는 경우도 많지 않다. 따라서 홍산문화의 발전 양상을 몇 개의 계기적 단계로 구분하여 그 특징을 파악하고, 거기에 상대·절대연대를 부여하는 일은 간단치 않다. 지금까지 홍산문화의 시기구분에 관한 몇 가지 견해가 제기되었지만, 대부분의 시기구분안은 유적의 층위관계를 결여한 채 유물의 형태에 나타나는 차이를 주요한 논거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 근거가 박약하다. 현재 중국학계에서는 2분기설(趙賓福 2003: 223-236)과 3분기설(張星德 2005: 51-70)이 널리 채용되고

년, 후기는 전3500~3000년경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였다. 어느 경우에도 홍산문화의 개시기를 전 4500년경으로, 종말기를 전3000년경으로 평가하는 데는 차이가 없다. 이와 같은 추정에는 방사성 동위원소 연대측정 자료가 참고되었음은 물론이다. 홍산문화 유적 출토 샘플에 대한 ¹⁴C 연대 측정 자료는 모두 6례가 발표되었는데[표 1], 東山嘴를 포함한 후기 유적의 수치는 전3700경-전2900년경에 분포하며, 홍산문화기 전체는 전4500년경부터 전3000년경에 분포한다.

실험실번호	유적	측정물질	¹⁴ C연대 (BP.)	수률평정연대 (BC.)	문화성격
ZK-1394	內蒙古 敖漢 興隆窪	목탄	5865±90	4714-4463	홍산문화
ZK-2064	內蒙古 敖漢 興隆窪	목탄	5735±85	4501-4383	홍산문화
ZK-1180	內蒙古 敖漢 五道灣	인골	4455±85	3039-2984	홍산문화
ZK-1352	遼寧 建平 牛河梁	목탄	4975±85	3771-3519	홍산문화 후기
ZK-1354	遼寧 建平 牛河梁	목탄	4605±125	3360-2920	홍산문화 후기
ZK-1355	遼寧 建平 牛河梁	목탄	4995±110	3779-3517	홍산문화 후기
BK82079	遼寧 喀左 東山嘴	목탄	4895±70	3640-3382	홍산문화 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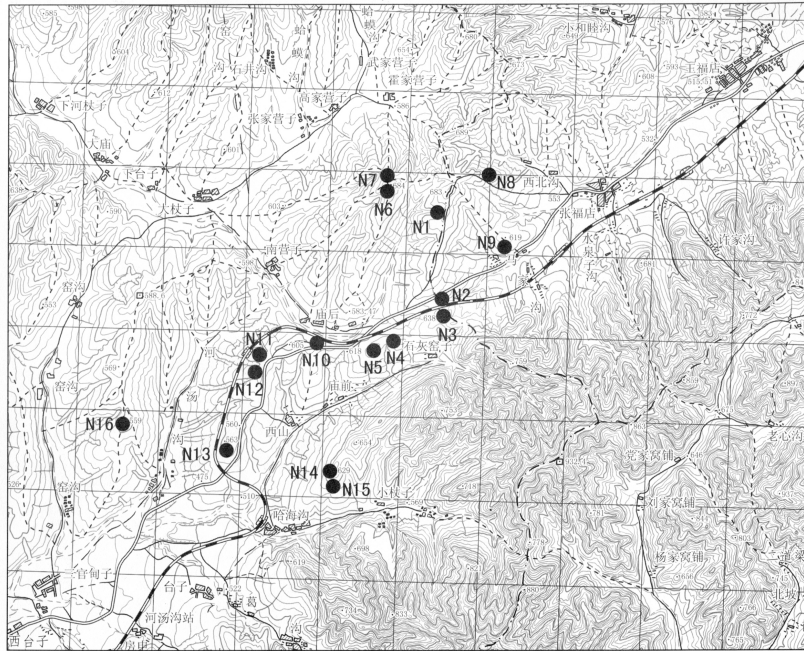
[표 1] 홍산문화 유적 방사성동위원소 연대측정 자료

3. 우하량 유적과 중국학계의 평가

1) 牛河梁 유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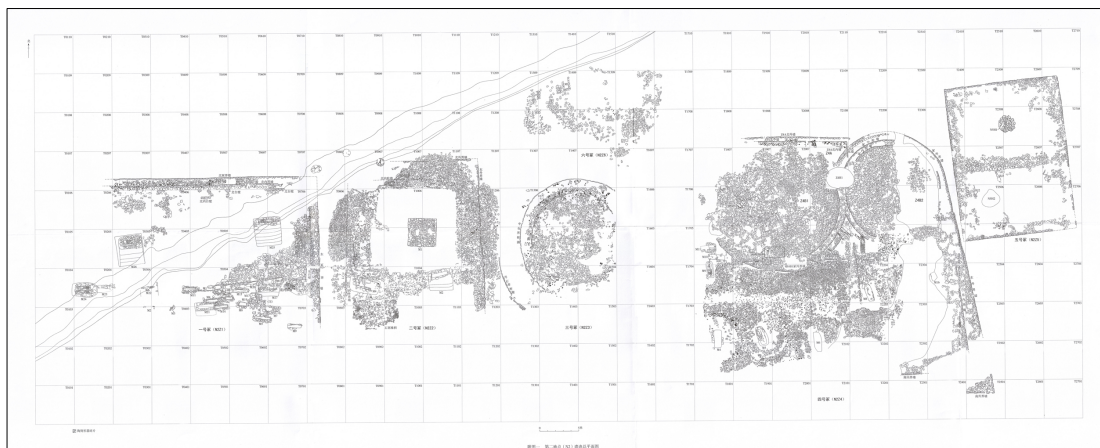
우하량 유적(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 2012)은 요령성 서부 朝陽市 建平縣과 凌源市의 접경지에 위치한다. 유적은 遼西의 명산 努魯兒虎山 산등성이 위에 입지하는데, 大凌河의 지류인 牛兒河가 여기에서 발원하므로 우하량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다. 산등성이라고 하지만 이곳의 산등성은 하나가 아니다. 동북에서 서남향으로 뻗어가는 산등성은 여러 줄을 이루고 있으며, 그 길이도 10여km 가량 이어진다. 이들 산등성이 위로 상당수의 홍산문화 유적이 단속적으로 위치하고 있다. 뉴하량에서 유적이 확인된 지점은 모두 16곳이다.[도면 7] 이 유적에서 발견된 주요 유구는 제단과 적석총 그리고 이른바 ‘여신묘(女神廟)’ 등이 있다.

유적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적석총이다. 적석총은 고도가 적당한 구릉의 정상부를 선택하여 조영했다. 일반적으로 구릉 하나에 적석총 하나이지만, 제5지점처럼 구릉 하나에 적석총이 두 개인 경우도 있고, 제2지점처럼 다섯 개가 연속으로 분포하는 경우도 있다.[도면 8] 하나의 적석총 내에는 대부분 여러 개의 석관묘가 설치되어 있으나, 통상 하나의 ‘중심묘(中心墓)’를 보유하고 있다. 중심묘는 해당 적석총의 중앙부에 위치하며, 상대적으로 큰 규모의 묘실을 가지고 있다. 이를테면 제5지점 제1호 적석총의 중심묘는 묘광의 매 변이 약 4m에 달한다. 적석총 내부에는 중심묘를 제외한 다양한 규모의 묘실이 복수로 존재한다. 이를테면 제2호지점의 제1호 적석총에서는 모두 25기의 홍산문화기 무덤이 조사되었다



[도면 7] 우하량 유적 분포점

적석층의 지상 부분은 규질의 석회암을 쌓아 만든 백색의 구조물이다. 꼭대기 부분에는 석괴가 어지러이 흩어져 있어 언뜻 적석에 일정한 규율이 없어 보이지만, 적석층의 외곽 경계부는 가공된 돌로 반듯하게 축조되었고 그 경계선을 따라 바닥이 없는 통형기가 나란히 매설되어 있다. 지상 부분의 형태는 정사각형, 직사각형, 원형, 전방후원형(前方後圓形) 등 여러 종류가 있으며, 대개 3층으로 이루어진 피라미드형 구조이다. 각 적석층의 평면 면적은 동일하지 않으며, 제2지점의 제1호 적석층은 약 750㎡, 제2호 적석층은 약 340㎡에 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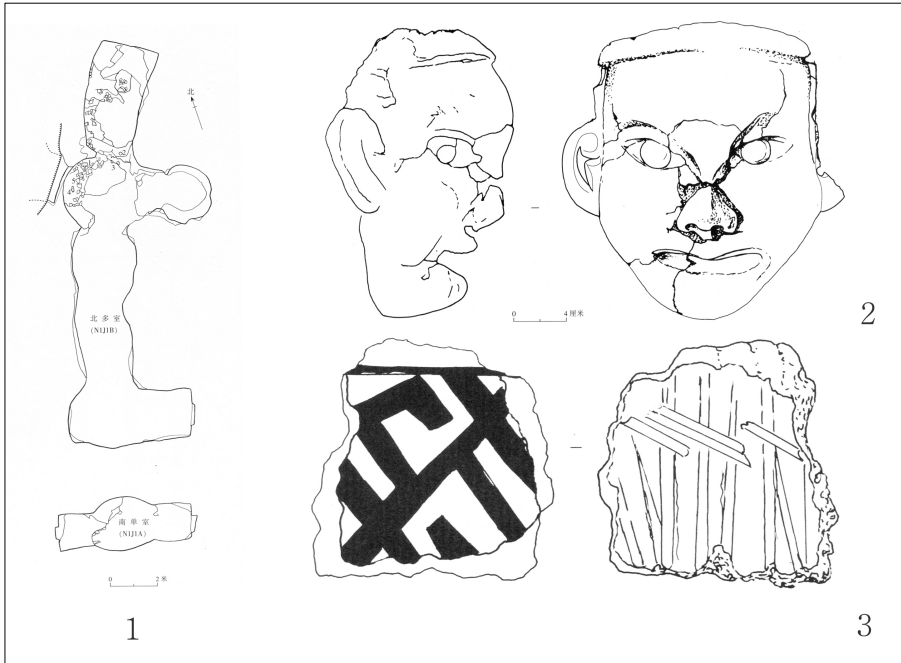
[도면 8] 우하량 유적 제2지점 유구 분포도

적석총의 형태를 보면 이 구조물은 ‘총(塚)’인 동시에 ‘단(壇)’이기도 하였다. 적석총 그 자체가 규모도 크고 정연하게 구축된 지상구조물이지만 그것은 체감하는 다층의 구조물이며 특히 그 정상부는 넓고 평탄하다. 따라서 적석총은 원래 무덤인 동시에 제단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적석총의 남쪽에서 비교적 큰 면적의 홍색 燒土面이 발견되는 것도 이 구조물이 제의와 관련되어 있다는 추정을 뒷받침한다. 물론 무덤과 별개로 독립된 제단도 있다. 특히 제2지점의 중앙부에 위치한 제3호 적석총이 이에 속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제3호는 평면 원형으로 직경이 20m에 달하며, 3층으로 되어 있다. 이 구조물을 쌓는데 사용된 재료는 홍색의 화강암으로 다른 적석총을 쌓을 때 사용한 백색의 규질 석회암과는 다르다.

‘여신묘’는 우하량의 主梁 꼭대기 부분에 있다. 이곳은 우하량 유적의 북쪽 중앙에 해당하며, 표고 또한 680m로 가장 높다. 이 유구는 여신묘를 포함한 건축물군으로서 주체부와 부속부로 구분된다. 주체부에는 여신묘 이외에, 廟 북쪽의 山臺 그리고 다시 산대 북쪽의 ‘土臺’가 포함된다. 부속부는 주체부 주변에서 발견된 여러 곳의 구덩이[窰穴]를 가리킨다. 산대는 여신묘에서 북쪽으로 8m 거리를 두고 있으며, 남쪽에 동서로 병렬되어 있는 기단 두 곳과 북쪽의 기단 한 곳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남북, 동서 모두 약 200m로 전체 면적은 약 4만㎡이다. 기단의 방향은 여신묘와 일치하며, 臺面은 여신묘보다 약 2미터 가량 높다.

여신묘의 평면[도면 9:1]은 좁고 긴 모습이며, 가장 긴 부분을 기준으로 남북 22m, 폭은 가장 좁은 곳이 동서 2m, 가장 넓은 곳이 9m이다. 이것은 반지하식 건물의 유존으로 지금 남아 있는 지하부의 깊이는 0.8~1m가량이다. 묘는 ‘主體’와 ‘單體’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주체부는 다수의 ‘방[室]’이 서로 이어져 있는 구조라 하지만 유구의 평면도를 보아서도 그다지 명료하지 않다. 이 주체부의 남쪽에 單室 하나가 횡으로 놓여 있다. 여신묘는 토목 구조이며, 돌은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 지상에 나무 기둥을 세우고 기둥과 기둥 사이에 벗짚 단을 붙인 다음, 그 위에 풀을 섞은 진흙을 발라 벽을 다듬었다고 추정된다. 벽면을 마감한 다음에는 그 위에 벽화를 장식하였는데, 벽화는 홍색과 백색으로 구성된 연속된 기하문 도안이다.[도면 9:3]

여신묘에서는 인물 소상, 동물 소상과 토제 祭器 등이 출토하였다. 토제 제기에는 모두 4종이 있다. 그 하나는 투각된 니질의 홍색 토기로서 흑색으로 기하문을 그려 넣었다. 器壁의 만곡도로 추정하면 복부 지름이 약 1m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동물 소상은 파편만이 남아서 형태를 구별하기 어렵다. 인물 소상은 ‘주체’의 여러 지점에서 발견되었다. 태토는 거친 점토질이지만 표면은 고운 점토로 마감하고 마연하였다. 발견된 파편 가운데 형태를 파악할 수 있는 것에는 얼굴, 다리, 어깨, 유방, 손, 안구 등이 있는데, 대략 7개 개체에서 나온 것으로 본다. 인물 소상은 그 비례를 감안할 때 실제 사람과 대체로 비슷한 크기에서부터 사람의 세 배에 달하는 것도 있다. 이들 파편은 대체로 여성의 신체적 특징을 보인다. 두상 1점이 가장 안정하게 보존되었는데, 두상의 높이는 22.5cm, 귀를 포함한 폭은 23.5cm이다. 燒成하지는 않았으나, 표면을 마연하였다. 안면은 선홍색이며 입술 부분에는 홍색 칠을 하였다. 부조인 형태로 보아 원래 벽에 붙였던 것이라고 생각한다. 전체적인 모습은 원형이며, 얼굴은 납작하고 광대뼈가 튀어나왔다.[도면 9:2]



[도면 9] 여신묘 및 출토품
 1. 여신묘 평면도 2. 인면 소상 3. 벽체 파편

2) 중국학계의 이해

우하량 유적에 나타난 현상에 대해 중국학계에서 주도적 지위를 점하고 있는 견해는 대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郭大順 2005: 195-204, 귀다순·장성덕 2008: 370-393,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 2012: 478-482)

우하량 유적에서 적석총이 확인된 곳은 모두 16개 지점으로, 그 각각이 하나의 독립된 단원을 구성하고 있다. 적석총에는 하나의 중심묘가 있는데, 이 중심묘는 각 구릉의 적석총 혹은 그 근처에서 하나씩 확인된다. 따라서 한 지점에 둘 이상의 적석총이 있을 때에는 중심묘가 있는 적석총과 그렇지 않은 것 사이에 분명한 계층 관계가 나타난다. 또 중심묘의 규모도 각 적석총마다 다르다. 그러므로 적석총의 개체 수와 중심묘의 규모는 각 구릉의 적석총(군)을 조영한 각 집단의 크기를 반영한다. 게다가 하나의 적석총 내에는 중심묘 이외에 복수의 무덤이 줄을 이루어 배열되어 있는데, 서로 다른 줄에 배속되어 있는 묘실은 그 크기와 부장품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그러므로 만약 각각의 구릉에 조영된 적석총(군)이 하나의 대 단원을 대표한다면, 각각의 적석총은 그보다 작은 단위 집단을, 적석총 내에 있는 각 묘실의 줄[行]은 그보다 적은 최하위의 단위 집단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적석총과 각 적석총 내에 설치된 무덤 규모의 차이는 홍산문화의 사회에 존재하였을 복수의 계층으로 구성된 사회 양상을 반영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계층적인 양상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증거는 우하량 적석총에 부장품으로 매장된 옥기이다. 우하량의 무덤은 토기와 석기를 부장한 경우가 매우 적으며 대체로 옥기만을 부장했다. 우

하량의 네 지점에서 발굴 조사된 97기의 무덤 가운데 옥기가 부장된 무덤은 42기에 불과하여 절반에 미치지 못한다. 게다가 무덤의 규모와 부장 옥기의 수량 및 종류에는 일정한 관계가 있다. 부장된 옥기의 개체 수는 무덤의 규모와 일정 정도의 상관관계를 갖는다. 부장품의 수량 및 품질은 사회구성원의 계층적인 차별을 반영하는 표지라고 할 때, 우하량 유적에서 확인되는 현상은 이 사회의 구성원이 수직적으로 분화된 복수의 계층으로 구분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적석총을 건설한 복수의 집단은 하나로 통합되어 있을 한 것은 동일한 신앙이다. 그것은 여신묘에 의해 체현된다. 우하량 유적은 홍산문화의 분포 지역의 중앙부에 위치하며 규모도 거대하다. 이것은 소규모 집단이 영유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니며, 그것은 아마도 홍산문화 전체의 성지였을 것이다. 여신묘는 그것에서 출토되는 여성의 인물 소상으로 보아 여신을 숭배하는 제의의 장소였다. 이 구조물은 우하량 유적의 중앙부에 위치하며 유일하게 건물지와 산대로 구성된 유구이다. 게다가 여신묘는 우하량의 꼭대기 부근에 위치하며, 복수의 지점에 산포된 적석총은 그것을 에워싼 형태로 분포되어 있다. 게다가 지금까지 발굴된 적석총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의 것을 보유하고 있는 제2지점은 여신묘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다. 이상의 현상은 여신묘가 우하량 적석총군에서 중심적 위치에 처해 있었음을 의미한다.

여신묘 내부에서는 도합 7개 개체분의 인물 소상이 발견되었다. 이것은 숭배의 대상이 복수였음을 보여준다. 숭배의 대상이 복수라고 해도 그들의 위치는 모두 동일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인물 소상의 크기가 서로 달라 적어도 세 등급으로 구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소상의 출토 지점을 보면 그 가운데 가장 큰 소상의 일부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 여신묘의 중앙부에서 출토되었다. 이렇게 숭배의 대상이 되는 신상에서 확인되는 차이는 우하량 유적의 적석총에서 관찰되는 차별성과 일치한다. 숭배의 대상에서 확인되는 계층적인 양상은 적석총에서 확인되는 홍산문화 사회의 계층성을 반영하는 것이다. 그것은 소수의 사람들에게 홍산문화 사회의 제사권이 집중된 것을 보여준다.

4. 홍산문화의 사회

1) 취락분포의 양상

앞 장에서 정리한 홍산문화 사회의 계층적 양상의 실제성을 검증하기 위한 방법으로 근래에 해당 문화 권역에서 진행된 취락고고학의 연구 성과를 참조할 수 있다. 일정한 지역 내에 분포하는 취락의 규모와 분포 양상에 대한 고고학적 연구 경험은, 유적의 면적이 클수록 거주하는 인구의 수량이 많고 그 지위 또한 높다는 논리적 추론을 입증했다. 아울러 거기에 서로 다른 등급의 취락이 존재할 경우, 상위 취락은 하위 취락에 영향력을 행사하며, 자신을 중심으로 하나의 군집을 형성한다. 중심이 되는 취락은 일정한 지역 내에서 정치적, 경제적 중심지가 되는데, 이를 중심으로 한 취락의 계층화 정도는 사회조직의 발전 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유용한 근거로 활용된다.

홍산문화의 주요 분포 지역인 요서에서 최초로 정주생활이 시작된 것은 전 6000년기의 흥륭화문화 단계부터이다. 이들은 토기를 사용하고 다양한 형태의 석제 농기구를 이용하여 농업에 종사하였다. 하천에 가까운 배산임수의 비교적 낮고 평탄한 구릉 위에 취락을 건설하였으며, 적어도 그들

가운데 일부는 환호를 갖추었다. 기원전 5000년기의 후반에 이 지역에 등장한 홍산문화인의 생활 양상도 흥륭와문화인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홍산문화 단계에 이르면 인구가 증가하고 그에 따라 취락 개체수도 뚜렷하게 성장세를 보인다. 1999년부터 2001년까지 中美聯合考古隊가 적봉시 일원 765.4km² 범위에서 시행한 정밀지표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홍산문화 유적은 흥륭와문화 유적보다 약 10배 가량 증가하였다.(赤峰中美聯合考古項目 2003: 1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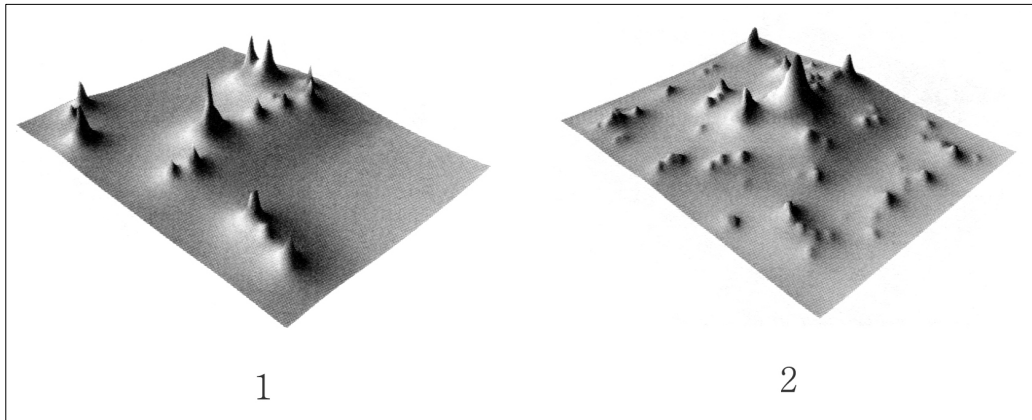
홍산문화의 취락 가운데는 대형 취락도 등장하여, 이를 중심으로 주변 일정 범위에 걸친 취락이 아우르는 취락의 집체화도 시작되었다. 위에 언급한 적봉시 일원의 지표조사 결과에 의하면 홍산문화기의 유적은 주로 錫伯河, 半支箭河, 陰河 등의 하천 주변에 분포되어 있다. 유적 면적은 대형이 3만m²에서 4만m² 가량이며 소형은 1000~2000m² 가량이다. 대부분의 취락은 하천을 따라 분포하고 있으며 3~4 혹은 7~8개의 유적이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분포된 양상을 볼 수 있다. 이처럼 상이한 규모의 취락이 일정한 공간 내에 분포하는 현상은 그곳에 대형 취락을 중심으로 형성된 사회조직이 형성되었을 가능성을 암시한다.

1996년부터 2000년에 걸쳐 赤峰考古隊에 의해 시행된 또 다른 지표조사는 赤峰 인근의 반지전하 중류 일대를 주요한 대상으로 하였다. 이때의 조사면적은 모두 221km²에 달하며, 조사를 통해 확인된 先秦시대의 유적은 모두 220곳에 달한다.[표 2] 滕銘予는 이 조사를 통해 확인된 각 문화기 유적의 개별 면적과 그 분포의 조밀도에 근거하여, 홍산문화 취락을 4개의 군체로 구분해 냈다.

소속 문화 (혹은 시대)	유적 수량	소속 문화 (혹은 시대)	유적 수량
興隆窪文化 혹은 趙寶溝文化	1	夏家店下層文化 혹은 夏家店上層文化	1
趙寶溝文化	9	夏家店下層文化 혹은 근현대 이차 퇴적	3
趙寶溝文化 (?)	2	夏家店上層文化	68
趙寶溝文化 혹은 紅山文化	2	夏家店上層文化, 夏家店下層文化 중복 가능성	3
紅山文化	18	夏家店上層文化 (?)	5
紅山文化 (?)	3	夏家店下層文化 (?)	5
小河沿文化	5	新石器時代부터 戰國時代까지	2
小河沿文化 (?)	1	夏家店上層文化 혹은 戰國時代	2
夏家店下層文化	141	戰國時代	39
夏家店下層文化, 夏家店上層文化 중복 가능성	1	戰國時代 (?)	1
夏家店上層文化, 戰國時代文化 중복 가능성	1		

[표 2] 半支箭河 유역 先秦 각 시대 유적 개체 수(赤峰考古隊 2002: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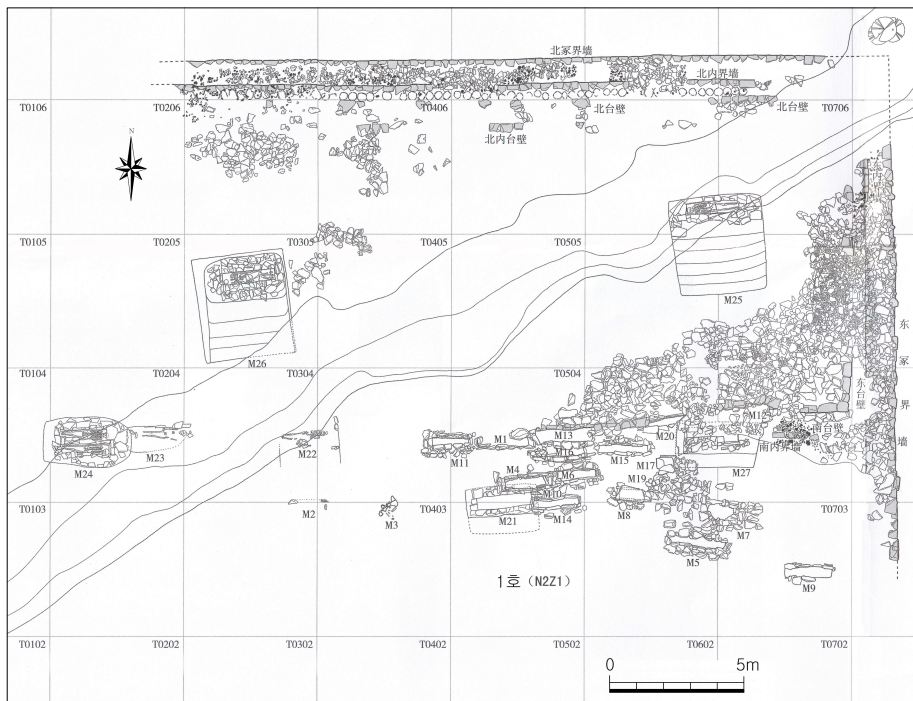
그에 따르면, 홍산문화기 취락 군체는 중심부에 위치한 비교적 분포가 조밀하고 면적이 큰 유적과 그 주변에 산포된 소형 유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그는 이 4개의 군체 사이에서 분포의 조밀도나 유적의 면적에서 현격한 차이를 볼 수 없었다.(滕銘予 2009: 206-207) 그의 결론은 홍산문화기의 취락 간에는 이미 계층화가 시작되고 있었지만, 그 정도는 아직 고도화되지 않은 초보적 단계에 머물러 있었음을 의미한다. 이것은 동일한 지역에서 확인된 하가점하층문화 취락의 계층화와 비교할 때 보다 분명한 형태로 드러난다.[도면 10]



[도면 10] 半支箭河 유역 선사문화 취락 유적 분포 개념도
 1. 紅山文化 2. 夏家店下層文化

2) 우하량 무덤의 계층성

적봉시 인근의 자료를 기초로 해서 획득된 홍산문화의 발전 단계에 대한 평가는, 우하량 유적을 통해 비교적 발전된 단계의 사회조직을 상정하는 중국학계의 견해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중국학계에서 제기된 견해를 평가하기 위해 우하량 적석총의 무덤과 부장 옥기의 상관관계를 구체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도면 11] 우하량 유적 제2지점 제1호 적석총 평면도

우하량 유적의 보고자는 조사된 무덤을 몇 등급으로 구분했다. 각 적석총의 중심에 위치하며, 규모가 탁월하고 다량의 옥기를 부장한 것을 '중심묘'라 하고([표 3]의 구조 A), 중심묘와 비견할만한 크기를 가지고, 묘광의 한쪽 면을 계단식으로 구축하였으며 부장 옥기의 수량이 중심대묘에 비견될만한 것을 '계단식묘'라 하고(B), 그 밖의 중소형 석관묘 가운데 옥기를 부장한 무덤과 그렇지 않은 무덤을 다시 구분하여, 전자를 '갑류'(Ca)로 후자를 '을류'(Cb)로 칭한다.(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 2012: 480-481) [도면 11]과 [표 3]은 우하량 유적 제2지점 제1호총에서 발굴 조사된 무덤과 부장 옥기의 상관관계를 검토하기 위해 준비된 것이다.

제1호 적석총에서는 모두 25기의 무덤이 조사되었으며 이 가운데 5기는 이미 교란되어 신뢰할만한 자료를 획득할 수 없다. 25기 가운데 보고자에 의해 B로 분류된 무덤은 모두 7기인데, 각 무덤의 위치는 유구의 중앙부 동서쪽(M25, M26)과 중앙부 남쪽(M21)과 서남쪽(M22~M24) 그리고 동남쪽에 일정하지 않게 분포되어 있다. B류 무덤에서 출토된 옥기는 교란되지 않은 5기를 대상으로 할 때 3점(M24, M27), 6점(M25), 20점(M21) 등으로 편차가 크며, 옥기의 종류 또한 일정하지 않다. 이런 경향은 C류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보아 C류 무덤은 유구의 동남쪽에 집중되어 있지만, 부장 옥기는 3인 이차장인 M7을 제외하더라도 그 개체수가 1점(M8)에서 5점(M18)까지 다양하며 그 구성 항목도 일정하지 않다. C류 가운데 일부는 그 부장품의 개체수가 B류를 능가하기도 한다.

관찰을 통해 분명하게 인지되는 사실은 무덤의 규모와 그 위치, 그리고 부장품의 양에서는 일관된 경향성을 살펴보기 어렵다는 점이다. 제2지점의 제1호 적석총에서 관찰되는 무덤의 배치 양상은 제1호가 본래 M25와 M26을 중심으로 구축되었지만, 이후 추가적인 매장이 활발히 진행되었으며, 추가로 매장된 자들 가운데 상당수는 M25와 M26에 못지않은 지위를 가진 자들이었음을 보여준다. 후자의 경우 새로운 적석총을 구축하지 않고 기존의 적석총에 추가로 매장된 것은 사자의 매장 과정에서 신분보다는 특수한 내적 관계, 아마도 혈연이 보다 중시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 적석총에 매장될 수 있는 자들은 동일한 혈연집단에 속한 자들 가운데 소수로 제한되었을 것을 상정한다고 해도 그 선별 과정에는 복잡한 배경이 존재하였을 것이다. 그것은 이차장이 널리 유행하고, 그중에는 복수의 사망자가 합장된 경우도 있는 것에서 짐작할 수 있다. 묘실 구조의 다양성을 보았을 때 매장된 자들에게는 식별 가능한 사회적 신분이 존재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나, 부장품의 수량에서 현격한 차이가 보이지 않는 만큼 서로 다른 신분 사이의 격차는 현저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부장된 옥기의 종류가 다양하고 일정한 패턴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동일하거나 서로 다른 신분에 속하는 자들 사이의 기능에 규범화된 차이가 존재하지 않은 것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지점	번호	구조	장식류					공규류			동물형			특수형				계	비고
			管	珠	環	鐲	기타	鉞	棒	기타	猪龍	鳥	龜	기타	勾雲	壁	籬		
2	Z1M25	B	1	2		2										2		6	
	Z1M26	B	1			1	2											4	파괴
	Z1M1	Ca			1													-	파괴
	Z1M2	Ca																-	파괴
	Z1M3	Cb																-	이차장
	Z1M4	Ca								2						1		3	
	Z1M5	Ca																-	
	Z1M6	Cb																-	이차장
	Z1M7	Cb			2										3			5	이차장(3)
	Z1M8	Cb			1													1	이차장
	Z1M9	Ca						1						1				2	
	Z1M10	Cb																-	이차장
	Z1M11	Cb			1							1		1				3	이차장
	Z1M13	Cb																-	이차장
	Z1M14	Ca				2								1				3	
	Z1M15	Ca			1	2									1	1		5	
	Z1M16	Cb																-	이차장
	Z1M17	Cb					1											1	이차장
	Z1M19	Cb																-	이차장
	Z1M20	Ca																-	
Z1M21	B		1		1	2					1		1	10	1	3	20		
Z1M22	B				1								1		1		3	파괴	
Z1M23	B				1	2								1			4	파괴	
Z1M24	B				2								1				3	쌍실묘	
Z1M27	B				1								1				3	이차합장	

[표 3] 우하량 제2지점 제1호 적석총 구조 및 부장 옥기

5. 홍산문화 문명론 비판

1) 문명사회론 비판

현재 중국학계에서 널리 수용되는 홍산문화의 발전 단계에 대한 인식을 이해하려 한다면 무엇보다도 우선 蘇秉琦(1909~1997)가 주장한 문명론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중국 고고학계의 원로로서 학계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蘇秉琦가 만년에 들어 정력을 기울여 연구한 것은 이른바 ‘중화문명’의 기원과 발전에 관련된 일련의 이론적 테마였다. 그는 고고학의 최종적 목적은 역사의 복원에 있으며, 중국 고고학은 이를 위해 특히 네 가지 과제가 중점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말한 네 가지란 바로 중국문화의 기원 문제, 중국문명의 기원 문제, 중국 ‘통일다민족’의 형성 문제, 중국의 문화전통 문제 등이다(蘇秉琦 1988). 이 가운데 홍산문화의 성격에 대한 현 중국학계의 이해

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것이 바로 고문화·고성·고국론(古文化古城古國論)이다.

고문화·고성·고국론은 고고학적 야외조사의 필요에 의해, 1980년대 중반기에 들어 제기된 것이다. 그것은 무분별한 개발의 소용돌이에서 심각한 유적 파괴에 직면하고 있었던 당시의 상황에서, 고고학적 현장 조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출 것인가에 대한 소병기 나름의 제언이었다. 그는 고고학적 조사와 연구는 우선 고문화, 고성, 고국을 중심으로 삼아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때 소병기가 말한 고문화·고성·고국에서 ‘고문화’는 원시문화를, ‘고성’은 도시와 촌락이 최초로 분리된 상태의 ‘도시[城]’과 ‘촌락[巖]’을, ‘고국’은 부락을 초월하여 안정적이며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정치적 실체를 뜻하는 것이었다(蘇秉琦 1986).

소병기는 고문화, 고성, 고국 사이의 관계는 ‘논리적, 역사적, 발전적’인 것이라 하여, 이들 3자가 서로 다른 발전 단계에 위치한 것임을 암시하였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은 자세하게 언급하지 않았다. 그의 목표는 이 3자의 개념과 그들의 상호관계를 진화론적 관점에서 체계적인 이론의 틀로 정리하는 것보다는 원시문화, 즉 고문화가 발전하여 새로운 문화 단계, 즉 고성, 고국의 단계로 이행하는 그 순간을 보여줄 수 있는 유적, 특히 대형 유적에 대한 유목적적 조사와 연구가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강조하는 데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고문화에서 고성, 고국으로의 이행은 원시사회 후기, 시간적으로는 지금으로부터 5000년 전 전후에 일어난 사건이며, 이미 약간의 지역에서 그 단서를 찾아냈다고 말하였다.

이때 그가 염두에 둔 것이 바로 홍산문화였다. 그는 홍산문화를 “원시공동체의 씨족부락이 발전하여 공동체에 기반하고 있지만 그것을 능가하는 한층 높은 단계의 사회조직에 도달한 것”으로 평가하고, 나아가 이것을 ‘중국문명의 새로운 서광’이라 표현하였다. 그가 말한 ‘문명’의 내용은 다소 모호하긴 하지만, 홍산문화가 기원전 2000년, 즉 하 왕조의 성립부터 시작된 중화문명사를 1000년 더 끌어올렸다고 하고, 중화문명의 시작점은 홍산문화보다 더 소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한 것을 보면 그가 말하는 문명의 내용에는 국가의 성립도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일련의 사고는 1990년대에 들어 어느 정도 정리된 형태를 갖추게 된다. 그는 이때 중국 국가 형성의 과정을 ‘三部曲’과 ‘세 모델’로 정리하였다. 그가 말한 삼부곡은 ‘고국’, ‘방국’, ‘제국’을 가리키며, 세 모델은 ‘원생형’, ‘차생형’, ‘속생형’을 의미하는데, 그 자세한 내용은 차치하더라도 이때 홍산문화는 원생형 고국의 대표적인 사례로 지목되었다. 즉 홍산문화가 ‘부락을 초월하는 안정적이며 독립적인 정치적 실체’를 형성하였다고 분명한 형태로 선언하기에 이른 것이다.(蘇秉琦 1994: 139-140, 142)

소병기의 주장에 근거를 제공한 것은 우하량 유적이다. 소병기의 제자로서 우하량 유적의 발굴을 주도한 郭大順은 우하량 유적이 약 50km²의 범위 내에 제단, 여신묘, 적석총 등으로 구성된 대형 유적일 뿐만 아니라 여신묘를 중심으로 하여 체계적으로 설계되어 있고, 각각의 적석총이 독립된 단원을 이루고 있는 것과 중소형 묘를 포함한 각종 시설이 중심묘를 중심으로 배치되어 있는 것 등을 근거로 하여 홍산문화 사회에 일인독존을 위주로 한 계층제가 성립되어 있었다고 한다. (귀다순·장성더 2008: 370-393)

그러나 홍산문화에서 소병기와 곽대순이 상상하는 국가의 출현을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사실에 입각한 판단이 필요하다. 앞 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홍산문화의 취락이 보여주는 등급화의 정도는 초보적인 수준이며, 우하량의 적석총에서 확인된다고 하는 계층제 역시 규범화의 정도까지 이르

지 못했다. 이것은 그들이 홍산문화에 대해 내린 평가가 엄정하지 못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게다가 이와 같은 언설은 사실에 입각한 귀납적인 판단이라기보다는 선형적으로 정의된 것일 혐의조차 배제할 수 없다.

1986년 이 유적의 발굴 현장을 방문한 安志敏은 여신묘의 유구가 아직 다 노출되지도 않았고 인물 소장도 지표에 덩굴어 다니고 있는 상황에서, 여신묘는 주실과 측실로 구성된 다실 건축이며, 거기에 모셔진 神像에 主次의 구별이 있어 마치 群神이 主神을 모시고 있음이 입증되었다는 보고가 이미 공刊되었다고 술회하였다. 그는 여신묘도 아직 다 발굴되지 않았고, 적석총의 문화층도 식별되지 않아 후대의 유구가 중첩되어 있을 가능성이 농후한데도 우하량 유적을 근거로 하여 홍산문화기에 국가나 문명을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비판적 자세를 천명하였다.(安志敏 2002, 2003)

서구 고고학에서 정의하는 ‘문명’은 문자와 도시 그리고 청동야금술 등 3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출현하는 문화 발전 단계를 의미하는 것이며, 이것은 대체로 구대륙문명에 적용된다. 신대륙문명의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이 가운데 청동야금술의 경우는 생략될 수 있지만 적어도 도시와 국가는 문명의 정의에 필수적인 요인으로 포함되어야 한다(이청규 2011).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홍산문화의 유적에서 확인되는 현상은 이와 같은 문명의 기준에는 도무지 부합되지 않는다. 게다가 소병기가 말하는 ‘고국’은 그것이 국가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국가 이전 단계를 말하는 것인지 명료하지 않으며, 그 개념조차 정의가 내려지지 않았다.(陳淳 2002)

2) 황제문명론 비판

홍산문화를 黃帝族의 문명이라 주장하는 견해 역시 소병기에 의해 주도되었다.(소병기 1994: 130-131) 곽다순은 소병기를 계승하여 홍산문화와 황제의 연계 가능성을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근거로 설명하고자 했다. 첫째는 홍산문화가 최초의 문명이라는 것이다. 황제는 중국 문명의 창조자이므로 황제와 홍산문화의 관련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다. 둘째는 『사기』 「오제본기」에 보이는 전쟁기록이다. 「오제본기」에 따르면 황제 때에는 두 차례의 전쟁이 발발했다. 그 하나는 황제와 炎帝 사이의 전쟁이며, 다른 하나는 황제와 蚩尤 사이의 전쟁이다. 그런데 이 두 차례 전쟁은 모두 현재의 河北省 涿鹿縣에서 치러진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탁록이 위치한 하북성 북부 일대는 남방의 농경문화와 북방의 수렵·어로문화, 구체적으로는 중원 지역의 양소문화와 북방의 홍산문화가 교차하는 지역이다. 황제가 염제와 싸울 때 곰, 큰곰, 비휴, 이리, 호랑이 등을 거느렸다고 하는데, 이들은 야수를 토렘으로 한 북방 부락의 명칭일 것이다. 황제가 이들을 거느렸다면 황제 역시 북방문화권에 속하며, 그렇다면 황제는 홍산문화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을 것이다.(곽다순·장성덕 2008: 415-422) 근래에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 홍산문화 옥기 가운데 ‘猪龍’이라 부르던 것은 사실 돼지의 형상이 아니라 곰의 형상이며 따라서 그것은 ‘熊龍’이라 이름을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 주장의 이면에는 「오제본기」에 황제가 국호를 ‘有熊’이라 했다는 기록이 고려되어 있다.

황제에 대한 가장 체계적인 기록을 남긴 것은 역시 『사기』 「오제본기」이다. 여기에는 황제의 사적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황제는 少典씨의 자손으로 성은 公孫이고 이름은 軒轅이다. 태어나면서부터 신비하고 영묘해서 아주 어렸을 때 말을 할 수 있었다. … 현원시대에 이르러 神農씨의 후예가 약해졌다. 제후들은 서로 침략하고 공격하면서 百官들을 잔혹하게 대했으나, 신농씨는 그들을 정벌할 수 없었다. 이때 현원이 방패와 창을 쓰는 법을 익혀서 朝貢하지 않는 자들을 정벌하자 제후들은 모두 와서 복종했다. 그러나 蚩尤만은 포악하기 그지없어 정벌할 수 없었다. 炎帝가 제후들을 쳐서 없애려 하자 제후들은 모두 현원에게로 귀의했다. 이에 현원은 덕을 닦고 군대를 정돈했으며 五行의 기를 다스리고 五穀을 심어 만백성을 어루만졌으며 사방의 땅을 재었다. 곰, 큰곰, 비휴, 이리, 호랑이를 훈련시켜 阪泉의 들에서 염제와 싸웠는데 세 번 싸운 뒤에야 뜻을 이루었다. 치우가 다시 난을 일으키고 황제의 명을 듣지 않았다. 이에 황제는 제후를 모은 후 치우와 涿鹿의 들에서 싸워 마침내 치우를 사로잡아 죽였다. 그러자 제후들은 모두 현원을 받들어 천자로 삼고 신농씨를 대신하게 하니 이가 바로 황제이다.

「오제본기」에는 황제가 신농씨의 후예 때에 발생한 천하의 혼란을 잠재우고, 곡식을 심어 백성을 부양했을 뿐만 아니라, 포악한 염제와 치우를 정벌하여 천하의 안정을 이끌었으므로, 이 공로로 말미암아 천하의 군주가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황제는 유덕하고 유능한 군주로서 현실 세계에 존재했음직한 인물로 묘사되어 있다. 게다가 황제의 자손은 이후 그를 계승하여 천하의 군주가 되었다. 「오제본기」의 기록에는 황제의 뒤를 잇는 顓頊이 황제의 손자이며, 그 다음을 잇는 帝嚳은 그의 증손이라 한다. 이어 堯는 제곡의 아들이며, 舜은 황제의 9대 손이고, 夏 왕조를 개창한 禹 역시 황제의 4대 손이다. 이렇게 보면 황제 이후 옛 제왕은 모두 황제의 계보를 잇는다. 그런 의미에서 황제는 제왕의 혈통이 뺏어나간 근원이 된다.

이처럼 「오제본기」에서 古帝王 계보의 정점에 위치하는 황제이지만 그에 관한 기록은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면 갈수록 희박해진다. 서주시대 후기의 사실을 포함하고 있다고 여겨지는 『상서』, 『시경』 등, 현전하는 最古의 문헌기록에 황제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황제에 관한 기록은 전국시대 경에 성립된 문헌, 예컨대 『국어』나 『좌전』 등에서 비로소 빈번하게 출현한다. 그리고 전국시대의 문헌에 등장하는 황제는 신화적인 색채가 매우 농후한 인물로 묘사되어 있다. 예컨대 『한비자』의 十過에서 황제는 여섯 마리 교룡이 끄는 수레를 타고 서태산에서 귀신을 불러모았으며 『산해경』 「西山經」에서는 곤륜산에 살면서 白玉으로 만든 玉膏를 먹는 자로 기록되었다. 뿐만 아니라 같은 책의 「大荒北經」은 자신의 딸인 魃로 하여금 風伯과 雨師가 불러일으킨 비바람을 멈추게 하고, 應龍을 동원하여 蚩尤를 공격하게 했다고도 한다.

이와 같은 기록을 보면 황제는 명백히 신화 속의 주인공이다. 司馬遷도 그와 같은 전승을 익히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가 「오제본기」의 말미에서 “尙書에는 단지 堯 이후의 일만 실려 있게 되었다. 그리고 백가들이 황제에 대해 말했지만 그들의 문장은 아름답지도 믿을만하지도 못해 학자나 사관들이 말하기를 꺼린다”고 말한 것은 아마도 그 때문이었을 것이다.

황제가 신화의 주인공에서 인간세계의 군주로 변신한 것은 전국시대의 일이라고 생각된다. 전국시대에 들어 中原의 諸族이 문화적 공통성을 증대하면서 주변의 異族과 자신을 구별하기 시작한다. 정치적으로 보면 전국시대에는 상쟁하는 諸國이 점증하는 공동의 이익을 바탕으로 통일을 모색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시대적 배경에서 각 지방 고유의 신화가 황제를 중심으로 일원화되

어 간다.(李成珪 1975)

물론 계보화에는 다양한 시도가 있었다. 황제를 시조로 하고 있는 古帝王의 계보가 『국어』나 『산해경』 등의 전국시대 문헌에서 상이한 형태로 나타나는 것은 그 때문이다. 『사기』의 「오제본기」와 그것이 참고한 『대대례기』 「오제덕」의 계보는 그 가운데 『산해경』의 일부를 채용한 것이다. 전국시대의 계보화에서 황제가 중심이 된 것은, 황제가 오행에서 중앙을 차지하는 ‘土’에 배당되고 이를 중심으로 五行相生說이 전개되기 때문이다. 여기에도 역시 전국시대에 유행한 관념의 영향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이렇게 따지면 『사기』 보이는 황제의 인문적 형상은 신화적인 기반에서 일탈한 이차적인 변형에 지나지 않는다.(白川靜 1999: 178-182)

역사에서 황제를 다시 소환해 낸 것은 淸 왕조의 몰락 이후 국민국가의 건립을 염원한 지식인들이 국민의 자긍심과 단결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매개로 그를 선택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중국인은 황제의 자손’이라던가 ‘중화문명 5000년’이라는 구호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후자는 중국이 5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이다. 여기에서 ‘5000년’이 언급된 이유는, 이 무렵 개량파가 민족의식의 고양을 목표로 황제기년의 사용을 주장한 것과 관련이 있다. 황제기년은 두 종류가 있었는데, 하나는 1903년에 발간된 『江蘇』에서 사용한 4394년이며 다른 하나는 같은 해 『黃帝魂』에서 사용한 4614년이다. 그 근거는 宋教仁이 『皇極經世』와 『通鑑輯覽』에 근거해 황제가 즉위한 ‘계해’년이 1905년, 즉 ‘乙巳’년보다 4603년 전이라고 주장한 것이나, 明末淸初에 黃宗羲가 第1甲子를 황제 원년으로 제73갑자를 明 天啓 4년(1634)으로 계산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민국시대에 채용된 황제기년은 중화문명 5000년의 근거가 되었다(김선자 2007: 150-165)

그 근거가 매우 박약하지만, 중화문명 5000년론은 중국인들에게 민족적 자긍심을 불러일으키는 구호와 같은 성격을 지니며, 점차 움직일 수 없는 사실로 수용되어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기록에서는 이를 사실로 입증할만한 어떤 근거도 발견되지 않았다. 오히려 고힐강과 같은 이는 황제를 비롯한 중국 고대사의 대부분이 후대에 날조된 것임을 분명하게 밝혀 나가기 시작했다. 그런데 20세기의 끝 무렵에 들어 5000년이라는 수자가 실제로 입증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되었다. 고고학적 발굴과 연구 성과가 집적됨에 따라, 河南 偃師의 二里頭 유적이 夏 왕조의 도읍으로 지목되었으며, 이 유적의 연대는 기원전 2000년경까지 소급되는 것이 정설로 굳어졌다.

그렇다면 『사기』에 하 왕조의 이전에 활약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오제의 시대는 기원전 3000년기까지 올라가지 올라갈 수 있지 않은가. 홍산문화가 중국에서 최초로 성립된 문명이라면 홍산문화와 황제는 연결되될 수 있는 개연성은 충분히 확보될 것이 아닌가. 홍산문화와 황제를 연결시켜보려는 시도의 근거에는 이와 같은 배경이 있다.

그러나 황제에게 일정한 시간을 부여한 것은 司馬遷, 일러도 전국시대의 사상가를 뛰어 넘지 못한다. 일찍이 고힐강이 지적한 바와 같이, 황제는 신화 속의 인물이며, 그에게 부여된 시간은 원래 그의 것이 아니라 후대에 가공된 것이다. 황제와 염제, 황제와 치우가 다투었다고 하는 탁록도 마찬가지이다. 신화속의 전장인 탁록은 역시 상상의 공간에 지나지 않으며, 그것이 지금의 하북성 북부에 위치했는지 여부는 그다지 중요한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 「오제본기」의 탁록이 현재 하북의 탁록이 아니고, 河南, 山西 혹은 江蘇 일대로 비정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여전히 존재하는 것은 그 공간의 수의성이 후대까지 이어졌기 때문이다.

홍산문화가 황제의 것인지 아닌지 여부는 그런 의미에서 학술적 논의의 대상이 아니다. 홍산문화

의 옥기에 보이는 짐승이 곰인지 돼지인지는 부차적이기도 하고 관찰자의 입장에 따라 얼마든지 다른 판단이 가능한 사안이며, 그 형태를 한 가지 동물로 규정하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한 일인 것으로 보인다.(김선자 2009: 183)

6. 결론

홍산문화 유적이 인지되기 시작한 지 80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홍산문화에 대한 지견은 여전히 부족하다. 발굴 보고가 공간된 홍산문화의 유적은 채 20곳이 되지 않으며, 그 대부분은 묘지이다. 출토된 유적과 유물에서 홍산문화인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한 물건과 그 기술적인 성취, 그리고 그들의 사회적 행위에 대한 약간의 정보가 정리되어 있으나, 아직 1500년에 걸친 시간적, 공간적 문화 변동의 양상에 대해 확보한 자료의 절대량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그러나 우하량 유적의 발굴과 거기에서 확인된 대규모의 적석총, 여신묘 등의 인상적인 유구를 바탕으로 홍산문화에 대한 논설은 화려함의 극치를 달리고 있다. 그것은 특히 중국문명의 기원 문제와 연결되어, 홍산문화에서 문명의 성립을 관찰해 내고, 그것을 바탕으로 중국문명의 유구함이나 중국의 다원적 문화 전통을 입증하는 도구로 활용된다. 그리하여 홍산문화는 '황제'로부터 시작되는 중국문명 5000년이라는 근거를 알 수 없는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가 되고, 이것은 중국민의 문화적 자존감을 회복하고 보장하는 이데올로기로 발전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산문화를 통해 입증하고자 하는 문명의 출현은 그 근거가 박약하기 짝이 없다. 홍산문화에서는 제사장을 중심으로 하는 계층화가 진전되었고 취락 사이의 일정한 상호관계는 형성되었다고 해도 그 발달 정도는 아직 문명의 단계까지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황제는 신화 속의 인물로서, 한대 이후에야 중국인의 조상으로서 인격화되는 존재이며, 따라서 홍산문화와 황제와의 관계를 상정하는 것 역시 일종의 넌센스에 불과하다. 이처럼 홍산문화의 성격은 사회적, 정치적 요구에 의해 선형적으로 정의되고 과도하게 포장된 혐의가 짙다. 거기에서 중국 최초의 문명을 찾으려는 시도는 사실에 부합되지 않으며 학술적인 엄정성을 담보하고 있지도 않다.

참고문헌

- 內蒙古文物考古研究所 2004, 『白音長汗-新石器時代遺址發掘報告』, 科學出版社.
- 濱田耕作・水野清一 1938, 『赤峰紅山後-熱河省赤峰紅山後先史遺蹟』, 東亞考古學會.
-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 2012, 『牛河梁-紅山文化遺址發掘報告(1983-2003年度)-』, 文物出版社.
- 赤峰考古隊 2002, 『半支箭河中游先秦時期遺址』, 科學出版社.
- 赤峰中美聯合考古項目 2003, 『內蒙古東部(赤峰)區域考古調查階段性報告』, 科學出版社.
- 內蒙古文物考古研究所 1994, 「克什克騰旗南臺子遺址發掘簡報」, 『內蒙古文物考古文集』第1輯, 中國大百科全書出版社.
- 內蒙古文物考古研究所 1994, 「巴林左旗友好村二道梁紅山文化遺址發掘簡報」, 『內蒙古文物考古文集』第1輯, 中國大百科全書出版社.
- 安徽省文物考古研究所 2008, 「安徽含山縣凌家灘遺址第五次發掘的新發現」, 『考古』2008年 第3期.
- 方殿春・劉葆華 1984, 「遼寧阜新縣胡頭溝紅山文化玉器墓的發現」, 『文物』1984年 第6期.
- 楊虎 1989, 「敖漢旗西臺新石器時代及青銅時代遺址」, 『中國考古學年鑑 1988』, 文物出版社.
-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內蒙古工作隊 1985, 「內蒙古敖漢旗興隆窪遺址發掘簡報」, 『考古』1985年 第10期.
- 郭大順 2005, 『紅山文化』, 文物出版社.
- 귀다순・장성더 2008, 『동북문화와 유연문명』 상, 동북아역사재단.
- 김선자 2007, 『황제신화 -만들어진 민족주의-』, 책세상.
- 滕銘予 2009, 『GIS支持下的赤峰地區環境考古研究』, 科學出版社.
- 白川靜 1999, 『白川靜著作集 6 -神話と傳説-』, 平凡社.
- 蘇秉琦 1994, 『華人・龍的傳人・中國人-考古尋根記』, 遼寧大學出版社.
- 尹達 1955, 『中國新石器時代』, 三聯書店.
- 張星德 2005, 『紅山文化研究』, 中國社會科學出版社.
- 趙彬福 2003, 『東北石器時代考古』, 吉林大學出版社.
-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 2010, 『中國考古學 新石器時代卷』, 中國社會科學出版社.
- 郭大順 2006, 「龍鳳呈祥-從紅山文化龍鳳玉雕看遼河流域在中國文化起源史上的地位」, 『文化學刊』2006年 第1期.
- 김선자 2009, 「홍산문화의 황제영역설에 대한 비판-곰 신화를 중심으로」, 『동북아 곰 신화와 증화주의 신화론 비판』, 동북아역사재단.
- 段天環 등 2011, 「紅山文化聚落遺址研究的重要發現-2010年赤峰魏家窩鋪遺址考古發掘的收穫與啓示-」, 『吉林大學社會科學學報』第51卷 第4期.
- 劉國祥 2000, 「牛河梁玉器初步研究」, 『文物』2000年 第6期.
- 蘇秉琦 1986, 「遼西古文化古城古國-兼談當前田野考古工作的重點或大課題」, 『文物』1986年 第8期.

- 蘇秉琦 1988, 「中國文明的新曙光」, 『東南文化』1988年 第5期.
- 安志敏 2002, 「論“文明的曙光”和牛河梁遺址的考古實證」, 『北方文物』2002年 第1期.
- 安志敏 2003, 「關於牛河梁遺址的重新認識—非單一的文化遺存及“文明的曙光”之商榷」, 『考古與文物』2003年 第1期.
- 楊虎·林秀貞 2010, 「內蒙古敖漢旗紅山文化西臺類型遺址簡述」, 『北方文物』2010年 第3期.
- 李成珪 1975, 「戰國時代 統一論의 形成과 그 背景」, 『東洋史學研究』8·9합집.
- 이청규 2011, 「고조선과 요하문명」, 『한국사시민강좌』 제49집, 2011.
- 朱延平 1997, 「東北地區南部公元前三千紀初以遠的新石器考古學文化編年, 譜系及相關問題」, 蘇秉琦 主編, 『考古學文化論集 4』, 文物出版社.
- 陳淳 2002, 「中國文明與國家探源的思考」, 『復旦學報(社會科學版)』2002年 第1期

戰國·秦·漢時期 遼東郡과 그 경계

宋 眞(성균관대학교)

머리말

전통시대 ‘東北’ 또는 ‘만주’ 지역을 칭하는 가장 일반적인 명칭은 ‘遼東’이었다. ‘遼東’이라는 용어는 ‘遼遠한 동쪽’을 의미한다. 고대 중국인들은 會稽를 중국의 남쪽 끝으로 인식하였던 것처럼, 遼東을 중국의 동쪽 끝으로 여겼다.¹⁾ ‘遼東’이라는 명칭은 先秦 시기 출현하여 이후 2천여 년 간 사용되었지만, 역사상 ‘遼東’의 위치와 범위는 시대와 상황에 따라 달랐다.²⁾

중국 고대 문헌에서 ‘遼東’은 중원을 기준으로 동쪽에 위치한 지역을 지칭하는 지명이기도 하지만, 지방 행정 단위로서 郡名이기도 하다. 예컨대 전국시대 蘇秦이 燕의 文公에게 燕의 동쪽에 朝鮮³⁾과 遼東이 있다고 할 때의⁴⁾ 遼東은 燕의 동쪽에 존재하는 지방을 지칭한다. 반면 漢代 행정 문서에 언급된 ‘遼東’은 비록 郡을 칭하지 않았지만 遼東郡을 의미하였다.⁵⁾

遼東郡은 戰國時代 燕에서 처음으로 설치하였다. 秦은 전국을 통일한 후 燕의 遼東郡을 대체로 계승하였다. 漢代 遼東郡은 시기에 따라 관할 기구의 변화가 있었으나, 漢末까지 遼東郡은 존속하였다. 遼東郡은 漢 武帝가 고조선을 멸망시키기 이전까지 戰國 燕과 新·한제국의 최동단에 위치하였다. 자연히 주변 국가와 접하는 遼東郡의 경계는 곧 戰國 燕 및 新·한제국의 국경에 해당하였다. 특히 고대 중국의 여러 邊郡 중 遼東郡은 한반도와 인접하였고 고조선 멸망 이전까지 고조선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이런 점에서 遼東郡은 고대 중국의 동북 변군으로서뿐 아니라 고조선의 접경 지역으로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종래 戰國·秦漢 시기 遼東郡 관련 연구는 크게 세 방면으로 진행되었다. 첫째 시대별 遼東郡의 특징과 변화 양상을 정리 검토하는⁶⁾ 등 遼東郡 자체에 대한 연구이다. 戰國時代 燕의 遼東郡 설치시기⁷⁾·위치·지명 고증 등⁸⁾ 燕의 遼東郡 관련 연구는 물

1) 權五重, 「前漢時代의 遼東郡」, 『인문연구』 제17권 제1호, 1995, pp.271-272.

2) 역사상의 ‘遼東’ 개념에 대해서는 ‘김한규, 『요동사』, 문학과 지성사, 2004, pp.49-61’ 참조.

3) 중국 문헌에 기록된 ‘朝鮮’은 기원전 2세기 초 성립된 위만 왕조와 그 이전에 존재하였던 왕조를 모두 지칭한다. 고조선은 기원전 108년 漢의 공격에 의해 멸망하기 이전에 존재하였던 국가를 지칭하는 용어이다. 엄밀한 의미에서 고조선은 기원전 2세기 초 위만 왕조가 성립되면서 그 이전의 왕조와 구분하여 이해해야 한다(노태돈, 『단군과 고조선사』, 사계절출판사, 2000, p.42 참조). 이를 위해 위만 왕조를 위만조선이라 칭하여 그 이전의 왕조와 구분할 수도 있겠지만, 본고는 서술의 편의상 인용한 사료 중 ‘朝鮮’은 그대로 ‘朝鮮’이라 번역하고, 기원전 108년 멸망하기 이전에 존재하였던 왕조를 모두 고조선이라 지칭하였다.

4) 『史記』(中華書局 標點校勘本, 이하 正史 동일) 卷69 「蘇秦列傳」, p.2243, “說燕文侯曰, 燕東有朝鮮·遼東.”

5) 『居延漢簡釋文合校』(謝桂華·李均明·朱國焯, 文物出版社, 1987) 33.8, “[]書七月己酉下V一事丞相所奏臨淮海賊V樂浪遼東” 한편 본고에서 인용된 簡牘의 석문 중 괄호 안의 숫자는 簡 번호, ‘□’은 釋讀不能, ‘[]’은 斷簡을 의미한다. 그리고 假借字는 (), 誤字는 < >, 脫字는 【 】 로 각각 표기하였다.

6) 서영수, 「요동군의 설치와 전개」, 서영수 외, 『요동군과 현도군 연구』, 동북아 역사재단, 2008.

7) 裴眞永, 「燕昭王의 政策과 ‘巨燕’의 成立」, 『中國史研究』 25, 2003; 李樹林, 「秦開東拓與修筑燕北長城時間新考」, 『通化師範學院學報』 2013-1.

론, 秦의 遼東郡 범위⁹⁾와 변경 관리 정책에 관한 연구가¹⁰⁾진행되었다. 나아가 前漢¹¹⁾ 및 後漢¹²⁾ 遼東郡의 연혁과 그 특징에 관한 다양한 연구가¹³⁾ 이루어져, 戰國 ~ 秦漢 시기 遼東郡의 연혁과 지리적 범위는 대부분 정리가 되었다. 둘째 遼東郡의 경계 혹은 고조선의 경계에 대한 연구이다.¹⁴⁾ 중국에서는 주로 燕·秦·漢 長城의 노선과 東端을 정하는 문제를 중심으로 이를 연구하였고,¹⁵⁾ 국내에서는 한국사학계를 중심으로 고조선의 중심지와 강역을 밝히기 위해 이 문제를 검토하였다.¹⁶⁾ 셋째 遼東郡 주변의 민족이나 국가와의 관계 양상을 검토한 연구이다.¹⁷⁾ 그 중 고조선과의 관계를 다룬 연구는 고조선에 대한 정책이나¹⁸⁾ 상호 교류에 대한 연구가¹⁹⁾ 이루어졌다.

이중에서 遼東郡과 고조선의 경계 문제는 가장 의견이 분분하고, 국내외 학계 간에 치열한 논쟁이 진행되고 있는 주제이다. 遼東郡과 고조선의 경계를 연구하기 위한 1차 자료는 모두 중국 문헌 기록이다. 그런데 『史記』·『漢書』 및 『魏略』 등에 보이는 관련 기록은 매우 단편적이다. 종래 定界의 기준이 되는 지명과 용어의 해석을 둘러싸고 치열한 논쟁이 진행되었던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여기에 있다. 게다가 최근 중국의 ‘동북공정’과 관련한 동북 지역 고대사 연구가 과도할 만큼 활기를 띠면서, 이

-
- 8) 裴眞永, 「燕國의 五郡 설치와 그 의미-戰國時代 東北아시아의 勢力關係-」, 『中國史研究』 36, 2005; 閻忠, 「《戰國策》燕國疆域辨析」, 『史學集刊』 1995-3; 陳慧, 「戰國之燕對遼東的經營開發」, 『遼寧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2007-5; 后曉榮, 陳曉飛, 「考古出土文物所見燕國地名考」, 『首都師範大學學報(社會科學版)』 2007-6; 苗威·韓亞男, 「戰國遼東郡考述」, 『北方文物』 2012-4;
 - 9) 后曉榮, 「秦代燕地五郡置縣考」, 『古代文明』 2009-2; 林世香·苗威, 「秦遼東郡考述」, 『東北師大學報(哲學社會科學版)』 2012-6.
 - 10) 于凌, 「淺論秦代遼東郡的防務建置及其作用」, 『東北史地』 2013-5; 于凌, 「試析秦代遼東郡的防務形勢」, 『社會科學戰線』 2013-8.
 - 11) 權五重, 「前漢時代의 遼東郡」, 『인문연구』 제17권 제1호, 1995
 - 12) 權五重, 「後漢 光武帝期の 遼東郡」, 『인문연구』 제15권 제1호, 1993; 權五重, 「後漢 安帝期(106-125)의 遼東屬國」, 『中國古中世史研究』 第25輯, 2011; 방향숙, 「후한의 변군 운용과 요동·현도군-요동·현도군 내의 이민족 지배체제의 비교」, 서영수 외, 『요동군과 현도군 연구』, 동북아역사재단, 2008; 張國慶, 「東漢 “遼東屬國”考略」, 『歷史教學』 1990-2; 蘇衛國, 張旗, 「有關東漢遼東屬國問題的一些看法」, 『鞍山師範學院學報』 2013-5.
 - 13) 裴眞永, 「한대 요동군의 군현 지배-군현체제로의 지향과 한계」, 서영수 외, 『요동군과 현도군 연구』, 동북아역사재단, 2008; 李健才, 「關於漢代遼東·樂浪兩郡地理位置問題的探討」, 『社會科學戰線』 1993-1; 馮永謙, 「漢代襄平·望平·遼陽今地考辨-論“曹雪芹祖籍鐵嶺說”歷史地理考證之失誤」, 『社會科學戰線』 2004-3; 王海, 「秦漢時期遼西走廊考-兼與王綿厚·李健才先生商榷」, 『咸陽師範學院學報』 2013-5; 王綿厚, 「沈撫交界處“青椿子”古城的新發現及考古學意義-兼論秦漢遼東郡“中部都尉”與“侯城縣”的關係」, 『東北史地』 2014-1.
 - 14) 劉子敏, 「“遼東外徼”考釋」, 『延邊大學學報(社會科學版)』 1996-2; 劉子敏, 「戰國秦漢時期遼東郡東部邊界考」, 『社會科學戰線』 1996-5
 - 15) 李殿福, 「東北境內燕·秦長城考」, 『黑龍江文物叢刊』 1982-1; 劉志一, 「戰國燕北長城調查」, 『內蒙古文物考古』 1994-1; 閻忠, 「燕北長城考」, 『社會科學戰線』 1995-2; 孫杰, 「阜新地區燕北長城調查」, 『遼海文物學刊』 1997-2; 蕭景全, 「遼東地區燕秦漢長城障塞的考古學考察研究」, 『北方文物』 2000-3; 許志國, 「遼北境內燕秦漢長城及相關遺跡遺物的發現和研究」, 『博物館研究』 2007-2; 李樹林, 李妍, 「燕秦漢遼東長城障塞遺址的量化統計分析」, 『北方文物』 2011-2; 李樹林, 李妍, 「吉林省燕秦漢遼東長城考古調查概述」, 『社會科學戰線』 2011-10; 李樹林, 李妍, 「通化渾江流域燕秦漢遼東長城障塞調查」, 『東北史地』 2012-2.
 - 16) 고조선의 중심지 비정과 강역에 관한 국내 주요 연구 성과 및 쟁점 소개는 ‘박선미, 근대사학 이후 고조선사 연구의 현황과 쟁점」, 『韓國史學報』 23, 2006; 박선미, 「고조선의 강역과 중심지」, 『고조선사 연구 100년-고조선사 연구의 현황과 쟁점』, 학연문화사, 2009 참조. 최근 관련 연구로 ‘박준형, 『기원전 3~2세기 고조선의 중심지와 서계의 변화』, 『사학연구』 108, 2012; 오현수, 「『회남자』 기재 ‘갈석’과 ‘요수’를 통해 본 전기 고조선의 중심지」, 『정신문화연구』 제35권 제4호(통권 129호), 2012’ 등을 들 수 있다.
 - 17) 王海, 「秦漢時期遼西走廊與東北民族關係」, 『南都學壇』 2013-1.
 - 18) 趙紅梅, 「西漢經略朝鮮半島北部政策嬗變」, 『社會科學戰線』 2010-3.
 - 19) 朴대재, 「古朝鮮과 燕·齊의 상호관계」, 『史學研究』 第83號, 2006; 陳德安, 「先秦時期中國和朝鮮的關係與文化交流」, 『延邊大學學報(社會科學版)』 1989-4; 顧銘學·南昌龍, 「戰國時期燕朝關係的再探討」, 『社會科學戰線』 1990-1; 陳德安, 「秦漢時期中國和朝鮮的關係與文化交流」, 『山西師大學報(社會科學版)』 1990-3; 劉子敏, 「燕·遼東·古朝鮮」, 『東疆學刊』 1991-4 등.

문제 역시 다시금 쟁점이 되고 있다. 이에 국내 학계에서도 최근 중국 학계의 연구 경향을 파악하여 그 문제점을 지적하는²⁰⁾ 등 학술적으로 다양한 대응하고 있다. 고대 중국 왕조와 고조선의 경계 문제 역시 최근 중국 정부에서 소위 ‘長城 工程’²¹⁾을 시작하여²²⁾ 燕·秦·漢 장성의 東端을 한반도 북부까지 연장하여 이해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국내 학계의 적절한 대응이 요청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국내외 학계에서 진행된 고대 중국과 고조선의 강역 및 경계에 대한 과도한 논쟁은 결국 고대 문헌에 단편적으로만 남아있는 변경의 형태를 오늘날의 정치적 필요와 부합하는 방향으로 附會하는 과정에서 생겨났다. 다양한 논쟁을 일일이 변론하기에 앞서 우선 문헌에 기록된 고대 중국의 東北의 경계 형태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戰國·秦漢 시기 遼東郡과 고조선의 경계 관련 기록이 매우 단편적이므로, 문헌에 보이는 주요 용어와 고고 유지의 성격을 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戰國·秦漢 시기 邊郡의 定界 형태와 성격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 遼東郡을 따로 떼어 그 특수성을 강조하기보다, 동시기 邊郡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에 기초하여 遼東郡의 상황을 이해해야 한다.

본고는 고대 중국 왕조와 고조선의 경계의 위치와 성격을 이해하기 위해, 戰國·秦漢 시기 遼東郡과 고조선의 관계 및 定界 문제를 검토하고자 한다. 우선 종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戰國 燕이 遼東郡을 설치한 이후부터 고조선 멸망 시점인 전한시기까지 遼東郡의 연혁과 지리적 범위를 검토하겠다. 그리고 遼東郡의 변경에 위치한 燕·秦·漢 장성의 주요 특징과 고조선과의 定界 형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고찰은 종래 논란이 되었던 고대 중국 왕조와 고조선의 경계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기초를 제공할 것이다.

I. 燕의 遼東郡 설치와 변경 관리

1. 遼東郡의 설치

『史記』「貨殖列傳」에 묘사된 燕은 渤海와 碣石山 사이에 있는 큰 城市로서, 다음에 서 보듯이 동쪽과 북쪽으로 여러 주변 민족과 접하고 있었다.

-
- 20) 조범중, 「중국학계의 고조선연구 검토」, 『韓國史學報』 제25호, 2006; 송호정 [등] 지음, 『중국 동북지역 고고학 연구현황과 문제점』, 동북아역사재단, 2008; 박경철, 「중국 ‘고조선사’ 인식의 어제와 오늘」, 『고조선사 연구 100년-고조선사 연구의 현황과 쟁점-』, 학연문화사, 2009; 동북아역사재단 편, 『중국 ‘동북공정’ 고구려사 연구 논저 분석』, 동북아역사재단, 2010; 기수연, 「중국학계의 고조선, 한사군 인식에 대한 비판적 검토」, 『고조선단군학』 제23호, 2010; 禹成旼, 「중국 역사학계의 새로운 해석에 대한 비판적 검토」, 『진단학보』 제116호, 2012. ‘箕子朝鮮에 관한 중국 학계의 주요 주장과 그 문제점에 관해서는’ 이성규, 「중국학계에서 본 고조선」, 『한국사 시민강좌』 49, 2011; 조우연, 「중국학계의 ‘箕子朝鮮’ 연구와 그 비판에 대한 검토」, 『고조선단군학』 제26호, 2012’ 참조.
- 21) 2006년 9월 『장성보호조례』가 상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장성보호공정방안이 법률적 효력을 받기 시작하였다. 장성보호공정은 2단계에 걸쳐 진행되고 있는데, 그 중 1단계는 ‘국가발전 11차 5개년 계획(2006-2010)’ 기간 동안으로서 현재 완료되었다. 2단계는 ‘12차 5개년 계획(2011-2015)’ 기간에 해당된다.
- 22) 중국 학계의 고대 長城 연구의 현황과 주요 특징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소개는 ‘오강원, 『戰國時代 燕나라 燕北長城 동쪽 구간의 構造的 實體와 東端』, 『선사와 고대』 33, 2010; 이종수, 「遼東地域 燕秦漢 長城 調査現況 및 問題點 檢討」, 『한국사학보』 43, 2011; 홍승현, 「중국과 일본 학계의 燕·秦·漢長城 연구와 추이」, 『동북아역사논총』35, 동북아역사재단, 2012’ 참조.

(가)-① “(燕은) 남으로 齊.趙와 통하고, 동북으로는 胡와 근접해 있다. 上谷에서 遼東까지의 땅은 遙遠하여 사람이 적고 자주 침입을 당하였다. 대부분 趙.代의 풍속과 서로 비슷하며 사람들은 사납고 강인하나 사려는 부족하고, 생선과 소금, 대추, 밤이 많이 난다. 북으로는 烏桓.夫餘와 인접하고, 東으로는 穢貉.朝鮮.真番과의 이익을 장악하였다.”²³⁾

곧 燕 지역은 남으로 齊.趙, 동북으로 胡, 북으로 烏桓.夫餘, 동으로 穢貉[穢貉].朝鮮.真番과 인접하였으며, 동쪽으로 穢貉[穢貉].朝鮮.真番과의 교류를 장악하고 있었다. 특히 燕의 동북 변경 지역인 上谷에서 遼東에 이르는 땅은 인구도 적고 胡.烏桓.夫餘 등과 접하고 있어 주변 민족의 약탈이 자주 일어났다. 사마천은 전국시대 燕 지역을 언급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 때 上谷이나 遼東이 지방 행정 기구로서 郡名인지는 분명히 밝히지 않았다.

‘遼東郡’이라는 명칭은 전국시대 흉노와 접하고 있던 秦.趙.燕 삼국의 북변 방비를 설명하는 기록에 처음으로 보인다. 우선 秦은 昭襄王(재위: B.C. 306-251)²⁴⁾ 때 隴西[郡].北地[郡].上郡을 차지하고 장성을 쌓아 흉노를 막았다. 다음으로 趙는 武靈王(B.C. 325-299) 때 풍속을 바꾸어 胡服을 입고 말을 타며 활 쏘는 것을 익히는 등 여러 개혁을 단행하였다. 이후 북쪽으로 林胡.樓煩을 격파한 다음 장성을 쌓고, 代와 陰山[산맥] 기슭에서 高闕까지 塞를 만들었으며, 雲中郡.鴈門郡.代郡을 설치하였다.²⁵⁾ 秦·趙에 이어 燕 역시 다음과 같이 북변에 장성을 쌓고, 遼東郡을 포함한 5개의 郡을 설치하였다.

(가)-② “그 이후에 연나라에는 秦開라는 현명한 장군이 있어 흉노[胡]에 볼모가 된 적이 있었는데, 흉노[胡]가 [그를] 매우 믿었다. [진개는 그때에 정세를 잘 파악해 두었다가] 귀국하자마자 東胡를 격파해 도망가게 만들었다. 동호는 이때 천리나 물러났다. 荊軻와 함께 秦王을 암살하러 떠났던 秦舞陽이 바로 [秦]開의 손자였다. 燕 역시 造陽에서 襄平까지 장성을 쌓고, 上谷[郡].漁陽[郡].右北平[郡].遼西[郡].遼東郡을 설치해 흉노[胡]를 막았다.”

위의 기록에 따르면 秦開의 戰功 이후 燕에서는 造陽에서 襄平까지 장성을 쌓고 그 이남 지역에 上谷郡.漁陽郡.右北平郡.遼西郡.遼東郡을 설치하였다. (가)-①에 언급된 上谷에서 遼東까지의 땅에 5개의 郡을 설치한 것이다. 遼東郡을 비롯한 5郡의 설치는 秦開 장군의 戰勝 이후 북변에 장성을 쌓은 다음이겠지만, 정확한 시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²⁶⁾ 燕王 喜가 荊軻를 보내 秦王을 암살하려 했던 때가 기원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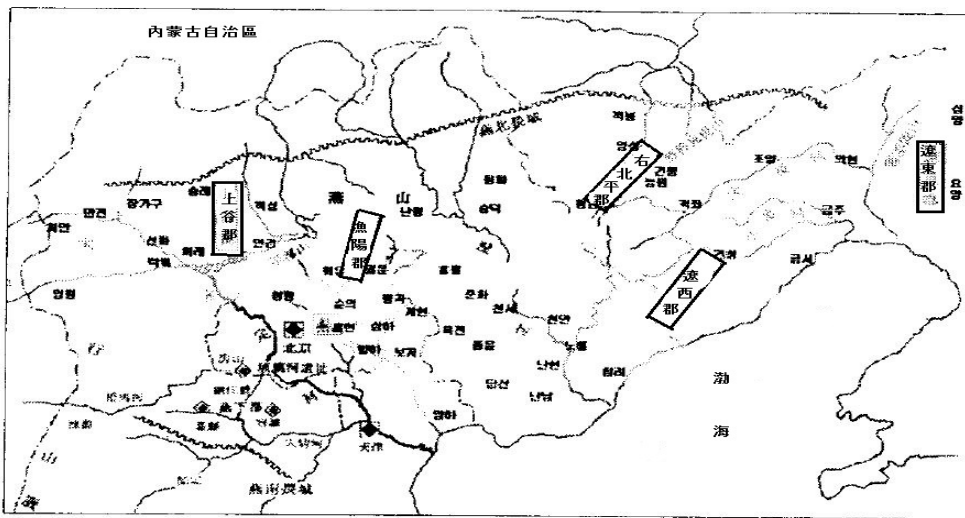
23) 『史記』卷129 「貨殖列傳」, p.3265, “夫燕亦勃·碣之間一都會也。南通齊·趙, 東北邊胡。上谷至遼東, 地踔遠, 人民希, 數被寇, 大與趙·代俗相類, 而民雕悍少慮, 有魚鹽棗栗之饒。北鄰烏桓·夫餘, 東綰穢貉·朝鮮·真番之利。”

24) 이하 군주의 이름 뒤 괄호 안 숫자는 모두 재위 기간을 의미한다.

25) 『史記』卷110 「匈奴列傳」, p.2885, “秦昭王時, 義渠戎王與宣太后亂, 有二子。宣太后詐而殺義渠戎王於甘泉, 遂起兵伐殘義渠。於是秦有隴西·北地·上郡, 築長城以拒胡。而趙武靈王亦變俗胡服, 習騎射, 北破林胡·樓煩, 築長城, 自代並陰山下, 至高闕爲塞。而置雲中·鴈門·代郡。” 본고에서 인용한 『史記』·『漢書』·『後漢書』外國傳 번역은 별도의 주가 없는 한, ‘동북아역사재단 편, 『譯註 中國 正史 外國傳』(1-3), 동북아역사재단, 2009·2010’을 따랐다. 다만, 徼·塞·障 등과 같이 변경의 주요 수비 시설의 경우 인용문에서 우리말로 번역하지 않고 사료 용어를 그대로 표기하였다.

26) 秦開가 東胡를 격파한 시기에 대한 의견은 크게 6가지로 나눌 수 있다. ① 燕 昭王 12년(B.C. 300) 혹은 13년(B.C. 299) ② 燕 昭王 32년(B.C. 280년) ③ 燕 惠王 6년(B.C. 273) ④ 燕 武成王 시기(B.C. 271-258) ⑤ 燕 孝王 말년(B.C. 255) ⑥ 燕王 喜 11년(B.C. 244) 이 중 燕王 喜 11년으로 보는 입장은 『資治通鑑』중 遼東郡의

227년으로서 燕王 惠 재위 28년이다. 昭王(B.C.311-279)~227년 사이에는 惠王(B.C.278-272년), 武成王(B.C.271-258), 孝王(B.C.257-255) 및 燕王 惠(B.C.254-222)가 각각 재위에 있었다. 秦開의 손자 진무양이 荊軻와 함께 떠날 때 나이는 적어도 13세 이상이므로, 秦開의 北伐은 분명 昭王 시기에 행해졌다. 昭王 재위 이후 시행한 개혁은 燕을 부강하게 만들었고, 昭王 28년에는 齊에 대해 대규모 공격을 감행하였다. 秦開의 北伐은 齊에 대한 공격을 마무리한 후에 진행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대략 그 시기는 昭王 말기인 기원전 282~280년경으로 짐작된다.²⁷⁾ 遼東郡을 포함한 5郡은 북변에 장성을 쌓은 후에 설치되었을 것인데, 현재로서는 그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기 어렵다.



<그림 1> 燕의 5郡 지도

현재 燕의 장성 이남에 설치된 5개의 郡의 정확한 지리적 범위는 알 수 없다. 다만 秦漢代 이 지역 郡의 범위가 대체로 燕이 설치한 5郡을 계승하였을 가능성이 높으므로²⁸⁾ 후대 자료를 참고하여 그 범위를 파악할 수 있다. 5郡 중 遼東郡은 燕의 동북변경에 위치하였다. 醫巫閭山을 기준으로 遼西郡과 관할 지역이 구분되어, 그 以東의 襄平을 중심으로 한 지역이 대개 요동군에 해당되었을 것으로 보인다.²⁹⁾(<그림 1>³⁰⁾ 참조) 郡의 치소는 오늘날 遼陽인 襄平에 위치하였을 것으로, 燕 지역에서 두루 발견되는 ‘襄平’ 布나 古璽에 ‘襄平右丞’이 확인되는 점은 당시 襄平이 주요 중심지였음을 보여준다.³¹⁾ 아울러 沈陽市에서 발견된 古城 유지의 문화층은 전국시기부터 한대까지로 구분되며, 城牆의 기초는 전국 초에 만들었고 그 위에 한대 담장을 쌓은 것으로

설치시기를 始皇 3년(B.C. 244)이라 한 기록에 근거하였다(李樹林, 『秦開東拓與修筑燕北長城時間新考』, 『通化師範學院學報』 2013-1, pp.61-62).

27) 裴眞永, 『燕昭王之政策과 ‘巨燕’의 成立』, 『中國史研究』 25, 2003, pp.17-20 참고.

28) 진한대 이 지역에 설치된 5郡 지역에서 전국시대 혹은 燕의 특정 기물이 함께 출토되었다는 점에서 비록 한계는 존재하겠지만, 진한대 5郡이 燕의 5군을 일정하게 계승하였다고 추정해 볼 수 있다. 현재 燕 5郡의 위치에 대해 미세한 차이를 제외하고 이견이 없는 상태이다(裴眞永, 『燕國의 五郡 설치와 그 의미-戰國時代 東北아시아의 勢力關係-』, 『中國史研究』 36, 2005, pp.3-5).

29) 遼東郡의 대략적인 범위는 오늘날 중국 遼寧省의 大連, 遼陽, 本溪, 沈陽, 撫順 및 鐵嶺 지구와 丹東 일부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이 지역에서는 십이대영자 문화 분포 지역과 동일하게 단경식 정자형 곡인청동 단검이 공통적으로 발견된다. 燕의 遼東郡 지역에서 발견된 고고 유물에 관해서는 ‘裴眞永, 『燕國의 五郡 설치와 그 의미-戰國時代 東北아시아의 勢力關係-』, pp.22-25’ 참조.

30) 裴眞永, 『燕國의 五郡 설치와 그 의미-戰國時代 東北아시아의 勢力關係-』, p.11, <그림1-지도> 인용.

31) 后曉榮, 陳曉飛, 『考古出土文物所見燕國地名考』, 『首都師範大學學報(社會科學版)』 2007-6, p.35.

확인되었다. 이는 戰國 燕의 遼東郡에 候城縣이 존재하였음을 시사한다.³²⁾

燕 태자 丹이 보낸 형가의 진왕 암살 시도가 실패로 돌아간 후 진왕은 기원전 227년 王翦과 辛勝을 보내어 燕을 공격하게 하였다. 이듬해 王翦의 군대에 증원병을 보내었고, 결국 燕 태자의 군대를 격파한 후 燕의 도성을 함락시켰다. 이에 燕王 喜는 遼東으로 옮겨가 遼東郡을 근거로 왕이 되었으나,³³⁾ 4년 후 秦의 장수 王賁이 이끄는 군대의 공격을 받아 遼東郡은 秦이 차지하였고 燕은 멸망하였다.³⁴⁾

2. 遼東 障·塞와 燕 장성

燕의 遼東郡은 기본적으로 흉노를 공격한 이후 북변에 장성을 쌓고 그 이남 지역에 설치한 행정 구역이다. (가)-②에 따르면 燕 장성의 노선은 造陽에서 襄平까지로서, 上谷郡과 遼東郡의 북변에 위치하였다. 襄平까지 이르는 燕 북장성의 동단은 사실 북변이기도 하지만, 燕의 東邊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종래 그 노선에 대한 여러 의견이 제시되었다.³⁵⁾ 특히 (가)-①과 같이 燕은 동으로 穢貉·朝鮮·眞番과 접하고 있었고, 전성기에는 朝鮮·眞番을 공략하여 동쪽 변경을 확장하였기 때문에 燕의 동북 변경의 위치를 놓고 국내외 학계의 의견이 분분하다.

(나)-① 朝鮮王 (衛)滿은 옛 燕 사람이다. 처음에 燕의 전성 시기 일찍이 眞番·朝鮮을 공략하여 복속시키고, 吏를 배치하고 鄣·塞를 쌓았다.³⁶⁾

(나)-② (大夫가 말하였다.) “趙 武靈王은 句注를 넘고 代谷을 지나³⁷⁾ 林胡·樓煩을 공략하여 멸망시켰다. 燕은 東胡를 엄습하여 퇴각시키고 천 리의 땅을 개척하였으며, 遼東을 지나 朝鮮을 공격하였다.”³⁸⁾

(나)-①은 燕이 眞番·朝鮮을 공격하여 그들의 근거지를 차지한 후 관리를 배치하고 변경 수비 시설을 만들어 방비하기 시작한 일에 대한 설명이다. 여기서 말하는 燕의 전성기는 燕昭王 때로서, 전술한 秦開를 보내어 東胡를 격파하고 5郡을 설치한 시기를 말한다. (가)-①에 따르면 眞番과 朝鮮은 燕의 동쪽에 위치하였는데, (나)-①은 바로 북쪽의 東胡 공략 뿐 아니라 동쪽의 眞番과 朝鮮까지 공격하여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음을 기록하였다. (나)-②는 趙 武靈王의 北伐과 燕의 동북지역 공략을 병행하여 언급하였다. (나)-②에서 燕이 “東胡를 엄습하여 퇴각시켜 천 리의 땅을 개척하였다”는 부분은 (가)-②와 같고, “遼東을 지나 朝鮮을 공격하였다.”는 (나)-①에 포함된 내용이다. 정리하면, 燕은 전성기인 昭王 시기에 북으로 東胡를 공략하여 그들을 천 리

32) 后曉榮, 『秦代燕地五郡置縣考』, 『古代文明』 2009-2, pp.76-77.

33) 『史記』 卷6 『秦始皇本紀』, 始皇 21年, p.233, “二十一年, 王賁攻薊. 乃益發卒詣王翦軍, 遂破燕太子軍, 取燕薊城, 得太子丹之首. 燕王東收遼東而王之.”; 『史記』 卷15 『六國年表』, p.756, “秦拔我薊, 得太子丹. 王徙遼東.”

34) 『史記』 卷6 『秦始皇本紀』, 始皇25年, p.234, “二十五年, 大興兵, 使王賁將, 攻燕遼東, 得燕王喜.”; 『史記』 卷15 『六國年表』, p.757, “秦虜王喜, 拔遼東, 秦滅燕.”

35) 燕 북장성은 이후 진한시대에도 修補하여 사용되었으므로, 서술의 편의상 燕 장성의 노선과 東端 문제는 후술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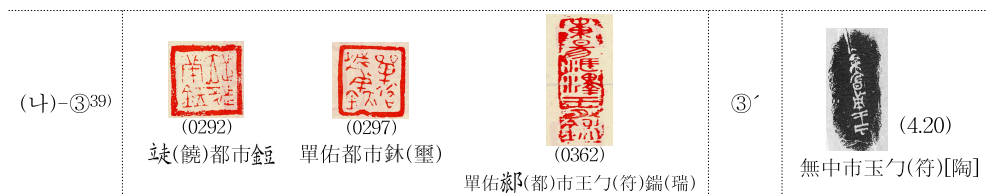
36) 『史記』 卷115, 朝鮮列傳, p.2985, “朝鮮王滿者, 故燕人也. 自始全燕時嘗略屬眞番·朝鮮, 爲置吏, 築鄣塞.”

37) 『漢書』 卷94上 『匈奴傳』, p.3747, “趙襄子躡句注而破之, 并代以臨胡貉.”

38) 『鹽鐵論』(王利器 校注, 『鹽鐵論校注』, 中華書局, 1992) 卷8 『伐功』, p.494, “(大夫曰) 趙武靈王逾句注, 過代谷, 略滅林胡·樓煩. 燕襲走東胡, 辟地千里, 度遼東而攻朝鮮.”

밖으로 퇴각시키고 그 땅을 차지하였으며, 上谷에서 襄平에 이르는 북면에 장성을 쌓고 그 이남 지역에 5郡을 설치하였다. 그리고 동으로 眞番과 朝鮮을 공격하여 복속시킨 후 그들의 근거지에 燕의 吏를 설치해 다스리고 변경에 障·塞를 설치하여 방비하였다. 그렇다면 이 때 ‘朝鮮’은 衛滿 왕조 성립 이전의 고조선을 의미하고, (가)-①의 ‘遼東’ 역시 고조선을 공격한 후 설치한 遼東郡을 지칭한 것이 아니다.

(나)-①에서 燕은 眞番·고조선을 공격하여 몰아낸 후 그 지역에 吏를 설치하여 다스렸다. 고조선의 원래 근거지에 遼東郡이 설치되었다면, 당연히 郡에 속한 지역에 ‘襄平右丞’과 같은 관리가 파견되어 여러 임무를 수행하였을 것이다. 현재 남아있는 전국시대 璽印자료 중 燕 계통에 속하는 사례들을 보면, 司徒·司馬·司工·司寇를 칭한 관명들이 다수 확인되며 그 외 아래와 같이 市의 관리들이 사용했던 印 역시 포함되어 있다.



(나)-③·③'는 모두 燕의 官印들로서, 印文은 ‘지명+市+王(玉)符’, ‘지명+市+王(玉)符瑞’, ‘지명+信瑞’ 또는 ‘지명+市+鉞’, ‘지명+市+璽’의 형식을 띠고 있다. (나)-③'은 陶器에 찍힌 印文으로서, 市에서 생산한 器物에 검사필을 표하기 위해 찍은 官印으로 보인다. 전국시대 각국에서는 내지에 위치한 城門이나 關所에도 관리하는 배치하여 관리하였는데, 齊의 官印 중 ‘執關’·‘行曲關’·‘豕母司關’ 및 ‘武關獻’·‘武關將’ 등과 같은 사례는 모두 關所를 담당하는 官吏가 사용했던 印이다.⁴⁰⁾ 이처럼 遼東郡에는 관할 기구를 관리하는 다양한 관리가 배치되었을 것이고, 郡에 속한 행정 기구뿐 아니라 關所나 市에서의 활동 등을 관장하였을 것이다. 아울러 변경에 설치된 關所나 주요 거점에도 관리가 배치되었을 것이다. 戰國時代 각국의 국경에서는 군대나 외교 사절단은 물론이고, 소규모 일행이나 개인일 경우에도 그 출입을 관리하였다. 燕의 변경에도 담당 관리가 있어 출입자를 검문하였다. 가령 張丑이 燕에 인질로 있다가 燕王이 그를 죽이려 하자 국경을 넘어 도망하려 하다 국경 관리[境吏]에게 붙잡혔다가 기지를 발휘하여 풀려났다는 기록은⁴¹⁾ 燕의 국경에 출입자를 管理하는 관리가 배치되어 있었음을 보여준다.

燕의 眞番·朝鮮과 접하고 지역에 障·塞를 세워 방비하였다. 전국시대 각국에서는 변경에 徼·亭·鄣·塞 등을 설치하였고, 담당 관리와 戍卒을 두어 관리하였다. 가령 張儀는 韓 襄王에게 유세할 때 韓의 병사는 徼·亭·鄣·塞를 수비하는 자들을 제외하면 20만 명에 불과하다고 말하였다.⁴²⁾ 張儀가 언급한 徼·亭·鄣·塞는 당시 각국 변경에 설치되었던 주요 수비시설이다. 이 중 障은 塞의 요처에 세운 城을 가리키

39) 陳光田, 『戰國璽印分域研究』, 長沙: 岳麓書社, 2009, p.91.
 40) 陳光田, 『戰國璽印分域研究』, p.43.
 41) 『戰國策』([西漢]劉向 集錄, 范祥雍 箋證, 范邦瑾 協校, 『戰國策箋證』, 上海古籍出版社, 2006) 卷31 「燕策」, pp.1773-1774, “張丑爲質於燕, 燕王欲殺之, 走且出境, 境吏得丑……境吏恐而赦之.”
 42) 『戰國策』 卷26 「韓策」, 1, p.1491, “張儀爲秦連橫說韓王曰: “韓地險惡……料大王之卒, 悉之不過三十萬, 而廝徒負養在其中矣, 爲除守徼·亭·鄣·塞, 見卒不過二十萬而已矣.”

고, 43) 塞는 당시 변경의 주요 거점에 설치한 수비시설이다. 다음의 예를 보자.

(나)-④ “(蘇秦이 말하기를) 韓은 北으로 鞏·(洛)·成臯의 險固함이 있고, 西로는 宜陽과 常阪의 塞가 있으며, 東으로는 宛·穰·洧水가 있고, 南으로는 陘山이 있으며, 땅은 사방 천리에 갑옷을 입은 병사[帶甲] 수십만 명이 있습니다.”⁴⁴⁾

(나)-⑤ “楚는 九夷를 포함하고 (그 땅이) 사방 천리이며, 남으로는 符離의 塞가 있고, 북으로는 甘魚의 河口가 있습니다...”⁴⁵⁾

(나)-⑥ 公子 連이 망명하여 魏에 있다가 이를 듣고 귀국하려 하였는데, 신하들과 백성들이 鄭所의 塞⁴⁶⁾를 통해 들어오게 하려 하였다. 右主然이 그 塞를 지키고 있다가 그를 들이지 않으며 말하기를, “신하된 道理로서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公子께서는 빨리 떠나십시오.”라고 하였다. 公子 連은 떠나서 翟으로 들어가 焉氏塞로 가니 菌改가 그를 받아들였다. (母后)夫人이 이를 듣고 크게 놀라 吏를 시켜 병사를 동원하였는데, 명령을 받들어 “침략자들이 변경에 있다”고 말하게 하였다.⁴⁷⁾

(나)-④는 蘇秦이 趙를 위해 韓王에게 合縱策을 유세하는 내용의 일부이다. 蘇秦은 韓의 邊境을 설명하면서, 변경의 주요 지명 및 洧水·陘山과 같은 자연 지형과 아울러 常阪의 塞를 언급하였다. (나)-⑤는 어떤 사람이 秦의 魏冉(穰侯)에게 楚가 망하면 秦은 더 이상 齊와 균형을 이룰 수 없다고 말한 내용으로서, 그는 楚의 변경을 설명할 때 甘魚의 口와 함께 남쪽에 위치한 符離의 塞를 남쪽 변경의 주요 거점으로 들었다. 이런 변경의 塞에는 출입자를 관리하며 塞를 방비하는 관리가 배치되었다. (나)-⑥의 秦의 변경에 위치한 鄭所의 塞⁴⁸⁾와 焉氏塞에 右主然이나 菌改⁴⁹⁾가 상비하고 있었던 기록은 이를 잘 보여준다. 이렇게 전국시대 障·塞는 변경 상비시설이었고, 國의 외연을 이루는 국경이었다.⁵⁰⁾

전국시대 관련 문헌 기록에 障·塞는 長城과 구분하여 표기되었다. 전국시대 기록에 장성은 塞의 일종이 아니라, ‘長城’으로 명기되었다. 예컨대 蘇秦은 魏의 영역을

43) 『史記』 卷110 「匈奴列傳」, p.2916, “築城鄣列亭” (注2) 『正義』 顧胤云, “鄣, 山中小城.”; 『史記』 卷122 「酷吏列傳」, p.3141, “復曰, 居一障間?” (注1) 『正義』, “障謂塞上要險之處別築城, 置吏士守之, 以扞寇盜也.”

44) 『戰國策』 卷26 「韓策」 1, p.1479, “蘇秦爲楚合從說韓王曰, ‘韓北有鞏·洛·成臯之固, 西有宜陽·常阪之塞, 東有宛·穰·洧水, 南有陘山, 地方千里, 帶甲數十萬.’”; 『史記』 卷69 「蘇秦列傳」, “於是說韓宣王…曰, ‘韓北有鞏·成臯之固, 西有宜陽·商阪之塞, 東有宛·穰·洧水, 南有陘山, 地方九百餘里, 帶甲數十萬…’” 다만, 『史記』 「蘇秦列傳」에는 ‘洛’이 보이지 않는다.

45) 『戰國策』 卷5 「秦策」 3, p.300, “謂魏冉曰: ‘楚破, 秦不能與齊縣衡矣. …楚苞九夷又方千里, 南有符離之塞, 北有甘魚之口…’”

46) 鄭所의 塞의 위치에 대해 ‘鄭’字에 주목하여 周 宣王 22년(B.C. 806) 友가 분봉을 받은 鄭 땅의 塞로 보아 오늘날 陝西省 渭水 남쪽의 華縣 부근으로 추정하기도 하나(陳奇猷 校釋, 『呂氏春秋新校釋』, 學林出版社, 1984, p.1614, 校釋14), 분명치는 않다.

47) 『呂氏春秋』(陳奇猷 校釋, 『呂氏春秋新校釋』, 學林出版社, 1984) 卷24 「當賞」, p.1611, “公子連亡在魏, 聞之, 欲入, 因羣臣與民從鄭所之塞. 右主然守塞, 弗入, 曰, ‘臣有義, 不兩主. 公子勉去矣.’ 公子連去, 入翟, 從焉氏塞, 菌改入之. 夫人聞之, 大駭, 令吏與卒, 奉命曰, ‘寇在邊.’”

48) 鄭所의 塞의 위치에 대해 ‘鄭’字에 주목하여 周 宣王 22년(B.C. 806) 友가 분봉을 받은 鄭 땅의 塞로 보아 오늘날 陝西省 渭水 남쪽의 華縣 부근으로 추정하기도 하나(陳奇猷 校釋, 『呂氏春秋新校釋』, 學林出版社, 1984, p.1614, 校釋14), 분명치는 않다.

49) 『史記』에는 庶長 改가 河西에서 靈公의 아들 獻公을 맞이하여 올림하고 出子와 그의 母를 죽였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菌改가 公子 連을 받아들인 행위는 곧 그를 새로운 군주로 맞이함을 의미하였다(『史記』 卷5 「秦本紀」, p.200, “惠公十二年, 子出子生…惠公卒, 出子立. 出子二年, 庶長改迎靈公之子獻公于河西而立之. 殺出子及其母, 沈之淵旁.”).

50) 전국시대 국경의 형태와 성격에 대해서는 ‘拙稿, 『春秋·戰國時代 國의 境界와 그 성격 변화』, 『中國古中世史研究』 31, 2014, pp.80-89’ 참조.

설명하면서 서쪽에는 長城의 界가 있다고 하였다.⁵¹⁾ 魏의 서쪽 국경이 秦과 접하게 되어 魏에서 쌓은 長城이나,⁵²⁾ 濟水·黃河와 같은 자연 지형 및 壕溝[鉅坊(巨防)⁵³⁾]와 함께 齊의 국경을 이루었던 長城⁵⁴⁾ 역시 모두 문헌 기록에 ‘長城’으로 기록되어 있다. 즉, 문헌 기록에 전국시대 장성은 徼·亭·鄣·塞·壕溝 등의 변경 시설과 차이가 있다. 따라서 (나)-①에 고조선과 접하는 변경에 설치한 鄣·塞는 (가)-②에서 東胡를 퇴각시킨 후 북변에 세운 장성이 아니다.

그렇다면 遼東郡의 동변에 설치된 鄣·塞는 어디에 세워졌을까? 종래 遼東郡의 鄣·塞를 장성으로 보고 燕 북장성의 동단의 위치를 밝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燕이 세운 鄣·塞는 장성과 다른 별도의 변경 시설로 보아야 한다. 비록 후대인의 윤색이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⁵⁵⁾ 『魏略』에 보이는 滿番汗은 이에 대한 단서를 제공한다.

(나)-⑦ 燕은 이에 장수 秦開를 보내어 (조선의) 서쪽 지역을 공격하여 2천 여리의 땅을 취하고 滿番汗에 이르러 경계를 삼았다. 조선은 마침내 약해졌다.⁵⁶⁾

만약 『魏略』에 기록된 위의 기록이 사실이라면, (나)-①.②에 보이는 燕 昭王시기 東伐 결과 燕의 동변에 인접하였던 고조선은 滿番汗 서쪽으로 2천 여리 떨어진 곳으로 밀려났다. 그러나 滿番汗이 어느 지역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일반적으로 ‘滿番汗’은 『漢書』 『地理志』 중 遼東郡의 속현인 文縣과 番汗縣⁵⁷⁾의 연칭으로 이해한다. 사실 滿番汗은 전국시대 燕의 지명이라기보다 한대 이후 지명에서 유래하였기 때문에, (나)-⑦에서 滿番汗은 특정 지역의 자연 지형을 가리킬 가능성이 높다. 滿番汗의 위치는 요동의 천산산맥 서남쪽 일대 혹은 요동의 淤泥河와 清河 하류 및 聖水山을 잇는 일대로 보는 등 위치 비정을 놓고 여러 의견이 제시되었으나⁵⁸⁾ 아직 분명한 답을 찾기는 어렵다.

요컨대 고조선은 燕 소왕시기 秦開가 이끄는 군대의 공격을 받아 요동 인근 지역에

51) 『戰國策』 卷22 「魏策」, 1, pp.1262-1263, “蘇子爲趙合從說魏王曰, ‘大王之地, 南有鴻溝·陳·汝南·有許·鄆·昆陽·邵陵·舞陽·新鄆, 東有淮·潁·沂·黃·煮棗·海鹽·無碓, 西有長城之界, 北有河外·卷·衍·燕·酸棗, 地方千里.’”

52) 『史記』 卷5 「秦本紀」, p.202, “孝公元年…楚·魏與秦接界. 魏築長城, 自鄭濱洛以北, 有上郡.”(注3) 『正義』: “魏西界與秦相接, 南自華州鄭縣, 西北過渭水, 濱洛水東岸, 向北有上郡鄆州之地, 皆築長城以界秦境. 洛即漆沮水也.”

53) ‘鉅坊’ 혹은 ‘巨防’은 盧縣에 있던 防門을 말하며(『史記』 卷69 「蘇秦列傳」, p.2267, “燕王曰, ‘吾聞齊有清濟·濁河, 可以爲固, 長城·鉅防足以爲塞, 誠有之乎?’”(注6) 『集解』 徐廣曰, “濟北盧縣有防門, 又有長城東至海”; 『後漢書』 卷30 「郡國志」, 3, 兗州 濟北國, “盧…有防門.”(注2) “左傳襄十八年齊禦晉平陰, 塹防門, 杜預曰在縣北. ‘杜預曰在縣北’ 按, 今杜注作 ‘平陰城在濟北盧縣東北, 其城南有防, 防有門.’”), 이는 齊 靈公 때 제후국의 공격을 막기 위해 관 壕溝로 보인다(『春秋左氏傳』 襄公 18(B.C. 555), p.1037, “冬十月會于魯濟, 尋溴梁之言, 同伐齊. 齊侯禦諸平陰, 塹防門而守之, 廣里.”).

54) 張儀는 秦 惠王에게 “濟水는 맑고 黃河는 탁하여 界限으로 삼기 족하였고, 長城과 鉅坊(巨防)은 塞로 삼기 족하였습니다.”(『戰國策』 卷3 「秦策」, 1, pp.172-173, “臣敢言往昔, 昔者, 齊南破荊, 中破宋, 西服秦, 北破燕·濟清河濁, 足以爲限, 長城鉅坊足以爲塞.”; 『韓非子』([清]王先慎 撰, 鍾哲 點校, 『韓非子集解』, 中華書局, 1998) 卷1 「初見秦」, 1, p.4, “齊之濟清濁河, 足以爲限, 長城巨防, 足以爲塞.”)라고 하며 옛 齊의 疆域을 설명하였다.

55) 『魏略』의 조선 관계 기록은 한초 이후 생겨난 기자동래설이나 주 왕실을 받들려 했다는 등의 후대 윤색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다만, 연의 장수 진개를 보내어 조선을 공략하였다는 기록은 『史記』의 기사와도 일치되므로, 어느 정도 사실성을 인정할 수 있겠다(노태돈, 『단군과 고조선사』, pp.72-73 참고).

56) 『三國志』 卷30 「東夷傳」, p.850, (注1) “魏略曰, ……燕乃遣將秦開攻其西方, 取地二千餘里, 至滿番汗爲界, 朝鮮遂弱.”

57) 『漢書』 卷28下 「地理志」 遼東郡, p.1626, “遼東郡…縣十八. …八文, 番汗.”

58) 서영수, 「요동군의 설치와 전개」, 서영수 외, 『요동군과 현대군 연구』, 동북아 역사재단, 2008, pp.34-36; 노태돈, 『단군과 고조선사』, pp.89-96.

서 燕의 동변에 설치한 障·塞 밖으로 밀려났다. 그리고 『魏略』의 기록에 근거한다면 밀려난 고조선의 서쪽 경계는 원래 근거하였던 요동 인근에서 2천 리가량 떨어진 滿番汗 지역이었다. 그렇다고 燕이 설치한 障·塞가 반드시 滿番汗까지 이르렀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燕은 북변의 장성과 함께 동변에 障·塞를 설치하여 변경 수비를 하였다.

전국시대 관련 기록에는 각국이 경계나 국경을 접하고 있다는 표현이 종종 보인다. 이는 이전의 춘추시대와 달리 국과 국 사이에 존재하던 隙地와 같은 無主地가 사라지고, 각국의 영역이 서로 접하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군현을 설치하여 영역을 관할하는 각국의 지배 정도는 편차가 있었고, 인접국과 접하는 국경 역시 넓은 변경을 사이에 둔 국경 지대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물론 변경에 설치한 關·塞나 河口 혹은 변경에 위치한 장성의 경우 이웃국과 비교적 선에 가까운 국경의 기점이 되었지만, 대부분의 국경은 변군을 거점으로 한 넓은 지대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주지하듯 전국시대 郡은 漢代와 같이 縣의 상급 행정 기구가 아니었다. 전국시대 郡은 모두 변경에 설치되었고, 郡을 설치한 주요 목적은 변경 수비를 공고히 하는 데 있었다. 가령 蘇秦은 楚의 강역에 대해 서쪽에는 黔中郡·巫郡, 동쪽에는 夏州·海陽, 남쪽에는 洞庭·蒼梧, 북쪽에는 汾陘의 塞와 郟陽이 있다고 설명하였다.⁵⁹⁾ 楚의 변경을 汾陘의 塞와 함께 黔中郡·巫郡과 같은 郡名이나 다른 지명들을 들어 설명한 것은 변경에 위치한 각 지명과 郡이 楚의 변경 주요 거점이자 국경의 일부였기 때문이다. 燕의 전성기에 燕은 遼東 지역에 존재하던 東胡 및 그 동쪽 인근의 진번·고조선을 공략하여 각각 요동의 북쪽과 서쪽으로 몰아낸 후, 襄平을 중심으로 遼東郡을 설치하였다. 북쪽에 쌓은 장성은 襄平까지 이르는 북변 경계를 형성하였고, 고조선이 퇴각한 변경에는 障·塞를 쌓아 변경 수비를 하였다. 그러나 퇴각한 고조선을 비롯한 주변 국가와의 경계는 선의 수비가 이루어지는 국경선이 아니었고, 滿番汗과 같이 변경의 특정 지명을 기준으로 넓게 형성된 국경 지대였다. 따라서 전국시대 燕의 遼東郡 邊塞를 기준으로 고조선과의 명확한 국경선을 그을 수는 없다. 다만, 滿番汗과 같은 후대 지명에 근거하여 대략적인 세력 범위와 국경 지대를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II. 秦의 遼東郡과 변경 관리

1. 遼東郡의 범위

燕이 멸망된 후 遼東에는 다시 秦이 관할하는 遼東郡이 설치되었다. 秦은 통일 직후 전국을 36개 郡으로 나누었고, 이 중에는 遼東郡도 포함되었다.⁶⁰⁾ 옛 燕의 땅에 설치된 郡은 廣陽郡·上谷郡·漁陽郡·右北平郡·遼西郡·遼東郡으로서, 모두 6개이다.

59) 『戰國策』卷14『楚策』1, p.787, “蘇秦爲趙合從, 說楚威王曰, ‘…楚地西有黔中·巫郡, 東有夏州·海陽, 南有洞庭·蒼梧, 北有汾陘之塞·郟陽…’”

60) 『史記』卷6『秦始皇本紀』, 始皇26年, pp.239-240, “分天下以爲三十六郡”; 【集解】“三十六郡者, 三川·河東·南陽·南郡·九江·鄣郡·會稽·潁川·碭郡·泗水·薛郡·東郡·琅邪·齊郡·上谷·漁陽·右北平·遼西·遼東·代郡·鉅鹿·邯鄲·上黨·太原·雲中·九原·鴈門·上郡·隴西·北地·漢中·巴郡·蜀郡·黔中·長沙凡三十五, 與內史爲三十六郡.” 秦은 이후 새롭게 차지한 지역에 郡을 설치하거나 땅을 나누어 郡을 分置하는 등 통일 직후와 달리 郡의 수는 증가하였다. 秦 郡의 수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존재하지만, 현재 郡名을 확인할 수 있는 郡 수는 54개이다(后曉榮, 『秦代政區地理』,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09, pp.60-117).

통일 직후에 설치된 郡 중 6國에 속한 지역은 대개 전국시대 각국의 구획을 따랐다. 현재 확인 가능한 遼東郡의 屬縣은 襄平·險瀆·候城이다. 襄平은 燕의 遼東郡이 설치되었을 때 장성의 동단이 이르렀던 지역으로서, 遼東郡의 治所가 위치한 縣이다. 候城 역시 오늘날 沈陽에서 발견된 古城 유지가 전국시대에 세워진 후 한대까지 사용되었다는 점으로 미루어, 전국시대 燕의 遼東郡에 속했던 縣으로 보인다. 秦代에도 襄平은 요동군의 屬縣이자 郡治가 위치한 중심지였다.⁶¹⁾ 한편 秦 封泥 기록 중 ‘險瀆丞印’이라는 印文이 있다. 險瀆은 『漢書』 「地理志」에 遼東郡의 屬縣으로 기록되어 있다.⁶²⁾ 秦의 官印 중 險瀆縣의 丞이 사용한 印이 있다는 사실은 遼東郡에 險瀆縣이 설치되었음을 의미한다.⁶³⁾ 險瀆縣에 대해 應劭는 朝鮮王 衛滿의 도읍으로서, 강의 險함에 의거하였기 때문에 ‘險瀆’이라고 하였다. 이에 대해 薛瓚은 王險城은 樂浪郡 溇水の 동쪽에 있고, 이곳은 원래 ‘險瀆’이라고 다르게 설명하였다. 顏師古는 薛瓚의 설명이 옳다고 보았는데,⁶⁴⁾ 險瀆縣은 지금의 遼寧省 臺安縣 동남쪽에 위치하였으므로 應劭의 설명처럼 이곳에 위만 왕조가 도읍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史記』 「秦始皇本紀」에 秦 2세 황제가 요동까지 순행을 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진시황 사후 2세 황제는 자신이 어리고 막 즉위하여 사람들이 따르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진시황과 같이 郡縣을 순행하여 위엄을 드러내고자 순행을 결정하였다. 그는 동쪽지역부터 순행하여 碣石山에 이른 후 바다를 끼고 남쪽으로 내려가 會稽山에 이르렀다.⁶⁵⁾ 이 노선은 진시황 역시 순행했고, 漢 武帝의 순행 노선에도 포함되어 있는 지역이다. 그런데 진시황이 세운 공덕비를 돌아본 후 遼東으로 갔다가 돌아왔다는 기록은 다소 의문이 남는다.⁶⁶⁾ 진시황의 5차례 순행이나 한 무제의 순행 노선에 遼東은 한 번도 포함된 적이 없으며, 무제를 수행하여 전국 여러 곳을 여행하였던 司馬遷의 여행 경로에도 遼東은 없다.⁶⁷⁾ 이에 대해 戰國 燕의 요동군 치소나 漢初까지의 遼東郡 중심지를 오늘날 遼陽이 아닌, 항우가 臧荼에게 분봉한 遼東國의 치소였던 지금의 薊縣으로 설명하기도 한다.⁶⁸⁾ 燕이 설치한 遼東郡의 치소는 전술한대로 襄平이라 불렀던 오늘날 遼陽 지역이 분명하다. 遼東郡의 중심지를 襄平이 아닌 無終, 곧 지금의 薊縣으로 이해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秦 2세 황제가 순행한 ‘遼東’은 요동군이라기보다, 고대 중국인들에게 ‘遼遠한 동쪽’이자 東端으로 인식되었던 지명으로서 遼東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다.⁶⁹⁾

秦 멸망 이후 이 지역은 項羽가 분봉한 제후왕이 관할하였다. 기원전 206년 정월에 항우는 18명의 제후왕을 분봉하였는데, 요동군에는 韓廣을 요동왕으로 분봉하였다. 곧 요동군 대신 요동국이 세워진 것이다. 韓廣은 기원전 209년 9월에 薊縣에서 燕王

61) 后曉榮, 『秦代政區地理』, pp.380-381.

62) 『漢書』 卷28下 「地理志」, 遼東郡, pp.1625-1626, “遼東郡…縣十八. 險瀆…”

63) 后曉榮, 『秦代政區地理』, p.381.

64) 『漢書』 卷28下 「地理志」, 遼東郡, p.1626, “應劭曰, 朝鮮王滿都也. 依水險, 故曰險瀆.; 臣瓚曰, 王險城在樂浪郡溇水之東, 此自是險瀆也.; 師古曰, 瓚說是也.”

65) 『史記』 卷6 「秦始皇本紀」, 二世 元年, p.267, “二世與趙高謀曰, 朕年少, 初即位, 黔首未集附. 先帝巡行郡縣, 以示疆, 威服海內. … 春, 二世東行郡縣, 李斯從. 到碣石, 並海, 南至會稽.”

66) 『史記』 卷6 「秦始皇本紀」, 二世元年, p.267, “而盡刻始皇所立刻石, 石旁著大臣從者名, 以章先帝成功盛德焉…遂至遼東而還.”

67) 한 무제의 순행 경로 및 사마천의 여행 지역은 ‘藤田勝久, 『司馬遷の旅-『史記』의 古跡をたどる』, 中公新書, 2003’ 참조.

68) 權五重, 「前漢時代の 遼東郡」, 『人文연구』 제17권 제1호, 1995, pp.2-10.

69) 權五重, 「前漢時代の 遼東郡」, pp.271-272.

으로 자립한 인물로서,⁷⁰⁾ 항우의 군대에서 별다른 군공을 세우지는 않았다. 반면 燕의 장수 출신 臧荼는 항우의 군대를 도와 趙 땅을 구원하였고, 항우의 군대가 관중에 들어갈 때 함께 하였던 군공이 있는 인물이다. 항우는 薊縣을 중심으로 하는 燕國에 臧荼를 분봉하여 燕王으로 삼았다.⁷¹⁾ 사실 韓廣이 이미 薊縣을 중심으로 연왕으로 자립해 있었으므로 그를 燕國에 봉해야 하지만, 항우는 군공이 있는 臧荼를 우대하였다. 臧荼에게 밀려 요동군으로 옮겨가게 된 韓廣은 이를 따르지 않았다. 이에 臧荼는 같은 해 8월에 遼東國의 도읍인 無終에서 韓廣을 공격하여 죽이고 遼東國을 燕國에 속하게 하였다.⁷²⁾ 이렇게 볼 때 秦의 遼東郡은 기원전 206년 정월에 韓廣이 분봉 받은 遼東國의 관할이다가, 같은 해 8월 다시 燕國에 소속되었다.

2. 秦 장성과 遼東 外徼

전국을 통일한 이후 진시황은 북변에 長城을 쌓아 제국의 북쪽 국경을 삼았다. 秦 장성은 戰國時代 木柵이나 壕溝를 만들어 封疆을 표시한 것과 같이, 자연지형과 塞·木柵 등으로 제국의 경계를 표시한⁷³⁾ 일종의 ‘국경선’이었다. 진시황은 북변에 장성을 쌓고 아울러 동쪽 해상에 비석을 세워 제국의 東門을 표시하였다.⁷⁴⁾ 진시황이 東門을 설치한 곳은 東海郡 胸縣에서 관할하는 海上으로서 『博物記』 기록에 의하면 胸縣 동북 해안에 세워졌다고 한다.⁷⁵⁾ 『隸釋』 권2에 수록된 「東海廟碑」는 바로 이 사실을 증명해 주는데, 碑의 후면에 “이 闕은 진시황이 세운 것으로 秦 東門의 闕이라 부르며, (관련) 사실은 『史記』에 있다.”라 새겨져 있다.⁷⁶⁾ 이는 진시황이 동해를 제국의 동쪽 국경으로 삼고, 東門의 闕을 석비로 세워 표지로 삼았음을 의미한다. 진시황은 동해를 제국의 동쪽 경계로, 장성을 북쪽 경계로 삼아 제국의 국경을 확정하였다.

진시황의 장성 수축 관련 기사는 아래에서 보듯이 『史記』의 여러 편에 기록되어 있다.

(다)-① (始皇 33년: B.C. 214) 榆中에서부터 황하를 따라 동쪽으로 陰山에 이르기까지 44개의 縣을 설치하고 황하 연변에 城을 쌓아 塞로 삼았다. 또 蒙恬으로 하여금 황하를 건너 高關·陽山·北假 사이의 (땅을) 취하고, 亭·障을 쌓아 戎人을 몰아내게 하였다. 죄수[謫]을 이주시켜 새로 설치한 縣을 충실히 하였다. 始皇 34년에 바르지 않은 獄吏를 처벌하여 長城을 쌓게 하고 南越地로 보냈다.⁷⁷⁾

(다)-② 이후에 秦이 여섯 나라를 멸망시키고 始皇帝가 蒙恬에게 십만의 군사를 주어

70) 『史記』 卷16 「秦楚之際月表」, p.764, “韓廣爲趙略地至薊, 自立爲燕王始.”

71) 『史記』 卷7 「項羽本紀」, pp.316, “徙燕王韓廣爲遼東王. 燕將臧荼從楚救趙, 因從入關, 故立荼爲燕王, 都薊.”

72) 『史記』 卷7 「項羽本紀」, p.320, “漢之元年四月, 諸侯罷戲下, 各就國. …臧荼之國, 因逐韓廣之遼東, 廣弗聽, 荼擊殺廣無終, 并王其地.”

73) 秦 長城의 형태와 경계로서의 성격에 대해서는 ‘辛德勇, 『陰山高關與陽山高關辨析-並論秦始皇萬里長城西段走向以及長城之起源諸問題』, 『文史』 2005-3, pp.20-41’ 참조.

74) 『史記』 卷6, 「秦始皇本紀」, 始皇35年, p.256, “於是立石東海上胸界中, 以爲秦東門.”

75) 『後漢書』 卷30 「郡國志」 3 徐州 東海郡, p.3458, “東海郡…威胸”; (注3) “『山海經』曰, ‘都州在海中.’ 郭璞曰, ‘在縣界. 世俗傳此山在蒼梧徙來, 上皆有南方樹木.’ 『博物記』, ‘縣東北海邊植石, 秦所立之東門.’”

76) 永田英正 編, 『漢代石刻集成』(本文篇) 「106. 東海廟碑殘石」, 同朋舍出版, 1994, p.195. 이 碑는 原石은 남아있지 않고 清代 吳雲의 탁본만이 전한다. 비문으로 미루어 後漢 熹平 원년(172) 4월에 제작한 것으로 보인다.

77) 『史記』 卷6, 秦始皇本紀 始皇33年, p.253 “三十三年, 發諸嘗逋亡人·贅婿·賈人略取陸梁地, 爲桂林·象郡·南海, 以適遣戍. 西北斥逐匈奴. 自榆中並河以東, 屬之陰山, 以爲(三)[四]十四縣, 城河上爲塞. 又使蒙恬渡河取高關·(陶)[陽]山·北假中, 築亭障以逐戎人. 徙謫, 實之初縣. … 三十四年, 適治獄吏不直者, 築長城及南越地.”

북으로 흉노[胡]를 치게 해 河南 땅을 모조리 손에 넣었다. 황하를 이용해 요새를 만들고 황하를 따라 44개의 縣에 성을 쌓고 陴[適]로 (구성된 군사들) 이주시켜 (방어에) 충당하게 했다. 그리고 直道를 통하게 해 九原[郡]에서 雲陽[縣]에 이르렀는데, 험준한 산의 능선을 국경으로 삼고 골짜기를 이용해 참호로 삼고 수선할 수 있는 것을 손보아 臨洮[縣]에서 遼東[郡]까지 만 여리에 이르렀다. 게다가 황하를 건너 陽山과 北假 사이에 근거지를 두었다.”⁷⁸⁾

(다)-③ “秦이 천하를 병합한 후 蒙恬으로 하여금…長城을 쌓게 하였다. 지형에 따라 험준한 곳을 이용하여 塞를 만들었는데, 臨洮[縣]에서 遼東[郡]까지 만 여리에 이어졌다.”⁷⁹⁾

우선 (다)-①는 『史記』 「秦始皇本紀」 33年條 기사로 진시황은 우선 陰山 이서 지역에 44개의 현을 설치한 후 황하 연변에 城을 쌓아 塞를 만들었다. 그리고 蒙恬을 보내어 高闕·陽山·北假 사이의 땅을 취하고 북변에 亭·障을 쌓아 戎人을 몰아내고, 새로 설치한 縣에 陴수를 천사시켰다. (다)-②는 『史記』 「匈奴列傳」의 기사로서, 기본 사실은 (다)-①과 같다. 몽염은 흉노가 거하던 河南 지역의 땅을 차지한 후 황하를 이용해 요새를 만들었고, 九原郡에서 雲陽縣에 이르는 직도를 만들었으며, 아울러 臨洮縣에서 遼東郡에 이르는 장성을 쌓았다. (다)-③의 『史記』 「蒙恬列傳」 기록에서 보듯이 蒙恬은 기본적으로 黃河나 험준한 산의 지형을 이용하였고, 전국시대 秦·趙·燕에서 쌓은 장성을 修補하여 만 여리에 이어지는 秦 장성을 건설하였다. 흉노 및 戎人이 거주하고 있던 陰山 근처에 縣을 설치하고 황하 연변에 城을 쌓아 만든 塞 역시 장성을 가리키며, 戰國 秦의 장성 이북에 신축한 노선에 해당한다.

(다)-②·(다)-③에서 보듯이 秦 장성의 동단 역시 燕 장성과 마찬가지로 遼東郡에 위치하였다. 秦 장성의 동단에 대해 張守節은 『史記正義』에서 “진시황이 쌓은 長城은 동쪽으로 遼水에 이른다.”⁸⁰⁾라고 하여 遼水를 장성의 동단으로 설명하였다. 그러나 秦 장성 동단의 위치 비정을 둘러싸고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

주요 입장은 크게 ① 遼東說 ② 樂浪郡 遂成縣說 ③ 遼西說로 나눌 수 있다.⁸¹⁾ 첫째 遼東說은 (가)-②와 (다)-②·(다)-③과 같이 『史記』의 기록에 근거한다. 둘째 樂浪郡 遂成縣說은 『晉書』 「地理志」 및 『通典』 및 『史記索隱』에서 인용한 『太康地理志』의 기록에 근거한 주장이다. 『晉書』 「地理志」 樂浪郡 遂成縣條에는 “진이 쌓은 장성의 기점(秦築長城所起)”라는 注가 있으며, 『通典』 및 『史記索隱』에서 인용한 『太康地理志』에는 “樂浪郡 遂成縣에 碣石山이 있는데, 장성의 기점이다.”⁸²⁾라는 기록이 있다. 『太康地理志』는 晉 太康 연간(280-289) 西晉의 지리를 소개한 책으로, 『晉書』 「地理志」도 이 책을 참고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⁸³⁾ 西晉 시기 낙랑군이 한반도 평안 부근에 있었던 것은 분명하므로 『太康地理志』의 기록은 碣石의 소재가 한반도이며

78) 『史記』 卷110 「匈奴列傳」, p.2886, “後秦滅六國, 而始皇帝使蒙恬將十萬之衆北擊胡, 悉收河南地. 因河爲塞, 築四十四縣城臨河, 徙適戍以充之. 而通直道, 自九原至雲陽, 因邊山險塹谿谷可繕者治之, 起臨洮至遼東萬餘里. 又度河據陽山北假中.”

79) 『史記』 卷88 「蒙恬列傳」, pp.2565-2566, “秦已并天下, 乃使蒙恬將三十萬…築長城, 因地形, 用制險塞, 起臨洮, 至遼東. 延袤萬餘里.”

80) 『史記』 卷88 「蒙恬列傳」, p.2565, “【正義】 遼東郡在遼水東, 始皇築長城東至遼水, 西南至海(之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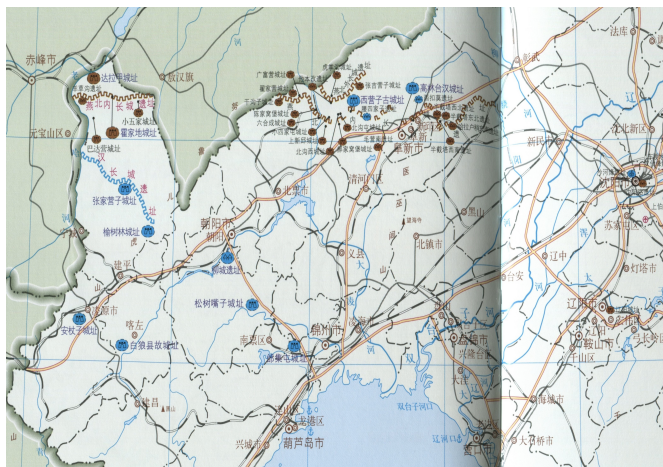
81) 노태돈, 『단군과 고조선사』, pp.49-60 참고.

82) 『史記』 卷2 「夏本紀」, p.53, 【索隱】 “太康地理志云, 樂浪遂成縣有碣石山, 長城所起.”

83) 李成珪, 「4세기 이후의 낙랑교군과 낙랑유민」, 『동아시아 역사속의 중국과 한국』, 최소자교수 정년기념논문총간행위원회, 2005, pp.213-214.

秦 장성의 동단을 평양 부근으로 주장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다. “낙랑군 수성현에 위치한 갈석산이 장성의 기점”이라는 기록은 지금에 이르기까지 역대 대부분의 중국학자들이 秦 장성의 동단을 한반도 북부로 주장하고,⁸⁴⁾ 譚其驤 主編, 『中國歷史地圖集』 2冊에 秦 장성의 동단을 평양 부근으로 표기한 사실상 유일한 근거이기도 하다. 그러나 ‘낙랑군 수성현 소재 갈석산이 秦 장성의 동단’이라는 기록은 北魏 낙랑군 수성현이 北魏 초 대릉하 유역에서 幽州로 천사된 낙랑군민을 중심으로 재건된 僑郡임을 간과한 데서 발생한 후대인의 오류이다. 즉, 북위 초 갈석산 부근으로 낙랑군 수성현이 僑置되었음을 전제로 하지 않은 채, ‘㉠ 진시황 순행의 동쪽 기점인 碣石 ㉡ 北齊 天保(550-559) 연간에 축조된 장성의 동단인 碣石 ㉢ 대동강 유역에 존재했던 漢·晉 낙랑군 수성현’이라는 ‘상식’을 잘못 결합시켜 생겨난 오류인 것이다.⁸⁵⁾ 셋째 遼西說은 秦 장성의 동단이 요서의 갈석산이라는 주장이다. 이 주장 역시 전술한 바와 같이 ‘㉠ 진시황 순행의 동쪽 기점인 碣石 ㉡ 북제 天保(550-559) 연간에 축조된 장성의 동단인 碣石’이라는 사실이 결부되어 생겨난 후대인의 오해에 근거하였다.

秦 장성의 동쪽 노선은 기본적으로 燕 장성을 修補한 것으로, 『史記』의 기록과 같이 燕·秦 장성의 東端은 遼東郡에 위치하였다. 秦 장성의 동단은 내몽고자치구 化德縣에서부터 河北省 豐寧縣·圍場縣, 내몽고자치구 赤峰市, 遼寧省 阜新縣 북부 지역을 거쳐 오늘날 遼東省 경내로 연결된다. 그 중 豐寧縣·圍場縣, 赤峰市 북부에 위치한



<그림 2> 遼寧省 경내 燕·秦 장성 유지

秦 장성 유지는 모두 戰國 燕의 長城을 진대 계승한 것이며, 특히 豐寧縣·圍場縣에 위치한 秦 장성은 秦代 새로 신축한 부분이 없이 燕 장성을 그대로 계승한 것으로 보인다.⁸⁶⁾ 현재 遼寧省 경내에 위치한 秦 장성 노선 역시 燕 장성을 계승한 것으로서, 赤峰市에서 이어져 遼寧省 建平縣, 北票市, 阜新縣, 彰武縣으로 연결되며 그 길이는 약 125km이다.⁸⁷⁾ <그림 2>⁸⁸⁾는 遼寧省 경내에 위치한 燕 장성 노

선을 표시한 것인데, 이는 또한 燕 장성을 계승한 秦 장성 노선이기도 하다.

(가)-㉡에서 燕 장성의 동단은 襄平이라 하였는데, 오늘날 발견된 燕 장성 유지가 彰武縣 兩家子鄉에서 끝난다는 점은 (가)-㉡의 『史記』 기록과 부합한다. 아울러 秦 장성의 동쪽 노선에 해당하는 유지에서 전국시대 유물이 함께 출토되고, 豐寧縣·圍場縣에서 발견된 장성 유지와 같이 秦代 신축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秦 장성의 東端 역시 『史記』의 기록과 같이 遼東郡에 위치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84) 徐衛民, 『秦始皇長城研究綜述』, 『秦漢研究』 第六輯, 2012, pp.328-330 참조.

85) ‘낙랑군 수성현·갈석·진시황·장성’이 결합하여 秦 장성의 동단에 대한 잘못된 전승이 생겨난 배경에 관해서는 ‘李成珪, 『4세기 이후의 낙랑교군과 낙랑유민』, pp.211-226’ 참조.

86) 景愛 著, 『中國長城史』, 上海人民出版社, 2006, pp.175-181.

87) 國家文物局, 『中國文物地圖集: 遼寧分冊』, 西安地圖出版社, 2009, pp.83-84.

88) 國家文物局, 『中國文物地圖集: 遼寧分冊』, 『遼寧省戰國秦漢長城遺址』.

秦 통일 이후 강역은 “東으로 바다에 이르러 조선에 미치고, 서로는 臨洮·羌中에 이르렀으며, 남으로 北嚮戶에 미치고, 북으로 황하에 의거하여 塞를 만들어 陰山을 끼고 遼東까지 이르렀다.”⁸⁹⁾ 秦 장성은 제국의 북쪽 경계이자⁹⁰⁾ 遼東郡의 北邊이었다. 秦의 동쪽 경계는 자연히 東門을 설치한 동해가 되겠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遼東郡의 東邊인 고조선과의 경계 역시 제국의 동쪽 경계 중 일부를 구성하였다. 그렇다면 秦代 고조선과의 경계는 어떠하였을까?

燕의 공격을 받아 2천 리 밖으로 밀려난 고조선은 燕 멸망이후 秦과 어떤 관계에 있었을까? 秦 제국은 15년이라는 매우 짧은 기간 존속하였기 때문에, 고조선과의 관계를 자세히 확인하기는 어렵다. 다음의 기록은 전국시대 이후 秦과 고조선의 관계를 대략이나마 짐작케 한다.

(다)-④ 『魏略』에 기록되기를…秦이 天下를 병합하고 蒙恬으로 하여금 長城을 쌓게 하여 (秦 장성은) 遼東[郡]까지 이르렀다. 당시 朝鮮王 否가 즉위하였는데, (그는) 秦의 습격이 두려워 온전히 秦에 服屬하였으나 朝會는 하지 않았다. 否가 죽자 그의 아들 準이 즉위하였다. 20여년 후 陳[勝]·項[羽]가 起兵하여 天下가 어지러워졌다. 燕·齊·趙의 民 모두 백성들이 근심하고 괴로워하며 점차 (조선왕) 準에게 도망쳐 왔다. 準은 이에 그들을 (조선의) 서쪽 지방에 살게 하였다.⁹¹⁾

(다)-⑤ 秦이 燕을 멸망시키자, (조선은) 遼東[郡]의 ‘外徼’에 속하였다.⁹²⁾

(다)-④의 기록은 후대인의 윤색이 가미되었을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秦의 장성 축조나, 秦末 진승과 항우의 起兵 및 진한 교체기의 혼란 상황 등은 비교적 사실을 반영하고 있다. 위의 기록처럼 秦末 각지에서 반란이 일어나고 舊 6國의 王들이 각각 자립함에 따라, 일반 민들의 생활은 매우 불안정했을 것이다. 항우가 서초패왕에 즉위한 이후 18명의 제후왕을 분봉하였으나, 제후왕들은 분봉 받은 지 3개월이 지난 후에야 각자의 封國으로 가서 통치를 시작하였다. 秦漢 교체기 각지에서는 행정상의 공백이 발생하였을 것이고, 그 결과 유망 민 역시 대량으로 생겨날 수 있었다.

『魏略』의 기록에 따르면 秦이 전국을 통일하였을 때 고조선의 왕은 否로서, 그는 秦의 공격이 두려워 秦에 服屬하였다. 그리고 (다)-⑤와 같이 秦 통일이후 고조선은 遼東郡의 ‘外徼’에 속하였다. 문제는 遼東郡의 ‘外徼’에 속하는 의미가 분명치 않다는 데 있다.

우선 邊郡에 설치한 徼의 성격부터 이해해야 한다. 徼에 대한 『史記』·『漢書』의 주석은 하나로 일치하지 않는다. 변경의 塞로서 木柵·石·水로 만든 蠻夷와의 경계라고 보기도 하고,⁹³⁾ 塞와 유사한데 동북 지역에서는 ‘塞’라 칭하고 西南 지역에서는 ‘徼’라 부르며, 塞는 障塞에서 그 명칭이 나왔고 徼는 막아 차단한다는 뜻이라 설명하

89) 『史記』卷6 「秦始皇本紀」 始皇 26年, p.240, “地東至海暨朝鮮, 西至臨洮·羌中, 南至北嚮戶, 北據河爲塞, 並陰山至遼東.”

90) 『史記』卷6 「秦始皇本紀」 始皇26年, p.240, 【正義】“從河傍陰山, 東至遼東, 築長城爲北界.”

91) 『三國志』卷30 「東夷傳」, p.850, (注1) “魏略曰…及秦并天下, 使蒙恬築長城, 到遼東. 時朝鮮王否立, 畏秦襲之, 略服屬秦, 不肯朝會. 否死, 其子準立. 二十餘年而陳·項起, 天下亂, 燕·齊·趙民愁苦, 稍稍亡往準, 準乃置之於西方.”

92) 『史記』卷115, 「朝鮮列傳」, p.2985, “秦滅燕, 屬遼東外徼.”

93) 『史記』卷117 「司馬相如列傳」, “南至牂柯爲徼”; (注14) “『索隱』張揖曰, 徼, 塞也. 以木柵水爲蠻夷界.”; 『漢書』卷57下 「司馬相如傳」, p.2581, “南至牂柯爲徼”; (注13) “張揖曰, 徼謂以木石水爲界者也.”

기도 한다.⁹⁴⁾ 그러나 徼가 西南 지역에만 설치되었던 것은 아니다. 가령 武帝가 新秦中 지역을 巡行할 때 간혹 千里에 걸쳐 亭·徼가 없는 곳을 알게 되었고, 이 일로 인해 北地太守 이하의 관리들은 誅殺되었다.⁹⁵⁾ 이는 북변 지역에도 亭과 함께 徼가 설치되었음을 의미한다.

전한시대 徼는 대개 변경에 설치되었고, 국경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다음의 秦·漢律 조문을 보자.

(다)-⑥ “(다른 사람의) 臣인 甲이 주모하여 (다른 사람의) 妾인 乙을 보내어 주인의 소를 훔치게 하고, (소를) 팔아 그 돈을 가지고 함께 국외로 도망가다가, 徼를 나가다가 잡혔다면 각각 어떻게 논죄해야 하는가? 城旦에 가하는 黥을 한 후 각각 주인에게 돌려준다.”⁹⁶⁾

(다)-⑦ 재물을 변경의 關所나 徼에서 몰래 반출하거나 담당 관리가 (그것을) 알고도 반출시킨 경우는 모두 밀반출한 것과 같은 법으로 (논죄)한다.⁹⁷⁾

(다)-⑥는 秦의 규정으로서, 국외로 도망[邦亡]할 때 徼를 거쳤다는 점에서⁹⁸⁾ 徼는 국내외를 구분하는 국경에 해당하였다. (다)-⑦는 漢初에 시행된 율령 조문으로, 허가를 받지 않고 재물을 국외로 밀반출하는 행위를 금하는 내용이다.⁹⁹⁾ 변경의 關所나 徼는 사람이나 화물을 국외로 반출입할 수 있는 기점이자, 국내외를 구분하는 국경이었다. (다)-⑥·⑦ 모두 徼에 사람이나 화물의 반출입을 관리 감독하는 담당 관리가 있었음을 보여주는데, 이들은 徼를 통한 불법적인 국내외 출입을 단속하는 책임이 있었다. 만약 徼를 수비하면서 불법 도망자[亡人]가 徼를 지나 출입하였는데도 발각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처벌을 받았다.¹⁰⁰⁾ 즉, 徼는 관할을 맡은 관리를 배치하고 戍卒을 두어 상비하였던 변경 수비 시설이었다.

최근 공개된 里耶秦簡 문서 중 徼와 塞를 구분하는 기준이 있어 주목된다. 바로 정리번호 8-461호 木牘인데, 넓은 木牘에 다양한 용어가 제시되어 있다. 이 문서는 秦 통일 이전[故]에 사용하던 용어 중 변경된 용어를 참고용으로 기록한 ‘新 용어 목록’으로 보인다. 그 중 “변경의 塞는 옛 塞[故塞]라 칭한다. 塞가 없는 곳은 옛 徼[故徼]라 칭한다.”¹⁰¹⁾를 보면, 徼는 塞가 설치되지 않은 변경 수비시설임을 알 수 있다. 전국시대 秦의 변경에 설치되었던 塞나 徼 중 일부는 통일 이후 內地에 위치하여 더 이상 변경 시설에 해당하지 않았다. 그러나 험요지에 설치되었던 塞·徼는 국내 치안

94) 『漢書』卷93 『鄧通傳』, p.3723, “居無何, 人有告通盜出徼外鑄錢。”(注1) “師古曰, 徼猶塞也. 東北謂之塞, 西南謂之徼. 塞者, 以障塞爲名. 徼者, 取徼遮之義也.”

95) 『漢書』卷24下 『食貨志』, p.1172, “明年, 天子始出巡郡國…新秦中或千里無亭徼, 於是誅北地太守以下.”

96) 『睡虎地秦墓竹簡』(睡虎地秦墓竹簡整理小組 編, 文物出版社, 1990) 『法律答問』, p.152, “人臣甲謀遣人妾乙盜主牛, 買(賣), 把錢僭邦亡, 出徼, 得, 論各可(何)毆(也)? 當城旦黥之, 各界主.”

97) 『二年律令』(彭浩·陳偉·工藤元男 主編, 『二年律令與奏讞書』, 上海古籍出版社, 2007) 『盜律』, “盜出財物于邊關徼, 及吏部主智(知)而出者, 皆與盜同法.(74)”

98) 국외로 도망하는 경우[邦亡] 徼를 통과해야 했고, 만약 허가를 받지 않고 徼를 나갈 경우[關]에는 처벌을 받았다(『睡虎地秦墓竹簡』 『法律答問』, p.171, “當贖盾, 沒錢五千而失之, 可(何)論? 當諱. 闕告人曰邦亡, 未出徼關亡, 告不審, 論可(何)毆(也)? 爲告黥城旦不審.”)

99) 黃金의 국외 밀반출을 금하는 조문에서도 변경의 關所나 徼를 주요 통로로 언급하였고, 관할을 맡은 담당 관리가 알고도 반출하거나 검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같은 죄로 처벌하였다(『二年律令』 『盜律』, “盜出黃金邊關徼, 吏·卒·徒部主者智(知)而出及不索, 與同罪. 弗智(知), 索弗得, 戍邊二歲.(76)”).

100) 『二年律令』 『興律』, p.244, “乘徼, 亡人道其署出入, 弗覺, 罰金□□(404)”

101) 『里耶秦簡牘校釋』(陳偉 主編, 第1卷, 武漢大學出版社, 2012) 8-461, “邊塞曰故塞. 毋塞者曰故徼.”

관리를 위한 시설로서 계속 사용하였으므로, 변경의 塞·徼와 구분하기 위해 ‘故’자를 추가하여 명칭을 조정할 필요가 있었다.

里耶秦簡의 기록대로 塞를 설치하지 않은 것이 徼라면, 徼는 거점을 중심으로 일정한 순찰 범위를 설정한 변경 시설로 보인다. 진한시대 ‘徼’가 “巡視, 순찰하다”는 의미로도 사용되었음을¹⁰²⁾ 상기하면, 徼는 변경의 거점을 장악하고 일정한 관할 범위를 巡視·巡察하여 수비하는 형태로 볼 수 있다. 司馬貞은 徼가 변경의 亭·鄣을 말하며, 변경을 둘러 순찰하여 항상 지킨다고 설명하였다.¹⁰³⁾ 변경에 여러 형태의 담장이나 참호를 만들어 방어선을 구축한 塞와 달리, 徼는 변경의 요처에 戍卒이나 담당 관리를 배치하고 그들로 하여금 일정한 관할 범위를 두루 돌며 순찰하여 방비하였던 것이다. 요컨대 徼는 塞 없이 변경의 요처에 亭·鄣을 설치하고, 戍卒이나 담당 관리가 일정한 관할 범위를 돌며 순찰하여 방비한 변경 시설이다.

한대 이민족과 접하는 국경에 설치한 수비 시설을 보면 북변에는 長城이나 塞와 같이 담장을 쌓거나 험준한 지형을 이용한 방어선을 구축하여 수비한 반면, 西南夷와의 국경에는 주로 徼를 설치하여 관리하였다. 가령 司馬相如가 西南夷를 평정한 후의 조치를 보면, 서쪽으로 沫水·若水까지 영역을 확장한 후 邊關을 설치하였고 남쪽으로는 牂柯江까지 확장한 후 徼를 설치하였다.¹⁰⁴⁾ 또 夜郎·滇·邛都 등과 巴·蜀 지역이 접하는 변경에도 徼를 설치하여 관리하였다. 漢이 성립한 후 滇에 속했던 사람들이 蜀의 옛 徼를 열어 巴·蜀사람들과 교류하였다는 기록¹⁰⁵⁾ 역시 秦代 西南夷와 접하는 변경에 徼를 설치하여 관리하였음을 시사한다. 이렇게 볼 때 塞에 비해 徼는 대개 굳이 방어선을 구축하여 방비하지 않아도 되는 변경에 설치되었고, (다)-⑥·⑦의 규정과 같이 허가를 받지 않은 國內·外 출입자와 물자의 반출을 단속하고 정해진 관할 범위를 상시적으로 巡視·巡察하여 치안을 관리하였던 변경 시설의 일종이다.

그런데 徼가 아닌 (다)-⑤의 ‘外徼’라는 용어는 진한시대 문자 기록에서 그 용례를 찾기 힘들다. 秦代 고조선이 遼東郡의 徼가 아닌 ‘外徼’에 속했다는 점에서 秦의 군현지배를 받지 않았음은 분명하다. 다만, 변경 밖의 타국을 지칭할 때 사용하는 ‘徼外’가 아닌 ‘外徼’에 속했다는 표현은 별도의 이해가 필요하다.

진한시대 徼가 변경의 치안 관리 시설이자 사실상 국경에 해당하였다면, ‘外徼’는 그 의미상 국경 밖에 설치된 徼로 이해할 수 있다. 진한시대 邊塞 외부에 설치한 수비 시설로는 漢 무제 때 五原塞 이북에 쌓은 塞外 長城을 들 수 있다. 다음의 기록을 보자.

변새 밖의 外城은 바로 光祿勳 徐自為가 축조한 五原塞 以北의 장성을 의미한다. 다음의 기록을 보자

102) 『睡虎地秦墓竹簡』 「封診式」, 群盜, p.255, “爰書…告曰: 丁與此首人強攻群盜人, 自晝甲將乙等徼循到某山, 見丁與此首人而捕之.”(밑줄 필자)
 103) 『史記』 卷91 「黠布列傳」, p.2600, “深溝壁壘, 分卒守徼乘塞”; “『索隱』: 徼謂邊境亭鄣. 以徼繞邊陲, 常守之也. 乘者, 登也, 登塞垣而守之.”
 104) 『史記』 卷117 「司馬相如列傳」, p.3048, “司馬長卿使略定西夷, 邛·笮·冉·駘·斯榆之君皆請爲內臣. 除邊關, 關益斥, 西至沫·若水, 南至牂柯爲徼…” 『史記』 卷117, 「司馬相如列傳」, p.3051, “四面風德, 二方之君鱗集仰流, 願得受號者以億計. 故乃關沫·若, 徼牂柯, 鏤零山, 梁孫原.”
 105) 『史記』 卷116, 「西南夷列傳」, p.2993, “秦時常頰略通五尺道, 諸此國頗置吏焉. 十餘歲, 滇滅. 及漢興, 皆奔此國而開蜀故徼. 巴蜀民或竊出高賈, 取其笮馬·犍僮·髦牛, 以此巴蜀殷富.”

(다)-⑧ “句黎湖單于가 즉위하자 漢에서는 光祿勳 徐自為를 시켜 五原塞에서 수 백 리 떨어진 곳으로부터 멀리 천 여리에 걸쳐 城·障·列亭을 쌓아 (흉노의 영역인) 盧胸山까지 연결하게 했다. 游擊將軍 韓說과 長平侯 衛伉을 그 옆에 주둔시켰을 뿐만 아니라 強弩都尉 路博德을 居延澤 주변에 (요새를) 쌓고 거주하게 하였다.”¹⁰⁶⁾

무제는 대규모 흉노 원정 이후 河西 지역에 장성을 신축하였을 뿐 아니라, 光祿勳 徐自為로 하여금 五原塞 밖에 장성을 쌓게 하였다. 五原塞가 五原郡에 속한 邊塞이므로, 徐自為가 쌓은 장성과 기타 障·亭 등의 수비시설은 모두 塞外에 설치되었다. (다)-⑧에서 塞外에 설치한 장성과 障·亭 등이 盧胸山까지 이어졌다고 하였는데, 盧胸山은 오늘날 尙德山으로서 흉노의 영역에 속하는 지역이다. 이 塞外 장성은 제국의 국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漢의 군현지배의 범위이자 제국의 강역은 五原塞 以南 지역이지, 盧胸山까지 이르는 塞外 장성의 以南 지역이 아니다. 그렇다면 塞外 장성은 漢과 흉노 사이의 국경 중립지대에 설치된 수비 시설로 이해할 수 있다. 만약 양국의 직접 지배 범위의 한계인 국경이 相接하지 않았을 경우, 국경 밖에 존재하는 일정한 공간은 완충 지대의 성격을 띠게 된다. 이는 明의 遼東邊牆으로부터 조선의 북방 변경지역에 이르기까지 여진인이 할거하고 있던 광활한 지대가 존재하였고, 이곳은 실질적으로 조선과 明 사이의 국경중립지대였던 사례에 빗대어 생각해 볼 수 있다.¹⁰⁷⁾

이런 점은 서역과의 중간 지대인 玉門關에서 鹽澤까지 설치한 塞를 이해할 때도 적용된다. 한 무제 때 李廣利가 대완을 정벌한 이후 제국의 서쪽 변새가 위치한 玉門關以西 지역에 일련의 亭을 설치하여 이 지역의 치안을 관리하였다.

(다)-⑨ “貳師將軍이 大宛을 정벌한 뒤 … 敦煌에서 서쪽으로 鹽澤에 이르기까지 자주 亭을 세웠다.¹⁰⁸⁾

(다)-⑩ “漢이 대완을 정벌한 뒤 … 敦煌에 酒泉都尉를 설치하고 서쪽으로 鹽水에 이르기까지 여러 곳에 亭이 있었다.”¹⁰⁹⁾

玉門關 이서 지역에 亭을 세운 목적은 서역으로 가는 교통로의 안전을 확보하여 사신들의 왕래를 관리하는데 있었다. 그렇지만 제국의 변새 밖에 설치된 일련의 亭은 제국의 변경에 설치된 亭·障과 달리 직접 관할 범위를 나타내지 않았고, 일종의 국경 중립지대에 설치된 치안 관리 시설이었다. 이 때문에 옥문관 밖에 위치한 障·塞·亭·隧는 제국의 직접 지배 범위를 나타내는 河西 장성과 구분하여 장성 밖에 설치된 방어 시설로 인식되었다.¹¹⁰⁾

따라서 秦代 遼東郡의 ‘外徼’는 요동군의 변경 밖에 설치된 徼로서, 秦과 고조선

106) 『漢書』 卷94上 「匈奴傳」, p.3776, “句黎湖單于立, 漢使光祿徐自為出五原塞數百里, 遠者千里, 築城障列亭至盧胸, 而使游擊將軍韓說·長平侯衛伉屯其旁, 使強弩都尉路博德築居延澤上.”

107) 유계춘, 「중·근세 韓·中間 국경완충지대의 형성과 경계인식」, 『한일관계사연구』 제39집, 2011; 남의현, 「고지도를 통해서 본 15-17세기의 변경지대-압록강, 두만강 변을 중심으로-」, 『만주연구』 제14집, 2012; 남의현, 「明代 遼東 防禦線의 形成背景에 관하여」, 『東洋史學研究』 第100輯, 2007.

108) 『漢書』 卷96上 「西域傳」, p.3873, “自貳師將軍伐大宛之後…於是自敦煌西至鹽澤, 往往起亭.”

109) 『史記』 卷123 「大宛列傳」, p.3179, “漢已伐宛…而敦煌置酒泉都尉. 西至鹽水, 往往有亭.”

110) 『後漢書』 卷87 「西羌傳」, p.2876, “及武帝征伐四夷…初開河西, 列置四郡, 通道玉門, 隔絕羌胡, 使南北不得交關. 於是障塞亭燧出長城外數千里.”

사이의 국경중립지대에 위치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전술한대로 徼는 亭·鄣과 같은 거점을 중심으로 일정한 관할 범위를 巡察·巡視하여 사람과 물자의 이동을 통제하거나 치안을 관리하는 기능을 하였다. 전국시대 燕의 공격을 받은 후 서쪽으로 2천 리가량 밀려난 고조선의 정확한 위치를 확인하기 어렵지만, 만번한이라는 지명과 같이 일정한 지역을 기준으로 중국 왕조와 경계를 형성하였을 것이다. 그렇지만 秦 장성의 동단이 오늘날 遼陽 인근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요동군과 고조선 사이에는 상당한 범위의 국경 중립지대가 존재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요동군 ‘外徼’는 바로 이 국경중립지대에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徼는 巡察·巡視를 통해 상비하는 일정한 관할 범위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고조선이 요동군의 ‘外徼’에 속했다는 표현은 고조선이 한의 동쪽 변경 지대의 치안 관리 범위에 속했다는 뜻이다. 玉門關 밖 서역과의 중간 지대나, 五原塞 밖 흉노와의 중간 지대가 한 제국의 직접 지배 범위가 아니듯이, 遼東郡 밖에 위치한 ‘外徼’의 관할 범위 역시 제국의 영역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III. 前漢의 遼東郡과 그 경계

1. 燕國의 연혁과 遼東郡

秦의 멸망과 함께 遼東郡은 폐지된 이후, 이 지역은 기원전 206년 韓廣에 속한 遼東國으로 바뀌었다가 같은 해 臧荼가 다스리는 燕國으로 병합되었다. 기원전 202년 2월 유방이 황제에 즉위한 후 제후왕을 세웠는데, 臧荼는 계속 燕王의 지위를 유지하게 되어 요동군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燕國에 속하였다.

그러나 같은 해 7월 燕王 臧荼가 모반하여 代 땅을 공격하여 함락시키자, 고조는 직접 군사를 거느리고 그를 공격하여 臧荼를 사로잡았다. 결국 燕國에는 臧荼 대신 太尉였던 盧縮이 燕王으로 봉해졌다.¹¹¹⁾ 이후 고조 12년(B.C. 195) 11월에 고조는 陳豨가 모반하였을 때 燕王 盧縮이 陳豨가 있던 곳으로 사람을 보내어 함께 음모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辟陽侯 審食其를 보내어 盧縮을 불러오게 하였으나 그는 병을 핑계 삼았고, 審食其는 돌아가 노관에게 모반의 징조가 있음을 자세히 보고하였다. 3개월가량 지난 후 고조는 樊噲와 周勃을 보내어 燕王 노관을 공격하게 한 후, 자신의 아들을 燕王으로 세웠다.¹¹²⁾

呂后 7년(B.C. 181) 燕王이 죽은 후 계승자가 없자, 이듬해 10월 肅王의 아들이자 옛 東平侯였던 呂通을 연왕에 봉하였으나, 같은 해 9월에 주살되었다. 文帝 前 원년(B.C. 179) 10월 琅邪王 濯을 徙封하여 敬王으로 삼았으나 다음 해 죽었다. 文帝 前 3년(B.C. 177) 康王 嘉가 다시 이곳에 봉해졌고, 그는 景帝 前 5년(B.C. 152) 죽을 때까지 지위를 유지하였다. 이듬해 定國이 燕王에 봉해졌고, 武帝 元朔 원년(B.C. 128) 처벌받아 자살할 때까지 24년간 제후왕의 지위를 유지하였다. 그 해 燕國은 폐지하고 郡을 설치하였으나, 武帝 元狩 5년(B.C. 118) 燕國을 다시 설치하고 武帝의 아들인 刺王 卬을 연왕에 봉하였다.¹¹³⁾ 그러나 무제 元封 원년(B.C. 110) 모반죄로

111) 『史記』 卷8 「高祖本紀」 5年, p.381, “十[七]月, 燕王臧荼反, 攻下代地. 高祖自將擊之, 得燕王臧荼. 即立太尉盧縮爲燕王.”

112) 『史記』 卷8 「高祖本紀」 12年, p.391, “陳豨降將言豨反時, 燕王盧縮使人之豨所, 與陰謀. 上使辟陽侯迎縮, 縮稱病. 辟陽侯歸, 具言縮反有端矣. 二月, 使樊噲·周勃將兵擊燕王縮, 赦燕吏民與反者. 立皇子建爲燕王.”

자살하였고, 燕國은 철폐되었다.

무제 사후 昭帝 元鳳 원년(B.C. 80)에 燕國 대신 廣陽郡이 설치되었는데, 소속 호구는 20740戶에 인구 70,658명이었고, 속현은 薊·方城·廣陽·陰鄉이었다.¹¹⁴⁾ 이후 宣帝 本始 원년(B.C. 73) 다시 제후국을 설치하여 頃王 建을 분봉하였다. 그가 죽은 후 元帝 初元 5년(B.C. 44)에 穆王 舜이 계승하였고, 成帝 陽朔 2년(B.C. 23)에는 思王 璜이 계승하였다. 哀帝 建平 4년(B.C. 3)에 연왕 嘉가 계승하였으나 왕망이 황위를 찬탈한 후에 燕國은 철폐되었다.¹¹⁵⁾

이상 燕國의 분봉 기사를 중심으로 그 연혁을 살펴보았는데(<표 1> 참조), 武帝 때 제후국이 철폐되고 郡을 설치한 기간이나 昭帝 때 연국 대신 廣陽郡을 잠시 설치하였던 기간을 제외하면 전한시기 燕 지역에는 제후왕이 존속하였다. 즉, 전한시기 燕國이 아닌 郡이 관할 기구였던 시기는 무제 元朔 원년(B.C. 128)-元狩 5년(B.C. 118)까지의 11년과 무제 元封 원년(B.C. 110) 이후 宣帝 本始 원년(B.C. 73)까지 38년으로 약 49년 동안이다.

시기 구분		諸侯王名 (燕國)	郡 설치
재위 황제	연도 (기원전)		
高祖	202년	燕王 臧荼	
	195년	燕王 盧綰	
呂后	180년	燕王 劉建	燕國 廢置
文帝	179년	敬王 劉澤	
	177년	康王 劉嘉	
景帝	151년	燕王 定國	
	127년		燕國 廢置
武帝	118년	燕王 劉旦	
	110년		燕國 廢置
昭帝	80년		廣陽郡
宣帝	73년	燕王 劉建	
元帝	44년	燕王 劉舜	
成帝	23년	燕王 劉璜	
哀帝	3년	燕王 劉嘉	

<표 1> 前漢時期 燕國의 연혁

였다. 이처럼 燕國의 존폐 및 중앙의 제후국 정책에 따라 漢初 燕國에 속했던 지역은 그 소속이 변화하였다.¹¹⁶⁾

遼東郡은 한초 이래 제후국에 속하였다가 경제 때 邊郡으로서 분리되었고, 太守가 郡을 관할하였다. 『漢書』 「地理志」에 따르면 遼東郡에는 55,972戶가 속해있다. 그리고 屬縣은 모두 18개로서,¹¹⁷⁾ 襄平·新昌·無慮·望平·房·候城·遼隊·遼陽·險瀆·居就·高顯·安市·武次·平郭·西安平·文·番汗·沓氏이다.¹¹⁸⁾ 그렇다면 전한시기 遼東郡은 高祖 ~ 文

그런데 昭帝 元鳳 원년에 燕國을 폐한 후 설치한 廣陽郡의 규모가 4개의 속현을 거느린 규모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연왕이 관할하였던 지역은 변화가 존재하였을 것이다. 漢初 燕國에 속했던 郡을 기준으로 그 소속 변화를 살펴보면, 우선 涿郡은 원래 燕國에 속하였으나 武帝 때 郡으로 바뀌었다가, 이후 다시 燕國에 속하였다. 上谷郡·漁陽郡·遼西郡·遼東郡은 원래 燕國에 속했으나 경제 때 邊郡을 제후국에서 제외시키면서 燕國에 포함되지 않았다. 끝으로 廣陽國은 진의 廣陽郡으로서 고조 6년에 燕國이었다가 무제 때 燕郡 및 燕國으로 소속을 바꾸었다. 이후 소제 때 廣陽郡이 되었으나, 宣帝 때 다시 燕國에 속하

113) 『史記』 卷17 「漢興以來諸侯王年表」, pp.804-875.

114) 『漢書』 卷28下 「地理志」, 廣陽國, p.1634, “廣陽國, 高帝燕國, 昭帝元鳳元年爲廣陽郡, 宣帝本始元年更爲國. 莽曰廣有. 戶二萬七百四十, 口七萬六百五十八. 縣四: 薊, 方城, 廣陽, 陰鄉.”

115) 『漢書』 卷14 「諸侯王表」, p.419.

116) 嚴耕望 撰, 『西漢太守刺史表』, 上海古籍出版社, 2007, pp.91-96.

117) 『漢書』 卷28下 「地理志」, pp.1625-1626, “遼東郡, 秦置. 屬幽州. 戶五萬五千九百七十二, 縣十八.”

118) 요동군에 속한 郡·縣城의 위치와 관련 설명은 ‘배진영, 『한대 요동군의 군현 지배-군현체제로의 지향과 한계』, 서영수 외, 『요동군과 현도군 연구』, 동북아역사재단, 2008, pp.79-93’ 참조.

帝 시기 臧荼를 비롯한 제후왕이 관할하였으나, 景帝 때부터는 중앙에 속한 郡으로서 제후왕이 아닌 太守가 관할하였다고 정리할 수 있다.

2. 遼東 邊塞와 泃水

秦의 蒙恬이 해서 지역에 거주하던 흉노를 몰아내고 장성을 쌓아 방비한 이후 匈奴는 秦을 이겨 내지 못하고 북쪽으로 옮겨 갔다. 그러나 蒙恬이 죽고 진한 교체기 혼란 속에서 변경에 천사되었던 죄수들 역시 모두 변경을 떠나 버리게 되자, 흉노는 점차 황하를 건너 남쪽으로 내려와 전국시대의 장성을 경계를 삼게 되었다.¹¹⁹⁾

북변 방어는 關中의 안정을 위해서도 중요하였다. 漢王 유방은 關中을 장악한 이후 황하 유역에 세웠던 진의 장성을 보수하였다.¹²⁰⁾ 漢 성립이후 한초에도 秦 장성의 修補가 진행되었겠지만,¹²¹⁾ 본격적인 修補는 무제시기 흉노 일정과 함께 시작되었다. 즉, 元朔 2년(B.C. 127) 하남 땅에서 흉노를 몰아낸 후 朔方郡을 설치하고 秦 장성을 수리하였다.¹²²⁾ 이 때 수보한 장성의 노선은 오늘날 內蒙古自治區 集寧市에서 서쪽으로 烏蘭布和 사막까지이다.¹²³⁾ 동북지역 장성 역시 수보하여 漢 장성으로 사용하였다. 전술한 燕·秦 장성 유지에서 전국시대 뿐 아니라 진한시기 유물이 함께 발견되는 점은 燕 장성을 진한시기에 수보하여 사용하였음을 보여준다.

무제는 秦 장성을 수보하였을 뿐 아니라 河西走廊과 疏勒河 유역을 포함한 河西 지역에 장성을 신축하였다. 앞서 언급한 五原塞 밖에 세운 塞外 장성 역시 무제시기에 건축하였다. 무제 때 河西 지역 이외 장성을 신축하였다는 기록이나, 무제 이후 후한시기까지 장성을 신축하였다는 기록은 확인하기 어렵다.¹²⁴⁾ 이로 미루어 河西 지역 이외 漢 장성은 대개 秦 장성을 수보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3> 遼寧省 발견 漢代 ‘列燧’ 유지

119) 『史記』 卷110 『匈奴列傳』, pp.2887-2888, “匈奴單于曰頭曼, 頭曼不勝秦, 北徙. 十餘年而蒙恬死, 諸侯畔秦, 中國擾亂, 諸秦所徙適戍邊者皆復去, 於是匈奴得寬, 復稍度河南與中國界於故塞.”; 『鹽鐵論』 卷8 『伐功』, p.494, “大夫曰…及其后, 蒙公死而諸侯叛秦, 中國擾亂, 匈奴紛紛, 乃敢復爲邊寇.”

120) 『史記』 卷8 『高祖本紀』 2年, “漢王東略地, 塞王欣·翟王翳·河南王申陽皆降…繕治河上塞.”

121) 張榮芳·王川, 『漢長城的修繕及其意義』, 『長城國際學術研討會論文集』, 長春: 吉林人民出版社, 1995, p.105.

122) 『史記』 卷110 『匈奴列傳』, pp.2906-2907, “於是漢遂取河南地, 築朔方, 復繕故秦時蒙恬所爲塞, 因河爲固…是歲, 漢之元朔二年也.”

123) 張榮芳·王川, 『漢長城的修繕及其意義』, pp.105-106. 秦 장성을 修補하면서 위청은 ‘廣長榆’하였는데, 이는 榆溪塞를 補綴했다는 말이다. 榆溪塞는 대규모 느릅나무를 심어 일종의 邊塞를 만든 것이다.

124) 전술한 塞外長城이나 옥문관에서 鹽澤까지 이르는 수비 시설을 漢 長城에 포함시켜 이해하기도 하지만, 모두 한제국의 외부에 설치된 수비 시설로서 제국의 국경으로 인식되었던 長城으로 이해할 수 있는가의 문제는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본고에서는 이 두 지역은 논외로 하였다.



<그림 4>吉林省 通化縣 발견 戰國·秦漢 烽燧·障 및 城址 유지 분포도

한대 遼東郡의 북변 경계인 장성의 노선은 기본적으로 燕·秦 장성과 동일하다. 다만, 오늘날 遼寧省 沈陽·撫順·新賓 지역에서 일련의 봉수 유지가 발견되었다(<그림 3>¹²⁵⁾. 吉林省 通化縣 및 渾江 유역(<그림 4>¹²⁶⁾에서도 戰國·秦漢시기 烽燧·障 및 城址 유지가 집중적으로 발견되었다. 이를 근거로 중국의 장성 연구자들은 漢代 요동군에서 장성을 신축하였고, 그 동단이 연장되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¹²⁷⁾

遼寧省 沈陽·撫順·新賓에서 발견된 漢代 ‘列燧’ 유지는 서쪽으로 吉林省 通化縣에서 발견된 일련의 烽燧·城·障 유지로 연결된다. 沈陽·撫順·新賓의 ‘列燧’ 유지에서 모두 70여 곳의 烽燧가 발견되었으며, 그 길이는 170km이다. <그림 4>에서 보듯이 通化縣 부근에서 발견된 烽燧·城·障 유지는 渾江 유역을 거쳐 압록강 유역까지 분포하고 있다. 이 지역에서는 십여 곳에서 烽燧 약 17墩, 두 곳에서 障堡 11座가 발견되었다. 이 지역 障·塞 유지의 축조 시기는 대략 戰國 중·후기에서 전한 중기로 추정된다.¹²⁸⁾

그런데 이들 ‘列燧’ 혹은 일련의 障堡가 설치된 변경 수비 시설은 전술한 燕·秦·漢 장성과 구분되며, 장성 노선에 포함되지 않는다. 문헌 기록에 燕 장성의 동단이 襄平이고, 秦·漢 장성이 모두 기본상 燕 장성을 수보하여 사용하였기 때문에 秦·漢 장성의 동단은 <그림 2>의 阜新縣 인근으로 보아야 한다. 비록 이들 ‘列燧’ 혹은 일련의 障堡 유지를 漢 장성 유지로 확정할 수 없지만, 그 주향이 장성의 동단과 대체적으로 연결된다는 점은 주목된다. 이는 요동군의 관할 범위가 전국시대 燕의 경우 襄平을 중심으로 한 한정된 지역이었으나, 강역이 점차 확대되면서 북변의 경계 역시 새롭게 정비하거나 연장할 필요가 생겼음을 추정케 한다. 오늘날 발견되는 요동군 북단의 ‘列燧’ 유지는 漢 장성의 노선으로 확정할 수 없으나, 漢代 요동군의 관할 범위가 만리장성과 압록강을 잇는 방어 체계의 이남 지역으로 확대되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이다.

125) 國家文物局, 『中國文物地圖集·遼寧分冊』, 『遼寧省戰國秦漢長城遺址』,
 126) 李樹林, 李妍, 『通化渾江流域燕秦漢遼東長城障塞調查』, 『東北史地』 2012-2, <圖版 1> 通化渾江流域戰國·西漢障塞城址田野考古調查與地理分布.
 127) 國家文物局, 『中國文物地圖集·遼寧分冊』, p.84; 李樹林, 李妍, 『燕秦漢遼東長城障塞遺址的量化統計分析』, 『北方文物』 2011-2.
 128) 李樹林, 李妍, 『通化渾江流域燕秦漢遼東長城障塞調查』, pp.14-15.

한편 漢이 성립한 이후 고조선 내부의 통치 집단이나 漢과의 관계는 이전과 다소 변화가 생겼고, 遼東郡과의 경계 역시 새롭게 정비되었다. 『史記』 「朝鮮列傳」을 중심으로 이를 검토해 보기로 하자.

- (라)-① 漢이 성립하고는 (조선이) 멀어 지키기 어려우므로, (燕의) 遼東[郡] 故塞를 다시 수리하고 溟水까지를 경계로 하여 燕國에 소속시켰다.¹²⁹⁾
- (라)-② 燕王 盧綰이 모반하여 匈奴로 들어가자, [衛]滿은 亡命하였다. 천여 명의 무리를 모아 상투를 틀고 蠻夷의 복장으로 동쪽으로 달아나 邊塞를 빠져나가 溟水를 건너 秦의 옛 空地에 있는 上·下鄣에 거하였다. 점차 眞番·朝鮮의 蠻夷 및 예전에 燕·齊에 (속했던) 亡命者들을 복속시켜 왕이 되었고, 王險에 도읍하였다.¹³⁰⁾
- (라)-③ 때마침 孝惠·高后 시기 天下가 처음으로 안정되자, 遼東太守는 곧 [衛]滿을 外臣으로 삼을 것을 약속하여 (衛滿으로 하여금) 변새 밖의 蠻夷를 지켜 변경에서 흠치지 못하게 하고, 蠻夷 君長들이 (漢에) 들어가 天子를 알현하고 싶어 하면 막지 못하게 하였다. (이를) 아뢰니 황제가 허락하였다. 이로써 [위]滿은 군사적 위세와 재물을 얻게 되어 그 주변 小邑들을 침략하여 항복시키니, 眞番·臨屯 모두 와서 服屬하여 (그 땅이) 사방 수천 리가 되었다.¹³¹⁾

(라)-①은 高祖 시기 고조선과의 경계와 관리 방법, (라)-②는 고조시기 위만의 망명 과정과 근거지, (라)-③은 孝惠·高后 시기 衛滿이 漢의 外臣이 되어 漢의 원조를 힘입고 세력 성장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한 기록이다.

(라)-①부터 살펴보면, 첫째 고조 때 遼東郡의 동쪽 변경 관리 방법이 변화하였음을 알 수 있다. (라)-①에서 조선은 지키기에는 멀기 때문에, 경계를 정하여 관할 기구를 정해 담당시켰다. 秦은 변경 밖에 徼[‘外徼’]를 두어 일정한 범위를 상비하였는데, 漢 고조는 상비하기에는 고조선이 너무 멀다고 판단하였던 것 같다. 대신 한과 고조선의 경계를 정비하였는데, 우선 예전에 사용하였던 邊塞를 다시 수리하였다. 그리고 이 邊塞와 溟水로 구성된 국경까지만 상비하였고, 고조선 문제는 燕國에서 관할하게 하였다. 里耶秦簡 기록에 근거하면 ‘故塞’는 ‘故徼’와 구분된다. 따라서 이 때 ‘故塞’는 秦이 아닌 燕의 요동군에 설치되었던 변새로서, 바로 고조선을 물러나게 한 후 그 변경에 쌓았던 障·塞를 가리킨다.

둘째 衛滿은 망명할 때 요동군의 邊塞를 빠져나가 溟水를 건넜으며, 秦의 옛 空地에 있는 上·下鄣을 근거지로 삼아 세력을 키운 후 王險을 도읍으로 삼아 왕이 되었다. 요동군의 邊塞는 바로 (라)-①에 보이는 燕이 만든 障·塞를 수리한 것이다. 溟水是 漢과 고조선의 경계로 삼았던 강으로서, 衛滿이 邊塞를 나간 후 다시 溟水를 건넜다면 양자 간에 일정한 거리가 존재한다. 衛滿의 초기 근거지는 秦의 옛 空地 중 上·下鄣이 있던 곳이었다. 秦은 동북 변경을 관리할 때 襄平까지 이르는 장성으로 북변을 방비하였고, 燕이 쌓은 障·塞를 변새로 사용하지 않았다. 대신 亭·障과 같은 요새를 거점으로 일정한 권역을 방비하는 徼를 국경 밖에 두어 치안을 관리하였다. 그렇

129) 『史記』 卷115 「朝鮮列傳」, pp.2985-2986, “漢興, 爲其遠難守, 復修遼東故塞, 至溟水爲界, 屬燕.”

130) 『史記』 卷115 「朝鮮列傳」, pp.2985-2986, “燕王盧綰反, 入匈奴, 滿亡命, 聚黨千餘人, 魑結蠻夷服而東走出塞, 渡溟水, 居秦故空地 上下鄣, 稍役屬眞番·朝鮮蠻夷及故燕·齊亡命者王之, 都王險.”

131) 『史記』 卷115 「朝鮮列傳」, pp.2985-2986, “會孝惠·高后時天下初定, 遼東太守卽約滿爲外臣, 保塞外蠻夷, 無使盜邊. 諸蠻夷君長欲入見天子, 勿得禁止. 以聞, 上許之, 以故滿得兵威財物侵降其旁小邑, 眞番·臨屯皆來服屬, 方數千里.”

다면 秦의 空地에 위치한 上·下鄣은 秦代 ‘外徼’로 관리하였던 국경중립지대에 위치한 徼의 중심지로서, 上·下에 위치한 2곳의 障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위만의 근거지는 邊塞를 나간 후 다시 涇水를 건너야 도달하는 곳이었는데, 이로 미루어 秦의 ‘外徼’에서 관할하였던 범위는 燕 障·塞 넘어 涇水 이서 지역까지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衛滿은 高后시기 漢의 外臣이 되었고, 그 위세를 근거로 사방 수 천리에 이르는 땅을 차지하게 되었다. 漢이 外臣에게 요구하는 사항은 크게 두 가지로서 주변 이민족의 약탈로부터 漢의 변경을 지키고, 漢에 ‘內朝’를 원하는 이민족을 막지 않는 일이었다. 국경 밖에 거하는 ‘外臣’을 두어 이로써 변경의 안정을 추구하는 방법은 漢初에 賈誼가 제안한 정책의 골자였다. 다음을 보자.

(라)-④ 장차 반드시 匈奴의 무리를 漢의 臣民으로 삼아 1000家를 1國으로 삼게 만들고 변새 밖에 그들을 벌려 놓아 살게 합니다. 隴西에서 遼東까지 각자 소유한 봉지를 (기준으로) 변경을 지켜 月氏·灌窳의 변고에 대비하게 하며 모두 그들을 안치한 郡에 속하게 합니다. 그런 후에 무기를 거두어 변경을 쉬게 하며 천하의 무기를 없앱니다.”¹³²⁾

衛滿은 遼東郡에 속하여 ‘塞外에 거주하는 漢의 臣民’[外臣]에 해당하였다. 아마 漢에서는 그가 변경 인접 지역에서 1000家 정도를 거느린 일국의 왕이 되는 것을 인정 해주었을 것이다. 『魏略』의 기록을 보면 衛滿은 고조선의 왕인 準에게 복속하며 고조선의 서쪽 변경에 거주하였다. 그는 유망한 사람들을 회유하여 점차 그 세력을 키웠으며 마침내 한이 침공해 온다고 속여 왕 準을 죽이고 자신이 왕이 되어 위만 왕조를 세웠다.¹³³⁾ 위만 왕조는 이후 무제 元封 2년 漢에서 보낸 使臣인 涉何를 죽였다는 빌미를 시작으로 漢의 공격을 받아 이듬해 元封 3년(B.C.108)년 멸망하였다.¹³⁴⁾

(라)-②에서 衛滿이 망명할 때 요동군의 변새를 나와 고조선과의 경계인 涇水를 건너 자신의 근거지를 찾았다. 요동군의 변새와 고조선과의 경계인 涇水가 구분된다면 그 양자 간에 일정한 공간이 존재하였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런 점은 고조선에 간 漢 사신의 使行 경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즉,

(라)-⑤ (漢의 사신인) 涉何가 (왕검성을) 떠나 국경 근처에 이르러, 涇水를 바라다보며 마부를 시켜 자신을 전송하는 朝鮮의 裨王 長을 찔러 죽이게 하였다. (그리고) 바로 涇水를 건너 邊塞로 달려 들어갔다.”¹³⁵⁾

漢의 사신 涉何는 涇水를 건넌 후 말을 달려 邊塞 안으로 들어갔다. 외교 사신을 국경에서 맞이하거나 국경까지 전송하였던 고대 사회의 교류 절차를 상기하면, 涇水

132) 『新書』([漢]賈誼 撰, 閻振益·鍾夏 校注, 『新書校注』, 中華書局, 2000) 卷4 「匈奴, 事勢, p.134, “將必以匈奴之衆, 爲漢臣民, 制之令千家而爲一國, 列處之塞外, 自隴西延安至遼東, 各有分地以衛邊, 使備月氏·灌窳之變, 皆屬之其置郡. 然後罷戎休邊, 民天下之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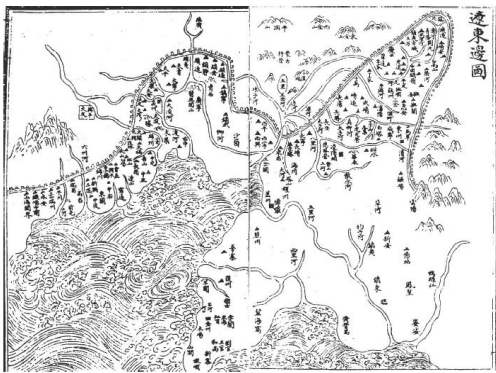
133) 『三國志』 卷30 「東夷傳」, p.850, (注1) “(魏略曰) “詣準降, 說準求居西界, (故)[收]中國亡命爲朝鮮藩屏… 滿誘亡黨, 衆稍多, 乃詐遣人告準, 言漢兵十道至, 求入宿衛, 遂還攻準. 準與滿戰, 不敵也.”

134) 『史記』에 기록된 고조선 멸망 과정의 서사 형식과 그 특징에 대해서는 ‘김병준, 「漢이 構成한 古朝鮮 滅亡 過程 - 『史記』 朝鮮列傳의 再檢討」, 『韓國古代史研究』 50, 2008’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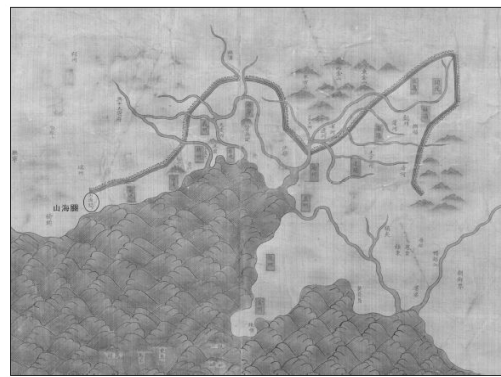
135) 『史記』 卷115 「朝鮮列傳」, p.2986, “何去至界上, 臨涇水, 使御刺殺送何者朝鮮裨王長, 卽渡, 馳入塞.”

는 양국에서 인지한 고조선과 漢의 국경이 맞다. 그런데 만약 溟水가 漢의 행정·군사적 직접 통치의 범위를 나타내는 동쪽 경계였다면, 溟水を 건넌 후 별도의 변새를 들어가는 절차가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는 위만이 漢을 떠나 망명할 때에도 동일하다. 대동강 유역에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왕검성에서 요동군의 郡治가 위치한 襄平 혹은 長安까지 가기 위한 노선을 고려하면, 국경으로 인식되었던 溟水나 요동군 邊塞는 모두 왕검성과 양평 혹은 遼西走廊을 잇는 선상에 위치해야 할 것이다.

溟水の 위치 비정은 학계에서 여전히 논란이 많은 문제로서, 필자 역시 별다른 대안을 가지고 있지 않다. 다만, 명대 장성과 별도로 설치되었던 遼東邊牆과 이 문제를 함께 살펴보면 몇 가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명대 遼東邊牆의 위치를 직접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렵겠지만, 이는 전국·진한시대 요동군의 상황을 추정할 때 좋은 참고 자료가 된다.



<그림 5> 『明代輿圖綜錄』



<그림 6> 「대명여지도」

우선 <그림 5>·<그림 6>¹³⁶⁾에 표현된 遼東邊牆은 명 장성과 다른 형태의 邊牆으로서, 당시 명과 조선 간의 국경으로 인식되었던 압록강과 접하고 있지 않다. 압록강과 柵門이 설치된 連山關 사이에는 상당한 공간이 존재하였으며, 국경 사이의 완충지대 역할을 하였다.¹³⁷⁾ 그리고 <그림 3>, <그림 4>의 봉수 유지의 노선이 대개 撫順市~通化縣을 잇는 遼寧省 북부 지역에 위치한 것과 달리, 明代 遼東邊牆은 주로 요동평야를 중심으로 그 주변을 둘러싼 형태이다.

(라)-⑤에서 고조선의 경계인 溟水和 요동군의 邊塞 사이에도 明代 遼東邊牆과 압록강 사이에 존재하였던 국경중립지대와 같이 일정한 완충지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요동군과 고조선의 국경은 溟水로 인식되었지만, 요동군의 관할 범위는 변새가 설치된 지점까지였고, 邊塞와 溟水 사이는 배타적인 영역이 아닌 ‘空地’의 성격을 띠었던 것이다. 아울러 燕의 障·塞 및 漢代 변새의 위치는 현재로서는 분명치 않지만, 溟水を 건넌 후 襄平을 가기 위해 들어가는 위치에 존재해야 한다면 明代 遼東邊牆의 동단 부분이 비교적 적절해 보인다 다만, 溟水 및 장성 이외 요동군의 변새가 설치된 곳의 정확한 위치 비정은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일단 유보하고자 한다.

136) 남의현, 「고지도를 통해서 본 15~17세기의 변경지대」, p.52, p.67에서 재인용.

137) 유재춘, 「중·근세 韓·中間 국경완충지대의 형성과 경계인식」, pp.164-174.

맺음말

중국에서 군주의 배타적 지배 공간을 구분하는 지리상의 경계는 전국시대 이후에 등장하였다. 그리고 한 나라의 정치·군사적 세력이 미치는 범위를 강역으로 보고 강역의 외연을 국경이라 하였을 때, 중국에서 국경 역시 전국시대 이후에 등장하였다. 물론 商周 및 춘추시대에 군주의 지배범위를 나타내는 정치적 경계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가령 춘추시대 封疆 역시 境으로서 ‘국경’으로 인식되었다. 하지만 춘추시대 ‘국경’은 배타적 지배 공간의 지리적 한계로서 경계를 넘나드는 사람의 이동을 통제하거나 관리하는 실제적인 경계는 아니었다. 당시 境內 지역은 군주의 통치권역을 의미하지 않았고, 봉강은 주요 要地에 관리를 두어 치안을 유지하는 곳이었을 뿐 봉강에서 사람들의 이동을 일일이 통제하지 않았다. 반면 전국시대 국경은 郡·邊邑 등 변경 주요 지역의 외연을 연결한 경계로서, 주요 거점에는 塞·亭·鄣·長城 등의 수비 시설이나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關·梁 등의 시설이 설치되었고 병사가 주둔하거나 담당 관리가 배치되어 변경의 수비와 치안을 관리하였다. 전국시대 변경 출입 관리의 변화는 전국시대 國의 외연으로서의 境이 사람과 물자의 왕래와 이동을 통제·관리하는 실제적인 국경의 성격을 띠게 되었음을 뜻한다. 이는 또한 전국시대 이후 법제에 근거한 공간 지배가 시작되어, 지리상에 형성된 배타적 성격의 국경이 등장하였음을 의미한다.

戰國時代 이후 國의 지배 공간의 성격은 크게 변하였다. 특히 군현지배의 등장은 이전의 神이 관장한다고 인식되었던 國의 공간이 세속 군주의 명령과 법제에 따라 재편성되었음을 의미한다. 전국시대 군현지배의 등장 이후 춘추시대 존재하였던 수많은 小國들은 멸망하여 주요 國의 縣이나 관할 단위로 편제되었다. 전국시대 이후 國의 내부 공간은 정치적 중심지인 國都 혹은 京畿와 중앙에서 관할하는 郡·國이 集積된 형태로 구성되었다. 國의 외부 공간은 각국의 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이전에 國과 國 사이에 존재하던 隙地와 같은 제3의 공간이 점차 사라지고 인접국은 서로 국경을 접하게 되었다. 전국시대 각국의 국경은 진·한제국 성립이후 제국의 내부 공간으로 편입되었고, 國의 외부 경계는 제국의 국경으로 정리되었다. 이렇게 볼 때 秦漢時代 邊郡의 경계는 곧 제국의 국경에 해당하였다.

전국·진·한시기 遼東郡의 경계가 燕·秦·漢의 국경이라는 사실은 중국 고대 왕조와 遼東郡을 접하였던 한반도 동북 지역 초기 국가와의 경계가 어디였는가라는 문제와 연결된다. 종래 국내외 학자들이 요동군과 고조선 관련 문헌 기록을 총 망라하여 다양한 설명과 해석을 제시하였던 이유도, 遼東郡이 고대 중국 왕조의 東端이자 고조선 초기 역사의 중요 무대였기 때문이다.

본고는 고대 중국 왕조와 고조선의 경계의 위치와 성격을 이해하기 위해, 戰國·秦漢 시기 遼東郡과 고조선의 관계 및 定界 형태를 검토하였다. 기본적으로 遼東郡에서 왕조의 국경을 구성하는 부분은 장성이 설치된 북쪽 경계와 고조선을 비롯한 주변 국가가 위치한 동쪽 경계였다. 우선 북변을 구성하는 燕·秦·漢 장성의 東端은 모두 요동군에 위치하였고, 그 위치는 오늘날 遼寧省 阜新縣과 彰武縣 부근이다. 다만, 현대에는 장성의 동단과 일직선상에 위치한 오늘날 撫順市에서 通化縣까지 烽燧 및 障과 같은 수비 시설을 일렬로 설치하여 북변 수비선을 동쪽으로 연장하였다. 이는 이전

시기에 비해 漢代 요동군의 관할 범위가 동쪽으로 보다 확대되었음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고조선과의 定界 형태는 문헌 기록에 매우 단편적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나 경계의 형태를 규명하는데 한계가 존재한다. 燕의 遼東郡과 조선이 접하는 변경에는 障·塞가 설치되어 燕의 국경을 이루었다. 고조선은 燕 소왕시기 秦開가 이끄는 군대의 공격을 받아 요동 인근 지역에서 燕의 동변에 설치한 障·塞 밖으로 밀려났다. 『魏略』에 따르면 고조선의 서쪽 경계는 원래의 근거지로부터 2천 리 가량 떨어진 滿番汗 지역이다. 그러나 燕이 설치한 障·塞가 반드시 滿番汗까지 이르렀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燕과 고조선의 경계는 국경선의 형태가 아니었다. 燕의 障·塞와 滿番汗 사이에는 넓게 형성된 국경 지대가 존재하였다.

秦의 遼東郡과 고조선이 접하는 지역은 秦의 ‘外徼’에 속하였다. 秦代 遼東郡의 ‘外徼’는 요동군의 변경 밖에 설치된 徼로서, 秦과 고조선 사이의 국경중립지대에 위치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徼는 亭·鄣과 같은 거점을 중심으로 일정한 관할 범위를 巡察·巡視하여 사람과 물자의 이동을 통제하거나 치안을 관리하는 기능을 하였다. 秦의 요동군과 고조선 사이에는 상당한 범위의 국경중립지대가 존재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요동군 ‘外徼’는 바로 이 국경 중립지대에 존재하였을 것이다. 徼가 巡察·巡視를 통해 상비하는 일정한 관할 범위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고조선이 요동군의 ‘外徼’에 속했다는 표현은 고조선이 한의 동쪽 변경 지대의 치안 관리 범위에 속했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그러나 漢代 玉門關 밖 서역과의 중간 지대나, 五原塞 밖 흉노와의 중간 지대가 한 제국의 직접 지배 범위가 아니듯, 遼東郡 밖에 위치한 ‘外徼’의 관할 범위 역시 제국의 영역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전한시기 漢은 燕의 遼東 障·塞를 수보하여 遼東郡의 경계이자 漢의 국경으로 삼았다. 그리고 고조선의 국경은 溟水였다. 衛滿은 망명할 때 遼東郡의 邊塞를 나와 고조선과의 경계인 溟水를 건너 자신의 근거지를 찾았다. 고조선에 간 漢 사신이 還國할 때 고조선의 경계인 溟水를 건넌 후 말을 달려 遼東郡의 邊塞로 들어갔다. 즉, 요동군의 변새와 고조선의 경계인 溟水 사이에 일정한 공간이 존재하였다. 본고는 이 공간을 明代 遼東邊牆과 압록강 사이에 존재하였던 국경중립지대와 연결하여 이해하여, 요동군의 변새와 溟水 사이에 국경중립지대가 존재하였을 것으로 보았다. 아울러 明代 遼東邊牆이 요동 평야를 둘러싸고 천산산맥 인근까지 설치되었던 점을 고려하면, 燕의 요동 障·塞나 漢의 邊塞의 위치는 明代 柵門이 설치되었던 連山關의 위치로 추정해 볼 수 있겠다. 溟水の 위치 또한 의견이 분분하지만, 요동 邊塞와 溟水와의 위치 관계를 고려할 때 오늘날 압록강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문헌 기록이 거의 남아있지 않는 초기 국가의 역사를 이해할 때는 우선 한정된 자료를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시대적 안목이 필요하다. 그리고 오늘날의 특정한 필요에 근거한 해석이 아니라 해당 시기의 상황 속에서 자료를 검토해야 한다. 종래 중국과 한국의 고대사 연구에서 자료의 해석을 둘러싸고 역사 분쟁이 발생하였던 근본 원인은 정치권력의 실체가 분명하게 확인되는 ‘초기 국가’의 역사와 민족의 발생과 형성 과정을 살펴보는 ‘초기 민족사’가 혼동된 데 있다. 그리고 민족주의적 혹은 국가주의적 ‘희망’과 학문적인 ‘연구’가 엄분되지 못한 데도 그 중요한 원인이 있다.¹³⁸⁾ 향후 국경을 초월한 한·중·일 역사학자들의 공동의 ‘학계’가 형성되어 동북아시아 고대 사회의 진정한 참 모습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138) 이성규, 「중국사학계에서 본 고조선」, pp.21-28 참고.

【요약문】

『史記』·『漢書』注文의 ‘古朝鮮’ 관련 기사

尹 龍 九(인천도시공사)

1. 머리말

『사기』『한서』의 고조선과 예맥 등에 관한 기록은 한국고대사 이해에 필수적이거나, 내용을 검증할 다른 기록이 없는 것이 한계이다. 이런 점에서『사기』『한서』가 成書된 이후 이루어진 여러 注釋은 관련 사료 이해에 기여해 왔으며 ‘고조선’ 관련 注文도 예외가 아니었다. 오히려 ‘고조선’ 관련 注文은 고조선과 한군현 위치 논쟁을 장기간 지속시킨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사기』『한서』의 注文은 해당 시기 학문과 사서에 대한 이해를 반영하는 것이지만, 현재 傳存하는 기록은 注音와 釋義의 원 注釋이 아니라는 것이 문제이다. 곧 筆寫와 주문의 集錄 과정에서 원문을 대조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라, 轉錄이 대부분이었고 자연 字句의 節錄과 改文은 불가피한 것이었다.

그러므로『사기』『한서』의 ‘고조선’ 관련 注文에 대하여는 논쟁을 확대하기 보다는 注釋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료의 輯錄·校勘 등 기초적인 작업을 통한 개별 注文에 대한 이해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2. 『史記』『漢書』注의 성립

『사기』『한서』는 성서 과정에서 司馬遷과 班固 단독으로 저술된 것이 아니었다. 게다가 『사기』는 많은 부분이 망실되어 補篇으로 채워졌다. 魏晉 이후 종이의 보급으로 고전에 대한 수요는 급증하였고, 『사기』『한서』에 대한 지식은 일종의 상식으로 자리 잡으면서 독서층이 형성되기에 이르렀다. 『사기』『한서』에 대한 注釋은 이러한 시대 분위기 속에서 성립되었다. 私撰『사기』에 비해 漢 건국의 정통성을 정립한 관찬 사서인 『한서』에 대한 관심과 주석이 성행하였다.

顏師古의 漢書注 이전에 이미 40여 家の 한서 주석이 행해졌다. 劉宋代 裴駟의 『史記集解』와 『史記索隱』·『史記正義』등 이른바 사기 三家注의 대부분의 내용은 『한서』와 이에 대한 풍성한 注釋을 토대로 한 것이다. 말미에 보는 『사기』의 ‘古朝鮮’ 관련 注文 또한 예외가 아니다. 徐廣의 『史記音義』의 내용이 裴駟의 『史記集解』에 인용되어 있으나, 대부분은 服虔과 應劭 등 후한 이래 한서 주석가의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

『사기』주석서를 대표하는 三家注가 본문의 해당 부분에 합각된 注本은 북송대 이

루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한서』주석은 서진대 臣瓚에 의하여 집록이 시도되었고, 이를 본문 기사에 채워 넣은 注本은 蔡模『漢書音義』에서 비롯되었다. 이후 안사고의 注本이 唐代이후 보편화 될 때까지 수많은 주석서에서 여러 주문들이 集錄되었다. 현존 안사고 注本은 바로 後漢이래 여러 주석서의 내용이 복합되어 있는 것이다. 또한 안사고의『漢書敍例』에서 應劭의 주석에는 臣瓚을 비롯한 여러 주석가의 것이 잘못 섞여 있다고 말한 대로 현존 주문이 본래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이는 앞서 언급한 대로『사기』『한서』의 注文은 筆寫와 集錄 과정에서 원문을 대조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라, 轉錄이 대부분이었고 자연 字句의 節錄과 改文으로 매우 심각한 상태이다. 북송이후 간행된『사기』와『한서』의 판본 마다 주문의 내용이 다른 것은 이 때문이다. 따라서『사기』와『한서』의 주문은 해당 내용과 유사한 기사와 대조하여 가능한 원 상태를 복원하여야 이용 가능한 자료로 여겨진다.

3. ‘古朝鮮’ 관련 注文의 輯錄

『史記』三家注와 顏師古『漢書注』를 통해 ‘고조선’ 관련 주문을 정리한 것이【표1】과【표2】이다. ‘고조선’ 관련 주문이라 할 때 발췌 기준이 모호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집록된 주문은 완전한 것이 아니며, ‘고조선’ 관련에서 제외할 것도 적지 않은 편이나, 전체적인 주문의 양상을 보기 위해 포함된 것도 있음을 밝혀 둔다. 또한 해당 주문과 같은 내용이 『후한서』등 다른 문헌의 내용과 비교 등 교감 작업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사기』의 주문은『史記集解』17회,『史記索隱』이 26회,『史記正義』가 13회로 나타난다.『史記集解』에는 徐廣의『史記音義』가 인용되어 있으나 대부분 諸家の 漢書注로 채워져 있다. 徐廣의『史記音義』는 주로 注音에 관한 것이 많은데, 당시『사기』판본의 이동이 심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된다.『史記索隱』은 諸家の 漢書注가 인용되어 있지만, 그 보다는 漢書 기록과의 대조 및 讀者의 이해를 돕기 위한 문장의 선후 관계에 대한 설명이 대부분이다. 이 과정에서 기존 주석을 改文한 내용이 눈에 보이는데 이 경우 원 주문과의 구별이 쉽지 않다.『史記正義』는 당대 편찬된『括地志』등 동 시대 사료를 활용하고 있어

『史記集解』와『史記索隱』의 주문과 차별을 보이고 있다.

반면『한서』의 주문은 顏師古가 44회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 밖에 應劭가 8회로 그 다음이고 臣瓚·如淳·晉灼이 각각 3회, 服虔·孟康·張晏이 2회로 나타난다. 顏師古의 주는『朝鮮傳』에 집중되어 있는데, 새로운 사실을 전하기 보다는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전후문맥을 설명하는 주문이 대부분이다. 應劭·臣瓚·張晏 등 漢書 주석가의 것은 本紀와 地理志에 주로 수록되어 있다. 應劭 주문의 경우 유사한 字句가『사기』『한서』여러 곳에서 산견되는 바 이의 대교 교감이 요구된다.

4. ‘古朝鮮’ 관련 注文의 검토

이처럼『사기』『한서』의 ‘고조선’ 관련 주문은 원 주석의 원문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다. 더구나 應劭의 注文은 顏師古의 지적처럼 응소의 것이 아닌 기록이 혼재해 있을 수 있다. 玄菟郡의 원주지에 관한 응소의 모순된 기록은 이 문제를 생각하는데 참고할 부분이다. 아무튼 ‘고조선’ 관련 주문의 이해와 연구를 위해서는 주문의 성립과 전존과정을 염두에 두고 字句에 대한 복원을 거쳐서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발표를 통하여 새롭게 제기할 수 있는 내용을 몇 가지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臣瓚이 인용한 ‘茂陵書’(혹은 ‘茂陵中書’)는 武帝代 管制와 郡의 개괄적 수치를 기재한 簡牘文書로 추정되고 실제 兩漢交替期 赤眉亂 때 도굴된 자료로 추정되고 있다. 【표2】臣瓚注①의 사료적 가치를 높여주는 것이다.

둘째, 위만조선 멸망기 漢으로 투항을 주도한 ‘朝鮮相 路人’에 대하여『史記索隱』에 ‘漁陽縣人’이라 한 표현을 ‘漁陽 (路縣)人’에 근거한 것이 아닌가 한다. 應劭의 주문으로 기재한 판본이 있으나,『史記索隱』찬자의 설명조의 표현일 가능성이 높다. 어양군에는 전한대 路縣, 후한대에는 潞縣이 있었다. 武帝代 대외정복 활동을 벌인 장군 路博德은 어양군이 포함된 平州人으로 알려져 있다.『史記索隱』찬자는 ‘路人’의 路를 姓氏로 파악한 듯 하다.

셋째, 현토군을 본래 眞番國으로 표사한 『史記索隱』⑤, ‘古眞番朝鮮胡國’ 漢書 應劭③의 주문은 주문의 轉錄과 節文 과정에서 이루어진 改文으로 빚어진 오류로 생각된다. 본래 응소의 注文 “古眞番朝鮮胡國”은 漢書 地理志(師古⑱) “玄菟樂浪 武帝時置 皆朝鮮濊貉句驪蠻夷”에서 추론한 표기로 생각된다. 응소의 주문은 다시 전반부만 따서『史記索隱』⑤와 顏師古 注文④는 그 후반부를 따서 각각 節文된 것이다. 이른바 ‘眞番郡 在北說’은 단지 주문의 전존과정 상에서이루어진 오류의 하나였다.

5. 맺음말

【表1】『史記』三家注의 ‘古朝鮮’ 관련 기사

순번	‘古朝鮮’ 관련 注文	注文 出處
[集解] ①	北山戎發息慎 集解 鄭玄曰 息慎, 或謂之肅慎, 東北夷.	五帝本紀 1 : 43 卒
[正義] ①	東長鳥夷 正義 注鳥 或作鳥 括地志云 百濟國西南海中有大島十五所 皆置邑 有人居 屬百濟. 又倭國西南大海中島居 凡百餘小國 在京南萬三千五百里 按 武后改倭國為日本國.	五帝本紀 1 : 44 卒
[集解] ② [正義] ②	鳥夷衣服 集解 鄭玄曰 鳥夷東北之民 搏食鳥獸者... 正義 括地志云 靺鞨國古肅慎也. 在京東北萬里...	夏本紀 2 : 52 卒
[集解] ③ [索隱] ①	夾右碣石 入于海 集解 徐廣曰 海一作河 索隱 地理志云 碣石山在北平驪城縣西南 太康地理志云 樂浪遼城縣有碣石山 長城所起. 又水經云 在遼西臨渝縣南水中, 蓋碣石山有二 此云 夾右碣石入於海 當非北平之碣石.	夏本紀 2 : 54 卒
[正義] ③	地東至海暨朝鮮 正義 暨 其記反. 朝音潮 鮮音仙. 海謂渤海 南至揚蘇台等州之東海也. 暨 及也. 東北朝鮮國. 括地志云 高麗治平壤城 本漢樂浪郡王險城 即古朝鮮也.	秦始皇本紀 6 : 233 卒
[索隱] ② [集解] ④	平州...侯啖元年 索隱 表在梁父 集解 如淳曰 啖音頰	建元以來侯者年表 8 : 1054 卒
[索隱] ③~⑥	菽苴 索隱 音狄蛆 表在勃海 瀆清 索隱 表在齊 瀆音獲 水名 在齊. 又音乎卦反 幾 索隱 音機 表在河東 涅陽 索隱 表在齊 志屬南陽	建元以來侯者年表 8 : 1055~1057 卒
[正義] ⑥	南越朝鮮 正義 潮仙二音 高驪平壤城本漢樂浪郡王險城, 即古朝鮮地. 時朝鮮王滿據之也.	律書 3 : 1242 卒
[索隱] ⑦	朝鮮之拔 星莠于河戎 索隱 案 天文志 武帝元封之中 星莠于河戎. 其占曰 南戎為越門 北戎為胡門. 其後漢兵擊拔朝鮮 以為樂浪玄菟郡 朝鮮在海中 越之象 居北方 胡之域也. 其河戎即南河, 北河也.	天官書 5 : 1348 卒
[索隱] ⑧	彭吳賈滅朝鮮 置滄海之郡 索隱 彭吳賈 人姓名 始開其道而滅之. 朝鮮, 番名.	平準書 8 : 1431 卒
[索隱] ⑨	於是武王乃封箕子於朝鮮 索隱 朝鮮 音潮仙 地因水為名.	宋微子世家 8 : 1620 卒

순번	‘古朝鮮’ 관련 注文	注文 出處
[集解] ⑤ [索隱] ⑩ [正義] ⑦	東見倉海君 集解 如淳曰 秦郡縣 無倉海 或曰 東夷君長。 索隱 姚察 以武帝時 東夷濊君降為倉海郡 或因以名 蓋得其近耳。 正義 漢書武帝紀云 元朔元年 東夷濊君南閩等降 為倉海郡 今濊濊國得之。太史公修史時 已降為郡 自書之。括地志云 濊濊在高麗南 新羅北 東至大海西。	留侯世家 25 : 2034 卒
[索隱] ⑪	燕東有朝鮮遼東 索隱 朝鮮 音潮仙 二水名。	蘇秦列傳 9 : 2243 卒
[索隱] ⑫	而破并代以臨胡貉 索隱 案 貉即濊也。音亡格反	匈奴列傳 50 : 2886 卒
[正義] ⑧	東拔穢貉·朝鮮以為郡 正義 即玄菟樂浪二郡	匈奴列傳 50 : 2886 卒
[集解] ⑥ [索隱] ⑬	朝鮮列傳 第五十五 集解 張晏曰 朝鮮有濕水洌水汕水, 三水合為洌水。疑樂浪朝鮮 取名於此也。 索隱 案 朝音潮 直驕反。鮮音仙 以有汕水, 故名也。汕一音訕。	朝鮮列傳 55 : 2985 卒
[正義] ⑨	朝鮮 正義 潮仙 二音 括地志云 高驪都平壤城 本漢樂浪郡王險城。又古云, 朝鮮地也。	朝鮮列傳 55 : 2985 卒
[索隱] ⑭	滿者 故燕人也 索隱 案漢書 滿燕人 姓衛。擊破朝鮮王, 而自王之。	朝鮮列傳 55 : 2985 卒
[集解] ⑦ [索隱] ⑮	自始全燕時 嘗略屬真番朝鮮 集解 徐廣曰 一作莫, 遼東有番汗縣。番音普寒反。 索隱 始全燕時 謂六國燕方全盛之時 如淳云, 常略二國以屬已也。應劭云 玄菟本真番國。徐氏云 遼東有番汗縣者, 據地理志而知也。	朝鮮列傳 55 : 2985 卒
[集解] ⑧ [正義] ⑩	溟水為界 集解 駟案 漢書音義曰 溟音, 傍沛反。 正義 地理志云 溟水出遼東塞外 西南至樂浪縣 西入海 溟 普大反。	朝鮮列傳 55 : 2985 卒
[索隱] ⑯	秦故空地上下鄣 索隱 案地理志, 樂浪有雲鄣。	朝鮮列傳 55 : 2985 卒
[索隱] ⑰	都王險 集解 徐廣曰 昌黎有險瀆縣也。 索隱 韋昭云 古邑名 應劭注地理志云 遼東有險瀆縣 朝鮮王舊都。璜云 王險城 在樂浪郡溟水之東也。 『史記索隱』 韋昭云 古邑名。徐廣曰 昌黎有險瀆縣。應劭注地理志遼東有險瀆縣, 朝鮮王舊都。臣璜云, 王險城在樂浪郡溟水之東也。	朝鮮列傳 55 : 2986 卒
[索隱] ⑱	真番臨屯 皆來服屬 索隱 東方小國 後以為郡	朝鮮列傳 55 : 2986 卒
[正義] ⑪	方數千里 正義 括地志云 朝鮮高麗濊東沃沮五國之地 國東西千三百里 南北二千里 在京師東 東至大海四百里 北至營州界九百二十里 南至新羅國六百里 北至靺鞨國千四百里	朝鮮列傳 55 : 2986 卒
[正義] ⑫	朝鮮禪王長 正義 顏師古云 長者禪王名也。送何至溟水, 何因刺殺也。按 禪王乃將士長, 恐顏非也。	朝鮮列傳 55 : 2987 卒

순번	‘古朝鮮’ 관련 注文	注文 出處
[集解] ⑨ [索隱] ⑭	朝鮮相路人·相韓陰·尼谿相參·將軍王峽 集解 駟案 漢書音義曰 凡五人也. 戎狄不知官紀, 故皆稱相. 峽音頰 索隱 路人 漁陽縣人. 如淳云 相 其國相 路人 名也. 峽 一音協 『史記索隱』 應劭云 凡五人 戎狄不知官紀 故皆稱相也. 路人 漁陽縣人. 如淳云 相 其國宰相 路人 名也.	朝鮮列傳 55 : 2989쪽
[集解] ⑩ [索隱] ⑳	右渠子長 集解 徐廣曰 表云 長陌 漢書表云 長陌 音各 索隱 陌音 姑落反	朝鮮列傳 55 : 2989쪽
[集解] ⑨	朝鮮為四郡 集解 駟案 真番臨屯樂浪玄菟也.	朝鮮列傳 55 : 2989쪽
[集解] ⑪-⑮ [索隱] (21-23)	濶濶侯 集解 韋昭曰 屬齊. 索隱 顧氏 濶音獲. 菽菑侯 集解 韋昭曰 屬渤海. 索隱 菽音秋. 菑音 子餘反. 平州侯 集解 韋昭曰 屬梁父 幾侯 集解 韋昭曰 屬河東. 索隱 幾 縣名. 温陽侯 集解 韋昭曰 屬齊	朝鮮列傳 55 : 2989쪽
[索隱] 24	列口 索隱 蘇林云 列口 縣名. 度海先得之.	朝鮮列傳 55 : 2989쪽
[集解] ⑯ [索隱] 25	荀彘所縛 集解 徐廣曰 元封四年 征朝鮮還 贖為庶人. 索隱 案漢書云 與左將軍荀彘俱繫朝鮮為彘所縛還 免為庶人 病死	酷吏列傳 62 : 3149쪽
[索隱] 26 [正義] ⑬	東綰穢貉朝鮮真番之利 索隱 綰者 綰統其要津 則上云臨者 謂却背之也 正義 番音潘	貨殖列傳 69 : 3265쪽
[集解] ⑰	以集真藩 集解 徐廣曰 一作莫 藩音 普寒反.	太史公自序 70 : 3317

【表2】『漢書』顏師古注의 ‘古朝鮮’ 관련 기사

순번	‘古朝鮮’ 관련 注文	注文 出處
[服虔] ① [晋灼] ① [師古] ①	東夷葦君南閭等 口二十八萬人降 服虔曰 穢狛在辰韓之北 高句麗沃沮之南 東窮于大海 晋灼曰 葦 古穢字 師古曰 南閭者 葦君之名	武帝紀 元朔元年 秋
[師古] ②	右渠降 師古曰 右渠 朝鮮王名	武帝紀 元封3年 夏
[臣瓚] ① [師古] ③	以其地為樂浪臨屯玄菟眞番郡 臣瓚曰 茂陵書 臨屯郡治 東曉縣 去長安六千一百三十八里 十五縣. 眞番郡治 靑縣 去長安七千六百四十里 十五縣 師古曰 樂音洛 浪音郎 番音普安反 曉音弋支反 靑音丈甲反	武帝紀 元封3年 夏
[師古] ④	罷儋耳眞番郡 師古曰 儋耳本南越地 眞番本朝鮮地 皆武帝所置也. 番音普安反.	昭帝紀 始元5年 6月
[師古] ⑤	彭吳穿穢狛朝鮮置滄海郡 師古曰 彭吳 人姓名也. 本皆荒梗 始開通之也. 故言穿也.	殖貨志 下
[師古] ⑦⑧	先是兩將軍征朝鮮 師古曰 二年樓船將軍楊僕, 左將軍荀彘 將應募罪人擊之 開三郡 師古曰 武紀云 以其地為樂浪臨屯玄菟眞番郡, 是四郡也. 而此云三, 蓋傳寫志者誤.	五行志 中之下
[應劭] ① [臣瓚] ② [師古] ⑨	險瀆 應劭曰 朝鮮王滿都也. 依水險, 故曰險瀆. 臣瓚曰 王險城 在樂浪郡溟水之東, 此自是險瀆也. 師古曰 瓚說是也. 溟音普大反.	地理志 遼東郡
[應劭] ② [師古] ⑩	番汗 沛水出塞外 西南入海 應劭曰 汗水出塞外 西南入海. 番音盤 師古曰 沛音普盖反, 汗音寒.	地理志 遼東郡
[應劭] ③	玄菟郡 武帝元封四年開 高句驪 莽曰下句驪. 屬幽州. 應劭曰 故眞番朝鮮胡國.	地理志 玄菟郡
[應劭] ④	高句驪 遼山遼水所出, 西南至遼隊, 入大遼水. 又有南蘇水, 西北經塞外. 應劭曰 故句驪胡.	地理志 玄菟郡
[應劭] ⑤ [師古] ⑪	樂浪郡 武帝元封三年開 莽曰樂鮮 屬幽州. 應劭曰 故朝鮮國也. 師古曰 樂音洛, 浪音狼.	地理志 樂浪郡
[應劭] ⑥⑦ [孟康] ①② [師古] ⑫-⑮ [服虔] ⑯	朝鮮 應劭曰 武王封箕子於朝鮮 謂邯 孟康曰 謂音男 師古曰 謂音乃甘反 邯音酣 溟水 水西至增地入海 莽曰樂鮮亭 師古曰 溟音普大反 黏蟬 服虔曰 蟬音提 渾彌 師古曰 渾音下昆反. 東曉 應劭曰 音移 蠶台 師古曰 台音胎 邪頭昧 孟康曰 昧音妹	地理志 樂浪郡

순번	‘古朝鮮’ 관련 注文	注文 出處
[師古] 17	玄菟樂浪 武帝時置 皆朝鮮濊貉句驪蠻夷 師古曰 濊音穢 字或作蕞 其音同	地理志 燕地
[如淳] ① [臣瓚] ③ [師古] 18	夫樂浪海中有倭人... 如淳曰 如墨委面 在帶方東南萬里 臣瓚曰 倭是國名 不謂用墨 故謂之委也. 師古曰 如淳云 如墨委面 蓋音委字耳, 此音非也. 倭音一戈反. 今猶有倭國 魏略云 倭在帶方東南大海中 依山島為國 度海千里 復有國 皆倭種	地理志 燕地
[師古] 19	東曉令延年賦七篇 師古曰 東曉 縣名 曉音移	藝文志
[晉灼] ② [如淳] ② [師古] 20	東見倉海君 晉灼曰 海神也 如淳曰 東夷君長也 師古曰 二說並非 蓋當時賢者之號也. 良既見之, 因而求得力士.	張良傳
[張晏] ① [師古] 21	略蕞州 建城邑 張晏曰 蕞 貉也. 師古曰 蕞與穢同	嚴安傳
[張晏] ② [師古] 22	東定蕞貉朝鮮 張晏曰 蕞也 貉也. 在遼東之東. 師古曰 蕞字與穢字同 貉音莫客反	夏侯勝傳
[師古] 23-39	自始燕時嘗略屬真番朝鮮 師古曰 戰國時 燕國略得此地. 為置吏築障 師古曰 障, 所以自障蔽也. 音之亮反. 溟水為界 師古曰 溟水在樂浪縣 音普蓋反. 稍役屬真番朝鮮蠻夷及故燕齊亡在者王之 師古曰 燕齊之人亡居此地. 及真番朝鮮蠻夷皆屬滿也... 傳子至孫右渠 師古曰 滿死傳子 子死傳孫 右渠者 其孫名也.... 漢亡人滋多 師古曰 滋益也. 又未嘗入見 師古曰 不朝見天子也. 真番辰國欲上書見天子 又雍闕弗通 師古曰 辰謂辰韓之國也. 雍, 讀曰壅. 元封二年 漢使涉何譙諭右渠 終不肯奉詔 師古曰 譙責讓也. 音才笑反. 何去至界臨溟水, 使馱刺殺送何者朝鮮裨王長 師古曰 長者, 裨王名也. 送何至溟水 何因刺殺之.... 多還走坐法斬 師古曰 於法合斬.... 及餽軍糧 師古曰 餽 亦饋字也.... 左將軍素侍中幸 師古曰 親幸於天子.... 私約降樓船 師古曰 與樓船為要約而請降.... 左將軍心意樓船前有失軍罪 師古曰 意, 疑也.... 左將軍相誤卒沮約 師古曰 顯與專同. 卒, 終也. 沮, 壞也.... 左將軍戲下執縛樓船將軍 師古曰 戲讀與磨同	朝鮮傳
[應劭] ⑧ [師古] 40	朝鮮相路人相韓陶尼谿相參將軍王峽 應劭曰 凡五人也. 戎狄不知官紀. 故皆稱相 師古曰 相路人一也, 相韓陶二也, 尼谿相參三也, 將軍王峽四也. 應氏乃云五人, 誤讀為句. 謂尼谿人名, 失之矣. 不當尋下文乎. 峽音頰	朝鮮傳
[如淳] ③ [師古] 41	戰益急, 恐不能與 如淳曰 不能與左將軍相持也. 師古曰 此說非也, 不能與猶言不如也.	朝鮮傳
[師古] 42,43	左將軍使右渠子長 師古曰 右渠之子, 名長. 降相路人子最 師古曰 相路人, 前已降漢而死於道, 故謂之降相. 最者, 其子名.	朝鮮傳
[師古] 44 [晉灼] ③	封參為瀟清侯 師古曰 瀟音獲. 陶為秋菑侯 晉灼曰, 功臣表秋菑, 屬勃海師古曰 菑音子餘反.	朝鮮傳
[蘇林] ①	兵至列口 當待左將軍 蘇林曰 列口, 縣名也. 度海先得之	朝鮮傳

【 參考文獻 】

- 尹龍九, 1998 「3세기 이전 中國史書에 나타난 韓國古代史像」 『韓國古代史研究』 14, pp.115~129.
- 徐元南, 2003 「漢-唐間《史記》注釋에 대한 고찰」 『中國語文學論集』 23, 중국어문학연구회, pp.565~590
- 閔厚基, 2006 「《漢書注》성립에 미친 家學의 성격과 영향」 『東方學志』 133,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pp.243~269.
- 吉川忠夫, 1979 「裴駰의 史記集解」 『加賀博士退官記念 中國文史哲學論集』 東京, 講談社
- 吉川忠夫, 1979 「顔師古의 《漢書》注」 『東方學報』 51, 京都大學 人文科學研究所, pp.223~319
- 井上秀雄, 1982 「《史記》·《漢書》의 東夷王者觀」 『朝鮮學報』 103, pp.1~37.
- 水澤利忠, 1994 『史記正義の研究』 東京, 汲古書院
- 遠藤由里子, 1994 「裴駰《史記集解》に引かれる《漢書音義》(一)」 『梅光女学院大学 論集』 27, pp.109~120
- 池田英雄, 1995 『史記學 50年-日・中《史記》研究の動向(1945-95年)』 東京, 明德出版社
- 遠藤由里子, 1996 「裴駰《史記集解》に引かれる《漢書音義》(二)」 『梅光女学院大学 論集』 29, pp.82~92.
- 遠藤由里子, 1997 「裴駰《史記集解》に引かれる《漢書音義》(三)」 『梅光女学院大学 論集』 30, pp.1~11
- 遠藤由里子, 1999 「裴駰《史記集解》に引かれる《漢書音義》(四)」 『梅光女学院大学 論集』 32, pp.1~11
- 吉川忠夫, 1999 「汲冢書發見前後」 『東方學報』 71, 京都大學 人文科學研究所, pp.693~132
- 渡邊義浩・池田雅典・洲脇武志, 2004 「《後漢書》李賢注に引く『前書音義』について」 『人文科学』 9, 大東文化大学, pp.284 - 268
- 洲脇武志, 2006 「《後漢書》李賢注所引「前書音義」考」 『大東文化大学漢学会誌』 45, pp.85~111
- 王鑫義・大櫛敦弘・遠藤隆俊, 2006 「顔遊秦『漢書決疑』佚文と顔師古『漢書注』との比較検討」 『高知大学学術研究報告』(人文科学編) 55, pp.47~59
- 洲脇武志, 2011 『《漢書》注釋書研究—顔師古注を中心に』 大東文化大学 文学研究科 博士學位論文
- 池田昌広, 2013 「唐代における《漢書》顔師古本の普及について—『史記索隱』・『史記正義』を例にして」 『京都産業大学論集』(人文科学系列) 46, pp.29~47
- 柿沼陽平, 2013 「《漢書》をめぐる読書行為と読者共同体—顔師古注以後を中心に」(榎本淳一編, 『古代中国・日本における学術と支配』 同成社) pp.75~101
- 柿沼陽平, 2014 「《漢書》をめぐる読書行為と読者共同体—顔師古注以前を中心に」 『帝京史學』 29, 帝京大學文學部史學科, pp.29~47
- 楊守敬, 1905 「《漢書古注輯存》序」 ; 謝承仁 編, 1997 『楊守敬集』 5, 湖北人民出版社, p.1177
- 楊守敬, 1908 『漢書二十三家注鈔』(手稿本); 謝承仁 編, 1997 『楊守敬集』 6, 湖北人民出版社, pp.481~1035
- 李步嘉, 1990 『韦昭《汉书音义》辑佚』 武汉大学出版社
- 华林甫, 1996 『史论应劭、圈称的地名学贡献』 『中州学刊』 1996-6, pp.134~138
- 楊 仙, 2000 「臣瓚《汉书音义》辑佚」 武汉大学 硕士学位论文
- 王智群, 2003 「二十年来颜师古《汉书注》研究述略」 『古籍整理研究学刊』 2003-4, pp.58~61
- 徐建委, 2003 「蔡谟《汉书音义》考索」 『古籍整理研究学刊』 2003-6, pp.45~48
- 胡继明, 2003 「《汉书》应劭注训诂研究」 『四川师范学院学报』(哲学社会科学版) 2003-3, pp.43~47
- 孙亚华, 2004 「杨守敬《汉书二十三家注钞·服虔》校补」 武汉大学 硕士学位论文
- 闫平凡, 2004 「杨守敬《汉书二十三家注钞·应劭》校补」 武汉大学 硕士学位论文
- 徐 珮, 2004 「杨守敬《汉书二十三家注钞·孟康》校补」 武汉大学 硕士学位论文

- 殷 榕, 2004 「苏林《汉书音义》辑佚」 武汉大学 硕士学位论文
- 崔 芸, 2004 「《史记》“三家注”研究」 暨南大学 硕士学位论文
- 李智耕, 2005 「《史记集解》研究」 南昌大学 硕士学位论文
- 周振风, 2005 「《史记》三家注研究」 南昌大学 硕士学位论文
- 李文涛, 2006 「杨守敬《汉书二十三家注钞·张晏》校补」 武汉大学 硕士学位论文
- 李步嘉, 2006 「论朱希祖的《巨瓚姓氏考》」 『清华大学学报』(哲学社会科学版) 2006-3, pp.70~74
- 闫平凡, 2007 「唐前《汉书》旧注辑佚与研究述评」 『中国史研究动态』 2007-7, pp.18~22
- 范景斌, 2007 「略论司马贞《史记索隐》对《史记》的驳正」 郑州大学 硕士学位论文
- 万献初, 2010 「颜师古《汉书注》音义研究综论」 『古籍整理研究学刊』 2010-6, pp.56~138
- 张海峰, 2011 「王先谦《汉书补注》研究」 山东大学 博士学位论文
- 辛德勇, 2012 「谈历史上首次出土的简牍文献-《茂陵书》」 『文史哲』 2012-4, 山东大学, pp.1~17
- 李 辉, 2012 「近十年来《史记》三家注研究综述」 『语文知识』 2012-1
- 龙向平, 2013 「《史记索隐》训诂内容研究」 西南大学 硕士学位论文
- 胡继明, 2013 「颜师古《汉书注》义训术语研究」 『西南大学学报』(社会科学版) 2013-6,
- 牛巧红, 2013 「司马贞《史记索隐》研究」 郑州大学 博士学位论文
- 梁 健, 2013 「如淳《汉书》注引律注史辑考」 『许昌学院学报』 2013-4, pp.79~85
- 刘治立, 2013 「史注传统下的“汉书学”」 『信阳师范学院学报』(哲学社会科学版) 2013-4, pp.122~128
- 胡俊俊·胡琼, 2013 「《汉书》如淳注辑佚」 『广东技术师范学院学报』 2013-8, pp.93~98
- 万献初, 2013 「服虔、应劭《汉书音义》音切考辨」 『古汉语研究』 2013-3, pp.26~36
- 楊守敬, 1901 「王險城考」 『晦明軒考』(自刻本); 謝承仁 編, 1998 『楊守敬集』 5, 湖北人民出版社, p.1139
- 楊守敬, 1901 「碣石考」 『晦明軒考』(自刻本); 謝承仁 編, 위의 책, pp.1155~1156
- 楊守敬, 1901 「汪士鐸《漢志釋地》駁議」 『晦明軒考』(自刻本); 謝承仁 編, 위의 책, pp.1161~1165
- 陳建堂, 1997 「《晦明軒考》成書過程」 『楊守敬集』 5, 湖北人民出版社, pp.1111~1117
- 吴宏岐·韩虎泰, 2013 「汉代西南之“徼”与“徼外”地理概念考论」 『四川师范大学学报』(社会科学版) 2013-4, pp.163~168
- 楊 婷, 2014 「秦始皇及戰國秦長城研究綜述」 『中国史研究动态』 2014-2, pp.12~20

『史記』·『漢書』注文의 ‘古朝鮮’ 관련 기사

尹龍九(인천도시공사)

1. 머리말
2. 『史記』·『漢書』注의 성립
3. ‘古朝鮮’ 관련 注文의 輯錄
4. ‘古朝鮮’ 관련 注文의 검토
5. 맺음말

1. 머리말

『사기』·『한서』의 고조선과 예맥 등에 관한 기록은 한국고대사 이해에 필수적이거나, 내용을 검증할 다른 기록이 없는 것이 한계이다. 이런 점에서 『사기』·『한서』가 成書된 이후 이루어진 여러 注釋은 관련 사료 이해에 기여해 왔으며 ‘고조선’ 관련 注文도 예외가 아니었다. 한편으로는 ‘고조선’ 관련 注文들이 고조선의 중심지와 眞番郡 등 한사군의 위치 논쟁을 장기간 지속시킨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사기』·『한서』의 注文은 해당 시기 학문과 사서에 대한 이해를 반영하는 것이지만, 현재 傳存하는 기록은 注音과 釋義의 원 注釋 그대로가 아닌 것이 문제이다. 곧 筆寫와 주문의 集錄 과정에서 일일이 원문을 대조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라, 거듭된 轉錄과 集注 속에서 字句의 위치 변동, 節錄 및 改文은 불가피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사기』·『한서』의 ‘고조선’ 관련 注文에 대하여는 논쟁을 확대하기 보다는 注釋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료의 輯錄·校勘 등 기초적인 작업을 통한 개별 注文에 대한 이해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고조선과 漢郡縣에 대한 쟁점을 야기한 몇몇 주문에 대한 검토를 시도하였다.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는 것보다는 관련 사료를 정리하여 그간 논의해온 讀法이 타당하였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2. 『史記』·『漢書』注의 성립

『사기』·『한서』는 成書 과정에서 司馬遷과 班固 단독으로 저술된 것이 아니었다. 게다가 『사기』는 많은 부분이 망실되어 補篇으로 채워졌다. 魏晉 이후 종이의 보급으로 고전에 대한 수요는 급증하였고, 『사기』·『한서』에 대한 지식은 일종의 상식으로 자리 잡으면서 많은 독서층이 형성되기에 이르렀다.(柿沼陽平, 2013·2014) 『사기』·『한서』에 대한 注釋은 이러한 시대 분위기 속에서 성립되었다. 私撰 『사기』에 비해 漢 건국의 정통성을 정립한 관찬 사서인 『한서』에 대한 관심과 주석이 성행하였다.(吉川忠夫, 1979b)

顏師古의 漢書注 이전에 이미 50家の 한서 주석이 행해졌다.(劉治立, 2013 : 122~123) 『사

기』에 대한 劉宋代 裴駟(372~451)의 『史記集解』, 唐初 司馬貞의 『史記索隱』·開元年間に 성서된 張守節의 『史記正義』 등 이른바 『史記』 三家注도 『한서』 注釋을 토대로 작성된 것이었다. 【표2】에서 보는 『사기』 ‘古朝鮮’ 관련 注文 또한 예외가 아니다. 『사기』 주석의 기초를 제공한 徐廣(353~425)의 『史記音義』의 내용도 대부분은 服虔(?~192)·應劭(?~204) 등 후한 이래 『한서』 주석으로 채워져 있다.

『사기』 주석이 본문에 注本은 북송대들어 『史記集解』가 산입된 것을 시작으로 三家注가 모두 습득된 것은 명대 국가감본이 편찬되던 시기라고 한다.(張玉春, 2005) 반면 『한서』는 이 보다 앞선 東晉代 처음 注本이 만들어 졌다. 『한서』 주석에 대하여는 顏師古는 ‘漢書敍例’의 기록이 참고가 된다.

漢書舊無註解, ①唯服虔、應劭等各為音義, 自別施行。至典午中朝, 爰有②晉灼, 集為一部, 凡十四捲, 又頗以意增益, 時辯前人當否, 號曰漢書集註。屬永嘉喪亂, 金行播遷, 此書雖存, 不至江左。是以爰自東晉迄於梁、陳, 南方學者皆弗之見。③有臣瓚者, 莫知氏族, 考其時代, 亦在晉初, 又總集諸傢音義, 稍以己之所見, 續廁其末, 舉駁前說, 喜引竹書, 自謂甄明, 非無差爽, 凡二十四捲, 分為兩帙。今之集解音義則是其書, 而後人見者不知臣瓚所作, 乃謂之應劭等集解。王氏七志, 阮氏七錄, 並題雲然, 斯不審耳。學者又斟酌瓚姓, 附着安施, 或云傅族, 既無明文, 未足取信。④蔡謨全取臣瓚一部散入漢書, 自此以來始有註本。但意浮功淺, 不加隱括, 屬輯乖舛, 錯亂實多, 或乃離析本文, 隔其辭句, 穿鑿妄起。職此之由, 與未註之前大不同矣。謨亦有兩三處錯意, 然於學者竟無弘益。

위에 따르면 후한대 服虔·應劭의 注書는 별책으로 이루어 졌으며(‘自別施行’), 晉灼이 비로서 여러 주석을 모아 『漢書集註』(14권)가 만들어지고, 비슷한 시기 臣瓚이 諸家の 주석(音義)를 집대성 『漢書集解音義』(24권)를 내었으나 ‘應劭等’의 것으로 잘못 알려져 있음을 지적하였다. 나아가 蔡模에 의해 비로소 『한서』에 여러 주석을 散入한 注本이 만들어 졌지만 매우 졸렬한 것으로(‘意浮功淺’) 평가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王鳴盛(1722~1797) 『十七史商榷』(漢書 1, 『漢書敍例』)에서 지적한 대로 服虔에서 蔡模까지 안사고 이전 『漢書』 注釋의 흐름을 간명하게 정리하였다. ‘應劭等’의 것으로 알려진 주문(應劭, 『漢書集解音義』)이 실제 臣瓚의 所作이라는 지적은 현존 應劭注를 이해할 때 유념할 부분이다.

그러므로 현존 안사고 注本은 바로 後漢이래 여러 주석서의 내용이 복합되어 있는 것이다. 또한 應劭의 주석에는 臣瓚을 비롯한 여러 주석가의 것이 잘못 섞여 있다고 지적한대로 현존 주문이 본래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이는 諸家の 주석이 성립한 이후 전존과정에서 더욱 심화되었다. 현행 사기와 한서의 注文은 성립 이래 오랫동안 筆寫·集注·散入(附入)을 거치면서 轉錄·節文·改文이 이루어져 注釋 당시의 原文으로 보기 어렵다.

이는 앞서 언급한 대로 『사기』·『한서』의 注文은 筆寫와 集錄 과정에서 원문을 대조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라, 轉錄이 거듭되었기 때문이다. 북송이후 간행된 『사기』와 『한서』의 판본 마다 注文의 字句가 다른 것은 이 때문이다. 한편 集注의 경우 원 주석의 위치를 벗어나 附入되는 경우, 注文은 본래 의미와 다르게 해석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사기』와 『한서』의 주문은 해당 내용과 유사한 기사와 대조하여 가능한 원 상태를 복원하여야 이용 가능한 자료로 여겨진다. 이는 ‘고조선’ 관련 기사에서도 마찬가지이며 실제 注者나 내용의 신뢰도는 그리 높지 못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조선’ 관련 기사의 희소성 때문에 주목의 대상이 되어 왔다. 그러나 사료 상태를 감안하지 않은 것이며 이를 토대로 한 적극적인 해석은 사실과 다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3. ‘古朝鮮’ 관련 注文의 輯錄

『史記』三家注와 顏師古『漢書注』를 통해 ‘고조선’ 관련 주문을 정리한 것이 【표2】 과 【표3】이다. ‘고조선’ 관련 주문이라 할 때 발췌 기준이 모호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집록된 주문은 완전한 것이 아니며, ‘고조선’ 관련에서 제외할 것도 적지 않은 편이나, 전체적인 주문의 양상을 보기 위해 포함된 것도 있음을 밝혀 둔다. 또한 해당 주문과 같은 내용이 『後漢書』 등 다른 문헌의 내용과 비교 등 교감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사기』의 주문은 『史記集解』 17회, 『史記索隱』이 26회, 『史記正義』가 13회로 나타난다. 『史記集解』에는 徐廣(352~425)의 『史記音義』가 인용되어 있으나 대부분 諸家の 漢書注로 채워져 있다. 徐廣의 『史記音義』는 주로 注音에 관한 것이 많은데, 당시 『사기』 판본의 이동이 심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된다. 『史記索隱』은 諸家の 漢書注가 인용되어 있지만, 그 보다는 漢書 기록과의 대조 및 讀者의 이해를 돕기 위한 문장의 선후 관계에 대한 설명이 대부분이다. 이 과정에서 기존 주석을 改文한 내용이 눈에 보이는데 이 경우 원주문과의 구별이 쉽지 않다. 『史記正義』는 당대 편찬된 『括地志』 등 동 시대 사료를 활용하고 있어 『史記集解』와 『史記索隱』의 주문과 차별을 보이고 있다.

반면 『한서』의 주문은 顏師古가 44회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 밖에 應劭가 8회로 그 다음이고 臣瓚·如淳·晉灼이 각각 3회, 服虔·孟康·張晏이 2회로 나타난다. 顏師古의 주는 「朝鮮傳」에 집중되어 있는데, 새로운 사실을 전하기 보다는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전후문맥을 설명하는 주문이 대부분이다. 應劭·臣瓚·張晏 등 漢書 주석가의 것은 本紀와 地理志에 주로 수록되어 있다. 應劭 주문의 경우 유사한 字句가 『사기』·『한서』 여러 곳에서 산견되는 바 이의 대교 교감이 요구된다.

【表1】 顏師古 이전 『漢書』 ‘古朝鮮’ 注者

注者	生沒連帶	官職	著作(卷數)	注‘古朝鮮’ 回数	文獻
服虔	? ~192 後漢	尙書侍郎	漢書音訓(1)	2	顏師古, 漢書敍例
應劭	? ~204 後漢	泰山太守	漢書集解音義(24)	8	顏師古, 漢書敍例
蘇林	曹魏	博士	漢書注(30)	1	顏師古, 三國藝文志
如淳	曹魏	陳郡丞	漢書注(30)	3	姚振宗, 三國藝文志
孟康	曹魏	中書令	漢書音義(9)	2	姚振宗, 三國藝文志
韋昭	204~274 孫吳	博士祭酒	漢書音義(7)	1	隋書 33, 經籍志
張晏	曹魏		漢書注(30)	2	姚振宗, 三國藝文志
晉灼	西晉	尙書郎	漢書集注(13)	3	顏師古, 漢書敍例
臣瓚	西晉		漢書集解音義(24)	3	顏師古, 漢書敍例
蔡模	281~356 東晉	秘書監	漢書集解(115)	1	姚振宗, 隋書經籍志考證
徐廣	352~425 東晉	中散大夫	漢書音義	1	水經注·文選注 引

사기와 한서의 朝鮮列傳을 비롯하여 本紀와 地理志 등에 적지 않은 ‘고조선’ 관련 注文이 전하고 있다. 먼저 사기의 경우 ‘고조선’ 관련 주문은 조선열전에 집중되어 있다. 注文의 내용은 漢書와의 비교 또는 한서에 대한 注釋을 재인용한 것이 특징이다. 후한이래 당대까지 사기 보다는 한서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집중되었던 까닭이다. 한서는 조선열전과 지리지 요동군·현토군·낙랑군조에 주문이 집중되어 있다. 특히 지리지의 주문에는 사기에서 불

수 없는 새로운 내용들이 적지 않다. 반면 한서 조선열전은 사기의 그것과의 중복을 피하려는 때문인지 전거를 통한 새로운 보다는 字句의 전후 맥락을 알게 하는 설명조의 내용이 대부분이다. 이 과정에서 기존 注文을 토대로 한 改文이 많이 보이고 있다.

4. '古朝鮮' 관련 注文의 검토

1) 險瀆과 衛滿

『사기』 조선열전의 '都王險' 句 아래 다음과 같은 주문이 있다.

集解 徐廣曰 昌黎有險瀆縣也.

索隱 韋昭云 古邑名 應劭注地理志云 遼東有險瀆縣 朝鮮王舊都. 瓚云, 王險城, 在樂浪郡溟水之東也.

衛滿의 도성 王險城에 대하여 韋昭와 瓚(臣瓚)의 注는 이해가 되지만, 徐廣과 應劭의 주문은 王險과 險瀆이 수로의 험난한 지세를 형상화한 같은 지명을 의미한다는(千寬宇, 1989b) 설명이 없고서는 그 의미를 알기 어렵다. 다 아는 데로 이 사료는 창려와 요동 그리고 낙랑군에 '험독'(=왕험, 왕검)이 상징하는 고조선 도성의 흔적으로 이해하고 있다. 나아가 요서 창려현→요동 험독현→낙랑 조선현 순으로 고조선의 중심지가 이동하였다는 중요한 문헌 근거로 여겨지고 있으며 고고학 분야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실제 요동 험독현을 '朝鮮王舊都'라 명기하였고, 『한서』 지리지에는 '朝鮮王滿都'로 표기되어 있다. 이를 근거로 적어도 기원전 3세기 이전 전기 고조선의 중심지가 있었을 가능성이 제시되었다.(盧泰敦, 1990) 이를 비파형동검과 공반유물의 분포 양상이 이를 뒷받침하는 고고학적 자료로 제시되고 있다. 먼저 지리지 험독현에 대한 같은 注者의 주에 '朝鮮王滿都'와 '朝鮮王舊都' 달리 표기된 것은 '滿'과 '舊'의 字形이 유사성에서 오는 착오이거나, 아니면 낙랑의 왕검성에 도읍한 위만의 건국 전에 거주지라 표기하였을 수도 있다. 그러데 후한서와 자치통감에 제인용된 자구를 보면 '舊都' 보다는 '滿都'가 본래 注文일 가능성이 있다.

險瀆 史記曰 王險, 衛滿所都 (『後漢書』 33, 郡國志 遼東屬國)

都王險 韋昭曰 王險 故邑名. 應劭曰, 遼東有險瀆縣, 即滿所都, 因水險故曰險瀆

(『資治通鑑』 漢紀13, 孝武帝)

그런데 인용한 『사기』 三家注 合刻本이 아닌 單行의 『史記索隱』(55, 朝鮮列傳)에는 字句가 다른 형태로 나타난다.

①韋昭云 古邑名. ②徐廣曰 昌黎有險瀆縣. ③應劭注地理志遼東有險瀆縣, 朝鮮王舊都. ④臣瓚云, 王險城在樂浪郡溟水之東也.

合刻本에는 밀줄친 ②의 '徐廣曰 昌黎有險瀆縣' 이 빠져 있음을 볼 수 있다. 單行의 『史記索隱』은 毛氏汲古閣本(北宋慶元刊本の 重刻)으로 앞서 인용한 청대 합각본이 밀줄친 ②의 자구를 누락시켰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합각본의 『索隱』에 앞서 『集解』에 밀줄친 ②의 '徐廣曰 昌黎有險瀆縣'가 注記되어 있다. 그렇다면 합각본에서 밀줄친 ②를 뺀 것은 『集解』의 기록과 중복을 피하기 위함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史記索隱』의 주문은 구성상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통상 集注 할때는 注者의 시대순으로 나열하는 것이 상례인데 ①에서 ④는 孫吳→東晉→後漢→西晉 순으로 배열되어 있다. 특히 ②와 ③의 내용은 조선열전 왕검성에 직접 연결하기 어려운 내용이다. 요컨대 集注 과정에서 본래 朝鮮列傳의 注文이 아닌 것을 附入 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이 때문에 양수경은 응소의 주문을 집록하면서 이 부분은 응소의 주문이 아니라고 단언한 바 있다.

王險 遼東險瀆縣, 朝鮮王舊都 《史記·朝鮮列傳》注, 《漢書·朝鮮傳》師古刪. 此應氏注《地理志》語, 首句乃小司馬未審, 非應注也. (楊守敬, 1997 : 614)

이 처럼 밀출친 ②가 본래 위치가 아니라면 이를 요동의 험독, 낙랑의 왕험과 연결시킬 개연성은 크게 떨어진다. 徐廣(352~425)이 살았던 시대를 감안하면 대능하 조양일대로 비정되는 昌黎郡에 험독현이 나타난 것은 낙랑군과 요동군이 이 부근으로 僑置되면서 과생된 지명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앞서 언급한 요동 험독현에 衛滿의 所都가 있었다는 한서 지리지의 응소 주는 建國前 衛滿 集團의 거주지와 관련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朝鮮相 路人和 漁陽縣人

『사기』 조선열전에는 漢에 투항한 朝鮮의 지배층으로 朝鮮相路人, 相韓陰, 尼谿相參, 將軍王映을 列記하고 있다. 이 句 아래 다음과 같은 注文이 전해진다.

集解 駟案 漢書音義曰 凡五人也. 戎狄不知官紀, 故皆稱相. 映音頰
索隱 路人 漁陽縣人. 如淳云 相 其國相 路人名也. 映 一音協

먼저 裴駟의 『史記集解』에는 「漢書音義」를 인용하여 투항한 인물을 5인으로 보고 있지만, 이는 顏師古의 지적처럼 ‘尼谿相參’의 ‘尼谿’를 人名으로 誤讀한 잘못이다.(【表3】師古 40) 다시 『史記索隱』에는 (朝鮮相) 路人이 ‘漁陽縣人’이라 기재하고, 뒤이어 如淳의 주문을 나열하고 있다.

조선상 路人을 비롯하여 漢에 투항한 4인은 衛滿朝鮮의 지배층의 중추를 형성하고 있었음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이에 대해 三上次男은 尼谿相參은 토착민이지만 朝鮮相路人, 相韓陰, 將軍王映은 燕亡인으로 묘사된 衛滿과 마찬가지로 모두 중국계 유이민으로 보았다.(三上次男, 1966 : 9-10) 韓陰, 王映은 韓·王 등 漢姓을 사용한데서, 朝鮮相 路人은 ‘漁陽縣人’이라한 索隱의 기록을 근거로 삼았다.

앞서 살펴본 험독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史記』三家注 合刻本이 아닌 單行의 『史記索隱』에는 字句가 다른 형태로 나타난다.

應劭云 凡五人, 戎狄不知官紀 故皆稱相也. 路人 漁陽縣人. 如淳云 相, 其國宰相. 路人, 名也.

위의 기록은 合刻本 『史記集解』에 「漢書音義」와 ‘路人 漁陽縣人’라 한 『史記索隱』의 주문이 모두 應劭注 입을 보여주고 있다. 나아가 合刻本 『史記索隱』에 應劭 注文을 일부만

남긴 것은(節文) 『漢書音義』를 인용한 『史記集解』의 기록과 중복을 피한 것으로 여겨진다. 문제는 ‘路人 漁陽縣人’라 표현이 당초부터 應劭의 기록인가 하는 점이다. 『史記集解』와 顏師古注 『漢書』에도 ‘路人 漁陽縣人’이라 한 부분이 빠진 應劭 주문이 전하고 있기 때문이다.(【表3】 應劭⑧)

또 하나의 문제는 ‘路人, 漁陽縣人’이 字意에 대해서 이다. 兩漢代 漁陽郡은 있어도 漁陽縣은 없기 때문이다. 좀 더 적극적으로 살펴보면 ‘路人’은 漁陽郡 某縣人’으로 볼 수도 있다. 어양군에는 전한대 ‘路縣’, 후한대에는 ‘潞縣’이 있었다. 요컨대 ‘路人’은 漁陽郡 路縣人’라는 가정 하에 만들어진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路人 漁陽縣人’이 應劭의 注文으로 보기 어려운 점, 나아가 ‘路人, 漁陽縣人’이 漁陽郡 路縣名에 연유했다면 실제의 사실이 아닌 ‘典籍의 複合’에 의한 机上의 결과로 여겨진다.

3) 出土資料 ‘茂陵書’(茂陵中書)의 이해

『漢書』武帝紀 元封 3년조에는 朝鮮을 멸하고 ‘以其地為樂浪臨屯玄菟眞番郡’라 한 句 아래 서간대 臣瓚이 ‘茂陵書’를 인용하면서

臨屯郡治 東曉縣 去長安六千一百三十八里 十五縣. 眞番郡治 靑縣 去長安七千六百四十里 十五縣

진번군과 임둔군 설치 당시의 郡治, 長安으로부터의 거리, 관할 縣의 수치가 기재되어 있다. 특히 진번군이 임둔군보다 長安에서부터 1,500리나 더 멀다는 점에서 진번군의 위치 논란과 함께 사료의 불신을 야기하였음은 다 아는 일이다.

구체적인 수치에 앞서 ‘茂陵書’의 기록은 마치 통일된 서식에 의한 문서 투의 글이다. 실제 ‘茂陵書’라는 별권의 冊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시기엔가 전한 武帝의 무덤인 茂陵이 훼손되면서 출토(반출)된 의미로 쓰였다. 『漢書』와 여러 전적에 인용된 ‘茂陵書’를 달리 ‘茂陵中書’(혹은 ‘茂陵書中’)으로 표현하고 이를 반영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集解 瓚曰 茂陵中書 有武功爵 一級曰造士...十一級曰軍衛 此武帝所制 以寵軍功(『史記』 30, 平準書8)
茂陵書中 有武功爵 一級曰造士...(『通典』 11, 食貨 爵爵條)

集解...瓚曰 茂陵書 太子家令 秩八百石 (『史記』 101, 龜錯列傳)
臣瓚曰 茂陵中書 太子家令 秩八百石 (『漢書』 19上, 百官公卿表)

최근 辛德勇에 따르면 臣瓚이 인용한 ‘茂陵書’(혹은 ‘茂陵中書’)는 武帝代 管制와 郡의 개괄적 수치를 기재한 簡牘文書로 추정되고, 그 계기는 兩漢交替期 赤眉亂 때 도굴된 자료로 추정되고 있다.(辛德勇, 2012 : 1~17) 청말 姚振宗 또한 ‘茂陵書’는 赤眉亂에 편승한 亂民들에 의해 茂陵이 훼손되면서¹⁾ 반출된 것으로 이해한 바 있었다.(姚振宗, 『茂陵書』 『漢書藝文志拾補』 『二十五史補編』 2, 中華書局, p.1479)

진번군과 임둔군 등 ‘무릉서’로 인용된 漢郡은 武帝 사후 廢郡된 존재들로 이에 대한 표기는 역시 통일된 문서행정의 서식이 보이고 있다. 즉

1) 更始二年二月...赤眉遂燒長安宮室市里...害更始民, 饑餓相食死者, 數十萬, 長安為虛, 城中無人行. 宗廟園陵 皆發掘, 惟霸陵·杜陵完...(『漢書』 99, 王莽傳 下)

象郡	治臨塵	去長安萬七千五百里	
珠崖郡	治暉都	去長安七千三百二十四里	
儋耳		去長安七千三百六十八里	領縣五
沈黎郡	治柞都	去長安三千三百三十五里	領縣二十一
臨屯郡	治東曉縣	去長安六千一百三十八里	十五縣
真番郡	治霽縣	去長安七千六百四十里	十五縣

서진대 急塚書의 출토와 마찬가지로 茂陵書를 역사상 최초의 出土文字資料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여전히 이를 인용한 臣瓚의 성씨를 비롯한 구체적인 활동상이 불명이지만, 그가 인용한 ‘무릉서’의 제반 행정문서들은 그 사료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진번군의 군치 ‘霽縣’의 편린을 보여주는 다음 기록도 그 사료적 가치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霽 衆言聲 又丈甲切 霽陽部 在樂浪 又音颯 (『原本廣韻』 5, 四庫全書本)
 霽 斬狎切 地名 霽陽障 在樂浪 (『集韻』 10, 宋 丁度 等撰, 四庫全書本)
 霽 衆言聲 一曰霽陽 地名 在樂浪 (『集韻』 10, 宋 丁度 等撰, 四庫全書本)

즉 霽陽障(山城)과 霽陽部(小城堡)는 본래 眞番郡 霽(陽)縣 소속으로 眞番郡이 廢郡되면서 樂浪郡에 병합되었음을 확인해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4) 玄菟郡과 眞番國

玄菟郡을 본래 眞番國으로 표시한 『史記索隱』^⑮, ‘古眞番朝鮮胡國’ 漢書 應劭^⑯의 주문은 주문의 轉錄과 節文 과정에서 이루어진 改文으로 빚어진 오류로 생각된다.

眞番朝鮮 索隱 應劭云 玄菟本眞番國. 徐氏云 遼東有番汗縣者, 據地理志而知也. 史記 朝鮮列傳
 玄菟郡 武帝元封四年開 高句驪 莽曰下句驪. 屬幽州. 應劭曰 故眞番朝鮮胡國. 漢書 地理志 玄菟郡

본래 응소의 注文 “古眞番朝鮮胡國”은 漢書 地理志(師古^⑰) “玄菟樂浪 武帝時置 皆朝鮮濊貉 句驪蠻夷”에서 추론한 표기로 생각된다. 응소의 주문은 다시 전반부만 따서 『史記索隱』^⑮와 顏師古 注文^⑱는 그 후반부를 따서 각각 節文된 것이다. 이른바 ‘眞番郡 在北說’은 단지 주문의 전존과정 상에서 이루어진 오류의 하나였다.

玄菟樂浪 武帝時置 皆朝鮮濊貉 句驪蠻夷 漢書 地理志 燕地
 玄菟郡 武帝元封四年開 高句驪 莽曰下句驪. 屬幽州. 應劭曰 故眞番朝鮮胡國. 漢書 地理志 玄菟郡
 眞番朝鮮 索隱 應劭云 玄菟本眞番國. 徐氏云 遼東有番汗縣者, 據地理志而知也. 史記 朝鮮列傳
 罷儋耳眞番郡 師古曰 儋耳本南越地 眞番本朝鮮地 皆武帝所置也. 番音普安反. 漢書 昭帝紀 始元5年 6月

5. 맺음말

현행 『사기』와 『한서』의 注文은 성립 이래 오랫동안 筆寫·集注·散入(附入)을 거치면서 轉錄·節文·改文이 이루어져 注釋 당시의 原文으로 보기 어렵다. 이는 ‘고조선’ 관련 기사에서도 마찬가지이며 실제 注者나 내용의 신뢰도는 그리 높지 못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조선’ 관련 기사의 희소성 때문에 주목의 대상이 되어 왔다. 그러나 사료 상태를 감안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적극적인 해석은 사실과 다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도 『사기』와 『한서』의 ‘고조선’ 관련 주문은 사료의 희소성과 다양한 해석의 여지를 남기고 있는 내용이 적지 않아 사료로서의 중요성은 여전할 것이다. 누차 언급한대로 관련 注文의 전존 과정을 염두에 두고 판본별 字句 異同과 注者의 주석 방식을 고려하는 사료해석이 요구된다. 아울러 국내에 『사기』·『한서』 등 中國史書의 清代이전 古版本이 전무한 현실이 타개되어야 한다.

【表2】『史記』三家注의 ‘古朝鮮’ 관련 기사

순번	‘古朝鮮’ 관련 注文*	注文出處***
[集解] ①	北山戎發息慎 集解 鄭玄曰 息慎, 或謂之肅慎, 東北夷.	五帝本紀 1 : 43等
[正義] ①	東長島夷 正義 注鳥 或作島 括地志云 百濟國西南海中有大島十五所 皆置邑 有人居 屬百濟. 又倭國西南大海中島居 凡百餘小國 在京南萬三千五百里 按 武后改倭國為日本國.	五帝本紀 1 : 44等
[集解] ② [正義] ②	鳥夷皮服 集解 鄭玄曰 鳥夷東北之民 搏食鳥獸者... 正義 括地志云 靺鞨國古肅慎也. 在京東北萬里...	夏本紀 2 : 52等
[集解] ③ [索隱] ①	夾右碣石 入于海 集解 徐廣曰 海一作河 索隱 地理志云 碣石山在北平驪城縣西南 太康地理志云 樂浪遼城縣有碣石山 長城所起. 又水經云 在遼西臨渝縣南水中, 蓋碣石山有二 此云 夾右碣石入於海 當非北平之碣石.	夏本紀 2 : 54等
[正義] ③	地東至海暨朝鮮 正義 暨 其記反. 朝音潮 鮮音仙. 海謂渤海 南至揚蘇台等州之東海也. 暨 及也. 東北朝鮮國. 括地志云 高麗治平壤城 本漢樂浪郡王險城 即古朝鮮也.	秦始皇本紀 6 : 233等
[索隱] ② [集解] ④	平州...侯映元年 索隱 表在梁父 集解 如淳曰 映音頰	建元以來侯者年表 8 : 1054等
[索隱] ③~⑥	菽苴 索隱 音狄蛆 表在勃海 泄瀉 索隱 表在齊 泄音獲 水名 在齊. 又音乎卦反 幾 索隱 音機 表在河東 涅陽 索隱 表在齊 志屬南陽	建元以來侯者年表 8 : 1055~1057等
[正義] ⑥	南越朝鮮 正義 潮仙二音 高驪平壤城卒漢樂浪郡王險城, 即古朝鮮地. 時朝鮮王滿據之也.	律書 3 : 1242等
[索隱] ⑦	朝鮮之拔 星邪于河戎 索隱 案 天文志 武帝元封之中 星孛于河戎. 其占曰 南戎為越門 北戎為胡門. 其後漢兵擊拔朝鮮 以為樂浪玄菟郡 朝鮮在海中 越之象 居北方 胡之域也. 其河戎即南河, 北河也.	天官書 5 : 1348等
[索隱] ⑧	彭吳賈滅朝鮮 置滄海之郡 索隱 彭吳賈 人姓名 始開其道而滅之. 朝鮮, 番名.	平準書 8 : 1431等
[索隱] ⑨	於是武王乃封箕子於朝鮮 索隱 朝鮮 音潮仙 地因水為名.	宋微子世家 8 : 1620等

순번	'古朝鮮' 관련 注文	注文 出處
[集解] ⑤ [索隱] ⑩ [正義] ⑦	東見倉海君 集解 如淳曰 秦郡縣 無倉海 或曰 東夷君長。 索隱 姚察 以武帝時 東夷濊君降為倉海郡 或因以名 蓋得其近耳。 正義 漢書武帝紀云 元朔元年 東夷濊君南閩等降 為倉海郡 今猶濊國 得之。太史公修史時 已降為郡 自書之。括地志云 濊猶在高麗南 新羅北 東至大海西。	留侯世家 25 : 2034等
[索隱] ⑩	燕東有朝鮮遼東 索隱 朝鮮 音潮仙 二水名。	蘇秦列傳 9 : 2243等
[索隱] ⑫	而破并代以臨胡貉 索隱 案 貉即濊也。音亡格反	匈奴列傳 50 : 2886等
[正義] ⑧	東拔穢貉·朝鮮以為郡 正義 即玄菟樂浪二郡	匈奴列傳 50 : 2886等
[集解] ⑥ [索隱] ⑬	朝鮮列傳 第五十五 集解 張晏曰 朝鮮有濕水洌水汕水, 三水合為洌水, 疑樂浪朝鮮取名於此也。 索隱 案 朝音潮 直驕反。鮮音仙 以有汕水, 故名也。汕一音訕。	朝鮮列傳 55 : 2985等
[正義] ⑨	朝鮮 正義 潮仙二音。括地志云 高驪都平壤城, 本漢樂浪郡王險城。又古云 朝鮮地也。	朝鮮列傳 55 : 2985等
[索隱] ⑭	滿者 故燕人也 索隱 案漢書, 滿, 燕人, 姓衛, 擊破朝鮮王而自王之 **【史記索隱】按漢書, 滿, 燕人 姓衛, 擊破朝鮮而自王之	朝鮮列傳 55 : 2985等
[集解] ⑦ [索隱] ⑮	自始全燕時 嘗略屬真番朝鮮 集解 徐廣曰 一作莫, 遼東有番汗縣。番音普寒反。 索隱 始全燕時 謂六國燕方全盛之時 如淳云, 嘗略二國以屬已也。應劭 云 玄菟本真番國。徐氏云 遼東有番汗縣者, 據地理志而知也。 【史記索隱】如淳云 燕嘗略二國以屬已也。應劭云, 玄菟本真番國, 徐 氏據地理志而知也。番音潘。又音盤, 汗音寒。	朝鮮列傳 55 : 2985等
[集解] ⑧ [正義] ⑩	溟水為界 集解 駟案 漢書音義曰 溟音, 傍沛反。 正義 地理志云 溟水出遼東塞外 西南至樂浪縣 西入海 溟 普大反。 【史記索隱】溟音旁沛反	朝鮮列傳 55 : 2985等
[索隱] ⑯	秦故空地上下郛 索隱 案地理志, 樂浪有雲郛。	朝鮮列傳 55 : 2985等
[索隱] ⑰	都王險 集解 徐廣曰 昌黎有險瀆縣也。 索隱 韋昭云 古邑名 應劭注地理志云 遼東有險瀆縣 朝鮮王舊都。璜云 王險城 在樂浪郡溟水之東也。 【史記索隱】韋昭云 古邑名。徐廣曰 昌黎有險瀆縣。應劭注地理志遼東 有險瀆縣, 朝鮮王舊都。臣璜云, 險城在樂浪郡溟水之東也。	朝鮮列傳 55 : 2986等
[索隱] ⑱	真番臨屯 索隱 東方小國 後以為郡 【史記索隱】東夷小國 後以為郡	朝鮮列傳 55 : 2986等

순번	‘古朝鮮’ 관련 注文	注文 出處
[正義] ⑩	方數千里 正義 括地志云 朝鮮高麗獮狛東沃沮五國之地 國東西千三百里 南北二千里 在京師東 東至大海四百里 北至營州界九百二十里 南至新羅國六百里 北至靺鞨國千四百里	朝鮮列傳 55 : 2986쪽
[正義] ⑫	朝鮮裨王長 正義 顏師古云 長者裨王名也. 送何至涓水, 何因刺殺也. 按 裨王乃將士長, 恐顏非也.	朝鮮列傳 55 : 2987쪽
[集解] ⑨ [索隱] ⑭	朝鮮相路人·相韓陰·尼谿相參·將軍王映 集解 駟案 漢書音義曰 凡五人也. 戎狄不知官紀, 故皆稱相. 映音頰 索隱 路人 漁陽縣人. 如淳云 相 其國相 路人 名也. 映 一音協 【史記索隱】 應劭云 凡五人, 戎狄不知官紀 故皆稱相也. 路人 漁陽縣人. 如淳云 相, 其國宰相. 路人, 名也.	朝鮮列傳 55 : 2989쪽
[集解] ⑩ [索隱] ⑮	右渠子長 集解 徐廣曰 表云 長陌 漢書表云 長陌 音各 索隱 陌音 姑落反	朝鮮列傳 55 : 2989쪽
[集解] ⑨	朝鮮為四郡 集解 駟案 真番臨屯樂浪玄菟也.	朝鮮列傳 55 : 2989쪽
[集解] ⑩-⑮ [索隱] (21-23)	濞清侯 集解 韋昭曰 屬齊. 索隱 顧氏 濞音獲. 菽菑侯 集解 韋昭曰 屬渤海. 索隱 菽音秋. 菑音 子餘反. 平州侯 集解 韋昭曰 屬梁父 幾侯 集解 韋昭曰 屬河東. 索隱 幾 縣名. 溫陽侯 集解 韋昭曰 屬齊	朝鮮列傳 55 : 2989쪽
[索隱] 24	列口 索隱 蘇林云 列口 縣名. 度海先得之.	朝鮮列傳 55 : 2989쪽
[集解] ⑩ [索隱] 25	荀彘所縛 集解 徐廣曰 元封四年 征朝鮮還 曠為庶人. 索隱 案漢書云 與左將軍荀彘俱繫朝鮮為彘所縛還 免為庶人 病死	酷吏列傳 62 : 3149쪽
[索隱] 26 [正義] ⑬	東綰穢貉朝鮮真番之利 索隱 綰者 綰統其要津 則上云臨者 謂却背之也 正義 番音潘	貨殖列傳 69 : 3265쪽
[集解] ⑰	以集真藩 集解 徐廣曰 一作莫 藩音 普寒反.	太史公自序 70 : 3317

* 注文은 『史記』 三家注 合刻本인 武英殿本에 의함.

** 【史記索隱】 : 合刻本 「索隱」 과 字句 異同이 있는 毛氏汲古閣本 『史記索隱』 (北宋慶元刊本の 重刻)의 注文

*** 注文出處는 點校本 『史記』 (中華書局, 1959)의 해당 面數

【表3】『漢書』顏師古注의 ‘古朝鮮’ 관련 기사

순번	‘古朝鮮’ 관련 注文*	注文 出處***
[服虔] ① [晉灼] ① [師古] ①	東夷菟君南閩等 口二十八萬人降 服虔曰 穢貊在辰韓之北 高句麗沃沮之南 東窮于大海 晉灼曰 菟 古穢字 師古曰 南閩者 菟君之名	武帝紀 元朔元年 秋
[師古] ②	右渠降 師古曰 右渠 朝鮮王名	武帝紀 元封3年 夏
[臣瓚] ① [師古] ③	以其地為樂浪臨屯玄菟真番郡 臣瓚曰 茂陵書 臨屯郡治 東曉縣 去長安六千一百三十八里 十五縣. 真番郡治 靑縣 去長安七千六百四十里 十五縣 師古曰 樂音洛 浪音郎 番音普安反 曉音弋支反 靑音丈甲反	武帝紀 元封3年 夏
[師古] ④	罷儋耳真番郡 師古曰 儋耳本南越地 真番本朝鮮地 皆武帝所置也. 番音普安反.	昭帝紀 始元5年 6月
[師古] ⑤	彭吳穿穢貊朝鮮置滄海郡 師古曰 彭吳 人姓名也. 本皆荒梗 始開通之也. 故言穿也.	殖貨志 下
[師古] ⑦⑧	先是兩將軍征朝鮮 師古曰 二年樓船將軍楊僕, 左將軍荀彘, 將應募罪人擊之 開三郡 師古曰 武紀云 以其地為樂浪臨屯玄菟真番郡, 是四郡也. 而此云三, 蓋傳寫志者誤.	五行志 中之下
[應劭] ① [臣瓚] ② [師古] ⑨	險瀆 應劭曰 朝鮮王滿都也. 依水險, 故曰險瀆. 臣瓚曰 王險城 在樂浪郡溟水之東, 此自是險瀆也. 師古曰 瓚說是也. 溟音普大反.	地理志 遼東郡 : 1626等
[應劭] ② [師古] ⑩	番汗 沛水出塞外 西南入海 應劭曰 汗水出塞外 西南入海. 番音盤 師古曰 沛音普蓋反, 汗音寒.	地理志 遼東郡 : 1626等
[應劭] ③	玄菟郡 武帝元封四年開 高句驪 莽曰下句驪. 屬幽州. 應劭曰 故真番朝鮮胡國.	地理志 玄菟郡 : 1627等
[應劭] ④	高句驪 遼山遼水所出, 西南至遼陰, 入大遼水. 又有南蘇水, 西北經塞外. 應劭曰 故句驪胡.	地理志 玄菟郡 : 1627等
[應劭] ⑤ [師古] ⑪	樂浪郡 武帝元封三年開 莽曰樂鮮 屬幽州. 應劭曰 故朝鮮國也. 師古曰 樂音洛, 浪音狼.	地理志 樂浪郡 : 1627等
[應劭] ⑥⑦ [孟康] ①② [師古] ⑫-⑬ [服虔] ⑭	朝鮮 應劭曰 武王封箕子於朝鮮 謂邯 孟康曰 謂音男 師古曰 謂音乃甘反 邯音耐 溟水 水西至增地入海 莽曰樂鮮亭 師古曰 溟音普大反 黏蟬 服虔曰 蟬音提 渾彌 師古曰 渾音下昆反. 東曉 應劭曰 音移 臺台 師古曰 台音胎 邪頭昧 孟康曰 昧音妹	地理志 樂浪郡 : 1627等

순번	‘古朝鮮’ 관련 注文	注文 出處
[師古] ⑦	玄菟樂浪 武帝時置 皆朝鮮濊貉句驪蠻夷 師古曰 濊音穢 字或作穢 其音同	地理志 燕地 : 1658等
[如淳] ① [臣瓚] ③ [師古] ⑩	夫樂浪海中有倭人... 如淳曰 如墨委面 在帶方東南萬里 臣瓚曰 倭是國名 不謂用墨 故謂之委也. 師古曰 如淳云 如墨委面 蓋音委字耳, 此音非也. 倭音一戈反. 今猶有倭國 魏略云 倭在帶方東南大海中 依山島為國 度海千里 復有國 皆倭種	地理志 燕地 : 1659等
[師古] ⑩	東曉令延年賦七篇 師古曰 東曉 縣名 曉音移	藝文志 : 1750等
[晉灼] ② [如淳] ② [師古] ⑩	東見倉海君 晉灼曰 海神也 如淳曰 東夷君長也 師古曰 二說並非 蓋當時賢者之號也. 良既見之, 因而求得力士.	張良傳 : 2023等
[張晏] ① [師古] 21	略菴州 建城邑 張晏曰 菴 貉也. 師古曰 菴與穢同	嚴安傳 : 2813等
[張晏] ② [師古] 22	東定菴貉朝鮮 張晏曰 菴也 貉也. 在遼東之東. 師古曰 菴字與穢字同 貉音莫客反	夏侯勝傳: 3156等
[師古] 23-39	自始燕時嘗略屬真番朝鮮 師古曰 戰國時 燕國略得此地. 為置吏築障 師古曰 障, 所以自障蔽也. 音之亮反 涓水為界 師古曰 涓水在樂浪縣 音普蓋反 稍役屬真番朝鮮蠻夷及故燕齊亡在者王之 師古曰 燕齊之人亡居此地. 及真番朝鮮蠻夷皆屬滿也... 傳子至孫右渠 師古曰 滿死傳子 子死傳孫 右渠者 其孫名也.... 漢亡人滋多 師古曰 滋益也. 又未嘗入見 師古曰 不朝見天子也. 真番辰國欲上書見天子 又雍闕弗通 師古曰 辰謂辰韓之國也. 雍, 讀曰壘 元封二年 漢使涉何譙諭右渠 終不肯奉詔 師古曰 譙責讓也. 音才笑反 何去至界臨涓水, 使馭刺殺送何者朝鮮裨王長 師古曰 長者, 裨王名也. 送何至涓水 何因刺殺之.... 多還走坐法斬 師古曰 於法合斬.... 及餽軍糧 師古曰 餽 亦饋字也.... 左將軍素侍中幸 師古曰 親幸於天子.... 私約降樓船 師古曰 與樓船為要約而請降.... 左將軍心意樓船前有失軍罪 師古曰 意, 疑也.... 左將軍相誤卒沮約 師古曰 顯與專同. 卒, 終也. 沮, 壞也.... 左將軍戲下執縛樓船將軍 師古曰 戲讀與廳同	朝鮮傳 : 3864等
[應劭] ⑥ [師古] 40	朝鮮相路人相韓陶尼谿相參將軍王映 應劭曰 凡五人也. 戎狄不知官紀. 故皆稱相 師古曰 相路人一也, 相韓陶二也, 尼谿相參三也, 將軍王映四也. 應氏乃云五人, 誤讀為句. 謂尼谿人名, 失之矣. 不當尋下文乎. 映音頰	朝鮮傳 : 3867等
[如淳] ③ [師古] 41	戰益急, 恐不能與 如淳曰 不能與左將軍相持也. 師古曰 此說非也, 不能與猶言不如也.	朝鮮傳 : 3867等
[師古] 42,43	左將軍使右渠子長 師古曰 右渠之子, 名長. 降相路人子最 師古曰 相路人, 前已降漢而死於道, 故謂之降相. 最者, 其子名.	朝鮮傳 : 3867等
[師古] 44 [晉灼] ③	封參為濫清侯 師古曰 濫音獲. 陶為秋菑侯 晉灼曰, 功臣表秋菑, 屬勃海師古曰 菑音子餘反.	朝鮮傳 : 3867等
[蘇林] ①	兵至列口 當待左將軍 蘇林曰 列口, 縣名也. 度海先得之	朝鮮傳 : 3867等

【 參考文獻 】

- 徐元南, 2003 「漢-唐間《史記》注釋에 대한 고찰」 『中國語文學論集』 23, 중국어문학연구회, pp.565~590
閔厚基, 2006 「《漢書注》성립에 미친 家學의 성격과 영향」 『東方學志』 133,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pp.243~269.
- 吉川忠夫, 1979a 「裴駰의 史記集解」 『加賀博士退官記念 中國文史哲學論集』 東京, 講談社
吉川忠夫, 1979b 「顏師古의 《漢書》注」 『東方學報』 51, 京都大學 人文科學研究所, pp.223~319
水澤利忠, 1994 「史記正義の研究」 東京, 汲古書院
遠藤由里子, 1994 「裴駰《史記集解》に引かれる《漢書音義》(一)」 『梅光女学院大学 論集』 27, pp.109~120
池田英雄, 1995 「史記學 50年-日・中《史記》研究の動向(1945-95年)」 東京, 明徳出版社
遠藤由里子, 1996 「裴駰《史記集解》に引かれる《漢書音義》(二)」 『梅光女学院大学 論集』 29, pp.82~92.
遠藤由里子, 1997 「裴駰《史記集解》に引かれる《漢書音義》(三)」 『梅光女学院大学 論集』 30, pp.1~11
遠藤由里子, 1999 「裴駰《史記集解》に引かれる《漢書音義》(四)」 『梅光女学院大学 論集』 32, pp.1~11
吉川忠夫, 1999 「汲冢書發見前後」 『東方學報』 71, 京都大學 人文科學研究所, pp.693~132
渡邊義浩・池田雅典・洲脇武志, 2004 「《後漢書》李賢注に引く『前書音義』について」 『人文科学』 9, 大東文化大学, pp.284 - 268
洲脇武志, 2006 「《後漢書》李賢注所引『前書音義』考」 『大東文化大学漢学会誌』 45, pp.85~111
王鑫義・大櫛敦弘・遠藤隆俊, 2006 「顔遊秦『漢書決疑』佚文と顏師古『漢書注』との比較検討」 『高知大学 学術研究報告』(人文科学編) 55, pp.47~59
洲脇武志, 2011 「『《漢書》注釋書研究-顏師古注を中心に』大東文化大学 文学研究科 博士學位論文
池田昌広, 2013 「唐代における《漢書》顏師古本の普及について-『史記索隱』・『史記正義』を例にして」 『京都産業大学論集』(人文科学系列) 46, pp.29~47
柿沼陽平, 2013 「『《漢書》をめぐる読書行為と読者共同体-顏師古注以後を中心に』(榎本淳一編, 『古代中国・日本における学術と支配』同成社) pp.75~101
柿沼陽平, 2014 「『《漢書》をめぐる読書行為と読者共同体-顏師古注以前を中心に』 『帝京史學』 29, 帝京大學 文學部史學科, pp.29~47
- 楊守敬, 1905 「《漢書古注輯存》序」 ; 謝承仁 編, 1997 『楊守敬集』 5, 湖北人民出版社, p.1177
楊守敬, 1908 『漢書二十三家注鈔』(手稿本); 謝承仁 編, 1997 『楊守敬集』 6, 湖北人民出版社, pp.481~1035
李步嘉, 1990 「韦昭《汉书音义》辑佚」 武汉大学出版社
华林甫, 1996 「史论应劭、圈称的地名学贡献」 『中州学刊』 1996-6, pp.134~138
马临漪, 1997 「《史记》注、疏、译述略」 『天中学刊』 1997-1
楊 仙, 2000 「臣瓚《汉书音义》辑佚」 武汉大学 硕士学位论文
王智群, 2003 「二十年来颜师古《汉书注》研究述略」 『古籍整理研究学刊』 2003-4, pp.58~61
徐建委, 2003 「蔡謨《汉书音义》考索」 『古籍整理研究学刊』 2003-6, pp.45~48
胡继明, 2003 「《汉书》应劭注训诂研究」 『四川师范学院学报』(哲学社会科学版) 2003-3, pp.43~47
孙亚华, 2004 「杨守敬《汉书二十三家注钞·服虔》校补」 武汉大学 硕士学位论文
闫平凡, 2004 「杨守敬《汉书二十三家注钞·应劭》校补」 武汉大学 硕士学位论文
徐 珮, 2004 「杨守敬《汉书二十三家注钞·孟康》校补」 武汉大学 硕士学位论文
殷 榕, 2004 「苏林《汉书音义》辑佚」 武汉大学 硕士学位论文
崔 芸, 2004 「《史记》“三家注”研究」 暨南大学 硕士学位论文
李智耕, 2005 「《史记集解》研究」 南昌大学 硕士学位论文
周振风, 2005 「《史记》三家注研究」 南昌大学 硕士学位论文
张玉春, 2005 「史记版本研究」 『史記研究集成』 12(史记版本及三家注研究), 北京, 华文出版社, pp.3~314.
应三玉, 2005 「史记三家注研究」 『史記研究集成』 12(史记版本及三家注研究), 北京, 华文出版社, pp.317~539.
李文濤, 2006 「杨守敬《汉书二十三家注钞·张晏》校补」 武汉大学 硕士学位论文
李步嘉, 2006 「论朱希祖的《臣瓚姓氏考》」 『清华大学学报』(哲学社会科学版) 2006-3, pp.70~74
闫平凡, 2007 「唐前《汉书》旧注辑佚与研究述评」 『中国史研究动态』 2007-7, pp.18~22

- 范景斌, 2007 「略论司马贞《史记索隐》对《史记》的驳正」 郑州大学 硕士学位论文
- 王鳴盛, 2008 「十七史商榷」 漢書 1, 「漢書斠例」 鳳凰出版社, 2008, pp.35~36
- 万献初, 2010 「颜师古《汉书注》音义研究综述」 「古籍整理研究学刊」 2010-6, pp.56~138
- 周录祥, 2010 「《史记正义》引《括地志》札记」 「韩山师范学院学报」 31-1, pp.33~36
- 李 南, 2011 「《史记正義》稱引《括地志》考校」 南京师范大学 硕士学位论文
- 张海峰, 2011 「王先谦《汉书补注》研究」 山东大学 博士学位論文
- 辛德勇, 2012 「谈历史上首次出土的简牍文献-《茂陵书》」 「文史哲」 2012-4, 山东大学, pp.1~17
- 李 辉, 2012 「近十年来《史记》三家注研究综述」 「语文知识」 2012-1
- 龙向平, 2013 「《史记索隐》训诂内容研究」 西南大学 硕士学位论文
- 胡继明, 2013 「颜师古《汉书注》义训术语研究」 「西南大学学报」(社会科学版) 2013-6,
- 牛巧红, 2013 「司马贞《史记索隐》研究」 郑州大学 博士学位論文
- 梁 健, 2013 「如淳《汉书》注引律注史辑考」 「许昌学院学报」 2013-4, pp.79~85
- 刘治立, 2013 「史注传统下的“汉书学”」 「信阳师范学院学报」(哲学社会科学版) 2013-4, pp.122~128
- 胡俊俊·胡琼, 2013 「《汉书》如淳注辑佚」 「广东技术师范学院学报」 2013-8, pp.93~98
- 万献初, 2013 「服虔、应劭《汉书音义》音切考辨」 「古汉语研究」 2013-3, pp.26~36
-
- 楊守敬, 1901 「王險城考」 「晦明軒考」(自刻本); 謝承仁 編, 1998 「楊守敬集」 5, 湖北人民出版社, p.1139
- 楊守敬, 1901 「碣石考」 「晦明軒考」(自刻本); 謝承仁 編, 위의 책, pp.1155~1156
- 楊守敬, 1901 「汪士鐸《漢志釋地》駁議」 「晦明軒考」(自刻本); 謝承仁 編, 위의 책, pp.1161~1165
- 李丙燾, 1929 「眞番郡考」 「史學雜誌」 40-5; 1976 「韓國古代史研究」 博英社, pp. 102~132
- 李熙德, 1959 「漢眞番郡新考」 延世大學校 碩士學位論文
- 三上次男, 1966 「古代西北朝鮮と衛滿朝鮮國の政治・社會的性格」 「古代東北アツア史研究」 吉川弘文館, pp.9~10.
- 井上秀雄, 1982 「《史記》·《漢書》の東夷王者觀」 「朝鮮學報」 103, pp.1~37.
- 千寬宇, 1989a 「險瀆·王險·王儉」 「古朝鮮史·三韓史研究」 일조각, pp.80~82
- 千寬宇, 1989b 「溟河下流의 朝鮮」 「古朝鮮史·三韓史研究」 일조각, pp.107~117
- 盧泰敦, 1990 「古朝鮮 중심지의 변천에 관한 연구」 「韓國史論」 23,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pp.36~37.
- 陳建堂, 1997 「《晦明軒考》成書過程」 「楊守敬集」 5, 湖北人民出版社, pp.1111~1117
- 尹龍九, 1998 「3세기 이전 中國史書에 나타난 韓國古代史像」 「韓國古代史研究」 14, pp.115~129.
- 園田俊介, 2007 「北魏時代の樂浪郡と樂浪王氏」 「中央大學アジア史研究」 31, pp.1~32
- 吳宏岐·韓虎泰, 2013 「汉代西南之“徼”与“徼外”地理概念考论」 「四川师范大学学报」(社会科学版) 2013-4, pp.163~168
- 吳炫受, 2013 「古朝鮮 중심지 관련 기사 검토」 「古朝鮮의 形成과 變遷過程 研究」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 학위논문, pp.110~118.
- 楊 婷, 2014 「秦始皇及戰國秦長城研究綜述」 「中国史研究动态」 2014-2, pp.12~20

연나라 철기문화의 확산과 「세죽리-연화보문화」

김 상 민 (국립중앙박물관 고고역사부)

I. 머리말

동북아시아 여러 지역의 철기문화는 중국의 철기문화에 영향을 받으며, 지역에 따라 유입시기와 전개과정은 차이를 보인다. 그렇지만 한반도를 비롯한 중국 동북지역의 철기문화와 전개는 전국시대 연나라의 영역확장에 따른 연문화 확산과정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김상민, 2014).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시아 철기문화의 유입과 전개과정을 살피는데 있어서 중요한 지역이 요령지역이다. 연나라 철기문화가 주변으로 확산되는 과정에서 요령지역을 거치면서 어떻게 자리잡아가고 변용되어가는지를 살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요하의 동쪽에 해당하는 요동지역은 연나라 문화가 유입됨에도 불구하고 재지적 문화요소가 강하게 남아있어, 고조선으로 비정되거나 독자적인 문화권이 형성되었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연나라의 동쪽 진출과 고조선에 대한 문헌기록을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 역사적 해석이 달라지고 있다.

요령지역 내 철기문화의 유입은 연나라의 동쪽 진출이라는 문헌기록에 의한 해석이 일반적이며, 요령지역 내에서도 시기에 따라 철기문화가 확산되는 범위가 다르다고 보고 있다. 즉, 연나라의 영향권에 있었던 요서지역이 좀 더 이른 시기에 철기문화가 유입되었으며, 요동지역은 연 진개의 동진이라는 문헌기록을 토대로 시기차를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물질자료에 대한 검토와 분석이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문헌기록을 통해 결론을 도출하고 있는 듯하다.

한편 요동지역의 철기문화에 대한 논의에서 소위 「세죽리-연화보문화」를 크게 주목하며, 한반도 철기문화의 유입과 전개에 큰 영향을 주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죽리-연화보문화」는 연나라의 영향을 받은 재지적인 철기문화권이라는 인식 속에서도 그 실체를 구체적으로 논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전국~한대에 해당하는 요동지역의 철기류에 대한 검토와 분석을 거쳐 철기문화의 변천과정을 살펴보고, 연나라 철기문화의 확산과정에서 보이는 「세죽리-연화보문화」의 시·공적 위치와 등장 배경을 살펴보고자 한다.

II. 연나라 철기문화의 확산에 대한 연구현황과 문제제기

1. 연나라 철기문화의 확산과 그 주변지역에 대한 연구현황

철기문화의 확산은 연나라의 영역 확장에 따른 연의 문화의 유입과정에서 이루어진

다(村上恭通,1998;石川岳彦외,2012). 통상적으로 연나라의 철기와 주변 제지역의 철기를 비교하고 그 유사성을 통해 연나라 철기문화를 추정하는 연구가 이루어졌다.

연나라 철기문화의 확산에 대한 연구는 연구자에 따라 방법론과 시기에 대한 차이가 크다. 중국의 연구자들은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연나라의 동쪽 영역확장에 관심을 가졌다. 燕下都和 興隆縣 壽王墳지구가 발견되면서 이들 유적에서 출토된 철기를 연나라 철기로 인정하고 주변유적과의 비교를 통해 유사성을 찾아가는 연구가 다수를 차지하였다. 예를 들어 하북과 요령지역의 여러 지역에서 출토되는 철기를 연나라 철기생산유적인 수왕분지구 출토품과 비교하여 유사성이 강하므로 연나라의 영향을 받았다는 정도의 연구가 진행되었다(鄭紹宗,1956). 그러나 구체성을 띠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다소 감각적인 비교로서 연나라 철기와 유사성만을 지적하는 한계가 있다. 이와 같은 연구경향은 최근까지도 단일 유적에 대한 고찰 과정에서 출토된 철기와 연하도 철기의 유사성을 지적하거나(河北省文物研究所외,2001), 요동지역과 길림지역의 철기와 연나라 철기와 유사성을 제시하는 연구(李鐘洙,2005;蕭景全외,2007), 요동지역의 초기철기시대에 대한 고찰로서 철기의 유사성만을 근거로 연나라 철기문화의 확산이 설명하는(이광명,2010) 등 기존의 방법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다. 반면 개별기종에 대한 비교만이 아닌「群」이라는 유물조합을 살펴봄으로 전국시대에서 후한대의 철기와 철기생산기술이 어떻게 주변지역으로 전파되었는가를 검토해 가는 새로운 시도도 이루어지고 있다(万欣,2012).

연나라 철기의 확산에 대한 연구는 일본과 한국의 연구자에 의해서도 이루어졌다. 1980년대에 들어서 일본연구자를 중심으로 유적 간의 비교 및 형식의 분포 등을 분석하여 연나라 철기의 확산을 검토해가는 경향이 주류가 되었다. 먼저 동아시아의 초기철기시대라는 넓은 범위에 대해 전반적인 검토를 실시한 시오미 히로시(潮見浩)은 각 유적에 대해 비교적 상세하게 기술하고 상대 비교하며 연나라 철기의 확산을 설명하였다(潮見浩,1982). 또한 가와코에 데츠지(川越哲志)과 아즈바 우시오(東潮)는 동아시아의 철부에 대한 형식을 설정하고 그 분포범위로부터 연나라의 확장을 설명하였다(川越哲志1980;東潮1982). 또한 시모조 노부유키(下條信行)는 요령, 길림지역 철기의 특징을 정리하여「동북식(東北式)」이라는 유형을 설정하여 중원지역 철기문화의 확장을 논하였다(下條信行,1984). 그 밖에도 무라카미야스유키(村上恭通)는 주조철부에 대한 형식에 따른 그 분포현황과 함께 부장양상에 주목하며 연나라 철기의 확장 과정을 제시하였다(村上恭通,1988;1997).

이후 고고자료가 축적되면서 중국 내 다수를 점하는 화폐나 청동기, 분묘의 특징을 통해 공반되는 철기를 설명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청동기의 기종과 형식을 분류하고 그 분포범위를 확인함으로써 공반하는 철기가 갖는 의미를 평가하는 방법이다(村上恭通,2000;李清圭,2000). 특히 무라카미 야스유키는 요령식 동검의 분포범위의 변화가 연나라의 영역변화와 공통점을 가지는 것과 공반되는 철기의 현황을 통해 연나라 영역확장에 따라 철기의 유입이 이루어진다는 것으로 검토하였다. 또한 미야모토 가츠오(宮本一夫)는 전국시대 분묘에서 확인되는 연계(燕系)요소에 주목하여 그 분포양상

과 함께 연나라 장성의 위치를 연계하여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전국시대 전반기에 요하유역 서쪽으로는 연나라화되는 현상이 확인되며, 이후 전국시대 중기후반 동쪽으로 확장을 실시하여 전국시대 후기에는 요동일대까지 영역화하였다는 구체적인 견해를 제시하였다(宮本一夫,2000).

이와 같이 연나라의 영역 확장에 대한 다양한 고고학적 연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명도전과 공반되는 주조철기’ 라는 조합을 ‘연나라 철기’ 로 평가한 이후(潮見浩,1982), 명도전의 분포는 연나라 영역을 연구하는 가장 유용한 연구대상으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국내 연구자의 경우 명도전의 분포범위가 연나라 영역과 거의 일치한다는 인식이 크게 보편화되어 있다(한국고고학회,2010). 이처럼 국내에서는 명도전과 철기의 공반양상에 주목하여 연나라 영역 확장이 전제가 된 연구는 지속적으로 진행되었으며(김원룡,1986;최몽룡,1997;李南珪,2002;박선미2009), 문헌에 기록된 진개의 동침을 요령지역까지 연나라의 영향이 미치게된 계기로 보고 철기의 유입시기도 그 시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견해가 제시되었다(朴淳發,1993.2004).

나아가 한반도 철기문화의 기원에 대한 검토과정에서 중국 요하(遼河) 동쪽에서 청천강 이북에 걸쳐 분포하였던 무순 연화보유적과 영변 세죽리유적을 표지로 한 연나라와 재지적 문화요소가 함께 혼재된 문화유형을 설정하고 이를 소위「세죽리-연화보문화」로 정의하였다.

2. 문제제기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시아 철기문화의 기원은 연나라의 철기문화에 있고, 그것이 주변으로 확산된 것이라고 보고 있다. 지금까지 많은 연구자들이 『史記』 「匈奴列傳」 “燕襲走東胡 却地千里 度遼東而攻朝鮮”의 문헌기록을 근거로 연나라 동진이 철기문화의 확산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 연나라 장성과 화폐의 분포를 토대로 문헌기록을 고고학적 현상으로 맞춰감으로서 연나라 철기의 유입도 동일하였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문헌기록에 따라 영역의 확장과 철기의 유입을 동시기로 설명하는 것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점이 남는다. 더불어「세죽리-연화보문화」가 앞서 제시한 문헌기록과 대응하는 고고학 자료인가 라는 점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그대로 인용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국내의 연구 경향 속에서 연나라와 그 주변에서 출토되는 고고학적 자료를 분석하여 시기에 따른 분포권역을 정리하여 연나라의 영역 확장을 검증한 연구가 주목된다(宮本一夫,2000;石川岳彦외,2012). 이들의 연구에서는 분묘와 청동기, 토기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대상유적의 단계를 설정하고 상대연대와 분포권역을 비교하는 과정을 거쳐 연나라 영역변화를 설명하고 있다. 이 연구들은 고고학 자료를 중심으로 한 분석으로 연나라의 영역화와 관련된 편년에 대해서는 다소 비판적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한다. 그러나 고고학적 연구에서 문헌기록인 연나라의 동쪽 진출의 시기에 한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연나라 철기문화의 확산을 논하는데

적어도 요령지역의 철기류의 시기에 따른 변천과 그 분포양상을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물질문화의 차이가 갖는 의미를 해석하는 과정을 거친다면 연나라 철기문화의 확산과 「세죽리-연화보문화」의 관계를 알아갈 수 있을 것이다.

Ⅲ. 요동지역 철기문화의 유입과 변천단계

요동지역은 지석묘, 석개묘, 요령식동검과 재지적인 문화요소가 강하다. 요서지역과 달리 전국 연과 한대의 문화요소가 유입됨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오랜 기간동안 재지적인 문화요소가 유지되고 있다. 그리고 소지역별 지역성이 큰 편으로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고 있다. 이와 같은 특징은 철기의 유입과 변천과정에서도 동일하다. 이로 인해 요동의 각 지역에서 연나라의 영향을 받은 철기가 출토되고 있지만, 지역에 따라 분묘의 구조나 공반(일괄)자료 등에 대한 상호 비교를 통해 단계를 설정하기가 쉽지 않다.

여기서는 요동지역의 철기문화의 변천단계를 설정하기 위해 요동지역의 재지적인 특징이 강한 토기류에 대한 검토를 배제하고, 금속유물을 중심으로 한 검토를 실시하고자 한다. 특히 화폐, 한경 등과 같은 연나라 및 한나라의 물질문화에 대한 비교검토는 철기문화의 단계과정에서 시간적 위치를 정하는데 유효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요동지역의 분묘와 취락 내에서 출토된 철기에 대해 정리하고, 공반(일괄)자료에 대한 분석을 통해 철기문화의 유입시기와 변천단계를 확인한다. 그리고 그 속에서 보이는 「세죽리-연화보문화」의 시·공적 위치를 비정해보고자 한다.

1. 유적현황

여기서 대상으로 하는 요동지역은 요령성의 동쪽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요령성의 중앙을 지나는 요하(遼河)의 동쪽으로 북으로 요하의 지류인 청하(淸河) 일대로 하며, 동으로는 장성의 외곽에 해당하는 압록강과 청천강 일대까지로 두고자 한다.

철기가 출토되는 유적은 비교적 넓게 분포되고 있는데 유적의 분포권역은 주로 요하의 본류와 인접한 지역, 요동반도, 강과 인접한 천산(千山)의 서쪽 구릉지대로 구분된다¹⁾.

1) 부장철기의 현황

분묘는 요동반도 일대와 천산 서쪽의 구릉에 분포한다. 그러나 두 지역의 분묘는 구조와 출토유물에서 다소 다른 점이 있다. 천산 일대인 연나라 장성과 인접한 지역의 분묘는 수혈토광묘와 석개묘(石蓋墓)와 같은 구조를 가지며, 연계철기류와 함께 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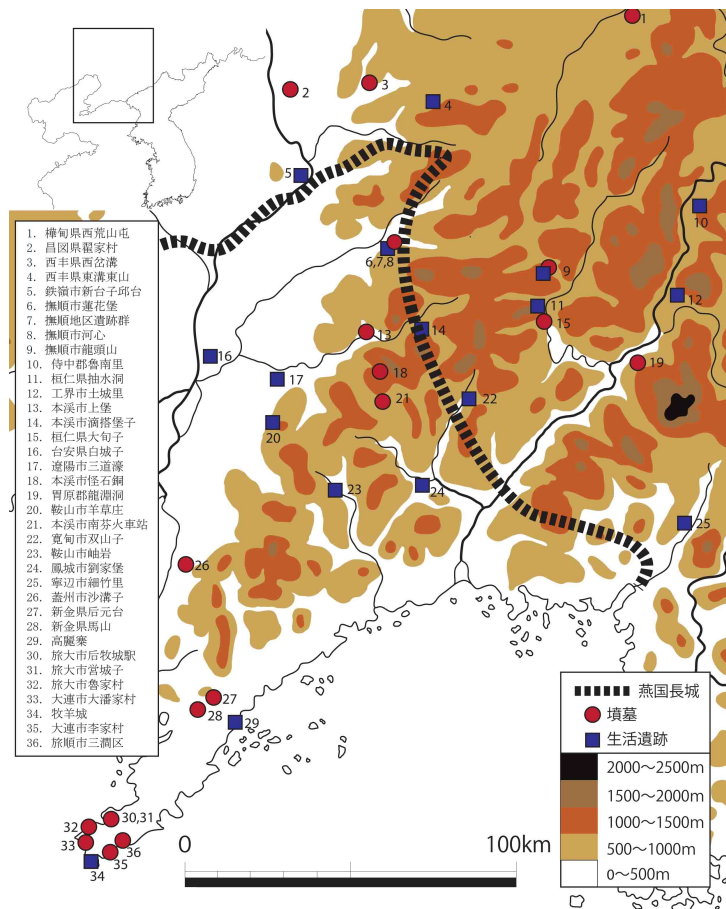
1) 요동지역에 초기철기문화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 이광명은 요동지역에 대해 북부지역, 동부지역, 남부지역, 중부지역, 서북한지역으로 구분하였다. 하지만 지역에 따른 철기문화의 변화양상에 대한 검토는 이루어지지 못하였다(이광명, 2010).

검 등의 재지계 유물이 공반된다. 반면, 요동반도의 분묘는 전한의 영향을 받은 패묘(貝墓)가 다수를 차지하며, 전한경과 같은 한식유물이 부장된다. 그러므로 요동지역 분묘는 지역에 따라 연계철기의 영향과 한식철기의 영향을 받은 지역으로 구분하여 철기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연계철기가 부장되는 분묘는 연나라 장성에서 동쪽에 위치하는 화전 서항산둔(樺甸西荒山屯)에서부터 본계 남분화차참묘(本溪南芬火車站墓)가 위치하는 길림합달령(吉林哈達嶺)에서 천산 일대에 분포하며, 압록강일대의 위원 용연동유적도 분묘로 보고된 바 있다.

연나라 장성의 동북쪽 외곽에 해당하는 유적으로는 서항산둔유적과 창도 적가촌(昌圖翟家村)유적이 있다. 두 유적 모두 간략하게 보고되고 있어 구체적인 특징은 확인할 수 없다. 서항산둔유적은 총 8기의 수혈 암석 개석식 지석묘²⁾로서, 7기에서 총 12점의 철기가 출토되었다. 주조철부, 철검, 철도자만이 보고되었는데, 6호묘에서는 철기류와 세형동검이 공반되며, 3호묘에서 출토된 철검은 연하도, 무순 연화보유적 등과의 유사성이 지적되고 있다(李鐘洙, 2005). 적가촌유적은 요하 상류에 낮은 구릉에 위치하는데 분묘의 구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5점의 주조철부와 함께 세형동검, 동촉 등이 부장되었다.

연나라 장성의 내부에 위치하는 분묘로는 철령 구태(鐵嶺邱台) 4호묘와 본계 상보(本溪上堡) 1호묘, 남분화차참묘가 있다. 구태 4호묘와 남분화차참묘는 토광묘로 보고되었으나 그 구체적인 양상은 알 수 없다. 구태 4호묘에서는 소도(小刀)와 철촉이 부장되었으며, 남분화차참묘에서는 연계주조철부 5점과 명도전 46매와 함께 부장되었다. 또한 무순지역을 중심으로 확인되는 하심(河心)·용두산(龍頭山)유적과 같은



<그림 1> 요동지역 철기 출토 유적의 분포

2) 서항산둔의 발굴보고서에서는 수혈암석묘라는 용어로 정의하고 있지만(吉林省文物工作隊외, 1982), 이종수는 지석묘의 한 종류로서 수혈 암석 개석식 고인돌이라는 용어로 정의하고 있다(李鐘洙, 2005). 분묘는 한면에 지석을 갖고 개석을 덮은 형태의 구조이므로 수혈암석묘라는 용어보다는 지석을 갖춘 묘로서 개석식 지석묘로 보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된다.

<표 1> 요령지역 부장철기의 현황

順番	遺跡	遺構	鐵器類	共伴遺物	參考文獻
1	樺甸縣 西荒山屯	1號	刀子	銅劍3·銅鏃·銅刀子3 劍柄3	吉林省文物工作隊 외, 1982 李鍾洙, 2005
		2號	鑄造鐵斧(鏹)	銅鏡2·劍柄2	
		3號	鑄造鐵斧(鏹)·鏃·刀子	銅鏡·劍柄	
		4號	鏃	銅刀子·劍柄	
		6號	鑄造鐵斧(鏹)3·鏃·刀子	銅劍3	
		7號	刀子		
2	昌圖縣翟家村		鑄造鐵斧(鏹)5	銅劍3·劍柄·銅鏃12	裴耀軍, 1989 李予利, 1993
3	西豐縣西岔溝	一活 (未詳)	鑄造鐵斧(鏹)5↑·劍71·環頭刀 矛45·鏃1000↑·鏃		孫守道, 1960
4	鐵嶺市新台子 邱台	4號	刀子·鏃 3		鐵嶺市文物管理辦公室, 1996
5	撫順市龍頭山	2號	鑄造鐵斧(鏹)·劍·戈		肖景全, 2010
6	撫順市河心	2號	鑄造鐵斧(鏹)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 외, 2008
7	本溪市上堡	1號	鏃	銅劍2·劍柄	魏海波 외, 1998
8	桓仁縣大甸子		刀子	銅劍·銅鏃 明刀錢200	이광명, 2010
9	本溪市 南芬火車站		鑄造鐵斧(鏹)5	明刀錢46	斎俊, 1994 梁志龍, 2003
10	胃原郡龍淵洞		鑄造鐵斧(鏹)2·鈹狀鐵器·鏃 半月形鐵刀·鏃·矛·鈍	鈎·明刀錢2	梅原末治 외, 1947
11	蓋州市沙溝子	磚築墓	鑄造鐵斧(鏹)·鐵片	五銖錢	魏耕耕 외, 2010
12	新金縣后元台		鑄造鐵斧(鏹)	銅戈·銅矛·銅劍·五銖 錢·貨錢	許明綱 외, 1980
13	新金縣馬山		鑄造鐵斧(鏹)		新金縣文化館, 1981
14	旅大市樓上墓	2號	鐵器片	銅飾	旅順博物館, 1960 中國社會科學院 考古研究所, 1996
		3號	鏃	銅劍·銅斧·銅鏃·銅刀 子 銅飾·銅針·明刀錢	
15	旅大市營城子	23號	鏃		于臨祥, 1958
		33號	鏃·環頭刀		
		42號	環頭刀		
16	大連市 大潘家村	4號	鑄造鐵斧(鏹)痕	鈎	刘俊勇, 1995
17	大連市李家村	20號	劍	五銖錢	于臨祥, 1965
18	旅順市三澗區	4號	刀子	鈎	于臨祥, 1957

석개묘에도 철기가 부장된다. 석관묘인 상보 1호묘에서는 철착과 함께 罐, 원형점토 대토기, 세형동검이 함께 부장되었다. 상보 1호분의 부장유물은 재지계와 전국계유물이 공반되는 분묘로서 한반도 세형동검과 점토대토기의 비교자료로서 중요한 사례로 지적되기도 하며(李清圭, 2000), 최근에는 공반되는 罐를 한대의 것으로 보며 시기를 낮추기도 한다(趙鎭先, 2011).

압록강유역과 요동반도에서도 연계 철기가 출토되기도 하는데, 대표적인 유적으로 여대 남산리(旅大 南山里)철기묘와 위원 용연동유적이 있다. 두 유적에서는 주조철부

와 철산(鐵鏟), 철초(鐵鋤), 반월형철도 등이 철기의 구성을 통해 시기적 유사성이 지적되어왔다(東亞考古學會,1933). 요동반도에 위치하는 남산리 철기묘는 연나라의 동쪽 진출 과정에 의해 전파된 철기로 보며 전국시대 후기로 보고 있으며(白雲翔,2005), 윤가촌(尹家村)하층 2기와 상층 간의 공백을 매울 수 있는 자료로 평가되고 있다(大實靜夫,2007).

또한 압록강 유역에 위치하는 유적으로서 용연동유적이 주목된다. 용연동유적에서는 연계철기와 함께 반월형철도와 같은 재지적 철기도 공반되는 유적으로, 공반되는 명도전과 철모로부터 연하도 M44의 철모와 유사성을 통해 전국시대 만기인 기원전 3세기대로 비정하고 있다(潮見浩,1982). 또한 압록강 유역의 환인 대전자(桓仁 大甸子)묘에서도 철도편과 함께 세형동검과 명도전이 출토되었다.

반면 요동반도에서는 한식 철기가 부장되는 분묘가 다수를 점한다. 분묘는 거의 패묘로서철기가 출토된 분묘는 대련 대반가촌(大連 大潘家村) 4호묘, 여순 이가촌(旅順 李家村), 신금 마산(新金 馬山), 개주 사구자(蓋州 沙溝子), 여대 영성자·노가촌(旅大 營城子·魯家村)유적이 있다. 대반가촌 4호묘는 수혈목관묘이지만, 중복되는 3호 패묘와 공반유물에서 시기차를 확인할 수 없어 거의 동시기로 볼 수 있다. 사구자묘, 후원대묘, 이가촌에서는 철기류와 함께 한대의 토기류와 화폐, 한경, 청동기류가 공반되었다. 노가촌유적의 유구현황은 알 수 없으나 유물의 현황을 통해 한 대의 분묘 부장품임을 알 수 있다.

그밖에 길림합달령의 서쪽일대의 연나라 장성 주변에 위치하는 한대 분묘로는 서풍서구(西豐 西溝)분묘군이 있다. 구체적인 유구와 공반유물의 대응관계는 알 수 없으나, 단인장방형토광묘로 무기류와 농공구류와 같은 철기가 다량으로 출토되며, 한경과 같은 한식유물이 공반되고 있다.

2) 취락 내 철기의 출토현황

취락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문화층과 주거지는 큰 하천과 인접한 평지와 낮은 구릉에서에 위치한다. 유적은 주로 천산의 서쪽에 해당하는 요하의 지류 주변의 구릉대지와 압록강의 주변지역에 분포한다. 특히 전자는 전국에서 한 대의 요동군이 설치된 요양(遼陽)시의 주변이라는 것이 주목된다.

요동군의 주변일대에 위치하는 유적은 철령 구태와 무순 연화보, 본계 괴석동(怪石洞), 요양 삼도호(三道濠)유적 등이 있다. 이 유적들에서는 주로 전국시대의 연계로

<표 2> 요령지역 취락 내 철기 현황①

順番	遺蹟	出土地區	出土鐵器	貨幣	參考文獻
1	西丰県 東溝 東山	全体量	鑄造鐵斧(鏹)7·鑿·環頭刀2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 2011
		T0705①	環頭刀		

		T0706①	鑄造鐵斧(鏹)		
		T0210①	鏹		
		T0814①	鑄造鐵斧(鏹)		
2	鐵嶺市 新台子 邱台	全体量	鑄造鐵斧(鏹)11·鉞2·鏹3 半月形鐵刀2·環頭刀·刀子·鉤		鐵嶺市文物管理辦公室, 1996
		T3③	鑄造鐵斧(鏹)·鉤		
		T4③	鏹		
		T5③	鑄造鐵斧(鏹)·鉞·鏹·半月形鐵刀		
		T6③	鉤		
		H2	環頭刀		
		5號住居	鑄造鐵斧(鏹)		
3	撫順市 蓮花堡	全体量	鑄造鐵斧(鏹)61·鉞狀鐵器2·鏹2 鉞·半月形鐵刀3·鏹2·刀子·針4		王增新, 1964
		T1	鑄造鐵斧(鏹)·針2		
		T2	鑄造鐵斧(鏹)		
		T3	鑄造鐵斧(鏹)		
		T4	鑄造鐵斧(鏹)·鉞狀鐵器·鉞·鏹2 ·半月形鐵刀2·鏹2·針		
		T8	鉞狀鐵器		
4	桓仁縣 抽水洞	2號住居	鑄造鐵斧(鏹)·刀子	布錢·一貨錢 明刀錢·半兩錢(秦)	武家昌 외, 2003
		H1	鉞2	布錢·一貨錢 明刀錢	
		H2	刀子		
		H3	鑄造鐵斧(鏹)	一貨錢	
		溝	半月形鐵刀		
		石築	鑄造鐵斧(鏹)	布錢·明刀錢 半兩錢(秦)	
		T6②	半月形鐵刀		
		T10②	刀子·鐵頭銅鏹		
		T12②	鑄造鐵斧(鏹)		
		T16②	鐵頭銅鏹		
5	遼陽市 三道壕	1號住居	鑄造鐵斧(鏹)4·鉞4·鏹4·針·鏹 ·刀·車築具2	銅劍·帶鉤·明刀錢 半兩錢·五銖錢	東北博物館, 1957
		2號住居	鑄造鐵斧(鏹)3·鏹3·鏹·針·刀子	銅鏹·明刀錢 半兩錢·五銖錢 등	
		3號住居	鑄造鐵斧(鏹)2·鏹·鏹·鉞·鏹·鏹· 針·車築具	銅鏹·明刀錢 半兩錢·五銖錢	
		4號住居	鑄造鐵斧(鏹)2·鏹2·鏹·鏹·刀子 針·車築具片	銅鏹·帶鉤·鏡片 明刀錢 半兩錢·五銖錢	
		5號住居	鑄造鐵斧(鏹)2·鏹2·鏹·鉞·鏹·鏹 刀子·車築具片	銅鏹·鏡片·貨錢 半兩錢·五銖錢	
		6號住居	鉞狀鐵器·鏹·鉞·鏹·刀子·針 鉞·車築具片	貨錢·半兩錢 五銖錢	
		道路	鑄造鐵斧(鏹)·鉞·刀子·鏹·車築具	銅鏹·半兩錢 五銖錢	
		塹壕	鑄造鐵斧(鏹)·鉞·刀子·鏹	銅鏹·明刀錢 半兩錢·五銖錢	
6	本溪市 怪石銅		鑄造鐵斧(鏹)·刀子·戈		苗麗英, 1997
7	本溪市 滴搭堡子		鑄造鐵斧(鏹)2·鏹·鏹·環頭刀 胄片49		楊永葆, 1994
8	寬甸市 双山子		鑄造鐵斧(鏹)2·半月形鐵刀7	明刀錢200	許玉林, 1980
9	鞍山市 岫岩	T3③	鑄造鐵斧(鏹)6·鉞·鏹·鋤7·鏹·矛· 鐵頭銅鏹2		鞍山市岫岩滿族博物館, 2009
		T4③	鑄造鐵斧(鏹)·棒狀鐵器		

볼 수 있는 철기가 출토되었다. 연화보·구태유적에서는 연계 철제 농공구가 다수를 차지하지만 동굴유적인 괴석동유적에는 농공구 이외에도 철과가 출토되었다. 특히 구태유적에서 출토된 철기류는 층위별로 다른 출토양상을 보이고 있어 변화양상을 추정할 수 있다. 또한 연화보유적은 철기가 확인된 문화층의 상층에서 반량전이 출토되

<표 3> 요령지역 취락 내 철기 현황②

順番	遺蹟	出土地區	出土鐵器	貨幣	參考文獻
10	鞍山市 羊草庄		鑄造鐵斧(鏹)·鏹·鎌·鍬	明刀錢1000	佟柱臣, 1956
11	台安縣 白城子		鑄造鐵斧(鏹)3·鍬·劍	銅劍·銅戈	張喜榮, 1997
12	鳳城市 劉家堡	T1	鑄造鐵斧(鏹)片·帶鉤·鍬·車築具	一刀錢·銅環	馮永謙, 2010
		T2	鑄造鐵斧(鏹)·鑿·環·鐵頭銅鏹		
		T3	鑄造鐵斧(鏹)		
		T4	鑄造鐵斧(鏹)		
		T5	鑄造鐵斧(鏹)2·鍬	銅鏹	
		T10	鑄造鐵斧(鏹)2·鏹	銅飾	
		T15	鍬		
		T17	鑄造鐵斧(鏹)		
		T20	刀子·劍?·鑿2·車築具片		
T21	鑿				
13	工界市 土城里		刀子·鏹·針	五銖錢 鍛冶關連鐵片?	리병선, 1961
14	侍中郡 魯南里	2號 住居	鑄造鐵斧(鏹)?·鏹·針	銅鏹·明刀錢 五銖錢	정찬영, 1965
15	寧邊市 細竹里	1號 住居	環頭刀2·鑄造鐵斧(鏹)3·鍬2·鑿·鎌 矛·戈·刀·針	明刀錢·布錢	김정문, 1964 김영우, 1964
16	新賓縣 趙家		鑄造鐵斧(鏹)		肖景全외, 2007
17	高麗寨		鑄造鐵斧(鏹)10↑·鍬5·鎌3·鑿·劍	銅劍·銅矛·明刀錢 半兩錢	濱田耕作, 1929
18	牧羊城		鑄造鐵斧(鏹)25·鏹·鍬·鎌2·刀子3·鏹	銅鏹·明刀錢 五銖錢	原田淑人외, 1931 大貫靜夫, 2007
19	旅大市 魯家村		鑄造鐵斧(鏹)8	銅矛·銅環·漢鏡 半兩錢·五銖錢	開炎, 1981

고 있어 철기류의 연대를 추정하는데 유효한 자료이다. 두 유적에 대해서는 연나라 철기문화의 북방 경계를 추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지적되고 있다(李南珪, 1991; 鐵嶺市文物管理辦公室, 1996).

또한 삼도호유적은 주거지와 도로, 요지에 이르는 취락의 면모를 갖춘 유적이다. 철기는 농공구에서 무기류, 차축구에 이르는 다양한 기종이 출토되었다. 유구에 따른 상세한 유물현황에 대해서는 보고되지 않았지만, 명도전에서 화천에 이르는 다양한 화폐가 출토되는 것을 통해 전한에서 신(新)에 이르는 유적으로 보고 있다.

압록강 일대의 유적은 환인 추수동(桓仁 抽水洞)과 시중 로남리(侍中 魯南里), 영변 세죽리유적(寧邊 細竹里) 등이 있다. 이 유적들은 요동군이 설치된 이후 요양 지역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상정되고 있다(武家昌외, 2003). 철기와 함께 명도전, 반량전, 오수전과 같은 시기를 추정할 수 있는 화폐류가 공반되는 공통점을 갖는다. 따라서 화폐의 출토양상을 검토하여 철기의 변화를 살필 수 있다. 특히 연계 철제 농공구와 함께 명도전이 공반되고 있어 세죽리유적은 후술할 세죽리-연화보문화의 시기적 위치를 비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기			-3	-1	-5	-6			式	2a	2b	3a	鐵劍							錢	錢	錢	
戰国	●	●	●	●	●			●	●	●	●	●			●	●			●				
漢				●	●	●							●	●				●	●	●	●	●	
					●	○							●		●							●	●
																							1期
																							2期
																							3期

1) 요동지역 분묘 1기

요동지역 분묘 1기는 大B, 大A-3형과 같은 대형과 小A-1형의 주조철부가 공반되는 시기이다. 대형과 소형의 주조철부가 공반되는 대표적인 유적으로는 철령 적가촌 창도묘와 본계 남분화차참묘가 있다. 두 유적에서는 5점의 주조철부가 부장되고 있는데 그 형식을 알 수 있는 것은 소수이다. 공통적으로 小A-1형와 大B형이나 大A-3형의 철부가 공반되는 양상이다.



<그림 2> 요동지역 분묘1기의 부장양상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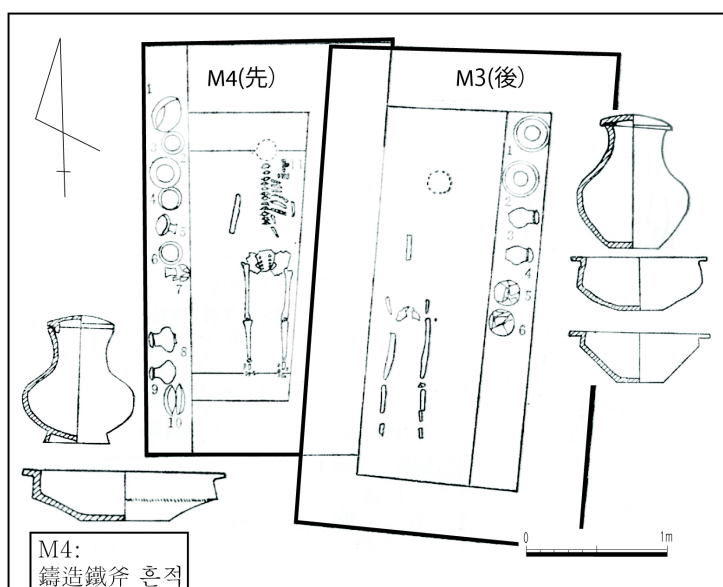
연하도 주조철부의 변천과정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小A-1형와 같은 소형의 주조철부는 전국시대 후기에 접어들면서 출토된다(김상민, 2014). 이를 고려한다면 분묘 1기의 상한은 대략적으로 전국시대 후기의 어느 시점이 된다.

분묘 1기의 부장양상에서 주목되는 것은 주조철부와 세형동검과 공반된다는 것이다. 세형동검의 부장은 한 대에 해당하는 2기 이후의 분묘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주조철부가 출토되지는 않았지만 세형동검과 함께 철기가 출토된 본계 상보 1호묘와 환인 대전자묘 역시 분묘1기로 볼 수 있다. 분묘 1기의 세형동검은 미야모토 가즈오의 형식분류를 기초로 살펴보면 요동2a식(남분화차참묘, 상보 1호묘)과 요동2b식(상보 1호묘, 대전자묘, 소항산둔 6호묘)에 해당한다. 이 분류에서 세형동검은 요동2a에서 요동2b로의 변화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宮本一夫, 2008), 전형적인 연계 주조철부와 요동2a식이 공반되는 남분화차묘가 비교적 이른 시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요동2a식과 요동2b식의 세형동검은 각각 명도전과 공반되어 그 시기차는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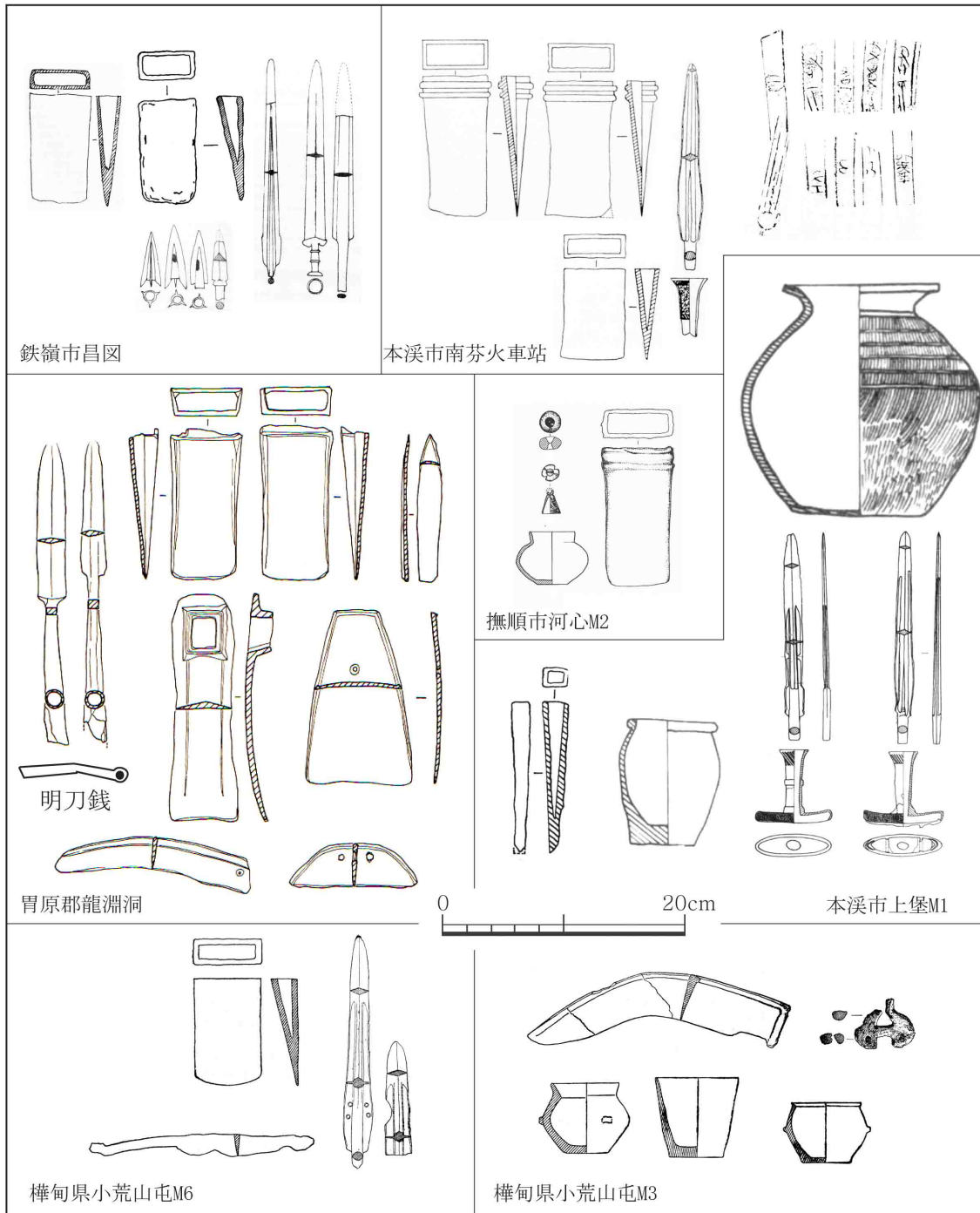
I B-3형 철부가 출토된 위원 용연동유적에서도 다량의 명도전이 부장되어 전국시대대로 볼 수 있는데, I B-3형 철부 2점 이외에도 주조철검, 장방형 팽이(鍬), 팽이형(鍬形)철기, 철사, 반월형철도와 같은 다양한 농공구와 함께 철모가 출토되었다. 특히 철사와 철모는 연하도 M44호의 출토품과 유사하다고 지적되고 있어 전국시대 후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潮見浩, 1982). 그러나 I B-3형 철부가 출토되는 점이나 주조철검이 전형적인 연나라 그것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는 점, 팽이형철기는 전국시대보다 한 대에 유적에서 다수 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용연동유적은 분묘1기

의 늦은 단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 밖에 대련 대반가촌 4호묘도 분묘 1기로 볼 수 있다. 4호묘에서는 주조철부의 흔적만이 관찰되고 있어 그 형식은 알 수 없다. 하지만 4호묘는 패묘인 3호묘와 중복되어 조성되어, 4호묘→3호묘라는 선후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그림 3). 3호묘가 전한대 들어서 확인되기 시작하는 패묘이므로 4호묘는 그 이전단계로 볼 수 있다. 4호묘에 부장되는 호가 전국시대 후기에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참고한다면, 전한대 이전시기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림 3> 대련 대반가촌 3호묘과 4호묘의 중복



<그림 4> 요동지역 분묘1기의 부장양상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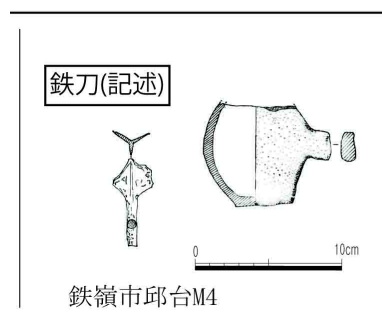
이처럼 분묘 1기는 주조철부를 중심으로 연계 철기류의 부장되기 시작하는 단계로서, 명도전의 주조연대와 연하도 내 小A-1형의 주조철부가 출토되기 시작하는 시점을 참고한다면 전국시대 후기인 기원전 3세기대가 중심이 볼 수 있다. 다만, 분묘 1기의 늦은 단계에 해당하는 용연동과 남산리 철기묘처럼 한 대의 다양한 철기류와 무기류가 공반되는 특징도 보이고 있어 기원전 2세기 전반까지 내려갈 가능성도 있다.

2) 요동지역 분묘2기

요동지역 분묘2기의 청동제 무기류의 부장은 감소하며, 철제무기류의 부장이 증가가 두드러진다. 이전 시기까지 주로 부장되던 대형의 주조철부는 확인되지 않으며, 소형에 해당하는 小A-1형 철부와 함께 小A-2형 철부가 부장된다. 대표적인 유적으로는 철령 서풍서차구묘, 무순 용두산 3호묘, 대련 노가촌유적이 있다.

분묘 2기의 小A-2형 철부는 서차구묘와 노가촌에서 확인된다. 두 유적에서는 공통적으로 한경과 반량전, 오수전이 공반되어 동시기로 볼 수 있지만, 전한경의 형식을 기초로 살펴보면 서차구묘가 비교적 긴 시간폭을 가진 유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무기류는 동병철검(銅柄鐵劍)과 철과, 철모 등 다양한 형태의 무기류의 부장이 이루어진다. 동병철검은 천산서쪽 구릉에 해당하는 서차구묘와 용두산3호묘에서 부장되었다. 특히 서차구묘에서는 전형적인 전한대 철검과 환두 대도가 동병철검과 일괄로 소개되었다. 또한 농공구류는 동부와 함께 小A-1형과 小A-2형 철부가 함께 보고되고 있어 小A-2형 철부가 제작되는 시기로 보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아직 정식보고서가 발간되지 않아 유구에 따른 출토현황을 확인할 수 없지만, 전한대 철기문화의 유입이 이루어지는 단계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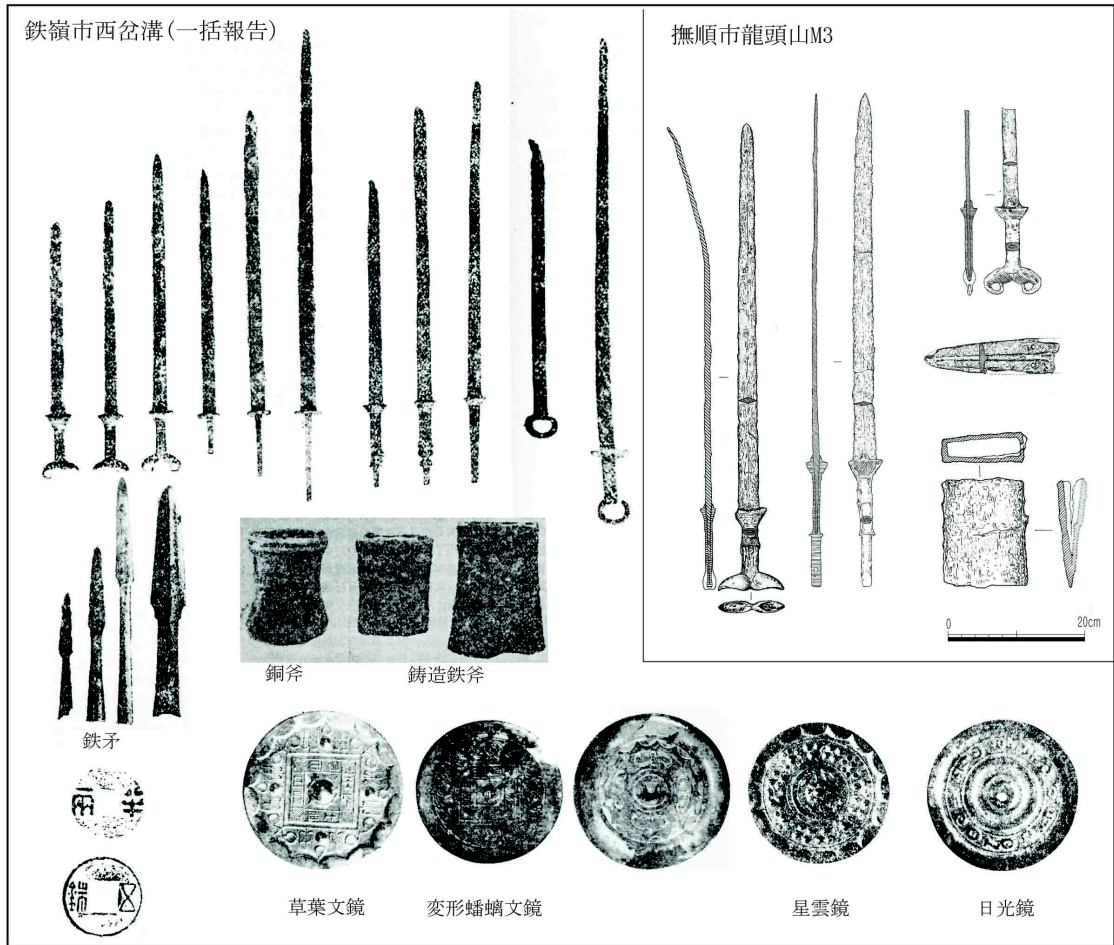


한편 용두산 3호묘에서 부장되는 농공구류는 小A-1형 철부뿐으로 철기만으로는 서차구묘보다 이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용두산 3호묘에서 출토된 동병철검의 동병부(銅柄部)는 서차구묘에서 출토되는 그것보다 늦은 형식이다(이광명, 2010). 이를 참고한다면 두 유적은 거의 동시기라고 추정할 수 있다.

요동 분묘 2기는 기존의 전국계 철기문화에서 벗어나 한 대의 철기문화의 영향을 받기 시작하는 시기로서 서차구묘에서 출토된 초엽문경(草葉文鏡)과 변형된 반리문경(蟠螭文鏡)의 연대로서 그 상한을 기원전 2세기 중엽으로 둘 수 있으며, 하한은 일광경(日光鏡)의 연대를 통해 기원전 1세기 중엽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림 5> 요동지역 분묘2기의 부장양상①



<그림 6> 요동지역 분묘2기의 부장양상②

3) 요동지역 분묘3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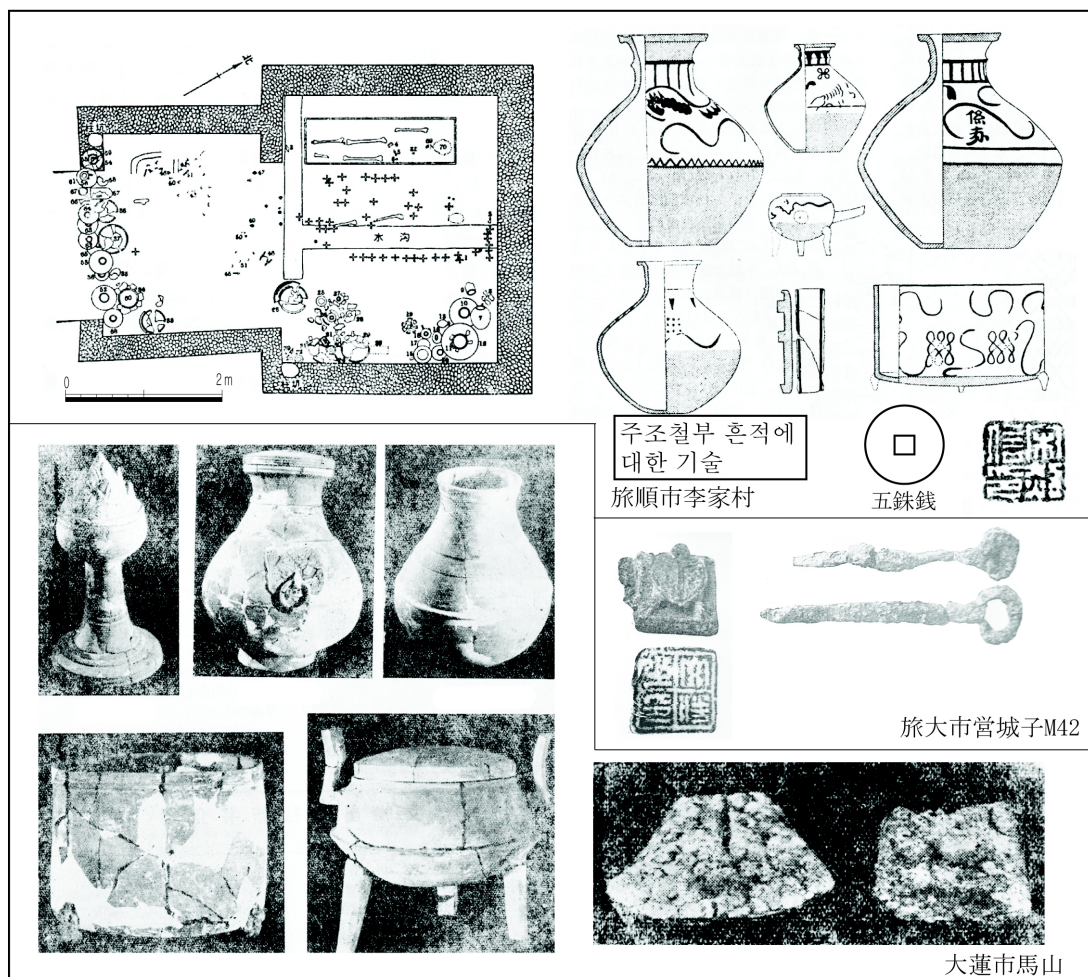
요동지역 분묘 3기는 주조철부가 小A-2형만이 출토되는 시기이다. 보고된 철기의 수량만으로 본다면 분묘 내 철기의 부장이 감소하는 경향으로서 小A-2형 철부나 철도자만이 부장된다. 패묘, 전실묘 등 전형적인 한 대의 분묘에서 철기가 부장되는데, 특히 요령반도가 다수를 차지하며 대부분 패묘에서 출토된다. 철기류의 부장현황을 살필 수 있는 대표적인 유적으로는 신금 마산패묘과 여대 영성자 M42호가 있다.

마산패묘에서는 두 점의 철부가 출토되는 데, 주조품으로 보이는 철부는 인부폭 8cm정도로 넓은 형태를 띠고 있어 小A-2형 철부로 분류된다. 다른 한 점은 선형으로 신부의 중앙에 관찰되는 접합선을 통해 단조철부로 판단된다. 또한 영성자패묘는 23호와 33호, 42호묘에서 철삽(鐵鍬), 환두도자가 출토되었는데, 그 중은 보고서를 통해 그 형태를 파악할 수 있는 철기는 42호묘의 환두도자 뿐이다. 개주 사구자묘에서는 전축다실묘의 내 小A-2형 철부와 소철편이 부장되었다. 분묘의 구조를 통해 전한 후기에서 후한 전기로 볼 수 있다.

한편 대련 신금 후원대한묘에서는 小A-2형 철부와 함께 승문타날이 시문된 罐이 출토되었다. 보고자는 전국시대의 동과, 동모, 동검과 오수전, 화천 등을 일괄자료로서 보고하였다. 동과의 명문 '啓封廿一年'에 주목하여 전국시대 위나라의 동검으로 보고 통일진대에 해당하는 시기로 보기도 하지만(이광명2010). 일괄자료인 오수전과 화천의 연대를 통해 진대까지 올려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 밖에도 여순 이가촌, 삼간구패묘에서도 철기가 부장되고 있지만 그 구체적인 현황을 파악할 수 없다. 이가촌 패묘에서 철검을 추정되는 철기, 삼간구패묘에서는 철도자가 한점씩만 보고되었다.

분묘 3기는 패묘와 전실패묘, 전실묘와 같은 전형적인 전한에서 후한초기에 해당하는 유구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또한 공반되는 토기류와 인장(印章)은 한 대의 대표적인 유물구성이다. 하지만 영성자패묘에 부장되는 한경의 형식이 이체자명대경(異體字銘帶鏡)(岡村IV식), 수대경(獸帶鏡)(岡村IV식), 日光鏡으로 기원전 1세기 중엽을 넘지 않는다. 또한 각 분묘에서 출토되는 오수전과 화천의 주조 연대를 기원전 1세기대에서 기원후 1세기 중엽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요동 분묘 3기의 연대는 기원전 1세기 중엽에서 기원후 1세기 중엽에 해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7> 요동지역 분묘3기의 부장양상

3. 취락 내 철기의 변천단계

요동지역 취락에서 철기가 출토되는 유적은 주거지와 도로, 요지와 같은 관련시설을 갖춘 전형적인 취락유적도 존재하지만, 조사범위 내에 주거지 한 두기의 주거지가 조사된 유적이나 동굴유적과 같은 소규모 주거지가 대부분이다. 전자에 해당하는 비교적 대규모 취락인 삼도호유적은 아직 정식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아 유구와 유물에 대한 구체적인 실상을 파악할 수 없다.

여기서는 현재까지 보고된 취락으로 판단할 수 있는 유적(이하, 취락)에 대한 검토를 통해 요동지역의 취락 내 철기의 변천과정을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층위관계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 철기의 선후관계를 확인하고, 일괄자료에 대한 검토를 통해 변천단계를 설정해가하고자 한다.

1) 층위관계를 통해 본 철기의 변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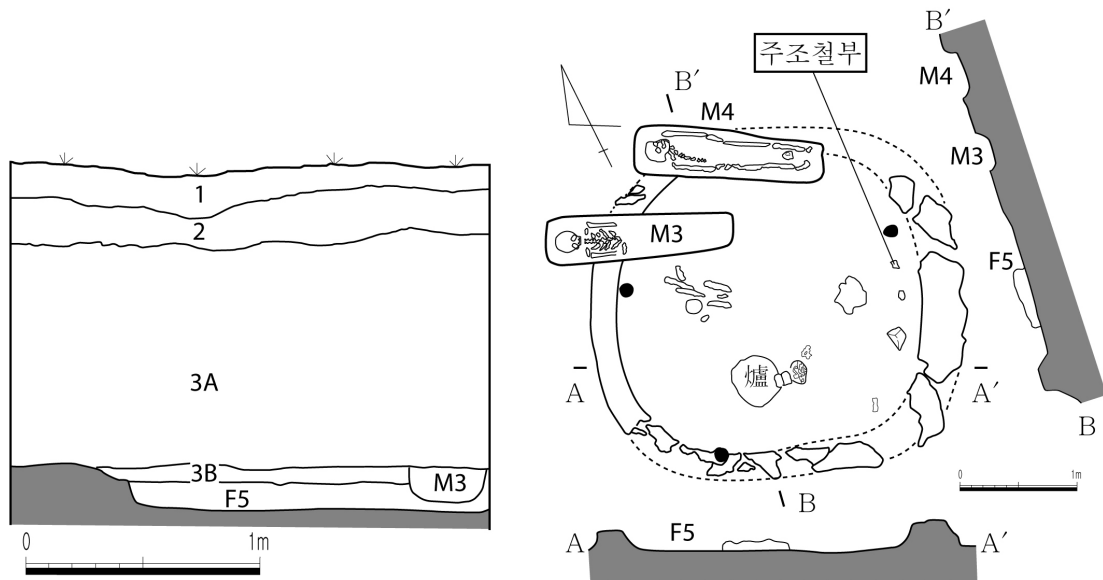
요동지역의 취락 중에서 층위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유적으로는 철령 구태유적과 무순 연화보유적, 환인 추수동유적이 있다. 그 중에서 구태유적은 층위에 따라 유구와 유물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

구태유적은 총 3개층으로 구분된다. 제1층은 현대의 표토층이고, 2층의 약 20~35cm 정도의 경작층으로 승문도기편과 요금(遼金)시대 자기편이 혼재되고 있다. 3층은 유적의 중심이 되는 시기로서 유구와 유물이 집중된다. 3층은 다시 3A층과 3B층으로 구분되는데, 3A층은 주로 니질(泥質)도기류가 출토되며, 3B층에서는 협사(狹沙)토기류가 비교적 많다. 이 유적에서 주목되는 것은 유구간의 중복관계이다. 앞서 구태유적 4호묘 부장 철기의 시기적 위치를 제시한 바와 같이 4호묘는 3B층에 형성된 5호주거지를 파괴하고 조성되고 있다. 이를 통해 4호묘는 3A층의 단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주거군의 폐기이후에 분묘의 매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3A층과 3B층은 어느 정도 시기차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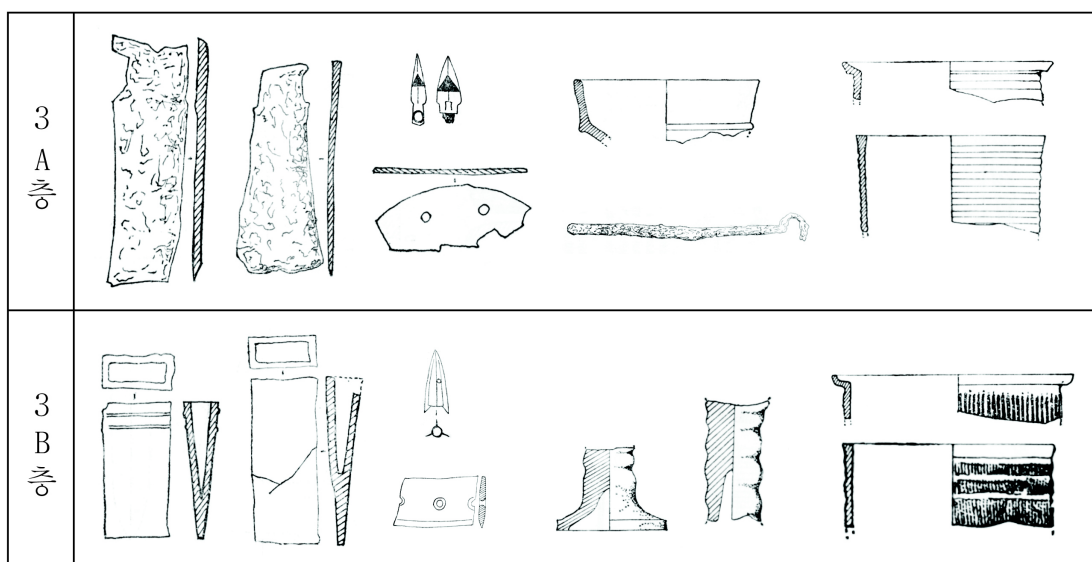
하지만 구태유적의 3층은 3A층과 3B층을 구분하지 않고 유물의 정리 및 보고가 이루어져 층위에 따른 유물의 변화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므로 먼저 3층에서 출토된 철기의 시기차를 확인하기 위해 중복관계에 있는 5호주거지와 4호묘의 철기를 비교해 보았다.

5호주거지에서 출토된 철기에 대한 구체적인 특징은 알 수 없지만, 기종이 주조철 부라는 사실은 확인된다. 구태유적에서 출토되는 주조철부는 모두 大A-1형과 大A-3형이며, 특히 5호주거지가 위치하는 5트렌치의 3층에서 출토되는 주조철부는 大A-1형이다. 현재까지 보고된 내용만으로 大A-1형 철부가 5호주거지에서 출토된 유물이

라고 단정하기는 파악하기 어렵다. 다만, 5호주거지가 구태유적의 최하 문화층에 위치하고 있는 것과 전국시대 주조철부의 형식 중에서 大A-1형과 大A-3형이 비교적 이른 시기의 형식이라는 것을 고려한다면, 5호주거지에서 출토된 주조철부는 적어도 大A-1형과 大A-3형의 철부의 형식을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반면, 5호주거지를 파괴하고 조성되고 있는 4호묘에서는 전국시대의 농공구류가 부장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철도와 철촉과 같은 무기류가 부장되고 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무기류가 부장되는 현상은 전한 이후 단계의 부장철기의 특징이다.



<그림 8> 철령 구태유적의 층위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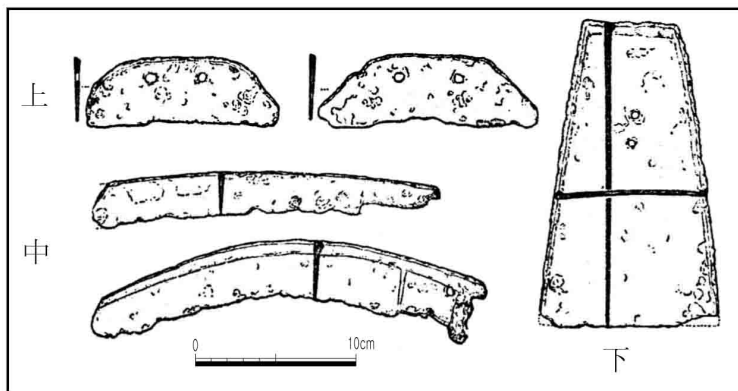


<그림 9> 철령시 구태유적 3층 유물의 분류안

한편 이광명에 의하면 구태유적의 조영시기를 명도전, 일화전, 포전, 반량전이 출토되고 있는 점을 통해 진한교체기로 보고 있다(이광명,2010). 그러나 현재까지 보고된 내용(武家昌 외 2003)에서는 근거가 되는 화폐에 대한 현황을 파악되지 않으며, 5호주거지에서 출토된 명도전만이 기술되어 있다. 그러므로 구태유적에 대해 반량전의 연대에 기초하여 진한교체기로 한정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중복관계를 통해 알 수 있었던 5호주거지가 4호묘보다 이른 단계라는 점과 5호주거지에서 명도전이 출토되었다는 점은 적어도 5호주거지가 위치하는 3B층은 전국시대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더불어 앞서 확인한 4호묘 부장철기의 시기를 고려한다면 3A층은 전한 대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구태유적은 전국시대에서 전한대에 이르는 비교적 긴 시간을 두고 형성된 유적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보고된 유물은 일괄적으로 3층으로 기재되고 있다. 보고된 이루어진 철기류를 단계설정하면 다음과 같다.

구태유적에 보고된 유물을 살펴보면, 철기는 주조철부 이외에 판상형철산, 반월형철도, 환두도자가 확인된다. 그 중 명확하게 전국시대 유물로 볼 수 있는 유물은 大A-1형과 大A-3형 철부뿐이다. 판상형철산과 반월형철도는 전형적인 전국시대 유물로 보기는 어렵고, 환두도자 역시 한대의 철기로 보아도 무방하다. 따라서 구태유적의 철기를 연계 주조철부와 그 외의 철기가 출토되는 단계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10> 무순 연화보유적 주거지 출토 철기류

다. 그리고 청동촉과 토기류에서도 시기적인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연식부(燕式釜)를 통해 시기차를 확인할 수 있는데, 기존의 분류안을 참고하면 釜Ⅰ식과 釜Ⅲ식으로 분류된다. 釜Ⅰ식은 진성(秦城)5,6호옹관과 유사한 전형적인 연식부로서 전국시대 후기로 볼 수 있다. 구연부의 형태와 동체부외면의 승문타날의 변화과정을 토대로 釜Ⅲ식으로 변화되는 것으로 상정되고 있다(宮本一夫,2004:2012). 釜Ⅲ식은 전한대의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3층에서 출토되는 연식부는 전국시대 후기에서 한 대에 이르는 형태가 출토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덧붙여 청동촉에서 철경동촉으로, 반월형석도에서 반월형철도라는 도구의 재질의 변화를 염두해보면 <그림9>와 같이 3층의 유물을 정리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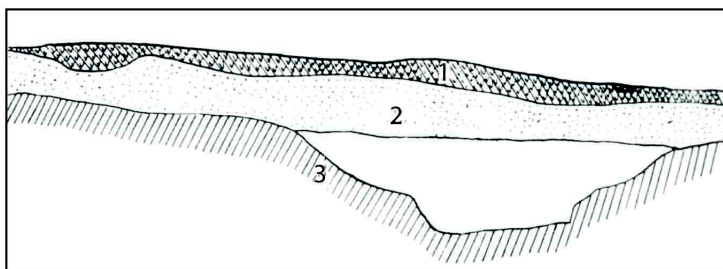
또한 무순 연화보유적은 보고내용을 통해 구체적인 층위관계를 파악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철기류가 출토되는 문화층과 그 상층에서 출토된 유물에 대한 비교를 통해 대략적인 시기를 추정할 수 있다.

무순 연화보유적은 앞서 정리한 것처럼 다양한 철기류가 출토되었으며, 일괄자료로서 단면이 원형인 점토대토기가 출토되고 있어 한반도의 철기문화의 유입시기를 추정

하는 유적으로 주목받았다. 연화보유적의 철기층 출토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6점이다. 보고서에서는 주거지로 판단되는 석단(石壇)의 기초부(基礎部)를 상(반월형석도)-중(철검)-하(괭이형철기)로 구분하여 기록하였다. 철기의 출토현황이 층위에 의한 구분인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이 철기들이 출토되는 문화층의 상층에서 팔수(八銖)반량전이 출토되어 적어도 팔수반량전의 이전 시기라는 것은 알 수 있다. 팔수반량전 이전의 高后2년에 해당하는 기원전 186년에 주조되었기 때문에 그 하층에 해당하는 철기류의 시기는 대략 기원전 2세기 이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밖에 층위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취락으로는 환인 추수동유적이 있다. 추수동유적은 기반층을 제외하면 크게 1층(표토층)과 2층(흑토층)으로 구분할 수 있다. 대부분의 유구와 유물은 2층에서 출토되고 있다. 2층은 두께 30~40cm 내외로서 그 시간적 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며 거의 동시기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2층에서 출토되는 철기는 大A-3형 철부와 함께 철도자, 철촉과 같은 다양한 기종이 출토되는데, 특히 철촉과 철도자는 연계철기에서 보이지 않은 독특한 형태를 띠고 있다. 또한 大A-3형 철부도 이조 돌대가 약해지는 듯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철기류의 특징을 통해 전형적인 연계철기류라고 보기는 어렵다. 동일한 문화층 내에서 명도전, 포전과 함께 반량전도 출토되고 있다. 따라서 추수동유적은 반량전이 주조되는 단계에 해당하는 단계로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층위관계가 확인되는 취락에 대한 검토를 통해 화폐의 변화와 함께 철기류의 형태 및 기종의 변화도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반량전이 출토되는 이전 단계에는 전형적인 연계 철기류가 출토되지만, 반량전이 공반되는 철기류는 연계철기의 특징이 변형되면서 기종의 변화가 진행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림 11> 환인현 추수동유적 2트렌치 남벽 층위

2) 요동지역 취락 철기의 변천단계

층위관계를 통해 검토한 것처럼 요동지역의 취락 내에서 출토되는 철기는 전형적인 연계 농공구류 출토되는 시기와 주조철부가 변형되거나 무기류 등의 기종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철기류의 변화양상을 토대로 요동지역

취락에서 출토된 철기류와 공반유물을 검토하여 취락철기의 변천단계를 설정하고자 한다.

요동지역 취락에서 출토되는 철기류와 일괄자료를 정리하면, 몇 가지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철기의 조합관계에서 전국시대의 연계철기류만이 출토되며, 이 경우 포전과 명도전이 공반되는 경향이 확인된다. 이와 같은 출토양상은 구태유적의 3B층, 연화보 주거지에서 확인되는 유물조합으로 시기적으로도 맞아떨어진다. 특히 주조철부와 철검은 연화도를 중심으로 한 연나라의 영역에서 출토되는 형식만이 확인된다. 그러므로 요동지역의 취락 내 철기가 출토되기 시작하는 시기의 특징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주조철부와 철검은 전형적인 연나라의 형식과는 다소 차이를 보이며, 철착, 철서, 철산과 같은 기종이 추가되는 경향을 보인다. 화폐는 포전과 명도전과 함께 일화전(一化錢)과 반량전도 출토되고 있다. 전형적인 연계 철기에서 다소 변형이 이루어지는 점과 반량전이 출토되는 양상은 앞서 살펴본 추수동유적의 출토양상과 유사하다.

또한 팽이, 팽이형철기, 철삽과 같은 굴지구의 출토량이 증가하고, 단조화된 철검과 조합되는 양상도 확인된다. 철기와 함께 오수전, 화천이 출토되고 있어 비교적 늦은 시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은 일괄되는 철기의 조합관계에서 보이는 차이는 연나라 철기의 유입에서 변형과정을 보여주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 시기적 획기는 반량전과 오수전의 초주 시기와 거의 일치하고 있다. 따라서 요동지역 취락 철기의 변천단계를 앞서 제시한 특징에 기초해 크게 3단계로 설정하고자 한다.

<표 5> 요동지역 취락 내 철기의 현황과 단계설정

기종 시기	農工具											武器類						貨幣					段階			
	鑄造鐵斧							鍬	鍬形	鍬	鍬	鑿	鎌		半月形 刀	環頭 刀	銅鐵		鐵鍬	布錢	明刀	一化		半兩	五銖	貨泉
	大A-1	大B	大A-2	大A-3	小A-5	小A-6	기타						주조	단조			石	鐵								
	○	●	●	●	●	○		●	○	●	●	●	●	●	●	●	●	●	●	●	●	●		●	●	●
戰國	○	●	●	●	●		●					●	●	●			●			●	●					1期
秦·漢	●	○	○	○	●	●		■	○	●	●	●	●	●	●	●	●	●	●	●	●	●	●	●	●	2期
		○			○		●	●	■	■	■	○	○	●	●	●	○	○						●	●	3期

(1) 요동지역 취락 1기

요동지역 취락 1기는 구태유적의 3B층과 연화보유적의 주거지 내 출토된 철기의 형식과 조합관계로 대표된다. 철기는 농공구를 중심으로 비교적 단순한 기종구성을 띤다. 주조철부는 장방형과 제형의 단면형태를 띠는 大B, 大A-2, 大A-3형, 小A-1형이 출토되는데, 장방형에 이조돌대를 갖춘 大A-3형이 다수를 차지한다. 또한 小A-1

형과 같은 소형의 철부도 확인된다. 주조철부는 주조철검과 평면육각형과 장방형을 띠는 팽이와 공반되는 예가 많다. 이 단계 취락에서 출토된 농공구류는 거의 연계철기라고 보아도 무방하다. 연하도의 취락 내 주조철부가 보편화되는 시기를 고려하면 전국시대 후기로 보는 것이 적당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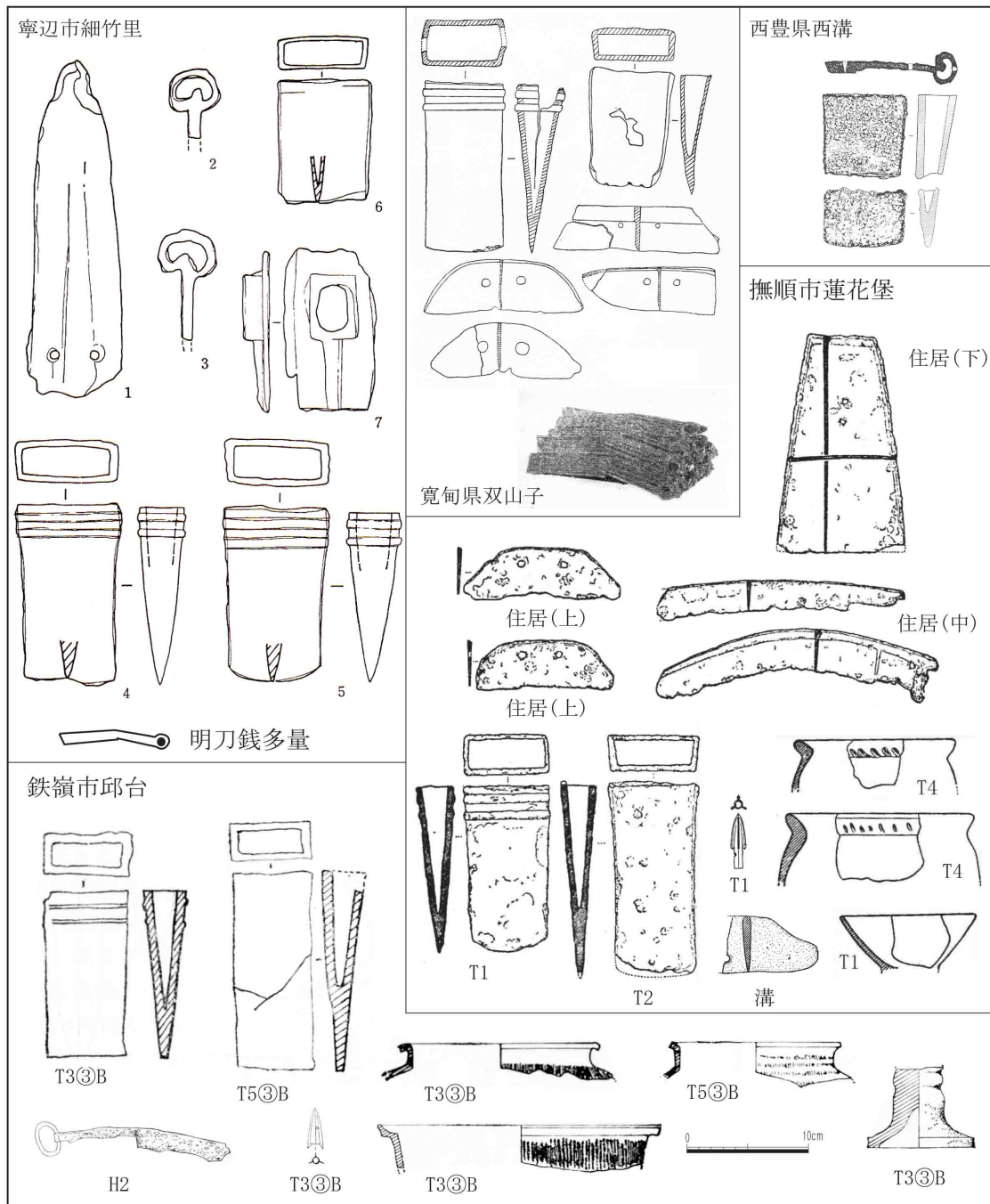
또한, 영변 세죽리유적과 무순 연화보유적의 주거지 내에서 다량의 반월형철도가 출토되고 있다. 반월형철도는 연하도 취락에서도 1점 채집되었지만 기본적으로 전형적인 연계철기의 구성으로 보기 어렵다. 동시기로 추정되는 구태유적 5트렌치 3B층과 연화보유적 2트렌치에서는 반월형석도와 주조철부가 함께 출토된 사례도 있다. 그러므로 요령지역의 청동기문화에서 존재하던 반월형석도가 철기화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세죽리유적의 반월형철도가 다량의 명도전과 공반되고 있는 점, 연화보유적의 반월형철도가 반량전이 출토된 문화층의 아래에서 출토되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적어도 전한대 이전단계에 유행한 철기로 판단된다.

요동지역 취락 1기는 연나라의 철기문화가 요동지역으로 유입되는 단계이다. 그 시기는 구태유적의 3B층에서 출토된 두형(豆形)토기와 솥의 형태를 통해 전국시대 중기까지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전국시대 중기는 연나라의 중심지인 연하도 내부 취락에서도 철기가 보편화되지 않는 상황에서 요동지역의 철기를 중기까지 올려보기는 어렵다. 철기와 공반되거나 동일층에서 출토된 화폐가 모두 포전이나 명도전이라는 것을 통해 전국시대 후기인 기원전 3세기 전엽까지 올려볼 수 있을 것이다. 하한은 연화보 주거지에서 출토된 철기류가 팔수 반량전(전한.高后2년)보다 하층에서 출토되는 것을 통해 기원전 3세기후엽까지로 비정해두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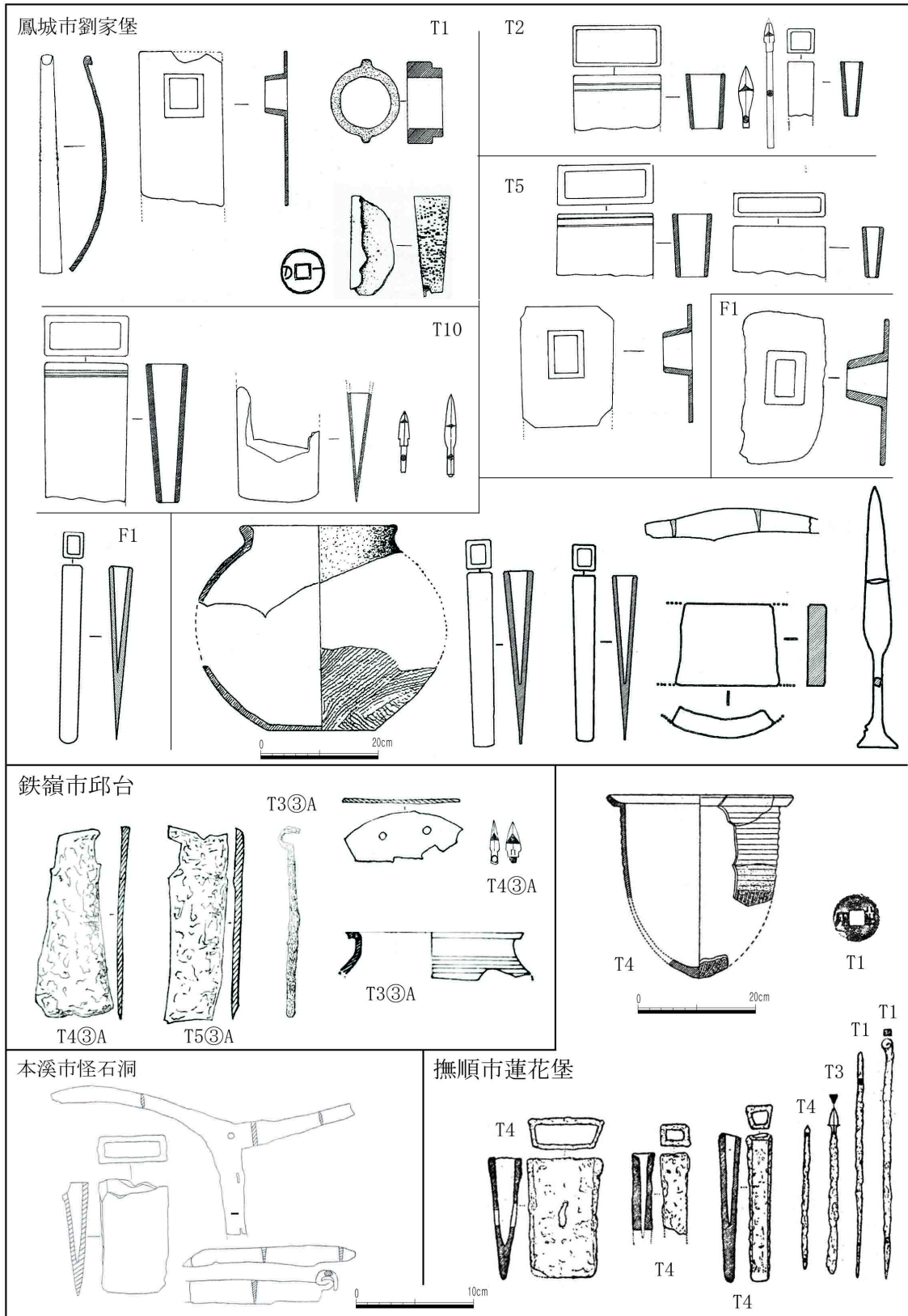
(2) 요동지역 취락 2기

요동지역 취락 2기는 기존의 주조철부와 철검과 같은 철제농공구와 함께 다양한 굴지구가 추가되는 것을 특징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다수를 차지하는 팽이는 평면형태가 장방형을 띠며, 이전 단계에 출토되던 육각형의 팽이는 확인되지 않는다. 그 대신 철산, 철서(鐵鋤)와 같은 새로운 기종이 등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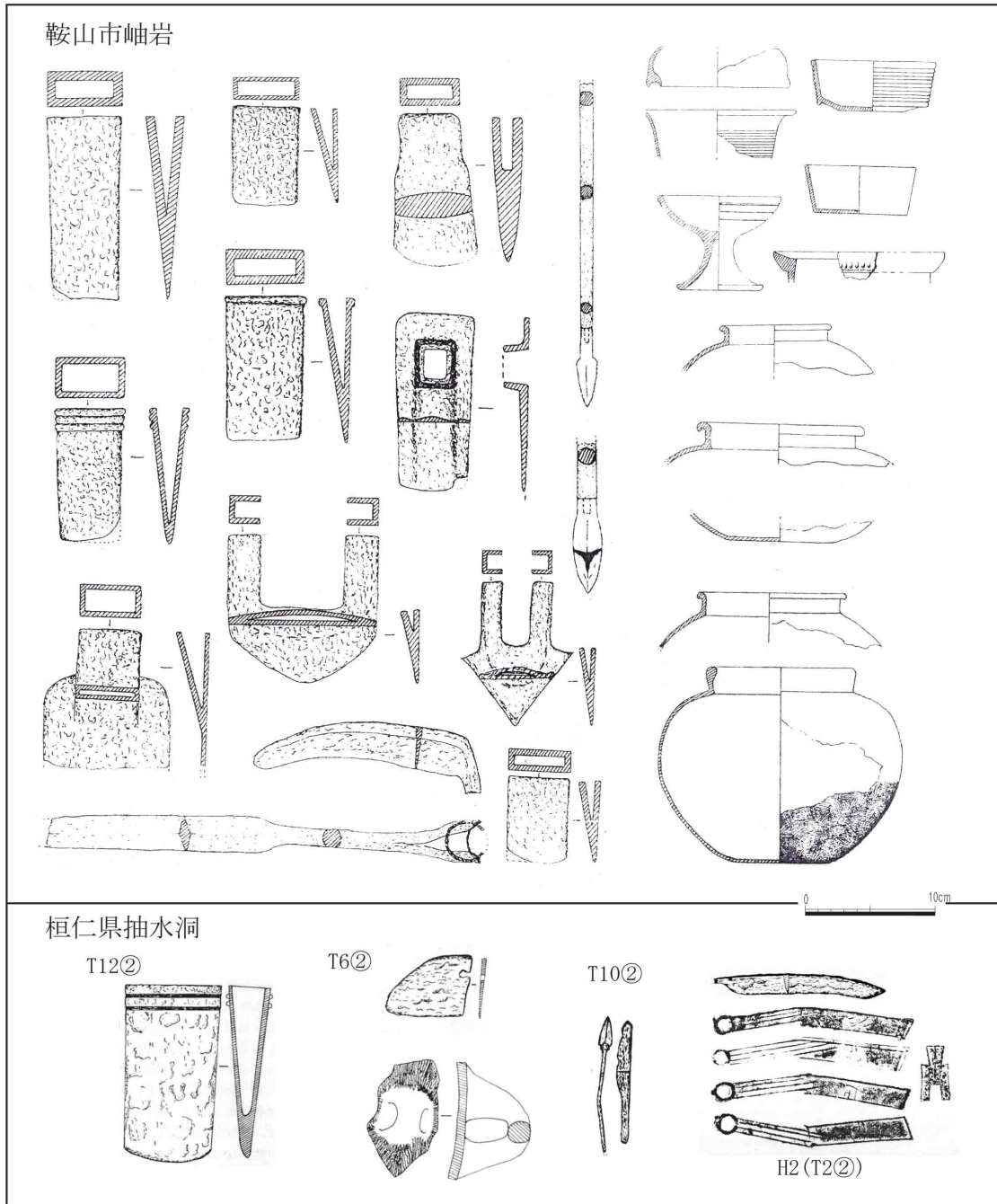
먼저 요동 취락 1기에 주요 기종이 되었던 주조철부와 철검은 전형적인 연나라 철기에서 다소 변화된다. 대형과 소형의 주조철부가 함께 출토되는 경향은 이전 단계의 출토양상과 동일하지만 대형인 大A-2형과 大A-3형은 전형적인 연계 철기로 보기는 어렵다. 연화보유적 3트렌치에서 출토된 주조철부는 공부(鋸部)에서 인부(刃部)로 점점 넓어지는 형태를 띤다. 이 특징은 小A-2형철부에서 보이는 특징이지만 전장의 길이에 따른 분류에서는 大A-2형철부로 분류된다. 그러므로 연화보유적 3트렌치 출토품은 大A-2형철부와 小A-2형철부의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어 주조철부가 소형화되는 두 형식의 중간에 해당하는 어느 시점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림 12> 요동지역 취락 1기의 철기와 일괄자료



<그림 13> 요동지역 취락 2기의 철기와 일괄자료①



<그림 14> 요동지역 취락 2기의 철기와 일괄자료②

또한 大A-3형철부의 특징인 이조돌대가 퇴화되는 현상도 관찰된다. 봉성 유가보유 적, 환인 추수동유적에서 출토되는 주조철부는 大A-3형으로 분류할 수 있지만, 돌대가 약해지거나 흔적만이 존재한다. 그리고 안산 추암유적과 같이 한 줄이나 세 줄의 돌대가 형성되어 것도 있다. 그러므로 취락 2기가 되면, 전형적인 연계의 형식이었던 大A-3형철부가 변형되는 특징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요동 취락 2기의 기종 구성에서 철착과 단조철부가 포함되는 점이 주목된다.

철착은 연하도를 중심으로 한 연나라의 중심지역에서는 비교적 이른 단계부터 출토되지만, 요동지역으로 유입된 최초로 기종구성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취락2기부터 출토되는 철착의 형태는 연화보와 유가보에서 확인된 철착은 보다 이른 단계의 철착에 해당하는 본계 상보 부장품과 형식적으로 차이를 보인다. 단조철부는 공부와 신부를 따로 제작하여 단접한 형태를 띤다. 그러나 단조철부는 연나라의 전형적인 제작기술이라기 보다는 한 대에 들어서 보편화된다. 단조제 철기류는 철부뿐만 아니라 철모, 철과, 철촉과 같은 무기류에서도 보이고 있어, 주조품과 함께 단조품의 제작과 유통이 이루어지는 시기로 볼 수 있다. 취락 2기에서 단조품의 제작이 활발해진다는 것은 연나라 철기문화의 영향을 벗어나기 시작하였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취락 2기의 철기의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 유적이 안산 추암유적이다. 추암유적에서는 주조품과 단조품이 공존하고 있다. 전형적인 전국시대 연계철기로 볼 수 있는 大A-2형과 小A-1형철부와 함께 다소 변형된 大A-3형철부, 주조철검이 출토되며, 주로 한 대에 들어서 출토되는 단조철부, 철서, 철모, 철촉 등 단조품이 공존한다. 추암유적은 연나라 철기문화에서 한나라 철기문화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요소를 가진 유적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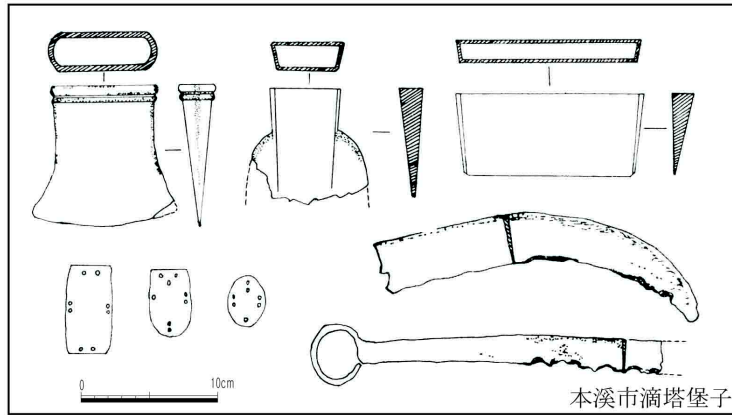
이처럼 요동지역 취락 2기는 연나라의 철기문화에서 한 대의 철기문화로 전환되는 단계로서 철기와 함께 공반되는 화폐에서도 변화가 보인다. 기존의 명도전, 포전과 함께 전국시대 후기에 일시적으로 주조되는 일화전(기원전 226~222년:王翳淵,1990)과 반량전이 출토된다. 그 연대는 진한교체기에서 전한대에 해당하는 기원전 2세기 전엽에서 기원전 2세기 후엽으로 두고자 한다.

(3) 요동지역 취락 3기

요동지역 취락 3기는 단조 철제품의 증가하는 시기이다. 취락 2기까지 주요 기종이었던 출토되던 주조철부는 감소하며, 팽이나 철산 등과 같은 굴지구의 증가하는 것을 특징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철삽과 같은 기종이 등장하는 것도 주목된다. 요동 취락 3기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유적으로 요양 삼도호유적과 본계 적담보자(本溪 滴搭堡子) 유적이 있다.

삼도호유적은 주거지와 함께 도로, 요지가 확인되는 비교적 대규모의 취락이다. 다량의 철기류가 출토되었으나 정식 보고서가 출간되지 않아 그 구체적인 내용은 파악하기 어렵다. 현재까지 보고된 내용을 토대로 철기의 현황을 보면 주거지와 요지, 도로유구에서 주조철부와 단조철검, 팽이형철기와 같은 농공구류의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환두도자나 철검, 철촉과 같은 일부의 무기류에 대해서도 소개되어 있다(東北博物館,1957)

삼도호유적에서 소개된 철기류 중 그 형식을 파악할 수 있는 유물은 小A-1형철부 뿐으로 다수의 환두도자, 철검 등이 출토되었으나 극히 일부만이 소개되어 형식에 따른 철기의 변화는 알 수 없다. 삼도호유적에 소개된 철기류 중 주목되는 것은 철검이다. 철검은 대형의 단조철검과 기부에 구멍이 뚫린 형태의 소형철검으로 구분된다. 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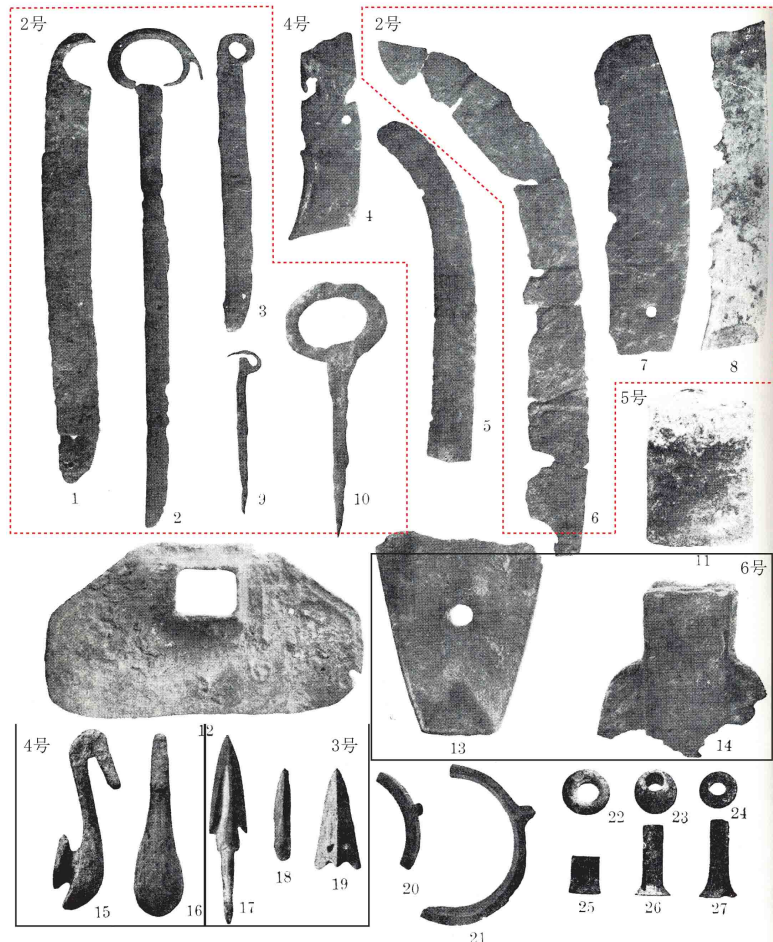


<그림 15> 본계시 적탑보자유적 철기의 현황

중 2호주거지에서 출토되는 소형철검은 위원 용연동 출토 철검과 비교할 수 있다.

용연동유적에서 출토된 철검은 주조철검으로 파손된 기부를 재가공한 후 구멍을 뚫었다. 용연동유적 철검처럼 훼손된 철기를 재가공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³⁾을 고려한다면, 삼도호 2호주거지에서 출토된 소형철검도 주조품을 재가공한 철검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2호와 4호주거지에서 출토되는 철검의 형태를 띠는 철기는 재가공하기 이전의 형태라고 볼 수 있다. 삼도호유적의 철검을 통해 단조철검이 제작되는 시기에는 주조철검에 대한 재가공도 존재하였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

한편 적탑보자유적에서 출토되는 주조철부, 철산, 철삽, 철검, 환두도자 등의 철기류는 기본적으로 삼도호유적에서 출토



<그림 16> 요양시 삼도호유적 철기의 현황

3) 용연동유적 철검이 기부가 결실된 현상에 대해서는 2010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실시한 실건조사에서 미야모토 가즈오(宮本一夫)의 조언에 의해 구체적으로 관찰할 수 있었다.

되는 기종과 동일하다. 그러나 철부의 형태나 찰갑이 출토되는 양상과 같은 차이도 있다. 주조철부는 소형으로 인부가 넓어지는 형태로 공부에 2조돌대가 형성되어 있다. 이와 같은 형태와 유사한 주조철부가 유수 노하심(榆樹老河深)유적, 평양 조왕리 출토품과 비교될 수 있다. 특히 노하심유적에서는 동일한 형태의 철부와 찰갑도 출토되고 있어 동시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노하심유적은 전한후기에서 후한에 걸쳐 형성된 유적이라는 점에서 시기를 상정하는데 참고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요동지역 취락3기는 1~2기의 철기가 혼재되기도 하지만 단조품을 중심으로 한 한 대의 철기가 출토되는 경향이 강하다. 또한 삼도호유적의 사례를 통해 취락 내 주조품의 재가공이 시도되었을 가능성도 지적할 수 있다. 공반되는 화폐가 오수전과 화천이 중심인 것을 통해 전한 중후기에서 후한대에 해당하는 시기로 추정된다. 따라서 요동 취락 3기는 기원전 2세기 후엽부터 기원후 1세기 중엽으로 설정해두고자 한다.

IV. 연나라 철기문화의 확산과 「세죽리-연화보문화」

1. 「세죽리-연화보문화」의 시간적 위치

요동지역 철기문화의 변천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분묘와 취락이라는 유적의 현황을 정리하여 철기의 변천단계를 설정하고자 하였다. 철기의 기종과 형식 간의 보이는 조합관계의 변화를 검토하고 공반유물을 확인하여 철기의 변화상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요동지역 철기문화의 변천은 연하도, 요서지역과 마찬가지로 공반되는 화폐류의 변화와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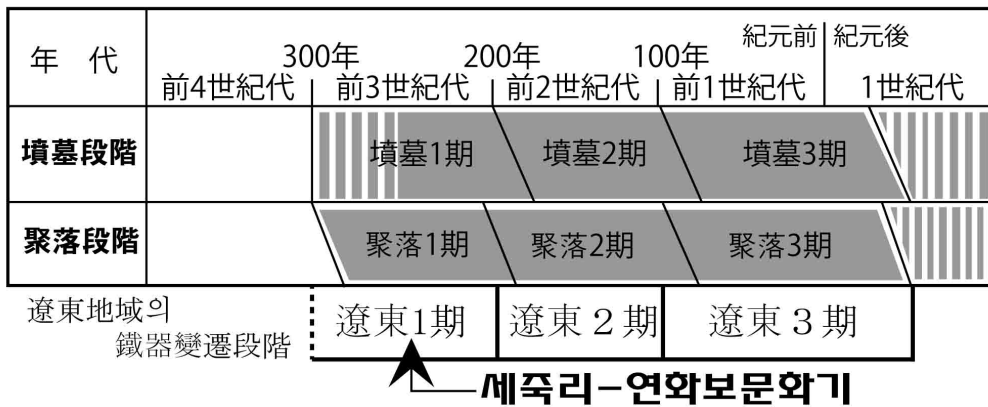
요동지역의 철기문화는 분묘와 취락의 변천단계를 고려하여 크게 3단계의 변천과정을 보인다. 먼저 기존의 청동기문화 안에서 소수의 철기가 포함된 단계로서, 연나라 철기가 본격적인 유입되면서 분묘 1기와 취락 1기의 유적이 형성된다. 분묘와 취락에서 연계철기류가 출토되는데 재지적인 청동제 무기류와 연계 철제 농공구가 함께 부장된다. 그 연대는 반량전이 출토되기 이전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전국시대 후기인 기원전 3세기 중엽에서 2세기 전엽으로 보고자 한다. 다만, 철령 구태 5호주거지의 주조철부와 공반되는 연식부(燕式釜)와 두형(豆形)토기의 양식을 고려하면 취락 1기의 상한연대는 좀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

다음으로 연계 철기류의 형태가 변형되고 철제 무기류가 본격적으로 출토되기 시작하는 단계이다. 분묘 2기와 취락 2기의 유적이 형성되는 시기로서 한경과 반량전 등 한 대의 물질문화가 유입되는 단계이다. 한경과 반량전의 주요연대를 토대로 기원전 2세기 중엽에서 기원전 1세기 중엽으로 비정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분묘 내 철기의 부장이 줄어들며, 취락 내 한 대 철기류가 출토되는 단계이다. 분묘 3기와 취락 3기의 유적이 형성된 시점으로 볼 수 있다. 단조 철기류가 증가하는 경향이 강하며, 주조품을 중심으로 한 연나라 철기문화의 영향을 벗어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요양 삼도호유적에서 출토된 재가공 철검의 사례를 통해 연계 주조철기류의 재가공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상과 같은 요동지역 철기문화의 변천과정을 정리하면, <그림17>과 같이 요동 1기에서 요동 3기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시기 구분 속에 영변 세죽리유적과 무순 연화보유적을 대표로 하는 철제 농공구류와 명도전, 승석문 회도(繩蓆文灰陶)와 외반구연호 등이 유물 구성을 갖는「세죽리-연화보문화」의 시기적 위치는 요동 1기에 해당하며 기원전 3세기대가 중심이 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17> 세죽리-연화보문화의 시기적 위치

2. 「세죽리-연화보문화」의 공간적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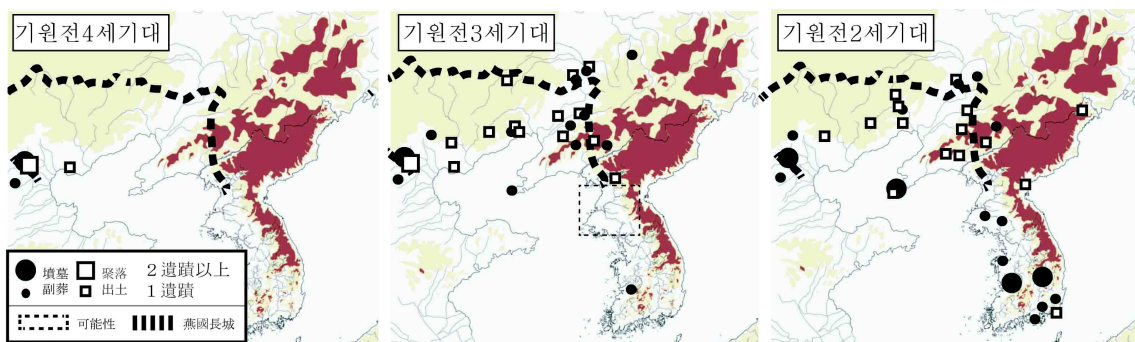
연나라 철기문화의 확산과정을 살피기 위해서는 요동지역으로 철기문화가 유입되기 이전인 기원전 4세기대의 연나라 철기문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기원전 4세기대 연계 철기류가 출토되는 범위는 연하도를 기준으로 하여 남쪽으로는 당현 고창(唐縣 高昌)유적, 동쪽으로는 당산 동환타(唐山 東歡坨)유적에 불과하다. 연나라의 중심 거점으로 알려진 연하도 내에서도 철기의 소유와 생산은 특정계층에 한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김상민, 2014), 기원전 4세기대 연나라 철기문화의 확산은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원전 3세기 이후 연하도 내 취락에서도 다양한 철기류가 출토되기 시작했다. 연하도 M44호묘에서 보이는 철제 무기류의 대량 매납은 비교적 낮은 계급의 사병에게도 무기류의 보급이 이루어졌다는 것으로 알려준다. M44호묘 철기의 출토양상과 기종구성을 통해 연나라 철기문화의 보편화를 추정할 수 있는 것이다. 기원전 3세기 대 철기문화의 보편화는 본격적인 철기의 대량생산과 관련이 깊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양한 주형이 출토된 흥융 수왕분지구의 등장은 철기생산의 대량 생산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려준다.

동시기 요령지역에서는 분묘와 취락 내에서 철기가 출토된다. 요령지역 철기의 출토양상은 요하를 기준으로 요서와 요동지역이 다소 차이를 보인다. 요서지역은 안장자(安杖子)와 소황지(小荒地)와 같은 고성지에서 철기가 출토되는 경향을 보인다. 그렇지만 조양 원대자(朝陽 袁臺子)유적과 같은 대규모 분묘군에서는 연계장식도기는 부장되고 있지만 철기의 부장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반면, 요동지역은 취락에서 뿐만 아니라 분묘 부장품으로서도 철기가 출토된다. 요동지역 철기는 연나라 장성의 주변에 집중된다. 이 유적들에서는 앞서 제시한 연계철기와 명도전과 같은 연나라의 물질문화와 재지적인 물질문화가 혼재된 형태로 확인된다. 이와 같이 요동지역의 연나라 장성과 인접하여 연계철기류가 확인되는 유적의 분포권역을「세죽리-연화보문화권」으로 볼 수 있다. 세죽리-연화보문화권의 범위는 현재까지 자료를 통해 무순 일대에서 압록강 중하류일대로 한정할 수 있다. 그러나 동시기 길림의 소황산둔 M3·M6호묘나 완주 갈동2·3호묘에서도 연계 철기가 출토되는 것으로 보아 연나라 장성 주변인 서북한지역 일대까지 확대할 수 있는 여지도 있다.

이후 기원전 2세기대가 되면 연하도 내 분묘의 한식 물질문화의 부장이 증가하지만 부장품으로써 철기의 부장은 적어진다. 이전시기에 보이지 않았던 요서와 요동반도 내 철기의 부장양상은 증가하는데 철삽(鐵鍬)등 모두 한식 철기이다. 즉 기존의 연계철기의 부장은 사라지고 철삽, 소A-6형철부와 같은 한식철기류가 부장되기 시작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원전 2세기대 요동지역 철기의 분포양상을 살펴보면 이전시기와 별 다른 차이가 없다. 더불어 지속적으로 연계철기류가 출토되고 있으며, 세죽리-연화보문화 철기의 주요기종 중의 하나인 반월형철도는 지속적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기원전 3세기대와 달리 철기류는 부장품보다 취락 내 출토되는 경향이 많으며, 전형적인 연계철기라기보다는 다소 변용된 형태이다. 연계철기는 大A-3형 철부의 이조돌대가 변형되거나 철검의 재활용과 같은 형태로 나타나는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유적으로 추암유적(그림14上)과 삼도호유적(그림15)을 들 수 있다. 반월형철도와 변형된 연계철기의 분포범위를 살펴보면, 주로 천산산맥의 동쪽으로, 남쪽으로는 압록강중하류역에 분포한다. 이는 이전 시기 세죽리-연화보문화권의 범위가 거의 일치한다. 이처럼 기원전 3세기대 연나라의 철기문화의 확산에 의해 형성된 세죽리-연화보문화권은 한나라의 성립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유지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18> 연나라 철기문화의 확산과정

3. 연나라 철기문화의 확산과정과 「세죽리-연화보문화」의 등장배경

앞서 제시한 것처럼 요동지역 철기문화의 등장은 기원전 3세기대 연나라 철기문화의 확산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기원전 3세기는 동북아시아 여러 지역에 철기문화가 확산되는 시기로서 요령지역 전역뿐만 아니라 장성 외곽인 동북지역 및 한반도 남부지역, 일본열도에 이른다. 이와 같은 연나라 철기문화의 확산과 관련하여 기원전 3세기대로 볼 수 있는 란하(濛河)유역에 위치하였던 수왕분지구에 주목하고자 한다. 수왕분 지구는 요서지역의 서쪽일대에 해당하는 철기생산유적으로 유적 내 확인되는 다양한 종류의 용범(鎔范)은 철기의 대량 생산과 관련이 깊을 것이다. 이로 인해 기원전 3세기대는 연하도를 중심으로 한 철기생산에 그치지 않고 철기생산에 적절한 거점 내에서 대량 생산하기 시작하면서 철기의 보편화와 주변지역으로 확산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이 시기 확산되는 철기문화의 특징은 지역에 따라 서로 다른 특징을 보인다. 요서지역은 고성지와 같은 취락유적에서만 철기가 출토되지만, 요동지역은 분묘와 취락에서 철기가 출토된다. 더불어 연나라 장성을 넘어 길림과 한반도 남부지역에서는 부장품으로만 출토된다. 이처럼 철기문화가 주변지역으로 확산되는 과정에서 보이는 지역차는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다.

요령지역에서 보이는 동서간의 지역차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먼저 철기의 가치에 대한 관점이다. 요서지역에서 철기 취락에 한정되는 것에 대해 부장품으로서 상징적인 가치보다 실용품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지만, 요동지역은 철기를 요서지역에 비해 부장품으로의 상징성이 강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즉, 연나라의 중심지와 가까운 요서지역은 요동지역에 비해 철기의 보급률이 높아 부장품으로서 희소 가치가 떨어졌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지배의 관점에서 해석이 가능하다. 연나라의 중심지에 인접한 요서지역은 군소(郡所)가 설치되면서 재지집단에 적극적으로 철기가 보급하지 않은 반면, 연나라의 중심지와 거리를 둔 요동지역은 재지집단은 철기를 사여하여 관계를 유지하였다는 해석이다. 즉 연나라는 각 지역에 대한 지배방식을 달리하였다고 보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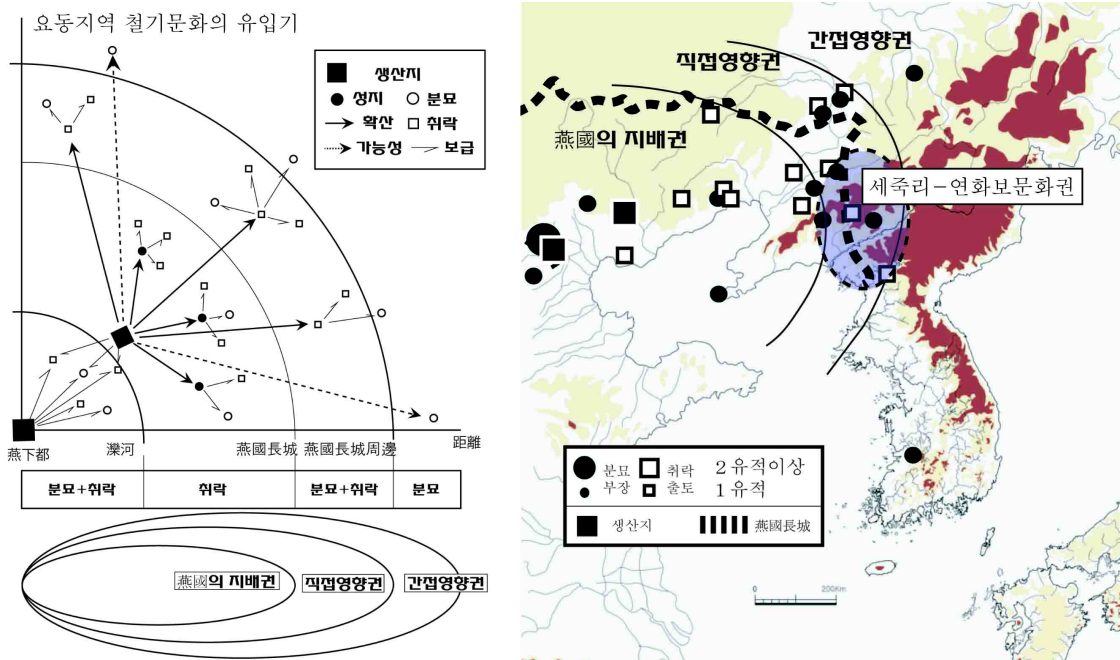
요령지역에서 보이는 지역차의 원인에 대해 발표자는 후자의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기원전 4세기대 요서지역에서는 철기가 전혀 출토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기원전 3세기대 급격히 보급되어 실용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동시기 원대자유적에서는 연계장식도기와 재지계 원형점토대토기가 공반되고 있어 요서지역 내에서도 연나라 물질문화에 대한 부장품으로의 인식이 강했다고 알 수 있다. 요서지역 내 기원전 2세기대 분묘에서 철기를 부장하는 양상이 확인되는 것은 결국 철기의 상징적 의미는 오랜 기간 지속되었다는 알려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원전 3세기대 요서지역 내 철기가 부장되지 않는 원인은 철기의 가치라는 관점에서 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요서지역 다수의 철기가 고성지에서 출토되는 것에 주목하고자 한다. 특히

안장자고성은 우북평군(右北平郡)으로 상정되고 있어 중원과 동북지역을 연결하는 중개지(仲介地)가 된다. 이처럼 고성지를 중심으로 철기가 출토되는 양상은 연나라에 의한 요서지역 철기 보급은 지역거점이 중심이 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지역거점에 의해 철기가 관리 및 통제되면서 재지집단에서는 부장품으로 다룰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즉 요서지역은 연나라의 직접지배권역이었으므로 지역거점에 의해 한정적으로 보급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반면, 요동지역의 철기는 연나라 장성과 인접한 지역이 다수를 차지하며, 요동군으로 상정되는 요양시 일대와 그 주변에서는 철기가 출토되지 않는다. 요서지역과 달리 철기의 유입단계부터 부장품으로 인식되고 있는데, 철기와 명도전 등 연나라 물질문화와 동검, 점토대토기 등 재지적 물질문화가 공존한다. 또한 주조철부 2점이 세트를 이루며 부장되는 연나라의 부장 풍습을 따르고 있다. 이와 같은 요동지역 철기의 부장양상을 통해 요동지역으로 유입된 연나라 철기문화는 요서지역의 그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확산되었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

요동지역의 부장 철기는 연나라에 의해 위신재로서 사여되면서 연나라의 철기 부장 풍습을 따르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연계철기가 부장되는 분묘의 위치는 연나라 장성과 인접한 지역으로 연나라의 중앙과 거리를 둔 요동군의 입장에서는 여타의 군소와 다른 영역 지배방식을 두었을 가능성도 있다. 즉 재지집단과의 연대를 강화하므로 영역을 유지하는 간접적인 지배방식이었을 것이다. 더불어 연나라 영역으로부터 거리를 둔 지역에서의 철기의 부장은 간접적인 영향에 의한 것으로 장거리 교역이나 주민의 이동, 2차적인 문화 접변 등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19> 기원전 3세기대 연나라 철기문화의 확산과정과 그 의미

이상과 같은 기원전 3세기대 연나라 철기문화의 확산과정에서 보이는 지역차와 그 의미를 정리하면 <그림19>와 같다. 연나라 철기문화의 확산과정에서 나타나는 지역적인 차이는 동북아시아 여러 지역에 대한 연나라의 대응방식의 차이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연나라의 영역 확장 이후 각 지역에 대한 지배 방식의 차이는 요동지역 내 재지적인 문화인「세죽리-연화보문화」의 등장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이처럼「세죽리-연화보문화」는 연나라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재지 세력의 발전과정에서 형성된 문화유형으로 볼 수 있다.

V. 맺음말

한반도 철기문화에 대한 논의에서 소위 「세죽리-연화보문화」는 크게 주목받아 왔으며, 현재도 많은 연구자들의 지지를 받았다. 하지만 요동지역 철기문화를 고고학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그 속에서「세죽리-연화보문화」를 이해하려는 시도는 많지 않았다.

이번 발표에서는 요동지역 철기문화를 설명하는 물질자료를 살펴보고, 연나라 철기문화의 확산이라는 관점에서 보이는 「세죽리-연화보문화」의 시·공적 위치와 그 의미를 찾아보고자 하였다. 발표문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요동지역 철기문화의 변천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철기와 공반유물에 대한 고고학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부장 철기와 취락 출토품으로 구분하여 각각 변천단계를 설정하고 그 시기를 비정하였다. 이를 통해 요동지역의 철기문화의 변천은 크게 3단계를 거치며, 연나라 철기문화의 유입시기는 기원전 3세기중엽에서 2세기 전엽으로 보았다.
2. 「세죽리-연화보문화」의 공간적 범위는 천산이남지역에서 압록강 중하류 일대로 요동 1기에 해당하는 기원전 3세기 대 형성되었다. 이 지역 일대는 한 대 이후에 재지적인 변용을 거치며 기원전 2세기대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보았다.
3. 요령지역을 비롯한 연나라 주변지역의 철기문화는 연나라의 철기문화의 확산과정에서 성립·발전한다. 연나라 철기문화의 확산 과정은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인다. 이와 같은 지역적인 차이는 각 지역에 대한 연나라의 대응 방식의 차이에 의한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요동지역의「세죽리-연화보문화」는 연나라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재지 세력의 발전과정에서 형성된 문화유형으로 추정하였다.

<참고문헌>

- 김상민, 2013, 「한반도 남부지역 철기문화의 유입과 전개과정-연계·한식철기의 유입연대를 중심으로-」, 『考古學誌』 19, 국립중앙박물관.
- 김상민, 2014, 「연하도 철기문화의 성립과 전개과정-주조철부를 중심으로-」, 『한국상고사학보』 84, 한국상고사학회.
- 金元龍, 1986, 『韓國考古學概說』, 一志社.
- 朴淳發, 1993, 「우리나라 初期鐵器文化의 展開過程에 대한 약간의 考察」, 『考古美術史論』 3, 忠北大學校考古美術學科.
- 朴淳發, 2004, 「遼寧 粘土帶土器文化의 韓半島 定着過程」, 『錦江考古』 創刊號, (財)忠清文化財研究院.
- 박선미, 2009, 『고조선과 동북아의 고대 화폐』, 학연문화사.
- 이광명, 2010, 『요동-서북한 초기철기시대유적에 대한 고고학적 연구-철기유물을 중심으로』, 부경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李南珪, 2002, 「韓半島 初期鐵器文化의 流入樣相-樂浪 設置 以前을 中心으로」, 『韓國上古史學報』 36, 韓國上古史學會
- 李鍾洙, 2005, 「松花江流域 初期鐵器時代 文化研究Ⅱ-西荒山屯 高분군을 中心으로」, 『先史와 古代』 22, 韓國古代學會.
- 李清圭, 2000, 「遼寧 本溪縣 上堡村 出土 銅劍과 土器에 대하여」, 『考古歷史學志』 16, 東亞大學校博物館.
- 趙鎮先, 2011, 「동북아시아 청동기~초기철기시대 편년의 열쇠 『朝陽 袁臺子-戰國西漢遺址和西周至十六國時期墓葬』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朝陽博物館 편. 文物出版社)」, 『韓國考古學報』 80, 韓國考古學會
- 최몽룡, 1997, 「철기시대의 시기구분」, 『한국사』 3, 국사편찬위원회
- 한국고고학회, 2010, 『한국고고학강의』, 사회평론.
- 岡村秀典, 1984, 「前漢鏡の編年と様式」, 『史林』 67-5, 史学研究会京都大学文学部.
- 宮本一夫, 2000, 『中国古代北疆史の考古学的研究』, 中国書店.
- 宮本一夫, 2004, 「中国の戦国・漢代の甕棺墓と朝鮮半島の甕棺墓」, 『考古論集-河瀬正利先生退官記念論文集』.
- 宮本一夫, 2012, 「樂浪土器の成立と拡散-花盆形土器を中心として」, 『史淵』 149, 九州大学大学院人文科学研究院.
- 大貫静夫, 2007, 「戦国秦漢時代の遼東郡と牧羊城」, 『遼寧を中心とする東北アジア古代史の再構成』, 平成16年度~18年度科学研究費補助金研究成果報告書.
- 東亜考古学会, 1933, 『南山裡』.
- 東潮, 1982, 「東アジアにおける鉄斧の系譜」, 『森貞次郎先生古稀記念古文化論集』 上巻.
- 石川岳彦·小林青樹, 2012, 「春秋戦国期の燕国における初期鉄器と東方へ拡散」, 『国立歴史民俗博物館研究報告』 167, 国立歴史民族博物館.
- 李南珪, 1991, 『東アジア初期鉄器文化の研究』, 広島大学博士学位論文.
- 潮見浩, 1982, 『東アジアの初期鉄器文化』, 吉川弘文館.
- 村上恭通, 1988, 「東アジアの二種の鑄造鉄斧をめぐって」, 『たたら研究』 29, たたら研究会.
- 村上恭通, 1997, 「原三国・三国時代における鉄技術の研究」, 『青丘学術論集』 11, (財)韓國文化

研究振興財団

- 村上恭通, 1998, 『倭人と鉄の考古学』, 青木書店.
- 村上恭通, 2000, 「Ⅲ遼寧式銅劍・細形銅劍と燕」, 『東夷世界の考古学』, 青木書店.
- 川越哲志, 1980, 「弥生時代の鑄造鉄斧をめぐって」, 『考古学雑誌』 65-4.
- 下條信行, 1984, 「東アジアにおける鉄器の出現とその波及」, 『東アジア世界における日本古代史講座2倭国の形成と古墳文化』, 学生社.
- 万欣, 2012, 「中国東北地区戦国至西漢時期的鉄器与冶鉄遺址試以這一時期鉄器中的鉄制工具辦例」, 『2012동아시아 고대 철기문화연구』, 국립문화재연구소
- 白雲翔, 2005, 『先秦兩漢鉄器的考古学研究』, 科学出版社.
- 肖景全 외, 2007, 「遼吉兩省相鄰地区早期鉄器時代文化的發見和研究」, 『遼寧省博物館館刊』 2, 遼海出版社.
- 鄭紹宗, 1956, 「熱河興隆發見的戰国生産工具鑄范」, 『考古通信』 1期.
- 河北省文物研究所 외, 2001, 「河北省懷來県官庄遺址發掘報告」, 『河北省考古文集』 2, 北京燕山出版社.

※<表 1>의 참고문헌 (표의 순번과 일치)

1. 吉林省文物工作隊 외, 1982, 「吉林樺甸西荒山屯青銅短劍墓」, 『東北考古与歴史』 1期.
2. 裴耀軍, 1989, 「遼寧昌図県發見戰国、漢代青銅器及鉄器」, 『考古』 4期.
李予利, 1993, 「昌図發見青銅短劍墓」, 『遼海文物學刊』 1期.
3. 孫守道, 1960, 「“匈奴西岔溝文化”古墳群的發見」, 『文物』 8·9期
4. 鉄嶺市文物管理辦公室, 1996, 「遼寧鉄嶺市邱台遺址試掘簡報」, 『考古』 2期
5. 肖景全, 2010, 「新賓旺清門鎮龍頭山石蓋墓」, 『遼寧考古文集』 2, 科学出版社.
6.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ほか, 2008, 「撫順河心墓地發掘簡報」, 『遼寧省博物館館刊』, 遼海出版社.
7. 魏海波 외, 1998, 「遼寧本溪県上堡青銅器短劍墓」, 『文物』 6.
8. 曾昭蔵 외, 1981, 「桓仁大甸子發見青銅短劍墓」, 『遼寧文物』 1.
9. 斎俊, 1994, 「本溪地区發見青銅短劍墓」, 『遼海文物學刊』 2期.
梁志龍, 2003, 「遼寧本溪多年發見的石棺墓及其遺物」, 『北方文物』 1期.
10. 梅原末治 외, 1947, 『朝鮮古文化綜鑑』, 養徳社.
11. 魏耕耕ほか, 2010, 「蓋州沙溝子漢墓發掘簡報」, 『遼寧考古文集』 2, 科学出版社.
12. 許明綱ほか, 1980, 「遼寧新金県后元台發見銅器」, 『考古』 5期.
13. 新金県文化館, 1981, 「遼寧新金県馬山漢代貝墓」, 『文物資料叢刊』 4.
14. 旅順博物館, 1960, 「旅順口区后牧城駅戰国墓清理」, 『考古』 8期.
中国社会科学院考古研究所, 1996, 「肆 楼上」, 『双砬子与崗山』, 科学出版社.
15. 于臨祥, 1958, 「營城子貝墓」, 『考古學報』 4期.
16. 劉俊勇, 1995, 「遼寧大連大潘家村西漢墓」, 『考古』 7期.
17. 于臨祥, 1965, 「旅順李家溝西漢貝墓」, 『考古』 3期.
18. 于臨祥, 1957, 「旅順市三澗区墓葬清理簡報」, 『考古通信』 3期.

※表2의 참고문헌 (표의 순번과 일치)

1.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 2011, 「遼寧西丰県東溝遺址及墓葬發掘簡報」, 『考古』 5期.

2. 鉄嶺市文物管理辦公室, 1996, 「遼寧鉄嶺市邱台遺址試掘簡報」, 『考古』 2期
3. 王增新, 1965, 「遼寧撫順市蓮花堡遺址發掘」, 『考古』 6期.
4. 武家昌외, 2003, 「遼寧桓仁縣抽水洞遺址發掘」, 『北方文物』 2期.
5. 東北博物館, 1957, 「遼陽三道濠西韓村落遺址」, 『考古學報』 1期.
6. 苗麗英, 1997, 「本溪怪石洞發掘青銅器時代及漢代遺物」, 『遼海文物學刊』 1期.
7. 楊永葆, 1994, 「本溪市南甸滴塔堡子發現漢代鉄器」, 『遼海文物學刊』 2期.
8. 許玉林, 1980, 「遼寧寬甸發見戰國時期燕國的明刀錢和鉄農具」, 『文物資料叢刊』 3
9. 鞍山市岫岩滿族博物館, 2009, 「遼寧岫岩城南遺址」, 『北方考古』 2期.
10. 佟柱臣, 1956, 「考古學上漢代及漢代以前的東北疆域」, 『考古學報』 1期.
11. 張喜榮, 1997, 「台安白城子戰國遺址出土器簡介」, 『遼海文物學刊』 1期.
12. 馮永謙, 2010, 「鳳城劉家堡西漢遺址發掘報告」, 『遼寧考古文集』 2, 科學出版社.
13. 리병선, 1961, 「중강군 토성리 원시 및 고대유적 발굴 중간보고」, 『고고민속』 5.
14. 정찬영, 1965, 「초기 고구려문화의 몇가지 측면」, 『고고민속』 4.
15. 김영우, 1964, 「세죽리유적 발굴 중간보고(1)」, 『고고민속』 2.
김정문, 1964, 「세죽리유적 발굴 중간보고(2)」, 『고고민속』 4.
16. 肖景全외, 2007, 「遼吉兩省相鄰地區早期鉄器時代文化的發見和研究」, 『遼寧省博物館館刊』 2, 遼海出版社.
17. 濱田耕作외, 1929, 『貔子窩』, 東亞考古學會.
18. 原田淑人외, 1931, 『牧羊城』, 東亞考古學會.
大貫靜夫외, 2007, 『遼寧を中心とする東北アジア古代史の再構成』, 平成16年度~18年度科學研究費補助金研究成果報告書.
19. 開 炎, 1981, 「旅順魯家村發見一處」, 『文物資料叢刊』 4.

기원전 2세기대 서북한 고고 자료와 위만조선

오 영 찬(이화여자대학교)

1. 머리말

위만조선의 정치적 실체는 『史記』 朝鮮列傳을 통해 명확히 확인되지만, 이에 걸맞는 고고학적 유적이거나 유물은 아직 제대로 발견되지 않고 있다. 이는 『史記』 南越列傳과 廣州의 南越王墓 등을 통해 문헌과 고고 자료 상으로 실체가 규명된 남월의 사례와는 대조를 이룬다. 그렇다면 위만조선은 왜 고고학적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것일까. 주지하다시피 『사기』 조선열전의 기술에 의하면, 위만조선의 도성은 대동강 이북에 위치한 왕검성이었다. 하지만 왕검성과 관련된 유적은 아직 대동강 이북에서 확인되지 않고 있는데, 강북의 평양 시내가 위만조선 이래 고구려와 고려, 조선에서 오늘날까지 누대에 걸쳐 도시로 활용된 까닭에 위만조선의 유적이 제대로 남아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고조선을 멸망시키고 설치한 낙랑군의 치지인 낙랑토성은 대동강 남안의 현 평양특별시 락랑구역 일대에서 고분군과 함께 확인된다. 낙랑토성이 언제부터 치지로 이용되었는지는 아직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실정이며, 낙랑토성 인근에 소재한 수 천여 기의 고분 중에 낙랑군 이전 시기, 즉 위만조선 시기로 올라가는 고분이 있는지도 분명치 않다. 이처럼 위만조선의 고고학적 실체에 관해서는 해당 도성 유적이거나 고분 뿐 아니라 전반적인 고고학 상황 자체가 모호한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세죽리-연화보유형 문화,¹⁾ 세형동검문화,²⁾ 고분,³⁾ 철기문화⁴⁾ 등을 통해 위만조선의 역사와 문화를 복원하려는 노력은 계속되지만, 기원전 2세기대 서북한 지역 고고 자료의 편년상 공백은 여전하며 그 결과 위만조선의 고고학적 실체는 미궁 속에 빠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편 고대사학계에서는 『사기』 조선열전을 적극 활용하여 위만의 출자와 위만조선 지배층의 족속 계통을 밝히고 이를 통해 위만조선의 국가적 성격 문제를 다루고 있다.⁵⁾ 대체로 인명이나 관명의 분석

- 1) 송호정, 2008 「세죽리-연화보유형 문화와 위만조선의 성장」 『호서사학』48, 호서사학회.
- 2) 조진선, 2005 「북한지역 세형동검문화의 발전과 성격」 『한국상고사연구』47, 한국상고사학회.
이후석, 2013 「요동-서북한지역의 세형동검문화와 위만조선」 『고조선 위만조선과 동아시아의 고대문화』제4회 동양학국제학술회의, 단국대 동양학연구원.
- 3) 박선미, 2013 「고고학 자료로 본 위만조선의 문화성격-평양 일대의 고분을 중심으로」 『동양학』53, 단국대 동양학연구소.
- 4) 이청규, 2013 「요동-서북한의 초기철기문화와 위만조선」 『고조선 위만조선과 동아시아의 고대문화』제4회 동양학국제학술회의, 단국대 동양학연구원.
정인성, 2013 「위만조선의 철기문화」 『백산학보』96, 백산학회.
- 5) 이병도, 1954 「위씨조선흥망고」 『서울대논문집』4, 서울대.
박시형, 1963 「만조선 왕조에 관하여」 『력사과학』1963-3.
김한규, 1980 「위만조선관계 중국측 사료에 대한 재검토」 『부산여대논문집』8, 부산여대.
노태돈, 1999 「위만조선의 정치구조」 『산문사학』8, 고려학술재단.

을 통해 위만을 중심으로 한 漢系와 서북한 재지의 토착원주민으로 구분한 것을 토대로 위만조선의 지배구조를 이원적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이는 이후 낙랑군의 지배구조를 설명하는데 중요한 근거가 되기도 한다.

위만조선의 지배구조에 대한 이해와 위만조선 고고 자료의 부재 문제 사이에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 언뜻 보면 양자 간에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듯 보이지만, 일제 강점기 조선총독부가 주도한 ‘고적조사’의 결과물에 대한 해석을 바탕으로 위만조선의 지배구조에 대한 초기 연구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모종의 관련성을 추정할 수 있다. 위만조선의 고고 자료는 낙랑군 관련 유적과 유물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산출된 부산물이었으며, 위만조선의 이원적 지배구조는 중국 식민지로서의 위만조선에 대한 역사와 문화상을 찾는 과정에서 낙랑군에 대한 해석이 소급 적용되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위만조선에 대한 재인식을 바탕으로, 고고 자료를 통해 위만조선의 지배구조를 구축하는 과정을 되짚어 본다면, 기원전 2세기대 평양을 중심으로 하는 위만조선의 고고 자료에 대한 새로운 단서를 포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하여 본 발표에서는 일제 강점기 위만조선에 대한 새로운 역사 인식이 조선총독부 주도의 ‘고적조사’ 과정에서 축적된 고고 자료의 해석과 어떻게 결합되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는 근대 역사학의 성립 이후 위만조선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변화되었고, 이러한 인식이 고고 자료의 해석과 연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검토하는 것이 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먼저, 고대사 체계에서 위만조선에 대한 전통적인 인식이 근대 민족담론의 형성에 따라 변화되는 추이를 살펴보았는데, 일제 강점기 이후 근대 식민지의 개념이 적용되면서 위만조선이 식민지로 개념화되는 과정을 추적하였다.

둘째, 조선총독부에서 행한 ‘고적조사’를 중심으로 고고 자료가 축적됨에 따라, 위만조선에 대한 고고학적 이해가 진전되어 가는 과정을 살폈다. 위만조선 고고학이 그 자체 내지 고조선 문화의 견지에서 성립된 것이 아니라, 낙랑군 사회의 토대이자 출발점으로 이해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위만조선 고고 자료의 공백을 해소하기 위하여 기존에 제시된 고고 자료를 통해 대동강 남안 유적의 편년, 화분형태기의 상한, 한식 개공모의 편년 등의 문제를 다룸으로써 위만조선 고고학에 대한 일단을 살펴보았다.

2. 위만조선의 재인식

우리 역사서에서 위만조선에 대한 서술은 『三國遺事』에서 비롯되었는데, 一然은 紀異편에서 단군신화를 기술한 고조선조 다음에 위만조선조를 두었다. 단군조선에서 출발한 단선적이고 일원적인 역사체계를 수립하려는 시도는 『帝王韻紀』를 거쳐 조선 전기 사서들로 이어졌다. 조선 전기 『東國史略』(1403), 『東國通鑑』(1484) 등에서는 단

송호정, 2002 「위만조선의 정치체제와 삼국 초기의 부체제」 『국사관논총』98, 국사편찬위원회.

근조선, 기자조선, 위만조선으로 연결되는 고대사 체계가 정립되었고, 조선시대 많은 사서들이 이를 따랐다.

조선 후기 洪汝河의 『東國通鑑提綱』(1672)에서 비롯된 正統論的 역사인식이 등장하면서 기존의 고대사 체계가 일변하였는데, 기자조선 이후 마한에서 신라로 정통 왕조가 이어지는 것으로 보았다. 이에 기자조선의 준왕으로부터 왕권을 탈취하여 성립된 위만조선은 신하로서 왕위를 찬탈한 僭國이자 篡賊의 존재가 되었으며, 이러한 역사인식은 이후 洪萬宗의 『東國歷代總目』(1705), 安鼎福의 『東史綱目』(1778) 등 조선 후기 사서에서 일반적으로 수용되었다.

개화기에 들어 근대 국민국가의 성립과 연계된 민족의 실체가 서서히 자각되면서 중국이 타자로 인식되기 시작하였으며, 이에 따라 종래 中華라는 문명 공동체에서 파생된 문명화의 상징이었던 기자조선과 이와는 대척적인 관계에 서 있던 위만조선에 대한 전통적인 인식에 변화가 생기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의 면모는 개화기 역사 교과서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다.

갑오개혁 이후 학부 편집국에서 편찬된 『조선역사』(1895), 『조선역대사략』(1895) 등에서는 기존 조선 후기 실학자들의 정통론적 역사인식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지만, 현재의 『중등교과 동국사략』(1902)에서는 종전과 다른 면모가 엿보인다. 현재는 정통론적 역사체계에서 벗어나 林泰輔의 『朝鮮史』(1892)의 시대 구분과 서술 내용을 받아들 이면서도, 위만조선과 한사군에 관한 서술은 달리하고 있다. 즉 『朝鮮史』에서는 第二編 태고사의 5개 장 중 하나로 ‘제3장 위씨의 흥망 및 군현’이라는 항목을 설정하고 자세하게 서술한 반면, 『중등교과 동국사략』에서 위만조선에 관한 기술은 “衛滿은 平壤을 竊據^{ᄃᆞ}야 其旁小邑을 服屬^{ᄃᆞ}더니 其孫右渠에 至^{ᄃᆞ}야 支那漢武帝劉徹에게 滅^{ᄃᆞ}히니 歷年이 八十七年이오이다”에 그치고 있다. 현재는 위만조선에 대한 언급을 최소화하였을 뿐 아니라, 관련 서술에서도 ‘漢國’을 支那로 인식하면서 조선과는 구분되는 실체로 파악하고 있어, 중원 왕조에 대비되는 주체의 인식을 일부 확인할 수 있다.

이어지는 통감부 시기, 대한국민교육회에서 간행한 『大東歷史略』(1906) 등에서는 대체로 기존의 정통론적 역사서술 체계를 유지하지만, 앞서 『중등교과 동국사략』처럼 위만조선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서술 태도를 취하고 있다. 한편 이 시기에는 기존의 정통론적 역사체계에서 벗어난 역사 체계도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고구려, 백제, 신라, 가락국이 차지한 영토에 존재했던 과거 왕조를 염두에 두고 ‘기자조선→(위씨조선→사군이부→고구려)(마한→백제)(진한→신라)(변한→가야)→통일신라→(후백제.태봉)→고려→조선’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체계를 수립하였다.⁶⁾ 이와 함께 燕人 위만이 조선이라는 국호를 仍稱하였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단군조선, 기자조선, 위만조선을 대등하게 처리하여 三朝鮮을 설정하거나,⁷⁾ 고구려가 위씨조선과 사군 이부의 영토를

6) 도면희, 2008 「한국 근대 역사학의 창출과 통사 체계의 확립」 『역사와 현실』70, 한국역사연구회, p.199.

7) 조종만, 1908 『초등 대한력사』.

종국적으로 병합함으로써 고구려에 의해 我疆으로 회복되었다는 점을 부각시키면서 영토를 매개로 한 계승성에 의미를 부여하는 입장이 등장하였다.⁸⁾

당시 많은 교과서에서 기자와 관련된 周, 위만과 관련된 燕, 한무제와 관련된 漢 등을 표기할 때 支那를 병기하거나 부기하고 있는 점은 특히 주목된다. 이는 역대 중원 왕조를 타자로서 支那이자 만국공법체제 하에서 대등한 관계를 맺는 상대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역사 인식의 등장 과정을 민족 의식의 형성이나 민족주의 사학의 성립으로 직결시키기에는 아직 한계가 있다. 청의 정치적 영향에서 벗어나려는 조선의 노력이라든가 支那라는 용어의 사용 등에는 일본의 의도와 영향이 깊이 개입된 것도 사실이다. 다만 조선 후기 이래 정통론적인 역사인식을 극복하면서, 만국공법 체제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바탕으로 타자로서 중국과 구분지우려는 역사 인식 내지 민족의 자각이 맹아적으로나마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점에 나름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19세기 말 근대 역사학으로 포장된 일제의 식민주의 역사학은 침략주의적 대륙정책과 결부되었다.⁹⁾ 林泰輔의 『朝鮮史』(1892)는 근대적인 서술방법에 입각하여 서술된 최초의 조선 역사 전문서이다. 종래 일본 국학의 부정적인 한국 인식을 기반으로 하면서 독일 실증사학의 영향을 받은 근대 역사학적 방법론에 입각하여 서술된 개설서인데, 중세 정통론적 역사관에서 벗어나 근대 민족국가를 단위로 한 역사인식과 함께 식민주의 역사관의 단초가 드러난다. 조선의 역사에 대한 林泰輔의 기본적인 시각은 총설에 자세히 언급되어 있는데, 조선은 나라를 세운지 오래되었지만 영토가 중국에 가까운 까닭에 항상 견제를 받았으며, 중국인이 와서 왕이 되거나 그 땅을 군현으로 삼아서 거의 중국의 속국과 같았다고 하였다. 총설의 선명한 입장과는 달리 제2편 태고사 중에서 '제3장 위씨의 흥망 및 군현'의 장을 설정하고 있지만, 『사기』 조선열전의 관련 사료를 정리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그나마 사료에 대한 이해도도 별반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위만조선을 식민지로 해석하는 인식은 20세기 들어 본격적으로 등장한다. 1907년 白鳥庫吉은 한반도 서북부에 있었던 기자조선과 위만조선의 지배자가 支那人이고 인민의 다수도 支那人이기 때문에, 위만조선을 '支那人의 콜로니, 殖民地'로 이해하였다.¹⁰⁾ 이러한 인식의 연장선상에서 稻葉岩吉은 위만 일족이 한반도에 도착했을 즈음에, 燕의 압박을 받고 기왕에 온 漢人에 의해 만들어진 한인의 콜로니가 한반도에 있었던 것으로 보았으므로, 위만조선은 새로운 콜로니, 즉 新콜로니로 이해하였다.¹¹⁾ 전국 燕의 이주민에 의한 정착도 콜로니, 위만조선도 新콜로니, 그리고 이후에 낙랑군도 또한 콜로니로 인식하고 있다. 사실 19세기 후반까지 일본에서는 유럽사에서 사용된 '콜로니'라는 용어에 적절히 해당되는 개념이 없었다. 1870년대 홋카이도 개발이

8) 元泳義·柳瑾, 1906 『新訂 東國歷史』.

9) 이만열, 1985 「19세기말 일본의 한국사연구」 『청일전쟁과 한일관계』, 일조각, pp.127-134.

10) 白鳥庫吉, 1907 「韓史概說」 『觀山講演集』; 1971 『白鳥庫吉全集 第9卷 アジア史論 下』, 岩波書店, pp.296-297.

11) 稻葉岩吉, 1915 『滿洲發達史』, 大阪屋号出版部, pp.24-30.

이루어지면서 ‘식민’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하였고, 福澤諭吉 등이 서양의 사상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1895년 타이완 복속을 시작으로 해외 침략을 실행하면서 이 용어를 본격적으로 사용하였다.¹²⁾

이러한 과정에서 수입된 ‘식민지’라는 개념이 한사군 뿐 아니라 위만조선과 심지어 연제조 유이민의 정착에까지 무차별적으로 적용되었다. 이민족의 유이 및 정착, 지배의 현상에 대해 근대 식민지를 염두에 두고 식민지 개념을 적용하는 것은 지극히 몰역사적 해석이라 할 수 있다. 모리스 핀리(Morris Finley)는 근대의 특수 현상인 식민지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의가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근대적 개념을 서양 고대사에 곧바로 적용하는데 따른 문제점을 제기한 바 있다.¹³⁾ 당시 위만조선 등을 식민지로 규정한 것은 단순히 이민족의 지배를 식민지로 해석하는 차원에서 그치지 않는다. 이러한 해석의 이면에는 우월 의식과 차별 의식이 내재되어 있으면서 제국주의를 뒷받침하는 식민주의가 전제되어 있다는 점에서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고대사에서 이러한 ‘식민지’의 문제는 타율성론을 통해 이후 식민사학의 근간을 이루게 된다.

3. 위만조선 고고학의 성립

일제 강점기 새로 구축된 고대사 체계에서 ‘식민지’로서의 위만조선과 한사군의 위상이 정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본격적인 식민사학의 구축 과정에서 고대 한반도에서 중국 식민지의 정수는 낙랑군에 돌아갔다. 고대사에서는 위만조선과 한사군을 대신하여 대방군을 포함한 낙랑군이 식민사학의 전위대가 되었는데, 여기에는 낙랑·대방군 유적에 대한 고고학 조사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¹⁴⁾ 1909년 關野貞에 의해 조사가 시작된 낙랑고분 조사는 낙랑군의 위치를 평양 일대로 확정하는 결정적인 근거가 되었으며, 1916년 이후 조선총독부 주도의 소위 ‘고적조사’ 과정에서 집중 조사된 다수의 낙랑군과 대방군 유적은 식민지 낙랑군의 성격을 분명히 해 주었다. 낙랑문화는 완전히 支那 本國의 것과 동일하여 漢民族이 남긴 유적이며,¹⁵⁾ 낙랑군은 支那人의 군현이고 완전히 支那와 같은 支那의 일부¹⁶⁾라는 주장에서 알 수 있듯이, 중국으로부터 이른바 선진 문물이 유입되는 통로이자 문명의 길로 들어서게 해 준 은인이었다는 타율성론의 근간이 되었다.¹⁷⁾ 1910, 20년대에는 식민사학자들은 낙랑군과 대방군 관련 유적에 대한 고고학적 성과를 중심으로 낙랑군과 대방군의 역사와 문화를 식민주의적 관점에서 복원하고 해석하는데 치중하였다. 바로 고고학 연구의 중심 대상은 漢文化와 동일시된 낙랑문화였다.

12) 마크 피터, 1996 『植民地-帝國50年の興亡』, 讀買新聞社, pp.120-121.

13) Morris I. Finley, 1976 An Attempt at a Typology, *Transactions of the Royal Historical Society, Fifth Series, Vol. 26*, Royal Historical Society, pp.167-188.

14) 오영찬, 2014 「낙랑군 연구와 식민주의」 『한국 고대사 연구의 시각과 방법』, 사계절(근간).

15) 關野貞, 1932 『朝鮮美術史』, 朝鮮史學會.

16) 今西龍, 1919 「朝鮮の文化(講演手記)」 『朝鮮史の棗』, 1935, 近澤書店 수록.

17) 오영찬, 2104, 앞논문

이러한 과정에서 전형적인 낙랑문화와는 계통이나 시기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이는 일련의 유적이 확인되었는데, 세형동검문화 유적, 명도전 출토 유적 등이 바로 그것이다. 1921년 평양 동대원리 許山유적 출토 일괄유물, 1931년 오야리 22.23호분 출토 銅鐸, 1932년 대동군 上里유적 출토유물 등을 통해 세형동검문화 관련 유적이 본격적으로 알려지면서, 漢式古墳으로 일컬어지는 낙랑고분에 선행하는 문화에도 눈을 돌리게 되었다. 이러한 관심은 위만조선 문화에 대한 논의로 이어지게 되었다. 아울러 만주와 한반도에 걸쳐 다수의 명도전 출토유적도 확인되었는데, 이 유적들은 문헌자료에 보이는 戰國末 漢初 중국계 유이민 기사와 관련되어 주목을 받았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선진 금속문화의 이입을 漢族의 식민 진출결과로, 그리고 고조선을 漢族이 세운 최초의 식민지로 파악하게 되었다.¹⁸⁾ 이러한 논의의 이면에는 ‘滿鮮史觀’이 자리하고 있었는데, 역사적으로 滿鮮 사이에는 경계가 없으며 낙랑군과 요동군이 漢 동방의 2대 거점으로서 만주 및 한반도가 같은 漢文化의 영향으로 장족의 발전을 이루었다고 하면서, 滿鮮如一의 개념 하에 만주와 한반도와의 친연적 관계를 중시하였다.¹⁹⁾

일제 강점기 위만조선과 관련된 고고학적 논의는 『朝鮮古文化綜鑑』 제1권에 비교적 잘 정리되어 있다.²⁰⁾ 藤田亮策과 梅原末治가 공동 집필한 이 책에서는 낙랑군 설치 이전에 한반도의 문화적 양상에 주목하고 있는데, 바로 이 시기를 위만조선과 연결시키고 있다. 당시 중원에서 한대 문물의 조사 사례가 적어서 단정 짓기 어렵다고 하면서도 결론적으로는 세형동검, 동모, 다뉴경 등의 유물을 중원 계통으로 파악하고 있다. 세형동검의 경우 백동 또는 단단한 청동을 사용하는 것이 支那式 銅劍과 일치하며, 철제 검신에 비단을 감고 칠을 한 손잡이에 黑漆 劍鞘를 갖춘 예가 평양에서 발견되었고, 河北省의 출토 사례도 있다는 점을 근거로 漢族 문화의 소산으로 해석하였다. 이와 함께 동과, 동모, 동탁 등도 중원 계통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다뉴세문경은 중원에서는 출토되지 않는 스키타이 계통으로 추정하면서 燕齊趙 유이민과 연결시키고 있다.²¹⁾ 세형동검문화를 중원계통과 연결시키는 해석은 앞서 1930년대 藤田亮策에 의해 이미 제시된 바 있다. 즉 세형동검, 다뉴세문경 등을 한대 이전에 북부 支那를 거쳐 전해진 문화로 해석하고 周漢문화와 스키토시베리아문화가 북부 지나에서 혼합되어 한반도로 전해진 것으로 보았는데,²²⁾ 이는 漢民族, 漢文化, 漢式劍 등을 선형적으로 설정하여 계보적으로 연결시키면서 외래 문화의 이입을 곧바로 특정 민족 내지 주민의 이입으로 해석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세형동검문화를 중원 계통 漢族 文化의 소산으로 파악하는 상기의 견해는 三上次男으로 이어지면서 이후 위만조선의 고고학적 실체를 파악하는데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18) 藤田亮策, 1934 「朝鮮古代文化」 『岩波講座 日本歴史』, 岩波書店.

19) 藤田亮策, 1941 「考古學上より見たる滿鮮關係」 『朝鮮』313, 朝鮮總督府, p.29.

20) 『朝鮮古文化綜鑑』은 1947년 간행되었지만, 1944년 이미 원고가 완성된 상태였으므로 일제 강점기의 자료를 집성했을 뿐 아니라 당시 이러한 자료에 대한 해석이 충실히 반영된 책으로 볼 수 있다.

21) 藤田亮策.梅原末治, 1947 『朝鮮古文化綜鑑』 第一卷, 養德社, pp.3-11.

22) 藤田亮策, 1934 「朝鮮古代文化」 『岩波講座 日本歴史』第十二 回配本 ; 1948 『朝鮮考古學研究』, 高桐書院, 재수록, pp.19-30.

되었다. 三上次男은 일제 강점기 고고학 성과를 바탕으로 위만조선의 역사와 문화상을 체계적으로 구축한 인물인데, 우선 戰國時代 燕齊趙 유이민 기사에 의거하여 당시 서북조선에 중국인이 살면서 모종의 정치세력을 수립하면서 선진적인 중국의 금속기 문화를 수용한 것으로 이해하였다. 이러한 인식은 앞서 언급한 바 있는 만선사관의 입장에서 연제조 유이민이 와서 콜로니를 건설하였다는 稻葉岩吉 입장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위만조선의 건국으로 위만조선국의 중심적 지배층은 이주 중국인이었으며, 위만조선은 母國의 문화인 중국 문화를 보지하면서 두 가지 방향으로 발전하였다고 보았는데, 먼저 支那 문화의 영향을 받으면서 독자적인 문화를 형성하였는데 세형동검과 다뉴세문경 그리고 토광묘를 그 예로 보았다. 이러한 해석은 앞서 언급한 『조선고문화종감』의 입장을 그대로 계승한 것이다. 한편으로 지식묘를 토착유력자 무덤으로 해석하면서 중국 문화가 토착민으로 침투한 것으로 보았는데, 이는 종래 지식묘 연구에 주력한 자신의 독자적인 견해라고 할 수 있다.²³⁾ 아울러 위만조선 시기 토착민이 중국문화를 수용한 사례도 제시하고 있는데 토착민 유력자가 중국풍의 세형동검을 모방하여 마제석검을 제작하였다는가 다뉴경 중 고급품인 세문경은 이주 중국인 기술자가 제작한 반면 조문경은 토착민의 방제품이라는 등의 주장은, 해방 이후 마제석검과 다뉴조문경 및 세문경에 대한 축적된 자료에 의해 밝혀진 내용과는 차이가 있어 더 이상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이처럼 三上次男은 세형동검문화와 토광묘를 중원 계통 문화로 해석하고 이에 대치하여 지식묘를 재지 토착세력의 문화로 규정하면서 衛滿朝鮮을 ‘植民地的國家’, 樂浪郡은 ‘直轄地’로 구분하였다.²⁴⁾ 위만조선의 성격을 중국인 권력자가 모든 권력을 행사했다는 점에서 식민지적 성격으로 파악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위만조선의 정치사회 구조가 이후 낙랑군 사회구조의 기반이자 출발점이 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三上の 논의는 이후 田村晃一로 이어지는데, 세형동검문화에 대한 언급은 배제하고, 토광묘(목곽묘)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여 유사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 요동 지방을 기반으로 한 위만 중심의 중국인들이 서북조선에 건설한 위만조선국의 지배계급이 되어 토광묘를 남겼다. 이후 그들은 낙랑군 설치 이후에도 계속 군현지배체제 속에서 중급 관료로서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였고, 중국 본토의 묘제를 수용하여, 위씨조선국 이래 묘제의 전통과 결합시켜 독자적인 목곽묘를 만들었던 것으로 이해하였다.²⁵⁾ 이는 토광묘를 중원 영향으로 이해하고, 지식묘를 재지 토착유력세력의 묘제로 이해하는 『朝鮮古文化綜鑑』과 三上次男의 입장을 계승한 것인데, 세형동검문화의 성

23) 三上次男, 1961 『滿鮮原始墳墓の研究』(東北アジア史研究: 第1), 吉川弘文館, pp.147-149.

24) 三上次男, 1954 「古代の西北朝鮮と衛氏朝鮮國の政治社會的性格」 『中國古代史上の諸問題』; 1966 『古代東北アジア史研究』, 吉川弘文館, pp.19-20.

25) 田村晃一, 2001 『樂浪と高句麗の考古學』, 同成社, pp.75-77. 토광묘의 구조가 토착민 고유의 묘제인 지식묘, 석관묘와 차이가 나는 점, 토광묘의 목곽, 봉토, 유물 배치, 부장 토기 등이 목곽묘와 유사한 점, 부조예군묘와 고상현묘가 중급관료인 토착 한인의 무덤이라는 점, 그리고 요동의 위만이 서북한 침략한 사서 기록과 부합되게 서북한의 위석묘에서 요동의 목양성석묘와 유사한 토기가 출토되는 점을 들고 있다. 아울러 토광묘의 시기에 관해서는, 일부 토광묘를 위만조선 시기의 묘제로 해석하지만, 상대적으로 이른 시기로 편년한 분묘가 위만조선 시기에 조영되었다는 근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격 문제와 지식묘의 연대 문제를 고려한다면 역시 타당한 입론으로 보기 어렵다.

이처럼 위만조선의 고고학 문화는 독자적인 위상으로 정립된 것이 아니라, 1930년대 낙랑군 설치 이전에 해당되는 문화에 대한 접근에서 비롯되었다. 낙랑문화에 대한 조사와 연구 과정에서 확인된 낙랑군 설치 이전 시기의 非漢式 문화인 세형동검문화를 漢系 문화로 해석하면서, 이를 위만조선의 고고학 문화로 인식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이후 위만조선의 지배구조를 파악하는데 적용되어 세형동검문화를 지배세력인 이주 중국인의 문화로, 지식묘를 토착 원주민의 문화로 해석하게 되었으며, 1970년대에는 지배세력의 문화가 세형동검에서 토광묘 내지 목곽묘로 대체되면서 이른바 '이원적 종족지배 구조'로 이루어진 기존 해석의 틀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4. 위만조선 분묘자료의 탐색

위만조선에 대한 고고학적 이해는 독자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낙랑군 사회의 기반이자 출발점으로 위만조선 사회를 이해하고, 이를 고고학적으로 파악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다. 이는 중국 식민지로서의 위만조선에 대한 역사와 문화상을 찾는 작업에 다름 아니었으며, 낙랑군에 대한 해석이 소급 적용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기원전 2세기 서북한 고고 자료 및 편년 체계에서의 공백 현상은 '이원적 종족지배 구조'로 상정되는 위만조선의 역사상에 부합되는 고고 자료를 찾으려는 무리한 시도가 그 원인 중 하나로 여겨진다. 여기서는 지배와 피지배층이 종족적으로 문화적으로 구분되는 것으로 파악되며, 위만조선과 낙랑군 간에도 문화적인 단절이 상정된다. 구체적인 논의 과정에서는 새롭게 등장한 철기나 토기 등 특정 유물이 戰國系인지 漢系인지가 중요한 주제가 되며, 새로운 문화의 등장을 주민의 유입 내지 특정의 역사적 사건과 연결시키기도 한다. 이처럼 위만조선에 대한 선형적인 인식을 기반으로 한 유적 및 유물 찾기에 치중하기 보다는, 위만조선의 전반적인 고고학적 양상을 파악하려는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서두에서 언급했듯이 위만조선의 역사적 실체는 『사기』 조선열전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지만, 이에 걸맞는 위만조선의 고고학적 유적이나 유물은 아직 모호한 상태이다. 반면 낙랑군과 관련된 유적은 명확하게 확인되는데, 당시 군치지인 土城과 분묘 유적은 대동강 남안의 현 평양특별시 락랑구역 일대를 중심으로 집중 분포되어 있다. 『사기』 조선열전에 의하면 고조선 멸망 당시의 수도인 왕검성은 대동강 강북임이 분명하므로, 위만조선 시기의 유적은 강북에 다수 분포할 가능성이 높다.²⁶⁾ 일제 강점기 평양부에서 출토되었다고 전해지는 東京國立博物館 소장의 동과와 세형동검 등을 통해 볼 때,²⁷⁾ 단편적으로나마 위만조선 시기 유적이 대동강 이북에 존재

26) 북한 학계에서는 평양시 청암동토성을 왕검성으로 보고 있다.(남일룡, 1999 「대동강류역 고대성곽의 성격」 『조선고고연구』1991-1, pp.25-27) 기원전 2세기대 유적은 현 평양 중심부에 해당되는 평양성 일대 보다 청암동토성 일대에 보다 희소하다. 본고에서는 왕검성을 대동강 이북의 특정 지점으로 한정하지 않고 서술한다.

27) 東洋文庫 梅原末治 자료.

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일제 강점기에 강북에서 확인된 유적으로는 락랑구역 북편의 卍川里 유적이 주목된다. 이 유적은 1918~1920년 평양병기제조소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발견되었는데, 청동노기, 초두, 철제 장도 등으로 보아 낙랑군 설치 이후의 유적으로 보인다.²⁸⁾ 하지만 1950년대 공개된 북한의 자료에 의하면 세형동검, 진과, 한식 동검, 일산대 끝 거푸집 등의 유물이 확인되므로 위만조선 시기로까지 소급될 가능성이 높은 유적으로 보인다.²⁹⁾

그렇다면 대동강 남안 지역에도 위만조선 시기의 유적이 분포하고 있을까. 강남에 위치한 대동군 대동강면 울리면 장천리에서 세형동검 용범이 발견된 바 있고,³⁰⁾ 또 대동군 반천리 유적³¹⁾ 등을 통해 볼 때 강남에 위만조선 시기의 유적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관건이 되는 지역은 락랑구역 일대이다. 1923년 대동강면 석암리 일대에서 세형동검 2점과 전국시대 동경 2점이 함께 출토된 사례가 보고된 바 있다.³²⁾ 전국경은 山字文鏡과 소지연호문경인데 모두 전국 후기에서 漢初로 편년되는 유물이어서, 해당 유물이 함께 나온 것이 사실이라면 낙랑군 설치 이전인 위만조선 시기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주목되는 자료는 1939년 傳 平壤府 출토품인데,³³⁾ 동과, 동모, 권총형동기, 샷갓형동기, 獸面座金具, 張氏作獸帶鏡으로 이루어져 있다. 수면좌금구와 장씨작수대경을 제외하면 동일한 銹色을 띠고 있으며,³⁴⁾ 특히 동모에는 ‘五年季(?)氏□’가 새겨져 있고, 秦戈도 포함되어 있다. 이 일괄유물은 오야리 또는 정백리에서 재지 양식의 거마구와 명문 동모, 진과 등이 공반되었다는 점으로 보아, 낙랑군 설치 이전에 이미 대동강 남안 일대에 위만조선 시기의 분묘가 조영되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아울러 석암리에서 출토된 것으로 전하는 秦始皇二十五年 명문 銅戈와 桃氏劍도 보고된 것이 있기 때문에³⁵⁾ 대동강 남안 일대에 위만조선 시기 분묘가 축조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현재까지 비록 제한적인 자료지만, 위만조선 시기의 유적은 대동강 강북과 강남 일대에 모두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낙랑군 설치 이전으로 편년되는 위만조선 시기 유적의 존재 여부에 대한 논의와는 별개로, 『사기』 조선열전에서 기술한 바처럼 漢의 군사력에 비견될 정도의 국력을 지닌 위만조선의 고고학적 실체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있다. 현재까지 확인된 자료만으로는 위만조선의 고고학적 실체를 규명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신중한 입장이 있다.³⁶⁾ 위만이 당시 철기문화가 상당한 수준으로 발전해 있던 燕 지역으로부터 천여인

28) 關野貞 外, 1927 『樂浪郡時代ノ遺跡』, pp.232-234.

29) 편집부, 1958 「우리나라 원시유적의 분포 정형-평안남북도, 황해남북도편」 『문화유산』1958-6, p.67.

30) 藤田亮策.梅原末治, 1947, 앞책, pp.72-74.

31) 藤田亮策.梅原末治, 1947, 뒷책, pp.40-41.

32) 藤田亮策 外, 1925 「大同江面石巖里發見の銅劍と鏡」 『大正十一年度古蹟調査報告書 第二冊』, 朝鮮總督府, pp.103-107, 도판 54-56.

33) 藤田亮策.梅原末治, 1947, 앞책, pp.32-33.

34) 梅原末治는 당초 오야리 출토품으로 추정하였으나,(梅原末治, 1939 「梧野里出土と推定せられる一群の遺物」 『史林』24-2) 후에 정백리 출토품으로 추측하였다.(藤田亮策.梅原末治, 1947, 앞책, p.33)

35) 藤田亮策.梅原末治, 1947, 앞책, pp.28-30.

36) 이남규, 1993 「1-3세기 낙랑지역의 금속기 문화」 『한국고대사논총』2, p.221.

이남규, 2006 「낙랑 지역 한대 철제 병기의 보급과 그 의미」 『낙랑문화연구』, 동북아역사재단,

의 집단을 이끌고 망명하였다는 기록에서 철기문화의 새로운 이식과 정착에 대한 가능성과 함께 이후 보다 발달된 전한의 철기문화가 전파되었을 가능성은 충분하지만, 현재까지의 고고학적 자료로는 이를 확인하기에 아직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반면에 서북한 토광묘에서 확인되는 철기문화를 바탕으로 위만조선의 정치체적 성장을 강조하는 입장도 있다. 북한학계의 발굴 조사 및 연구 성과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위만조선의 국가적 위상을 뒷받침하는 고고 자료로 철기를 상정하면서, 위만조선은 이러한 철기문화를 바탕으로 漢의 강력한 군사력에 맞설 수 있을 정도의 국력을 지녔던 것으로 파악하였다. 고고학적으로 서북한 토광묘 유적과 공반 철기의 편년을 기원전 108년의 낙랑군 설치 이전으로 올림으로써, 위만조선 시기에 다량의 철제무기와 농구들이 폭넓게 보급되어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³⁷⁾ 하지만 이러한 주장의 근본적인 한계는 유적과 유물의 편년에 있는데, 위만조선 시기에 해당되는 유적이나 유물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위만조선을 다룬 다른 연구에서도 흔히 나타난다. 예를 들어 위만조선의 무역을 다루면서 명도전 유적이나, 정백동 1호분, 정백동 2호분 등을 논거로 제시하고 있지만, 이 유적들을 기원전 2세기대의 위만조선 유적으로 보기는 힘들다.³⁸⁾ 나무곽무덤 중 세형동검, 동모, 동과 등 청동기를 기본으로 하면서 철기가 추가되는 이른 시기 나무곽무덤을 위만조선의 것으로, 청동기가 드물고 철제의 장검, 단검, 고리자루칼 등이 주류인 것을 낙랑군 설치 이후 위만조선 유민의 무덤으로 이해하면서, 위만조선의 성격을 다종족국가로 해석한 연구도 있는데,³⁹⁾ 여기서도 역시 위만조선의 분묘로 제시된 나무곽무덤이 실제로는 대부분 기원전 1세기대로 편년되는 것이다. 최근 정백리 97호분와 토성동 486호분의 연대를 기원전 2세기대로 편년하는 과감한 연대관이 제시되기도 하였다.⁴⁰⁾ 하지만 이 경우에도 정백동 97호분에서 출토된 세지문경이 蟠螭文鏡인지 확인되어야 하며,⁴¹⁾ 토성동 486호분의 편년에서도 출토 유물 중 상대적으로 이른 시기에 해당되는 유물보다는 오히려 시기가 늦은 청동그릇,

pp.207-210.

37) 김정배, 1977 「위만조선의 국가적 성격」 『사총』21.22합; 1989 「위만조선의 국가적 성격」 『한국고대의 국가기원과 형성』, 고려대출판부, p.69.

38) 최몽룡, 1985 「고대국가성장과 무역-위만조선의 예」 『한국 고대의 국가와 사회』, 일조각, pp.65-75.

39) 박선미, 2013, 앞논문, p.258.

40) 정인성, 2013, 앞논문, pp.53-56. 정백동 97호분의 세지문경을 반리문경으로 파악하고, 반리문경이 출토된 익산 평장리유적의 연대를 기원전 2세기 2/4분기로 편년하여 근거로 삼았다. 토성동 486호분의 편년 근거로는 번개무늬 함께 그 사이에 세 마리 용이 정삼각형으로 배치된 동경을 秦鏡으로 파악한 점, 燕下都 武陽臺村 44호에서 유사한 철장검, 철모, 철극 등이 출토된 점, 세형동검 검파두식이 조양동 5호분보다 선행하는 월성동2구역 4호분에서 출토된 점, 순금덩이, 백색차돌 벽옥 등이 秦墓에서 출토된 점을 들고 있다.

41) 『락랑구역일대의 고분발굴보고』에서는 정백동 97호분에서 출토된 동경이 장의자손수대경이라고 언급하고 있다.(리순진.김재용, 2002 『락랑구역일대의 고분발굴보고』, 사회과학출판사, p.201) 물론 이 보고서에 실린 정백동 97호분은 1982년~1984년 발굴조사되었다고 하였기 때문에.(잇책, p.6) 1977년 발간된 『고조선문제연구론문집』에서 최초 언급한 정백동 97호분과 동일 고분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한편 세지선문이 반출되었다는 정백동 97호분은 『고조선문제연구론문집』에서만 언급되었을 뿐, 1980년대 이후 리순진, 성철 등의 논문에서는 더 이상 이른 시기 나무곽무덤의 사례로 언급되지 않고 있다. 아무튼 정백동 97호분과 출토유물 뿐 아니라, 출토 동경이 반리문경인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벽옥 및 나무곽무덤의 부장품으로는 이질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구슬, 청동방울, 순금덩이, 흰차돌 등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 현재까지 제시된 자료로 서북한 고분의 편년을 전체적으로 수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발표자도 평양과 주변지역의 기원전 4~3세기의 석관묘, 토광묘와 기원전 1세기대 평양지역 목곽묘 사이의 연속성을 통해, 기원전 2세기대 분묘 자료의 존재 가능성을 추정하는 바 있으며,⁴²⁾ 북한 학계에서도 평양 토성동 99호분, 정백동 185호분, 정백동 205호분, 정백동 325호분, 정백동 532호분 등을 위만조선 시기 분묘로 들고 있다.⁴³⁾ 이와 관련하여 서북한 지역의 유적, 유물에 대한 기존의 상대편년 체계에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의문을 제기해 볼 수 있다. 현재 기원전 1세기대로 편년되는 다수 분묘의 연대가 실제로는 기원전 2세기대로 올라갈 가능성이 바로 그것이다. 실제 북한학계에서는 초기 형식의 나무곽무덤 연대를 기원전 2세기경에서 기원전 3세기경으로 올리더니,⁴⁴⁾ 절대연대의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단지 상대편년을 중심으로 나무곽무덤의 상한을 기원전 5~4세기로 보고 있다. 토성동 99호분, 정백동 185호분, 정백동 205호분, 정백동 325호분, 정백동 523호분을 상대적으로 이른 시기 분묘로 보는데, 유물의 종류가 단순하고 수량이 적은 점, 출토 유물이 대부분 청동제인 점, 토기가 전혀 없거나 매우 소량인 점을 근거로 들고 있다.⁴⁵⁾ 이 무덤들의 절대 연대를 기원전 5~4세기로 편년한 점은 납득하기 어렵지만, 다수의 분묘가 부장품의 성격과 조합 면에서 상대적으로 이른 특징을 보인다는 점에서 위만조선 시기에 해당되는 유적일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목관묘⁴⁶⁾ 및 재지 양식의 거마구 등을 통해 위만조선 시기 분묘의 실체가 보다 구체적으로 밝혀질 것으로 기대한다.

토기의 부장 양상과 관련하여, 기원전 4~3세기의 서북한 분묘유적에 토기가 거의 없거나 소량의 토기만 출토되는 것으로 보아, 기원전 2세기대 유적에서도 유사한 면모를 띠 가능성이 높다. 실제 나무곽무덤 중에서 상대적으로 이른 시기로 편년되는 경우에는 토기가 출토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소량 출토되는 토기 중에는 목긴단지가 주목되는데, 정백동 523호분에서 세형동검, 검코, 단검끝장식, 동과와 함께 목긴단지가 출토되었다.⁴⁷⁾ 흑 백월 9호 고인돌무덤에서 출토되었다는 목긴단지⁴⁸⁾나 평양 신성동유적에서 출토된 흑도장경호 계통의 토기⁴⁹⁾와 연결되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으며,

42) 오영찬, 2006 『낙랑군 연구』, 사계절, pp.51-52.

43) 리순진, 1992 「우리나라 서북지방에서의 나무곽무덤의 기원과 발생 시기에 대하여」 『조선고고연구』 1992-1.

리순진, 1996 「평양일대 나무곽무덤의 성격에 대하여」 『조선고고연구』1996-1.

성철, 2004 「우리나라 나무곽무덤의 발상지에 대하여」 『조선고고연구』2004-1.

44) 리순진, 2001 『평양일대 락랑무덤에 대한 연구』, 중심, pp.62-63.

45) 성철, 2004, 앞논문, pp.6-8.

46) 최근 정백동 353, 494, 1001호분, 토성동 113, 114, 116호분 등이 목관묘로 보고되었다. 이 분묘들에서는 부장품이 거의 없거나, 일부 칠기 유물이 출토되었다. 현재까지 알려진 자료로만 보건대, 목관묘가 목곽묘보다 선행한다고 단정짓기는 어렵다. 향후 새로운 자료의 공개를 기대한다.(김경삼, 2009 『낙랑일대의 무덤(나무곽 및 나무곽무덤)-조선고고학전서24』, 진인진, pp.11-18.)

47) 성철, 2004 「우리나라 나무곽무덤의 발상지에 대하여」 『조선고고연구』2004-1, p.7.

48) 성철, 2004 「백원로동자구 9호 고인돌 무덤 발굴 보고」 『조선고고연구』2004-3, pp.36-38.

49) 국립중앙박물관, 2006 『북녘의 문화유산』, 삼인, p.70-71.

이러한 추측이 맞다면 서북한 고분을 편년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위만조선 시기에는 동시기 중국 본토와 마찬가지로 철기가 본격적으로 사용되었고, 중원 계통의 회색태토의 토기도 제작되었을 것으로 상정되지만, 아직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는 확실치 않다.⁵⁰⁾ 하지만 낙랑군 설치 이후의 토기문화는 비교적 명확한데, 이른바 낙랑토기는 태토에 따라 회색계니질토기, 백색토기, 활석혼입토기로 구분된다. 백색토기는 기원전 1세기 후반 이후 등장하므로, 위만조선과는 관련성이 적고, 회색계니질토기는 燕의 니질태토토기와 제작기법 면에서 계보적으로 연결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낙랑토기 중 위만조선 이래 재지적 전통이 비교적 강한 토기는 활석혼화태토의 이른바 화분형토기이다. 종래 화분형토기의 계보는 재지계와 燕系 토기문화의 접촉과 혼합을 통해 발생한 것으로 보지만,⁵¹⁾ 목곽묘의 편년과 연계하여 낙랑군 설치 이후로 편년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⁵²⁾ 실제 기원전 2세기대 위만조선 시기의 토기는 공백 상태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최근 기원전 300년 이래 요동이 연의 통치하에 들어오면서 燕式 釜가 요동에서 변천하여 遼東式 釜를 이루었고, 위만조선이 성립하면서 요동식 부가 영향을 끼쳐 서북한 지역에서 미림리유적에서 수집된 화분형토기와 같은 화분형토기 1식이 성립하고, 낙랑군 설치 이후 화분형토기 2식으로 발전한 것으로 파악하는 견해가 제기되었다.⁵³⁾ 위만조선의 토기문화에 본격적으로 다루고자 한 적극적인 견해이지만, 요동식 부와 낙랑토기 사이의 계보적, 시간적 연결고리로 제시된 자료가 1930년 수집되어 일본의 한 박물관에 기증된 토기여서, 논지의 맥락적 타당성에도 불구하고 불안한 감을 떨칠 수 없다. 오히려 화분형토기의 계보는 평양 남경유적의 옹관에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다. 남경 2호 옹관묘는 3점의 화분형토기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 한 점은 저부가 없는 상태이면, 다른 두 점도 평저가 아니라 원저에 가깝다는 점에서 저부의 형태는 낙랑토기 단계의 화분형 토기와는 차이가 있다. 하지만 가장 형태가 큰 옹관의 경우 전형적인 화분형 토기에서는 보이는 포흔이 토기 내면에서 뚜렷이 확인된다는 점에서 낙랑토기 이전 단계의 화분형토기에서 보이는 기술적 계보를 확인할 수 있다.⁵⁴⁾

종래 서북한 분묘의 편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유물 중 하나가 이른바 漢式 文物이었다. 한식 문물의 부장이 확인될 경우 해당 분묘를 낙랑군 설치 이후 시기로 편년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렇다면 한식 문물의 부장이 위만조선과 낙랑군으로 구분하는 편년의 결정적인 근거가 될 수 있을까. 위만조선 시기에는 한식 문물이 부장

50) 谷豊臣, 2002, 『樂浪土器の系譜』 『東アジアと日本の考古學』, 同成社, p.225.

51) 谷豊臣, 2002, 잊는문, p.225.

정인성, 2004, 「낙랑토성의 활석혼입계 토기와 그 연대」 『백제연구』40, 충남대백제연구소 .

52) 高久健二 1995 『낙랑고분문화 연구』, 학연문화사, pp.72-76.

53) 宮本一夫, 2012 『樂浪土器の成立と拡散 : 花盆形土器を中心として』 『史淵』149, 九州大学大学院人文科学研究院 編, pp.15-20.

54) 김용간, 석광준, 1984 『남경유적에 관한 연구』, 과학백과사전출판사, pp.210-211.

국립중앙박물관, 2006 『북녘의 문화유산』, 도서출판 삼인, p.70.

평양 삼석구역 남경유적에서는 9개의 옹관묘가 조사되었는데, 9호분을 제외하고는 청동기시대 주거지 위에서 확인되었다. 북한학계에서는 기원전3~2세기로 편년하고 있다.(조선유적유물도감편찬위원회, 1989 『조선유적유물도감(2)-고조선, 부여, 진국편』, p.103)

될 수는 없는 것일까. 기원전 2세기대인 위만조선 시기도 역시 漢代에 해당되므로 한식 문물이 부장될 가능성이 있으며, 분묘 출토품 중 하나인 금동개공모를 통하여 그러한 가능성의 일단을 살펴보도록 하자.

금동개공모는 낙랑고분에서 귀틀무덤 단계에 다수의 일산대가 출토되는 사례에 비추어 전형적인 한식 문물 중 하나로 파악되었으며,⁵⁵⁾ 출토 분묘의 연대도 낙랑군 설치 이후인 기원전 1세기대 이후로 편년되는 경향이 있었다. 서북한 분묘에서는 몇 가지 형식의 개공모가 존재하는데, 여기서 주목하고자 하는 형식은 상부가 단면 역삼각형의 접시모양을 이루고 있으며 그 아래에는 각이 진 주산알 모양의 개공모이다. 바로 아래에는 끈을 걸기 위한 갈구리가 있고 다시 아래는 속이 빈 원통형을 이룬다. 이러한 개공모는 낙랑고분 중 귀틀무덤 단계에서 출토되는 상부 구형이나 원반형 위에 돌기가 있는 개공모와는 형태적으로 뚜렷한 차이가 있다. 이러한 형식의 개공모가 출토된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은율 운성리 9호분, 재령 부덕리 나무곽무덤, 영흥 소라리토성, 강서 태성리 10호분, 황주 금석리 나무곽무덤, 傳 황주 출토 일괄유물⁵⁶⁾ 등이 있는데, 대부분 재지 양식의 거마구와 함께 출토되었으며, 이 유적들은 모두 기원전 2세기 후반~기원전 1세기대로 편년된다. 아울러 나무곽무덤의 성격은 고조선계 재지 지배세력과 관련된다는 점에서,⁵⁷⁾ 이러한 개공모는 위만조선 시기에 도입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2009년 발굴 조사된 남포시 룡강군 후산리 나무곽무덤에서도 금동개공모의 출토례가 추가 확인되었는데,⁵⁸⁾ 이 유적에서도 재지 양식의 거마구와 영흥 소라리 토성 출토품과 유사한 동복이 출토되는 등 앞서의 분묘들과 같은 맥락에 있는 유적임을 알 수 있다. 바로 이러한 개공모는 이른 시기 목곽묘 단계에서 재지 양식의 거마구와 공반되는 문물이라는 점에서, 귀틀무덤 단계에 보이는 개공모와는 형식 뿐 아니라 성격에서도 구분될 가능성을 암시한다. 한반도 남부지역에서도 성주 예산리 31호 목관묘⁵⁹⁾와 대구 비산동 유적⁶⁰⁾에서 유사한 형식의 금동개공모가 출토된 바 있다.

이러한 형식의 개공모는 중원에서도 河南 芒砀 保安山 1호묘 배장갱 출토품,⁶¹⁾ 廣西 貴縣羅泊灣漢墓 M1⁶²⁾, 河北 高庄漢墓 M1⁶³⁾, 四川 雙包山漢墓 M2⁶⁴⁾, 廣州漢墓

55) 김길식, 1996 「진·변한지역 낙랑 문물의 유입 양상과 그 배경」 『낙랑문화연구』, 동북아역사재단, pp.344-345.

56) 리순진, 1974 「운성리유적 발굴보고」 『고고학자료집』4, pp.211-212.
리순진, 1963 「재령군 부덕리 수역동의 토광 무덤」 『고고학자료집』3, pp.84-85.
한석정, 1961 「함경남도지역에서 발견된 세형동검유적과 유물」 『문화유산』1961-1, pp.76-79.
과학원 고고학 및 민속학연구소, 1959 「태성리 고분군 발굴보고」, pp.46-47.
사회과학원, 1983 「황주군 금석리 나무곽무덤」 『고고학자료집』6, pp.197-198.
藤田亮策·梅原末治, 1947, 앞책, pp.42-43.

57) 오영찬, 1996 「낙랑군의 토착세력 재편과 지배구조」 『한국사론』35, 서울대국사학과, pp.13-29.

58) 리영, 2012 「후산리 나무곽무덤 발굴보고」 『조선고고연구』 2012-1, p.31.

59)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2005 『성주 백전 예산리 토지구획정리사업구획 내 문화유적발굴조사 보고서』 학술조사보고 제48책, pp.170-171.

60) 국립중앙박물관, 1990 『한국의 청동기문화』, 범우사, p.54.

61) 河南省文物考古研究所 외, 2001 『芒砀山西漢梁王墓地』, 文物出版社, 圖版 25.

62) 廣西壯族自治區博物館, 1933 『廣西貴縣羅泊灣漢墓』, 文物出版社, 圖版 26.

63) 河北省文物考古研究所, 2006 『高庄漢墓』, 科學出版社, 圖版 6.

M1172, M1175, M1177⁶⁵⁾, 漢 長安城 桂宮 3호 건축유지⁶⁶⁾ 등에서 확인된다. 대부분 전한 전기와 중기의 분묘에서 집중적으로 출토되며, 후한대 출토되는 개궁모와는 형태적으로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는 점에서 서북한의 양상과 유사하다. 전한 전기와 중기에 중원에서 나타나는 개궁모가 위만조선 시기에 서북한으로 유입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종래 서북한 분묘에서 출토되는 중원계 문물의 계보에 관해, 낙랑군 설치 이전은 戰國系, 낙랑군 설치 이후는 漢系로 도식화시켜 구분하거나, 한식 문물이 공반되면 목시적으로 낙랑군 설치 이후로 편년하였다.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였던 점 중 하나는 위만조선 시기에도 漢과의 교류가 있었고 한식 문물이 유입되었으며, 따라서 위만조선의 분묘에도 한식 문물이 부장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것이다. 금동개궁모는 ‘兵威財物’로 일컬어지는 한식 문물 중 위세품의 하나일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한식 문물의 유무가 곧바로 위만조선과 낙랑군 시기로 나누는 분묘 편년의 절대적 기준이 될 수 없다고 하겠다.

한편 서북한지역에서 기원전 2세기대 고고 자료가 제한된 상황에서, 한반도 중남부 지역의 기원전 2세기대 자료는 위만조선의 실상을 간접적으로나마 유추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먼저 위만조선과 관련된 금강 유역권의 기원전 2세기대 유적으로는 충남 당진 소소리, 부여 합송리, 논산 원북리, 전북 장수 남양리, 완주 갈동, 신평, 익산 신동리 유적 등이 있다. 이 유적들에서는 철도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주조철기가 출토되고 있다. 무기류는 이전 시기와 같은 청동기를 사용하지만 농공구류만 선택적으로 수용하여 철기를 사용하고 있다.⁶⁷⁾ 이러한 주조철기들이 수입품인지 현지 제작품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⁶⁸⁾ 새로 등장하는 철기문화가 위만조선과 긴밀한 관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⁶⁹⁾

최근 진변한지역에서도 점토대토기 단계에서 철검, 철부 등이 출토되는 기원전 2세기대 목관묘가 다수 조사되었다. 경주 조양동 5호분보다 한 단계 내지 두 단계가 앞선 자료들로서, 주조철부가 부장된 경산 임당 F-II-24호분, 철검이 부장된 대구 팔달동 75, 77호분, 월성동 1-1호.1-2호.1-6호 목관묘 등이 주목된다. 이 목관묘들은 위만조선과 병행하는 기원전 2세기대로 편년되는데, 여기서 출토된 철기들 역시 위만조선 철기문화와의 관련성을 배제하고는 논의하기 어렵다. 이처럼 기원전 2세기 한반도 중남부 지역에서는 위만조선과의 관련 하에 새로운 철기문화가 등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으로 미루어볼 때 동시기 위만조선에서도 철기문화의 발달을 간접적으로나마 짐작해 볼 수 있다.⁷⁰⁾ 위만조선에서 최상위 계층의 문화가 바로 한반도 중남부지

64) 四川省文物考古研究所, 2006 『綿陽雙包山漢墓』, 文物出版社, 圖版 209.

65) 廣州市文物管理委員會 외, 1981 『廣州漢墓』, 文物出版社, 圖版 34.

66)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中日聯合考古隊.奈良國立文化財研究所中日聯合考古隊, 2001 「漢長安城桂宮三號建築遺址發掘簡報」 『考古』2001-1, p.81.

67) 金在弘, 2010 『韓國 古代 農業技術史 研究』, 도서출판 고고, pp.148-159.

68) 이건무, 1990 「부여 합송리유적 출토 일괄유물」 『고고학지』2, 한국고고미술연구소, p.36.

김도현, 2002 「삼한시기 주조철부의 유통양상에 대한 검토」 『영남고고학보』31, 영남고고학회, p.12.

이남규, 2002 「한반도 초기철기문화의 유입 양상」 『한국상고사학보』36, 한국상고사학회, pp.42-45.

김재홍, 2011, 硯책, pp.148~158.

69) 박순발, 2001 「마한 대외교섭의 변천과 백제의 등장」 『백제연구』33, 충남대 백제연구소, p.7.

역으로 전해지는 것은 아닌 바, 위만조선 분묘 내에서 상정 가능한 계층성도 고려해서 향후 신출 자료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5. 맺음말

이상으로 위만조선의 재인식과 위만조선 고고학의 성립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위만조선 고고자료의 공백 현상을 설명하고자 하였으며, 이러한 문제를 풀기 위한 실마리로 대동강 남안 유적의 편년, 화분형토기의 상한, 금동개공모의 성격과 편년 등을 살펴보았다. 이상에서 논의한 내용을 정리하여 맺음말을 대신하겠다.

『삼국유사』에서 등장한 위만조선은, 조선 후기 正統論의 역사 체계 하에서는 왕위를 찬탈한 僭國이자 篡賊의 존재가 되었다. 하지만 개화기에 들어 근대 국민국가와 연계된 민족이라는 실체가 서서히 자각되면서 종래 中華라는 문명 공동체에서 파생된 문명화의 상징이었던 기자조선과 이와 대척적인 관계에 서 있던 위만조선에 대한 전통적인 인식에 변화가 생기게 되었다. 이러한 차원에서 개화기 교과서에서는 위만조선에 대한 언급을 최소화하거나 관련 서술에서도 ‘漢國’을 支那로 인식하면서 조선과는 대비되는 실체로 파악하는 등의 현상이 확인된다.

林泰輔의 『朝鮮史』에서 비롯된 식민사학의 세례 이후, 1907년 白鳥庫吉은 위만조선을 식민지로 파악하며 이후 이러한 해석이 꾸준히 명맥을 이어간다. 이는 1870년대 훗카이도 개발과 서양 사상의 수입 과정과 연계된 것인데, 당시 서구에서 수입된 ‘식민지’ 개념은 한사군 뿐 아니라 위만조선과 심지어 연제조 유이민의 정착에까지 무차별적으로 적용되었으며, 이후 타율성론을 통해 식민사학의 근간을 이루게 되었다.

일제 강점기 구축된 식민지 위만조선의 위상은 낙랑군에 비할 바가 되지 못했는데, 이는 낙랑·대방군 유적에 대한 조선총독부의 ‘고적조사’에 기인한 것이었다. ‘고적조사’의 중심은 낙랑군이었고, 1930년대에 이르러 낙랑문화에 대한 조사와 연구과정에서 부수적으로 확인된 낙랑군 설치 이전 시기의 자료를 위만조선과 연결시키게 되었다. 당시에는 非漢式 문화인 세형동검문화를 漢系 문화로 해석하면서, 이를 위만조선의 고고학 문화로 인식하였다. 이러한 인식은 이후 위만조선의 지배구조를 파악하는데 적용되어 세형동검문화를 지배세력인 이주 중국인의 문화로, 지식묘를 토착 원주민의 문화로 해석하게 되었으며, 1970년대 지배세력의 문화가 세형동검에서 토광묘 내지 목곽묘로 대체되면서도 기존 해석의 틀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이원적 종족지배 구조를 갖춘 위만조선에 부합하는 고고학적 실체를 찾으려는 시도가 자칫 위만조선의 고고학적 공백에 일조를 하는 측면이 있다. 이보다는 위만조선의 전반적인 고고학적 양상을 복원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대동강 이북과 이남 지역에 걸쳐 위만조선 유적이 광범위하게 분포하였다는 점, 화분형토기를 통해 위만조선과 낙랑군 간 토기문화의 연속성이 존재한다는 점, 금동개공모가 위만조선 시기에 이미 위신재로 수입되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70) 오영찬, 2013 「위만조선 및 낙랑군과 진변한지역의 교섭」 『이화사학연구』47, 이화사학연구소, p.12.

조인성 교수의 발표문을 읽고

주 보 돈 (경북대학교)

1.

발표문이 도착해야 할 시간이 점점 늦추어지면서 오히려 토론자가 약간의 초조함을 느끼기 시작하였다. 급기야는 토론자가 된 사실 자체가 후회스러워지기까지 하였다. 주어진 주제에 가장 정통한 발표자가 늦게까지 결론을 도출해내기 어려운 지경이라면, 기실 민족주의 역사학이나 丹齋사학은 물론이고 古朝鮮史에 대해 아무런 식견을 갖추지 못한 토론자로서 과연 주어진 소임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섰기 때문이다.

드디어 발표문을 받아본 순간 아뿔싸 우려하였던 일이 현실로 드러나 눈앞이 깜깜하였다. 과거 한때 단재전집이 발간되고 민족주의 역사학이 한창 유행하던 특정 시절, 그 저술과 연구 성과를 접해 보고 열심히 읽어본 적은 있으나 현재까지 기억 속에 뚜렷이 남아 있는 인상은 오로지 전체를 제대로 이해하기가 무척이나 까다로웠다는 것뿐이었다. 발표문 곳곳에 단재의 주장이 직접 인용되었음을 접하는 순간, 그 시절 그 장면들이 언뜻 회상된 탓에 ‘어이쿠나’ 하는 탄식이 절로 튀어나왔다. 솔직히 ‘올 것이 오고야 말았구나’ 하는 심정이었다.

2.

막연한 부담감을 갖고 발표문을 세심하게 점검해가면서 발표문을 작성하기가 참으로 힘들었겠구나 하는 느낌이 들었다. 사실 토론자로서는 단재, 단재의 고조선 인식을 어디에 어떻게 초점을 맞추어서 다루었을까 하는 대목이 매우 궁금하였다. 제목 그대로 단재의 역사 인식을 직접 표적으로 삼았을까 아니면 구체적인 실증 작업을 사실을 다루었을까.

발표자는 전자가 아니라 후자에 초점을 맞추어 단재의 고조선 인식 문제를 취급하였다. 그 가운데 특히 檀君朝鮮의 실제 및 그것이 무너지면서 소위 (前)三韓으로 연결되는 과정, 그리고 漢郡縣의 위치와 성격, (後)삼한의 성립 등이 대상이었다. 이후 전개된 한국고대사 연구의 흐름을 대충 일별하면 그들이 곧 핵심적 문제로서 지금껏 그와 관련한 논란은 사실 단재로부터 출발한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 단재는 이른 시기부터 근대적 역사 연구 방법론에 입각해서 한국 上古史의 핵심적 사항을 정면으로 다룸으로써 나름의 체계화를 시도하였던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발표자의 접근은 정당하다고 평가된다.

다 아는 바와 같이 근대의 역사 연구자 가운데 단재만큼 지금껏 이 분야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람은 드물 것이다. 남한 학계는 물론이고 북한 학계, 그리고 시민 단체에 이르기까지 폭이 대단히 넓다. 그런데 그가 미친 영향력을 살펴보면 구체

적 내용에서는 동일하지가 않다. 크게 역사인식이나 식민지시기 그의 활동과 역할을 강조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그의 실증 작업의 결과를 중시하는 경우로 나뉜다. 이 발표는 그 가운데 후자에 한정하여 구체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하는 방식으로 논지를 전개하고 있는 것이다.

3.

되돌아보면 단재의 역사인식은 그가 살던 시대 상황을 고려하면 탁월한 면모를 보였음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儒學으로부터 출발, 社會進化論을 접한 애국계몽기를 거쳐, 無政府主義사상의 수용에 이르기까지 그의 사상적 궤적은 시대적 變移와 나란히 하면서 나아갔다. 시대 상황이 바뀔에 따라 그의 사상적 기반도 달라졌고 그것이 곧 그의 역사인식 속에도 깊숙이 투영되어 나타났던 것이다. 단일민족설과 함께 주민이동설을 이론적 기반으로 깔고 민족사의 흐름을 정태적이 아니라 동태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데서 그런 점은 잘 나타난다. 그의 상고사 연구는 그런 인식이 절정기에 도달한 시점의 산물이라고 하겠다.

그런데 단재의 역사 인식이 시대적 상황 속에서 미친 공헌과 그가 시도한 연구의 실증적 결과는 무조건 동일한 선상에서 평가를 받아서는 곤란한 일이다. 전자가 곧 후자를 보증하여 주는 길로 이어져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전자는 어디까지나 운동이며 실천일 따름이며, 후자가 연구이다. 자칫 두 가지 사항이 뒤섞여 혼란을 초래하는 경우도 있다.

실증의 측면에서 보면 단재의 접근 방식에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음은 숨길 수 없는 사실이다. 스스로는 사료학의 기본, 기초를 지적하고 강조하고 있으면서도(인용사료 D-1), 실제적인 논증의 과정에서는 정작 그러지 못한 모순점을 보이기도 한다. 이를테면 발표자도 지적하듯이 『오월춘추』나 『만주원류고』 등 문제가 있는 사료를 오히려 적극 활용하고 있다. 그런 경향성은 꽤나 적지 않은 부분에서 찾아진다. 사료의 등급을 전혀 고려하지 않으면서 다루고 있는 것이다. 그런 상태에서 진행된 논증은 물론이고 그 결과가 어떠할지는 불문가지의 일로 보인다.

발표자도 그런 점을 의식하고서 단재의 많은 주장 가운데 각별히 문제가 두드러진 사항만을 소개하면서 그에 내재된 문제점을 간단히 지적하고 있다. 그런 지적 내용은 대부분 타당성이 있으므로 별로 문제 삼을 만한 것이 없다. 다만, 토론자로서는 역으로 그와 같은 문제점 보다는

㉠ 단재의 주장 전체 가운데 앞으로 어떤 내용이 현대 한국사학의 입장에서 비판적으로 계승할 만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지적하여 주었으면 좋겠다. 만일 그러하다면 그 근거와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 현재 통설 혹은 정설로서 받아들여지고 있는 사항 가운데 단재의 주장과 직결될 수 있는 것으로는 어떤 것을 손꼽을 수 있는지?

㉢ 단재의 상고사 연구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을 한마디로 지적한다면?

등등의 몇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는 것으로 소임을 다하고자 한다.

「만선사」에서의 고대 만주 역사 인식(박찬홍) 토론회 요지

윤 휘 탁(한경대학교)

◎ 논문의 의의:

- 이 글은 白鳥庫吉의 만선사 관점을 중심으로, 식민지 시기 만주 및 한반도 북부에 대한 일본 관방학자들의 인식을 분석함으로써, 만주의 역사와 중국사의 연관성, 만주의 고대사와 한국 고대사의 연관성, 한국 고대사의 연원과 역사적 맥락·추이, 만선사관에 대한 우리의 역사적 대응 논리, 그에 수반되는 역사적 정체성 확립의 절박성 등을 환기시킨다는 점에서 의의가 매우 크다.

- 또한 이 글은 만주의 범위, 만주 명칭의 연원, 만주에 존재했던 수많은 민족과 왕조의 명멸, 중국사 및 한국사에서의 만주의 역사적 위상과 연관성 문제뿐만 아니라, 만주지역 및 만주의 역사가 우리 역사에서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를 다시금 되새겨볼 수 있는 귀중한 기회를 마련해주고 있다.

- 이 글은 관련 자료들을 꼼꼼하게 반영하고 있고 논지를 간결하고도 명확하게 전달함으로써 만주의 고대사 자체 및 한국 고대사와의 관련성, 만선사에 대한 일본측의 제국주의적이고 전략적인 이해관계, 그에 투영된 일본 관방의 야욕, 만선사에 대한 일본 관방학자들의 논리 체계 및 특징 등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다.

- 참고적으로 만선사관, ‘동북공정’, 요동사 논리의 유사성과 논리체계 등에 대한 비교 고찰을 통해 만주를 둘러싼 유사한 역사관이 어떠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지를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 아쉬운 점:

- 만선사에 관한 선행연구가 많지는 않지만, 이 글이 선행연구 속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상이나 독창성 부분을 드러내려면 선행연구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 전제가 되어야 하는데, 선행연구 분석이 다소 미흡하다는 느낌을 주고 있다.

- 이 글은 만선사관에서 만주 고대사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일목요연하게 잘 보여주고는 있다. 그렇지만 필자 나름의 만주 고대사 인식을 언급하지 않고 단순히 만선사에서 드러난 만주 고대사 인식만을 평면적으로 소개하는데 그쳐 있다. 그런데 만일 만선사관의 만주 고대사 인식이 어떻게 잘못되어 있는지를 비판적으로 고찰했다면, 만주사 인식에서 만선사관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만선사관 속에 투영된 일본의 역사인식의 일면이나 특징 등을 잘 드러내주었을 것이다.

- 최근 중국학계에서는 만주의 고대사와 관련하여, 과거 일본이 만선사관을 통해 주창했던 한국 고대사 인식을 상당 부분 수용해서 ‘동북공정’의 역사적 논리 체계로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만일 중국학계에서 만선사관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보

충적으로 파악했다더라면, 그리고 ‘동북공정’ 논리와 만선사관상의 한국 고대사관 사이의 논리적 연관성을 그려내주었다더라면, 만선사관에 대한 좀 더 포괄적이고 객관적인 접근이 가능했을 것이라는 아쉬움을 남겨주고 있다.

- 제4장에서 만선사와 ‘동북공정’, 요동사에 대한 비교 고찰을 시도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논문구성 체계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내용이다. 이 부분은 별도의 논문 형태로 비교 고찰하는 것이 논리체계에 더 부합할 것으로 생각된다. 아니면 이 부분을 만선사에 대한 비판적 고찰 과정에서 흡수·반영했다더라면 필자의 논지를 더욱 강화시킬 수 있었을 것이다.

- 이 글에서는 필자가 고대사만을 의식해 만선사관 중에 발해사까지만을 분석 대상으로 삼고 있어서 그 후의 만주 역사, 즉 요, 금을 비롯해 일정 부분 만주와 상관성을 지닌 원, 명, 청 부분을 다루고 있지 않다. 또한 만주국 수립 이후 만주국에서 형성된 만주사관 전반을 다루기보다는 고조선, 부여, 고구려, 발해 등 우리 고대사와 관련된 부분만을 다루고 있다. 한마디로 이 글에서는, 아마도 지면상의 한계 때문이겠지만, 한국 고대사를 포함해서 만주사 전체에 관한 만선사관 전반을 다루기보다는 우리의 고대사와 관련된 부분을 중심으로 만선사관을 소개함으로써, 우리 역사 이외의 중국사, 그리고 만주에 거주한 각종 민족사 등 만주사 전반에 대해, 만선사관이 어떠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지를 포괄적으로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다.

◎ 토론하고 싶은 부분:

- 만선사관 속에서는 한국사가 중국인 기자가 세운 ‘기자조선’부터 시작되었다고 인식하고 있다. 중국학계에서는 ‘동북공정’의 역사논리 일환으로 만선사관과 마찬가지로 한국사의 시작은 기자조선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게다가 최근에는, 고조선의 역사적 실존을 부정하는 기존 관점과 달리, ‘고조선’의 역사적 실존을 인정하면서 고조선을 ‘중국의 제후국’으로 파악하는 논문들도 발표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그러한 논리에 대한 필자의 견해 혹은 우리 학계의 인식은 무엇인가?

- 일본의 만선사관, 중국의 ‘동북공정’ 역사논리, 김한규의 요동사관 사이의 유사점과 차이점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이러한 논리에 대한 필자의 견해는 무엇인지를 알고 싶다.

- 필자에 의하면, 백조고길은 만주민족으로 예맥계의 고구려, 숙신계의 말갈족에 이어, 만주민족으로 세 번째 일어난 국가가 여진족의 금이고, 네 번째 국가가 淸이라고 보았다”(각주 27) 참조)고 한다. 그렇다면 백조고길이 ‘만주민족 속에 東胡 계통의 거란족이 세운 요를 배제한 어떤 이유가 있는가?

김정열의 <홍산문화론>을 읽고

이 청 규 (영남대학교)

홍산문화에 대하여 그 고고학적 내용과 중국학계의 관점을 체계적이고도 비판적으로 소개 설명을 하여 그에 대해 충분한 이해가 없는 한국 고고학과 고대사 연구자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다.

발표자는 홍산문화를 대표하는 우하량 유적의 발굴성과를 소개하고 그 사회의 구조와 관련한 고성 고국 발전단계론과 신화상의 황제와 대응시켜 주장한 중국문명 5천년론의 문제를 명쾌하게 지적하였다. 다만 발표자가 이해하고 있으리라 생각되면서 미처 다루지 못한 내용을 중심으로 보충 질문을 하고자 한다.

우선 우하량의 유적에서 각기 다른 구릉상 16개 지점에 조성된 무덤과 제단 유적을 조성한 집단의 거주구역은 공간적으로 어느 정도의 지리적 범위에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가. 아울러 한국에서는 거대한 상석과 묘역을 갖춘 지석묘나 방대한 범위의 제단시설을 갖춘 건축 기념물에 대하여 농경의 발전과 관련하여 설명하는 경향이 있는데 우하량 유적의 경우 어떠한가.

무덤의 규모와 부장유물에 있어서 일정한 등급차이는 있지만 그것이 엄정하지 못하고 정형화되지 않았다는 발표자의 지적은 토론자도 동의한다. 그런데 부장유물로서 오로지 옥기만을 선택하고 토기나 다른 석기 등의 생활도구를 선택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인지.

제1지점의 여신묘, 13지점에 조성된 단독 피라밋형 제단, 2지점 등 각 지점별로 무덤과 함께 조성된 제단유적이 각각 다른 종교적 의례가 시행되고, 그 예배의 대상이 다를 뿐만 아니라 참여하는 구성원에서 일정한 차이가 있으리라 생각되는데, 그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우하량 유적으로 대표되는 홍산문화는 고성, 고국 중 정확하게 어디에 대응된다고 중국학계에서는 주장하고 있는지 확인해주기 바란다, 그리고 신진화론과 관련하여 중국학계의 해석이 충분하지 않지만 제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지 이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황하유역의 경우 신석기시대 후기부터 청동기시대의 이리두, 은허, 정주 등지의 성곽을 중심으로 사회발전단계론을 제시한 중국고고학계의 연구는 매우 활발한 것으로 알

고 있다. 요하유역의 경우 홍산문화의 신석기시대 후기부터 청동기시대에 이르는 기간의 사회발전단계는 그것과 비교하여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황제가 전국 이후의 문헌기록에 비로소 등장한 신화상의 존재로서, 그와 연결시킨 관점이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단군신화, 단군조선과 홍산문화와 우하량 유적을 연결시킨 관점도 비슷한 맥락에서 비판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에 대한 발표자의 의견을 듣고 싶다.

중국연구자들은 홍산문화를 당연히 중원지역과의 관계에 관심을 두고 설명하는데, 요동 혹은 한반도와의 관계는 신화상이나 고고학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중원지역보다 더 긴밀한 관계와 교류 맥락 속에서 설명이 가능한가. 아니면 아예 설명자체가 불가능한 것인가.

홍산문화단계의 빗살문 평저관과 채색토기가 요동지역 이동으로 파급되는 상황이 어떠한가. 무엇보다도 우하량에서 보이는 원형과 방형 묘역의 적석총, 그리고 판석조 혹은 할석조의 석관묘는 중원지역에서 유사한 장제가 거의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나 한반도의 경우 남단에서 비슷한 묘제가 기원전 1천년기 청동기시대에 확인되는 바, 시간차이는 있으나 이러한 양 지역 묘제의 상사성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연나라 철기문화의 확산과 「세죽리-연화보문화」>에 대한 토론문

이 남 규(한신대학교)

I. 서언

전국시대 후기~한대는 비중국적 계통이던 우리나라의 선사~원사 문화가 상당 기간에 걸쳐 중국과의 문화접변(acculturation)을 일으키면서 고대사회로 이행해가는 과도기라는 점에서 그 역사적 의미는 대단히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에 대한 연구는 정향적으로 이루어지기 보다 많은 파행성을 야기하고, 수 많은 오류를 범하면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한 점에서 이 세미나의 주제인 ‘고조선 연구의 새로운 모색’은 더욱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현행 연구의 최대 난맥상은 절대 사료가 부족한 상황에서 고조선에 대한 연구가 그동안 문헌사 중심으로 진행되고, 고고학 분야와의 융합적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데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게다가 북한역사학계의 고조선에 대한 불합리한 해석 등에 영향을 받아 진실에서 벗어나는 인식을 갖는 경우들도 적지 않다.

아직도 북한의 이 분야 연구상황은 심한 정체성에 빠져 있지만, 적어도 중국 동북 지역의 유적조사가 상당히 진전되면서 새로운 자료들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이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연구들이 계속 발표되고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자료의 증가가 보이는 분야 중 하나가 철기부문이라 할 수 있다. 최근 국립문화재연구소가 실시한 요녕지역 고대 철기 출토 유적과 유물에 대한 조사(국립문화재연구소 2011) 결과를 보면 전국시대의 유적이 17개소(표1), 전국 만기~서한대 유적이 13개소(표 2), 서한대의 유적이 26개소(표3)에 달하여, 이 지역의 전국시대~한대 철기문화 변천양상에 대한 이해가 한 단계 진전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 지역 철기문화의 연구에 있어 부딪히는 난점은 1) 발굴하고도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사례들이 많고, 2) 각 유적의 시간성에 대한 파악이 부족하며, 2) 철기유물 자체의 세부적 속성에 대해 상세히 보고하지 않는 등 가장 기본적인 연구의 조건과 상황이 갖추어져 있지 않다는 점이다. 게다가 이 분야 연구자의 절대부족으로 인해 중국 내에서의 자체적 연구성과도 대단히 미흡한 점도 큰 문제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히려 남북한의 연구자들이 중국 동부지역-서북한지역의 철기문화 개시와 전개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보여온 것은 사실이다. 그동안의 견해는 개시연대를 기원전 8세기까지 올려보기도 하였으나 중국 고대 철기문화 성격과의 비교 검토들이 행하여지고 그 相似성이 인지되면서 대략 전국시대 晩期頃에 한반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는 견해가 일반화되었다.

그리고 「세죽리-연화보문화」는 북한이 고조선 후기의 문화로 설정하고 그 기반에 철

기문화가 있었음을 정설화 하고 있으나 관련된 유적들의 주체가 과연 고조선 주민들인가 하는 근본적 문제부터 재검토가 필요하며, 상대적으로 보다 많은 연구자들이 서북한지역의 토광목곽묘 시기를 기원전 2세기 이전으로 올려봄에 따라 위만조선의 철기문화 수준을 철검 등의 강력한 강철제 무기를 이미 소지한 집단으로 규정하고 있기도 하나 이에 내재된 문제점 들에 대해서는 아직 별다른 지적이 없는 상태이다.

<철기사용 개시기에 대한 제견해> * 일부만 제시

研究者	開始期에 대한 見解
鄭白雲(1959)	낙랑설치 以後說을 반박, 戰國 燕과 같은 시기
이병선(1967)	압록강유역 기원전 7세기
황기덕(1963)	두만강 기원전 7세기
” (1981)	압록강 중상류 및 두만강유역 기원전 8~7세기
북한의 고고학 개론서	기원전 6세기 혹은 기원전 5~4세
남한의 중등교과서	기원전 5세기
남한학회(한국 고고학 강의)	B.C. 300

이상과 같은 여러 문제점들이 내재된 중국 동북지역-서북한지역의 철기문화를 다룰 경우 그에 대한 투철한 문제의식이 필요하며, 그 역사문화적 해석에는 신중을 요하는 부분들이 많을 수 밖에 없다.

II. 본론

발표자는 연나라 철기문화의 확산양상에 대한 연구현황을 살핀 후, 요동지역의 철기문화 유입과 변천단계에 대해 대상을 분묘유적과 취락유적으로 구분하여 각각 3단계의 변화가 있었음을 논하였으며, 또한 「세죽리-연화보문화」의 시공간적 위치와 등장배경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사실 이 시대는 중국과 한반도 모두 격동의 시대로서 중국 고대사회가 분열상태를 극복하고 제국주의로 급성장하면서 주변지역으로 한문화가 급속하게 확산되고 그에 따라 주변 각 지역들에서 2차국가들이 등장하게 되는, 이른바 동아시아 세계 질서의 새로운 변동기란 점에서 그 역사적 의미는 대단히 크다. 그리고 오늘의 주제인 고조선의 문제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어 시공간적 상황과 역사문화의 내용 그 자체에 대해 치밀하고 엄격한 연구가 요구된다.

그러한 관점에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한다.

1. 연나라 철기문화의 개념과 성격에 대하여

발표자의 주제는 연나라 철기문화의 확산양상 속에서의 「세죽리-연화보문화」

를 논하는 것이지만 정작 그 주체인 「연나라 철기문화」의 구체적 성격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서술 가운데 부분적으로만 다루고 있어 아쉽다.

먼저, 연하도 등의 연나라 중심지역에서 보여지는 전국시대 철기문화의 일반적인 특성은 무엇이고 그 가운데 어떠한 요소들이 요령성과 서북한지역으로 확산되었는지에 대해 먼저 간단히 언급해주었으면 한다.

2. 대상 자료들의 시간성 문제와 관련하여

발표자는 요동지역의 철기 출토유적을 분묘, 취락으로 구분하고 시기를 각각 1~3기로 나누어 설명한 후 이에 맞추어 요동지역의 철기문화 단계도 3단계로 설정하여 「세죽리-연화보문화」가 요동1기(기원전 3세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이에 대해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한다.

1) 발표자는 1기는 전국시대 2,3기는 秦漢시대로 설정하고 <그림 17>에서 절대연대에 상대연대를 대비하여 표현하였다. 그런데 이 그림에서 분묘.취락.요동의 각 시기들 간에는 절대연대에서 약간씩의 시간차를 보이고 있다. 일단 이에 대한 보완 설명이 필요할 것 같다.

2) 요동1기의 시기를 기원전 3세기로 일단 설정하고 그 시작이 기원전 4세기대로 올라갈 가능성을 거의 부정하면서도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있지는 않다(∵ <그림 17> 요동1기의 시작부분을 점선으로 표시). 그러한 가능성을 열어놓는데 대한 근거는?

3) 「세죽리-연화보문화」는 『고조선문제연구논문집』등 북한의 이 시대에 대한 각종 논고에서 기원전 3~2세기의 본격적 철기문화로 설정하고 있는데 발표자는 기원전 3세기대로 한정하고 있다. 그렇게 판단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4) 발표자는 자신의 논고에 대한 시간성 문제 해결에 1) 선행연구 편년안을 참고하면서 주로 화폐와 전한경 연대에 기초하여 판단한다고 하였고, 2) 자신이 설정한 주조철부의 부장양상을 또하나의 근거로 제시하였다. 前者의 경우는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편년의 기준은 될 수 있겠으나 後者の 경우는 <표 5>에서 보다시피 아직 신뢰도가 많이 부족해 보인다.

3. 대상 자료들의 공간성 문제와 관련하여

1) 발표자는 <그림 19>에서 「세죽리-연화보문화권」을 설정하고 이를 연나라 철기문화의 직접영향권에 포함시키고, “연나라로부터 철기를 사여받아 관계를 유지

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런데 그 서쪽 상당 부분은 연나라 장성 내부에 포함된다. 설명이 정합적이지 못하지 않은가? 또한 연장성 동단을 한반도 서북부까지 연장한 중국의 무리한 견해를 그대로 수용한 것도 문제 아닐까?

2) 발표자는 직접영향권에 「세죽리-연화보문화권」을 제시하였지만 최근의 이 지역에 대한 연구(2011「기원전 3세기 요령지역의 연나라 유물 공반 유적의 제 유형과 연문화와의 관계」『한국상고사학보』제71호)에서 오강원은 5개 유형의 문화권(사가가, 임가보, 유가초, 대전자, 윤가촌)을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1970년대에 설정한 「세죽리-연화보」라는 문화유형의 설정은 再考되어야 하는 것은 아닐까?

4. 문화내용 및 역사성과 관련하여

1) 앞서도 지적하였지만 소위 「세죽리-연화보문화」의 철기는 먼저 연나라 중심지역 철기들과의 비교론적 시각에서 검토하여 그 시간성과 지역적 특성에 대해 논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발표자의 견해는?

2) 본 세미나가 「고조선연구의 새로운 모색」이지만 철기에 대한 발표내용에는 이와 관련된 언급이 전혀 없어 아쉽다. 유물의 퇴장양상으로 보아「세죽리-연화보문화」의 주체의 상당수는 非고조선인으로서 중국의 격변기에 이동해온 집단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여진다.

발표자는 「세죽리-연화보문화」의 역사적 주체를 무엇으로 설정하여 이해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3) 발표자는 「세죽리-연화보문화」만을 설명하면서 자신의 논고를 매듭짓고 있지만 사실 앞부분에서 설명한 2기의 문화는 「위만조선」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발표자는 2기의 철기문화와 위만조선과의 상관관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Ⅲ. 결론

본 발표문은 이번 세미나의 주제와 관련하여 상당히 중요한 소재임에도 불구하고 상호 整合的이지 못한 부분이 많아 아쉽다.

아직도 명쾌한 해답을 얻고 있지 못한 고조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철기뿐만 아니라 점증하는 고고학적 자료들을 총체적으로 다루는 연구(holistic approach)가 체계적,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동시에 문헌사학 및 기타 분야와의 융합적 연구 만이 「새로운 모색」이 될 것이다.

‘기원전 2세기대 서북한 고고 자료와 위만조선’에 대한 토론문

이 후 석(송실대학교)

발표자는 낙랑군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를 진행해 오면서 위만조선의 물질문화에 대해서도 일정한 견해를 피력하여 왔다(오영찬 1996, 2013). 발표문은 이러한 연구의 연장선상에서 위만조선의 국가적인 성격 또는 지배구조에 대한 인식이 낙랑군에 대한 해석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고고 자료의 해석과도 결부되어 있는 점을 지적하며, 위만조선과 그 물질문화에 대한 인식의 변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평양 대동강변 일대의 분묘 자료 또는 일괄유물 가운데 위만조선대로 추정되는 유적들을 지목하고, 토기(화분형토기), 거여구(개공모) 등의 최근 편년 연구 성과를 검토하여 위만조선의 물질문화에 한걸음 더 접근하고 있다.

토론자는 세형동검문화 단계의 중국 동북지역과 한반도의 물질문화 교류에 관심을 가지면서 최근이야 위만조선이나 낙랑 관련 자료를 접한 처지여서 문헌 자료와 학계의 여러 연구들에 대하여 이해가 부족하다. 오히려 발표문을 통해 위만조선의 물질문화에 대한 소중한 고민의 기회를 얻을 수 있었기에 감사할 따름이다. 다만 토론자의 소임을 다하고자 위만조선 관련 고고 자료와 최근 연구 성과에 대한 발표자의 견해를 재확인하면서 토론자가 평소 궁금해 온 점을 함께 여쭙어 보려 한다. 발표문에 한정하여 논의를 이끌어내야 하겠으나 우문현답을 기대하는 초학을 너그럽이 이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1. 왕검성과 낙랑토성, 그리고 낙랑구역 일대 고분들의 관계에 대하여

발표자가 언급하였듯이 『사기』 조선열전 등을 보면 위만조선의 ‘왕검성’은 대동강 북변에 위치하는 것이 자연스러우나 현재 평양 토성동 토성, 즉 ‘낙랑토성’은 대동강 남변에 위치한다. 그렇지만 고고 자료를 보면 낙랑토성에서 ‘윤가촌식토기호’ 또는 ‘명사리식토기호’로 명명되는 봉상파수부호 등이 수습된 바 있다.(谷豊信 2002) 이는 기원전 2세기대 위만조선 토기 자료로 인정되는 바, 그렇다면 이때부터 토성이 있었을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보는 것인지 묻고 싶다. 물론 이 토기 자료는 출토맥락에 대한 여러 가능성이 존재한다. 다만 왕검성에 대한 문헌 기록과는 별개로 ‘낙랑군치지’의 거점 기능 또는 ‘낙랑토성’의 초축 시기를 규명하는 것은 일단 분리하여 검토해야 한다. 어찌보면 토성에서 출토되는 위만조선대의 토기와 낙랑구역 일대(토성동, 석암리 등)에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위만조선대의 토광묘(단장목곽묘 포함)는 서로 밀접한 상관관계 하에 있을 수도 있다. 또한 대동강변 북안에서 왕검성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최근 위만조선의 중심지를 요동 동부지역으로 보는 관점이 고고학계 내에서도 제기되고 있다(조진선 2013). 이에 대한 발표자의 견해를 듣고 싶다.

2. 위만조선의 분묘와 대동강변의 유적

1) 위만조선의 왕검성이 평양 대동강변 북안에 있었다면 지배층의 분묘들이 그 주변에 다수 있을 개연성은 충분하며, 토론자도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다. 다만 발표자가 제시하였듯이 그나마도 가능성이 있는 것은 전 평양부 출토 세형동검과 세형동과(동경국립박물관 소장), 그리고, 평천리 일괄유물 정도 뿐이다. 그런데 평천리 출토품의 경우 발표자가 인정하듯 일괄유물의 실체가 불분명한 상태이며 오히려 한식 동검, 초두, 철제 장도 등을 보면 낙랑군 설치 후의 것일 가능성이 높다. 혹시 고조선의 평양 성시가 있다 하여 '부르나'라고 하던 것을 이두로 표기하면서 평천동(평천리)이 되었다는 지명 유래를 염두에 둔 것인지 궁금하다. 출토지가 평양부로 전해지는 동경국립박물관 소장품도 대동강변 북안에서 출토된 것이라는 확증이 필요하다. 평양 출토로 전해지는 동경국립박물관 소장 세형 청동무기에는 대표적인 것이 평양 대동군 오촌리 출토 세형동검(TJ-4401, 기원전 2세기)과 전 정백리 출토 세형동과(오쿠라컬렉션, TJ-4954, 기원전 3~1세기)이다. 오촌리는 근대 이전에는 자라마일로 불렸으며, 1930년대 평양부에 직속되었다가 해방 후에 동대원리에 편입된다. 전 평양부 출토라는 우메하라 자료(세형동검)가 오촌리 출토품이 아니라면 대동강변 북안으로 확정하는 것에 대하여 보충 설명이 필요하다. 토론자가 동경국립박물관 소장품을 실견하지 못하여서 가능하다면 동검과 동과의 형식학적 특징에 대한 보충 설명도 듣고 싶다.

2) 평양 대동강변 남안의 위만조선 유적으로 발표자는 대동군 장천리(세형동검용범), 반천리(세형동검, 동사, 다뉴세문경), 1923년 석암리 일괄(세형동검2, 산자문경, 소지연호문경), 전 석암리(25년명 진과와 개공모삽입 도씨검), 전 평양부(정백리) 일괄(명문동모;5년명, 진과, 거여구, 수면좌금구, 장씨작수대경 등) 등을 언급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토론자를 비롯한 여러 연구자에 의해 그 가능성이 언급된 바 있다. 다만 전 석암리나 전 평양부(정백리) 일괄유물의 경우 이른바 비한식계 거여구가 문제이다. 최근 권총형동기, 을자형동기 등은 漢式(손로 2012) 또는 漢系(이후석 2014) 거마구로 보는 견해들이 제시된 상태이다. 발표자는 이와 같은 거마구의 계통과 서북한지역에서의 출현 시기, 기능을 각각 어떻게 보고 있고, 이른바 비한식계 거마구가 장착된 마차를 독주차로 보는 지 아니면 쌍원차로 보는 지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3) 1980년대 이후 평양에서는 통일거리 건설과정에서 적어도 수 백기 이상의 토광묘(목곽묘 포함)가 발굴되었으나 도면과 사진이 실려 있는 예는 거의 없어 구체적인 연대와 성격을 파악하기 곤란하다. 다만 발표자가 언급하듯 정백동 523호분의 경우 세형동검, 검코, 단검끝장식, 동과, 목긴단지 등이 출토되어 위만조선대의 목곽묘일 가능성에 토론자 역시 주목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유물 구성은 시기 차이뿐만 아니라 계층 차이를 반영하는 것일 수도 있다. 혹시 주로 토착계 유물들로 구성되

어 있는 점에 착안하여 그렇게 본 것인지도 모르지만 한계(또는 한식) 유물이 포함되더라도 형식학적 특징을 보여주는 자료가 첨부되어야만 설득력이 있다. 토론자가 파악하기로는 위만조선 성립 무렵 북한지역 무덤에 부장되는 토기들은 호형토기보다는 (심)발형토기가 우세한데, 이를테면 평원 신송리나 함흥 이화동의 경우 파편들의 기형을 조합하면 (심)발형토기로 판단된다. 성천 백원리 지석묘 출토품의 경우에도 변형점토대토기의 점토대가 탈락한 듯한 양상을 보이므로 역시 그러하다. 흥원 운포리 출토품을 보면 목긴단지는 오히려 낙랑 설치 무렵으로 연대가 내려갈 가능성도 있다. 발표자의 견해를 듣고 싶다.

3. 위만조선의 토기와 화분형토기

화분형토기는 2000년대 후반 이후에는 계통과 편년에 대한 연구가 일부 진척되어 요동반도의 변형 연식부(정인성 2007, 2011) 또는 요동식 부(미야모토 2011, 2012)가 직접적인 기원으로 지목되고 있다. 목양성 등의 요동반도 출토품은 ‘윤가촌유형’의 하한연대와 시기적으로 맞물리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서북한지역에서 화분형토기의 등장 시기를 낙랑 설치 이전으로 보는 것이 무난하다(이후석 2014). 이와 관련하여 평양 남경 유적 3구형치식 옹관묘나 은파 갈현리 화석동 목곽묘 출토품과 같이 저부가 축약되어 말각 평저 또는 원저분위기를 띠는 것이 초기 형식으로 평가되며(나카무라 2009, 정인성 2011), 토론자도 이에 동조한다. 그렇지만 발표문을 보면(10쪽 하단) 정인성과 미야모토의 견해에 모두 동의하지 않는 듯한 인상을 주며, 또한 남경 옹관묘 출토품을 화분형토기의 초기 형식으로 보지 않고 별개의 유형으로 보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다. 발표자가 이해하는 서북한지역 화분형토기의 출현 과정(시공간성, 출현계기 등), 그리고 일상품과 부장품의 형식(기형) 차이를 인정하는 지에 대한 보충 설명도 듣고 싶다.

4. 위만조선의 한식 문물과 거여구(개궁모)의 문제

위만조선의 물질문화와 관련하여 한계 또는 한식 문물의 존재 자체를 기준으로 분묘 유적을 편년하는 방법론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토론자를 비롯한 적지 않은 연구자가 발표자와 견해를 함께 한다. 특히 개궁모의 경우 그 재질로 피장자의 위계가 결정되는 면이 있어 주목된다. 이와 관련하여 발표자는 평양 일대 고분에서 출토된 단면역삼각형의 접시모양을 띠는 금동개궁모를 위만조선대의 것으로 이해한다. 이는 앞서 언급했던 권총형동기나 을자형동기 등의 이른바 비한식계 거마구와도 직접 관련되는 문제인데, 발표자가 양자 간의 관계를 어떻게 보는 지 궁금하다. 또한 서북한지역 금동개궁모의 상한연대는 대략 기원전 2세기 중엽으로 보이는데 『史記』 조선열전에 등장하는 ‘兵威財物’ 중의 하나라면 연대 관계가 다소 부자연스럽다. 아울러 도씨검의 병부 투겁으로 사용된 전 평양 석암리 출토품을 어떠한 맥락으로 이해하고 있는 지도 함께 설명 부탁한다.

5. 위만조선의 철기문화와 남한지역의 철제무기

위만조선의 철기문화는 자료 부족, 특히 철검으로 대표되는 철제무기의 유통 여부에 대해서는 불명확한 점이 많아 다양한 견해가 제기되어 있다. 발표자뿐만 아니라 비전공자를 포함하여 적지 않은 연구자가 영남지역 출토품을 염두에 두고 위만조선에도 철검 같은 무기류가 생산됐을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다(이청규 2014; 이후석 2014 등). 그렇다면 다른 연구자와 다른 발표자의 논리는 무엇인지 궁금하다. 아울러 평양 일대에서 철검 또는 동병철검 등을 부장하는 분묘 중에 발표자가 위만조선대의 것으로 인정, 또는 가능성을 높게 보는 것은 어떤 것이 있는 지 함께 설명 부탁하고 싶다.

참고문헌

- 손로, 2012, 「한반도 북부지역 차마구의 등장과 성격」, 『한국상고사학보』76.
- 오영찬, 2013, 「위만조선 및 낙랑군과 진변한지역의 교섭」, 『이화사학연구』47.
- 이청규, 2014, 「요동-서북한의 초기철기문화와 위만조선」, 『동북아역사논총』44.
- 이후석, 2014, 「요동~서북한지역의 세형동검문화와 고조선 -위만조선 물질문화의 형성과정과 관련하여-」, 『동북아역사논총』44.
- 中村大介, 2009, 「粘土帶土器文化와 原三國文化의 土器副葬 變化 및 國際關係」, 『湖西考古學』21.
- 谷豊信, 2002, 「樂浪土器の系譜」, 『東アジアと日本の考古學』4(生業), 同成社.
- 大貫靜夫 編, 2007, 『遼寧を中心とする東北アジア古代史の再構成』, 東京大學考古學研究室.
- 국가지식포털 북한지역정보넷(www.cybernk.net)